

重刊顯節祠誌

顯節祠

重刊 顯節祠誌



1950년대 현철사 전경

顯節祠





"병자호란 삼학사"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정건리 추모 하고 분향 때에 합시다



顯節祠 本殿



賜額 顯節祠 扁額



肅宗大王御製



顯節祠 東廡



顯節祠 西廡



顯節祠가 표기된 元城各營信地圖[南漢山城圖](자료제공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제공)



1950년대의 남한산성 전경(유리원판 사진, 자료제공 국립중앙박물관)

祭禮 場面



- 1 初獻官 點視
- 3 初獻禮 吳 告祝
- 5 參祀員 拜禮

- 2 初獻官 奠幣禮
- 4 初獻官 飲福禮
- 6 初獻官 望燎禮

青少年祭禮 및 禮儀教育



- | | |
|--------------|-------------|
| 1 모듬발 계단 오르기 | 2 拜禮 前 설명듣기 |
| 3 焚香 실습 | 4 拜禮 실습 |

- 5 拜禮 후 기념촬영

顯節祠祭物陳設圖式

神位
脯簋 棗 栗 燭
稷 黍 稷 爵 香盒
梁簋 牲 幣 爵 香爐
藍 荇 蕕 爵 燭

顯節祠賜額祭文
哀我三賢並挺一世聯芳藎省勵操蓋挂上人英猷
爭天勁節孤城風雨倉卒事迫生投虎口命輕鴻毛
乾坤慘裂日月晦韜時之罔極天胡忍斯龍顏有淚
三
鶴野無涯白鴈不來孤規何處雲愁浪江月黑麻渡
地分東西義無彼此立祠遺堞子以合祀一間棟宇
萬古風聲清儀若接憤氣如生念惟忠烈實世罕觀
所遺之慘亦古未有溫兒夢裏歸思可憐紫市帶聞
遺簪誰傳愴昔傷今敘語則咽靈芳來此永享芬爇
知製 教趙持謙製進啓下後趙公長安時

『忠烈公遺稿』에 수록된 顯節祠 賜額祭文

『忠烈公遺稿』에 수록된 顯節祠祭物陳設圖式

三學士傳

掌令洪翼漢

洪翼漢南陽人字伯升自少聰明秀發孝友忠信每
讀史見死節義者則必色動而心慕焉光海辛酉中
謁聖科時非權勢家子弟則不得與選主試者竟拔
去公亦夷然也仁廟甲子 上幸公州設庭試公
爲壯元例受典藉以監察充奏請使書狀請 當寧
諡命冕服主事者沮遏事幾不諧竟得準請而歸實
宋子大全 卷二百十三

校理尹集修撰吳達濟

尹集南原人字成伯生於 萬曆丙午生十三歲其
考衡甲沒伯兄榮教以文行篤至不懈天啓丁卯
中生員辛未擢文科棘槐院移侍講院爲說書又有
史局薦未入而陞司書憂吉拜司諫院正言榮時爲
吳達濟字季輝海州人年十九中丁卯司馬二十六
文科壯元由成均典籍歷兵曹佐郎侍講院司書司
諫院正言司憲府持平弘文館修撰校理丙子五月
爲副校理時金廣僣號朝廷斥責而復欲通使語在

『三學士傳』(『宋子大全 第二百十三卷』)

其他 資料

望 廣州市長 趙 億 東
西紀二十三年十月十四日 陰九月十日
顯節祠秋享
初獻官
西紀二十三年九月二十日
顯節祠

望記(癸巳年-紀元 4346년, 西紀 2013년 9월)

繼
檀君紀元三十四十六年歲次癸巳九月甲辰朔
初十日癸丑廣州市長趙億東 敢昭告于
議政府左議政贈領議政諡文正公金奎先生
史曹參判贈判書諡文簡公鄭先生
司憲府掌令贈議政府領議政諡忠正公洪先生
私文館校理贈議政府領議政諡忠貞公尹先生
私文館校理贈議政府領議政諡忠烈公吳先生
特與五級具萬古一節聖后哀忠立祠敬慕備以俎豆
恭伸孝儀 定出崇報 庶幾格思尚

祝文(癸巳年-紀元 4346년, 西紀 2013년 9월)

初獻官趙億東
亞獻官南載昊
終獻官朴貞信
執禮許賢茂
太祝張東教
贊人河永鎬
奉爵俞炳權
奉妙許萬會
奉爵安尹煥
奠爵金興桓
司得林花子
盥洗朴香淑
謁者崔相信
典祀李瑞雨
癸巳九月初十日祭告于
顯節祠分定

分定記(癸巳年-紀元 4346년, 西紀 2013년 9월)





刊行辭

顯節祠는 1636년(仁祖 14년) 겨울에 발발한 丙子胡亂에서 北方 오랑캐와의 和議를 極力 反對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斥和論을 주장하던 三學士(洪翼漢, 尹集, 吳達濟)가 亂이 끝난 후 瀋陽에 押送되어 그들의 온갖 懷柔^{회유}와 脅迫^{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朝鮮 士大夫의 氣概로 大義를 지키다가 賊地에서 殉國한 捐身忠節을 顯彰하고 그 정신을 崇慕·繼承하기 위하여 1688년 國家에서 建立한 祠宇입니다.

三學士 이외에 당시 斥和臣의 領袖였던 金尙憲·鄭蘊 두 節臣의 위패도 朝廷의 뜻에 따라 1711년 并享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朝鮮의 知識人들은 三學士의 大義는 天地가 다하고 古今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의 知識人들은 基本的으로 性理學者였습니다. 明나라와의 關係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淸이 明을 背叛하고 武力을 앞세워 皇帝라고 僭稱하면서, 朝鮮으로 하여금 그들의 屬國이 되라는 것에 동의 할 수는 없었으므로 斥和臣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崔鳴吉이 작성한 國書마저 찢어 버리며 反對하였던 것입니다.

南漢山城에서 2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國王 仁祖가 청 태종에게 降伏한 것은 史上 類例가 없는 國恥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武力에서 力不足으로 敗北^{패배}는 하였으나 우리 民族魂마저 탈취할 수는 없었

습니다. 朝鮮에서는 그들이 强要한 崇德이라는 청나라 年號의 사용
을 거부하고, 朝鮮 後期까지 明나라 年號인 崇禎을 사용 한 것만 보
아도 精神的으로는 청나라에 隸屬_{에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丙申年인 올해로 丙子胡亂이 일어난지 381년이 되었고, 顯節祠 前
身인 ‘三臣祠字’가 설립 된지 329년이 되었어도 廣州 儒林을 중심으
로 傳統祭禮 儀節에 따라 五學士를 崇慕하는 祭享이 이어지고 있음
은 우리 고장의 肯志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선비의 서릿발 같은
氣像을 보여주신 三學士의 毅然한 忠義殉國 정신과 나라의 自尊을
지키려 했던 金尙憲·鄭蘊 두 분의 忠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국가
에 대한 충성으로 昇華되고 후세대에 전해져서 顯節祠가 시행하고
있는 傳統祭享이 綿綿이 이어지기를 懇願합니다.

『顯節祠誌』의 初刊本은 廣州文化院에서 發行한지 10년이 흘렀으
나 다소 不足한 부분도 발견되고 缺漏된 부분도 있어서 금번 重刊本
을 刊行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에 걸쳐 각방으로 資料를 수집하여
執筆하신 顯節祠 有司이며 崇烈殿 參奉이신 朴光雲 先生의 勞苦를
치하하며, 도움을 주신 廣州市長님과 廣州文化院長님, 顯節祠 有司
諸位께도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紀元 4349年 陰曆 2月 吉日(西紀 2016. 3. 9.)

顯節祠 都有司 韓 洛 教



祝辭

『重刊 顯節祠誌』발간을 축하 하며

「重刊 顯節祠誌」발간을 33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현절사지 발간을 위해 애쓰신 한낙교 현절사 도유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심양으로 끌려가 갇은 고초를 치르고 참형을 당한 三學士 洪翼漢^{홍익한}, 尹集^{윤집}, 吳達濟^{오달제} 선생과 척화파의 수장이었던 金尙憲^{김상헌}선생·鄭蘊^{정온}선생의 신위를 모셔 이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의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우로 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례典禮는 2008년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절사 정기봉심 봉행, 현절사 춘·추계 제향, 관광객 현절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현절사 유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절사지」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廣州市長 趙億東

현절사지 발간을 축하하며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여 顯節祠 社團에서 『重刊 顯節祠誌』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顯節祠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丙子胡亂 당시 오랑캐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 압송되어 갇은 곤욕을 치른 끝에 참형을 당하고殉節한 三學士(洪翼漢, 尹集, 吳達濟)와 함께 斥和를 주장했던 金尙憲·鄭蘊의 位牌를 모신 충절이 깃든 사당입니다. 顯節祠는 1871년(고종8년) 전국의 書院 및 祠宇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령에서도 제외될 만큼 存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文化財입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항쟁했던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이 후세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역사라 하더라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重刊 顯節祠誌』 발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뜻 깊고 가치가 크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 현절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한층 더 새롭게 발간한다 하니 이번 현절사지가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현절사지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韓洛敎 顯節祠 都有司님과 有司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다시 한 번 현절사지 발간을 축하 합니다.

2016년 3월

廣州文化院長 朴 起 濬



序文

丙子胡亂은 朝鮮 16代 王인 仁祖가 南漢山城에 入城하여 불과 45 일이라는 短期間 동안에 淸과의 전쟁에서 敗北패배를 당하여 松坡 三田渡에서 淸 太宗에게 三拜九叩삼배구고의 恥辱의인 降禮를 함으로써 끝난 우리나라 歷史上 類例가 없는 恥辱의 戰爭이었다. 조선은 1623년 仁祖反正으로 純正 性理學者群인 士林이 政界의 主流가 되어 바야흐로 性理學的 理念을 現實政治에 具現하려는 熱意에 불탔지만, 反正 後의 政局이 不安定한 상태에서 두 번의 胡亂을 겪자 깊은 挫折感을 안게 되었다.

「顯節祠」는 丙子胡亂 당시 斥和臣을 代表하여 淸나라에 押送되어 淸 太宗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淒切하고도 壯烈하게 殉節한 洪翼漢·尹集·吳達濟 세분의 位牌를 모시고 祭享을 받들도록 1688년에 三臣祠宇로 건립된 후, 1701년(肅宗 27) 移建한 祠堂이다. 위의 세 節臣들을 ‘三學士’라고 호칭하게 된 것은 1674년(顯宗 15)에 尤菴 宋時烈이 『三學士傳』을 지은 후부터이다. 1688년(肅宗 14)에 廣州府尹 李世華가 「三臣祠」라는 자그마한 祠堂을 南漢山城 西便 언덕에 建立하였고, 1693년(肅宗 19)에는 「三臣祠」라는 祠宇名을 「顯節祠」로 바꾸고 賜額 하였다.

三學士가 科擧에 及第하여 言官으로 活動하던 17세기 중반의 朝鮮 儒學者들은 性理學의 信奉者들이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四書三經’을 몸에 익혔고, 性理學의 理念이 支配하는 儒敎文化에서 살아왔으며, 儒家倫理만을 絶對善으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義理精神은 단순한 事大思想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儒學思想을 체득하고, 實踐하는 것을 선비로서의 참된 道理由 本分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士林에서는 大義와 名分으로 일컬어지는 性理學의 規範을 實現하려는 意志가 투철하였던 것이다.

三學士의 節概는 名分論과 正統性에 充實하고자 하는 行動樣式의 表出이었다. 당시 朝鮮社會에서 正統性 問題는 深化된 性理學과 禮學, 그리고 春秋學의 발달로 인해 名分意識과 原理主義가 팽배하게 된 支配階層의 精神的 風土와 意識構造를 배경으로 더욱 成熟되었다. 따라서 三學士가 義理와 禮를 지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三學士인 洪翼漢·尹集·吳達濟는 모두 言官 出身이다. 言官의 責務는 朝廷臣僚들의 不義나 不道德한 事案을 탄핵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王이 正道에서 벗어난 行動을 할 경우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極烈 上疏하여 是正하도록 해야 했다. 三學士가 現實에 順應하는 것을 마다하고, 죽음을 택한 것의 內面에는 연면히 이어온 正統性에 대한 意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國際情勢로 보거나 朝鮮과 明의 尊周之義에서 볼 때 滿洲의 女眞族이 세운 後金의 어처구니없는 要求를 들어 和親을 맺는다는 것은 支配階層의 思想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恥辱_{치욕}이었다. 즉 明에 대한 壬辰



倭亂의 再造之功을 내세우는 親明排金 思想이 뚜렷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 現實로 인하여 丙子胡亂을 前後하여 斥和論이 팽배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특히 '小中華' 思想으로 무장한 선비들은 文化國家에 대한 自矜心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西人과 南人 聯合政權의 支配階層은 하나의 統一된 認識論理가 成立되지 못하였고, 主戰論과 主和論으로 갈라져 있었다.

결국 淸의 侵入을 10개월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對備하지 못하고, 南漢山城으로 入城한 仁祖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歷史上 유례없는 恥辱的인 降伏을 하고 말았다.

이 책에서는 丙子胡亂의 경위와 南漢山城에서의 戰鬪狀況, 그리고 淸의 侵入에 無力하게 당한 原因을 분석 해 보고, 당시 朝鮮 朝廷의 政治的 亂脈相을 비롯한 斥和派와 主和派 사이에 벌어진 여러 論爭, 그리고 三學士의 行狀과 節義 등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追後에 王命으로 配享된 斥和臣의 代表인 당시 禮曹判書 金尙憲과 吏曹參判 鄭蘊의 行狀과 思想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三學士가 殉節한 후에 朝鮮 後期 朝廷과 士大夫들은 어떻게 三學士를 評價했으며, 그 遺族에 대한 處遇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아울러 記錄을 찾아 다루었다. 「顯節祠」가 立祠된지 300년 以上の 年輪이 흘렀으나, 廣州地域의 士林들이 지금까지 代代로 이어오면서 精誠을 다해 祭享을 받들고 있음은 地域의 크나큰 자랑이다. 「顯節祠」祭享儀軌를 상세히 掲載하여 後世에 길이 保全하고자 하였고, 「先生案」도 함께 실었다. 「祝文」과 「笏記」는 現代人の 理解를 돕기 위해 國文으로 解説을 붙였다.

지금 「顯節祠」에는 丙子胡亂 당시 斥和臣의 代表格이었던 金尙憲·鄭蘊 두 분의 位牌가 1701년(숙종 27) 追後 配享되어 있다. 讀者들의 理解를 돕기 위해 宋時烈의 『三學士傳』과 『吳學士傳』을 싣고, 中國 瀋陽의 遼寧大學 顧奎相 教授가 中國 歷史學界의 視角으로 ‘丙子胡亂의 敗戰 理由와 三學士 殉節 의미를 評價’한 論文「三學士와 南漢山城의 戰鬪를 論함」을 함께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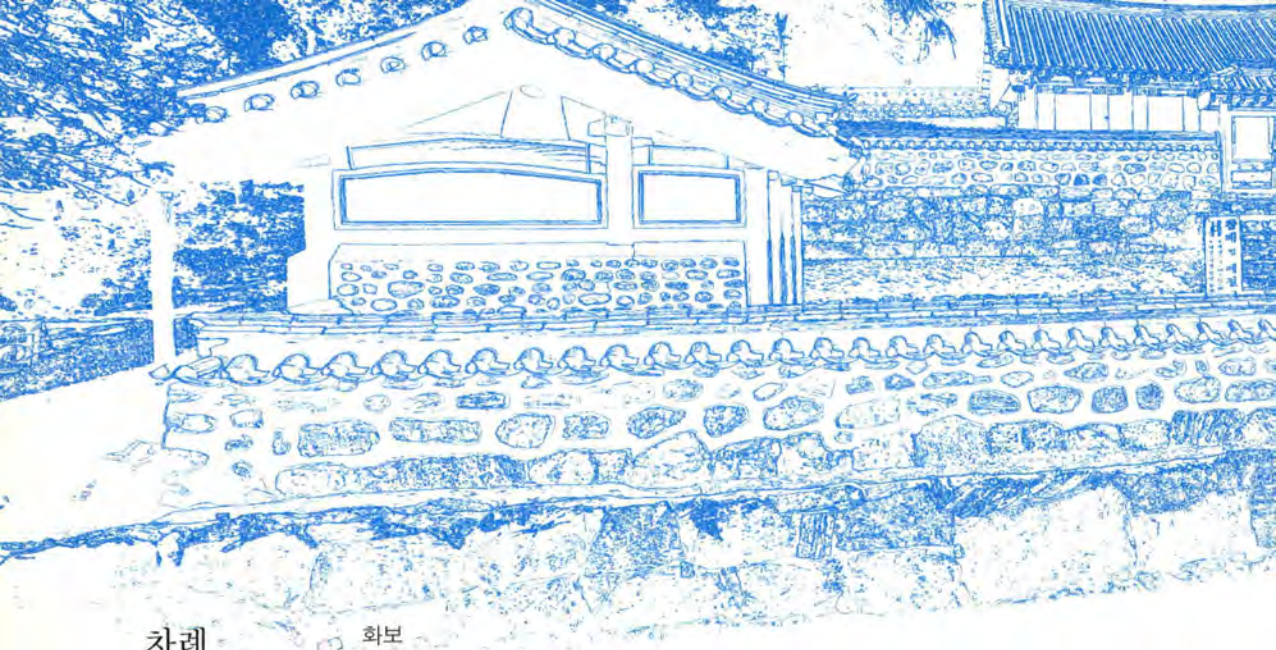
금번 『顯節祠誌』를 重刊하게 된 것은 2008년도에 廣州文化院에서 發刊한 『顯節祠誌』를 補正하여 소홀하고 缺漏^{결루}된 점을 補完하고 특히 추후에 배향 된 당시 척화신의 거두인 김상헌과 정온의 행적을 여러 사료에서 수집하여 소상히 기록하고자 顯節祠 有司總會에서 決議하여 重刊本을 發刊하게 되었다.

이번 重刊本에서 전통초상화 기법으로 그려진 尹集의 功臣肖像한 점을 확인하고, 三學士의 贈職과 贈諡 날짜를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충실한 내용으로 채우고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淺學非才의 限界를 切感하며, 諸賢의 叱正을 기다린다. 이 책을 發刊하기까지 後援과 勞苦를 아끼지 않은 顯節祠 社團의 韓洛敎 都有司와 有司 여러분께 眞心으로 감사한다. 顯節祠 配享 五學士 後孫들의 적극적인 參與와 聲援도 큰 힘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紀元 4349年 陰曆 2月 吉日(西紀 2016. 3. 9.)

著者 朴光雲 謹識^{근지}



차례

화보
간행사
축사
序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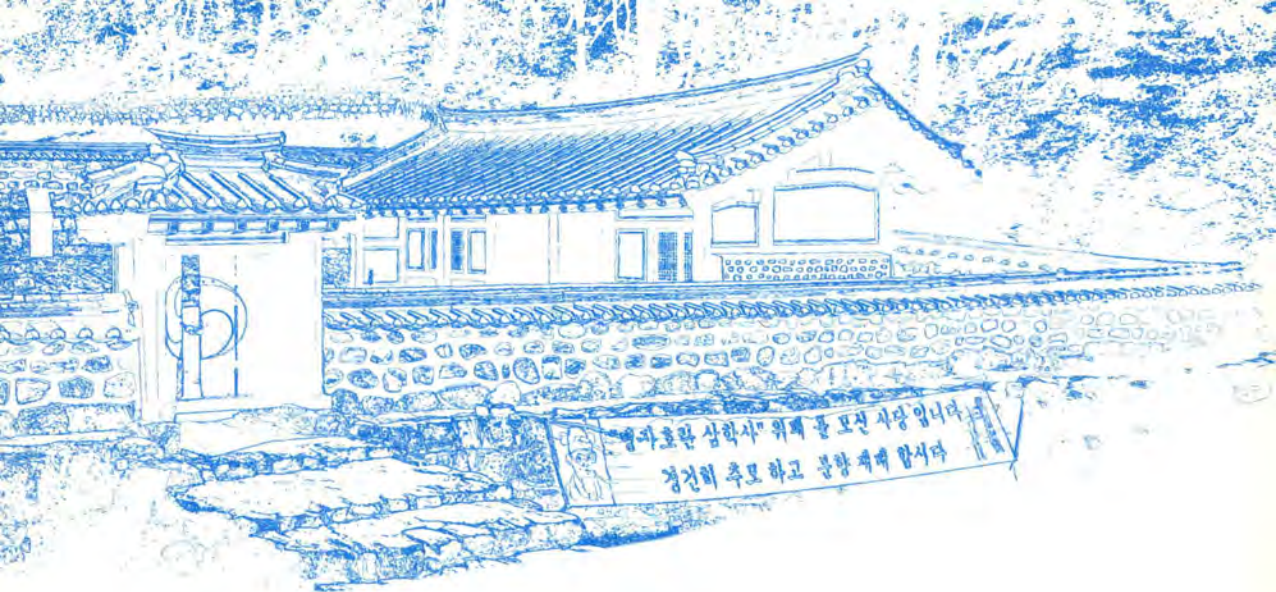
顯節祠의 立祠過程과 沿革	24
---------------	----

丙子胡亂과 三學士의 節義	68
---------------	----

1. 朝鮮과 明의 관계	69
2. 女眞族의 後金과 丁卯胡亂	72
3. 丁卯胡亂 후 朝鮮의 排金政策	80
4. 丙子胡亂의 발발과 南漢山城	84
5. 『二十五史-清史稿』 丙子胡亂時 清軍 戰役 記事	92
6. 三學士의 北行과 節義	103
7. 丙子胡亂이 끝난 후의 朝鮮	107

洪翼漢의 行狀과 事蹟	110
-------------	-----

洪翼漢의 行狀과 事蹟	112
-------------	-----



尹集의 行狀과 事蹟	134
尹集의 行狀과 事蹟	136
尹集 肖像畫에 대한 辨正	166
吳達濟의 行狀과 事蹟	174
吳達濟의 行狀과 事蹟	176
金尙憲 行狀과 事蹟	206
金尙憲의 行狀과 事蹟	208
鄭蘊 行狀과 事蹟	232
鄭蘊의 行狀과 事蹟	234
丙子胡亂 후 三學士에 대한 禮遇와 評價	262
附 錄	
三學士와 南漢山城 戰鬥을 論함	272
『三學士傳』·『吳學士傳』·『吳學士遺事』	316
顯節祠 各種 告由祝과 笏記	412

顯節祠의 立祠過程과 沿革

1636年(仁祖 14) 12월에 발발한 丙子胡亂은 다음해인 1637년 1월 30일 仁祖가 南漢山城에서 出城하여 松坡 三田渡에 마련된 受降壇에서 淸太宗에게 三拜九叩의 降禮를 치른 후 淸과 朝鮮이 君臣之間이 되기로 和議하고, 投降함으로써 끝났다. 淸軍이 朝鮮을 侵犯한지 두 달이 못되어 屈辱的인 敗亡으로 끝났으니, 우리 역사상 가장 恥辱의이며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敗亡으로 끝난 國恥였다. 淸나라는 講和를 위한 和議 과정에서 斥和를 主張한 臣僚들 중 司憲府 掌令 洪翼漢, 弘文館 校理 尹集, 弘文館 副校理 吳達濟 등 三學士를 瀋陽으로 押送하여 1637年 봄에 모두 處刑하였다.

1645年(仁祖 23) 淸은 明을 정복하여 中原을 平定함으로써 朝鮮朝廷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仁祖는 洪翼漢을 비롯한 三學士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늘 마음 아파했고, 그들의 遺家族들을 돌보도록 하여 每月 廩料^{능료}를 지급하였으며, 職級도 加資하여 주었다. 孝宗代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유족들을 돌보고 官職도 追贈하였다. 그러나 三學士를 顯彰하는데는 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三學士를 丙子胡亂의 戰犯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1661年(顯宗 2)에 이르러서야 平澤의 洪翼漢 虛葬墓 앞에 祠堂을 짓고, 褒義祠라고 현판을 달았다. 三學士의 位牌를 모셨는데 이것이 맨 처음 三學士를 顯彰하여 祭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國家에서는 청나라의 詰責힐책이 두려워 建立을 꺼려하여 地域의 士林들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1668년(顯宗 9)에 豊基郡守 魚相儔이 上疏를 올려, “丙子胡亂 때 斥和의 意志를 굽히지 않고, 끝내 오랑캐에게 끌려가 억울하게 殉節한 세 臣下의 祠堂을 건립하여 致祭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朝廷의 公論은 지금 淸國이 알게 되면 무슨 곤욕을 당할지 모르니, 子孫을 錄用하고 贈職을 하였더라도 品秩을 하나 더 올려 주자고 하였다.¹⁾ 顯宗 때 까지만 하더라도 淸國의 承認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669年(顯宗 10) 宋時烈이 三學士의 節義에 대하여 褒贈할 것을 建議하였다.

1681年(肅宗 7) 1월 侍講官 趙持謙이 上疏하기를,

“일찍이 丙子年의 變亂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당초 斥和를 주장한 臣下들을 찾으므로, 朝廷에서 부득이 吳達濟·尹集·洪翼漢 등 세 臣下를 보냈었습니다. 그들이 下直하던 날에 仁祖께서는 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술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

1) 『顯宗實錄』 9年7月27日

시면서 諭示하기를, ‘그대들의 父母와 妻子는 내가 마땅히 撫恤^{부흥}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 朝廷에서 그 자손에게 모두 벼슬을 주었으나, 세 집안의 子弟들이 모두 夭死하고, 차차 몰락하였습니다. 貧窮 빈궁하여 의탁할 데가 없으니 몹시 가엾고 불쌍합니다.

지금 現存하는 자가 얼마쯤인지 알지 못하나, 該曹로 하여금 그들의 집을 訪問하여 아울러 收錄하게 하소서. 만약 어려서 벼슬살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또한 鄭夢周 子孫의 例에 의거하여 똑같이 養育한다면 진실로 聖朝에서 節義를 尊崇하는 道理에 合當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吳達濟 등 3인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義理를 지켜 殉節하면서 死地에 나아가기를 樂土^{낙토}에 나아가는 것 같이 하고, 마침내 異域에서 殞命^{윤명}하는데 이르렀으나, 또 어느 땅에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니, 더욱 불쌍하고도 가엾다. 該曹에 말하여 그 子孫을 收錄하도록 하고, 食物도 題給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오랑캐들은 三學士의 處刑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遺骸만이라도 돌려달라는 朝鮮 官僚들의 懇請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더욱 朝野가 슬퍼하였다.

1681年(肅宗 7) 2월 4일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禮曹에서 아뢰기를, “올해 정월 30일 大臣들을 불러 入侍하였을 때에 參贊官 李師命이 啓請하여, 洪翼漢 · 尹集 · 吳達濟 등 세 臣下에 대한 事件에 관하여 進達하여 아뢰기를, “自古로 國家의 變亂^{변란}이 있는 후에는 臣下들이 죽는 일이 許多하여 반드시 그들을 崇拜하고

褒賞^{포상}하는 恩典이 있었습니다. 예전 壬辰倭亂 후에도 「忠烈祠」를 세워 받들었고, 三臣 또한 千古에 애처로운 所致여서 國家에서 享祀를 거행하여야 마땅 하운데, 지금까지 꺾하고 있으니, 이 어찌 缺典^{결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특별히 祠宇를 건립하여 祭祀를 받들어 이처럼 나라를 위하여 크게 殉節한 사람을 國家에서 認定한다는 것을 聖朝께서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하였다. 趙持謙이 아뢰기를,

“臣 또한 이 일에 대하여 간절히 청합니다. 祠宇는 필히 南漢山城에 세워야하겠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該曹해조에 승을 내리겠다.”고 하였고, 議政府의 大臣들 즉 領議政 金壽恒, 判中樞府事 鄭知和, 左議政 閔鼎重, 右議政 李尙眞 등이 “三學士는 大義에 따라 正論을 펴으며, 그 忠誠心이야말로 天下後世에 그들의 죽음은 길이 남을 것이며, 그 節義가 가상하고, 그들의 죽음은 참으로 哀痛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官祿을 贈職하고 그들의 所以를 崇尚하기를 모든 臣下들이 한 자리에서 陳疏^{진소}하오니, 南漢山城에 祠宇를 세우고 祭享處로 삼아 節義를 褒賞^{포상}하기 바라는 마음 아무도 다른 의논이 없사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裁決을 願하옵니다. 領中樞府事 宋時烈은 病患으로 議論에 나오지 못하였고, 判中樞府事 金壽興은 地方에 出張 중입니다. 大臣들의 意見이 이와 같사오니 裁決하심이 어떠 하오리까?” 하였다. 왕이 전하기를,

“議論대로 施行하라”고 하였다.

承旨 李師命이 이로 인해 특별히 南漢山城에 祠宇를 세우고 아울러 祭享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大臣과 의논하여 處理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物資의 調達이 어렵고, 추위 등을 이유로 다음해에 建立하기로 하고 연기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미루었다.

1686년(숙종 12) 三學士에게 諡號를 내렸다. 洪翼漢-忠正, 尹集-忠貞, 吳達濟-忠烈.

1688년(肅宗 14) 2월에 이르러 領議政 南九萬이 驪州 陵幸길에 陪從하면서, 南漢山城에서 王에게 이르기를, “三學士의 祠堂을 건립하라는 命을 내렸지만 그간 凶年이 들어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王이 속히 建立하라고 하였다. 그해 5월 廣州留守 李世白이 「三臣祠」를 건립하였다.²⁾

1693년(肅宗 25) 지금까지 「三臣祠」로 불리던 三學士의 祠宇를 「顯節祠」로 賜額하였다. 賜額祭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祠號는 藝文館大提學 李敏敍이민서가 撰進하여 落點 받았고, 祭文은 知製敎 趙持謙조지겸이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哀我三賢 並挺一世 슬프다 우리 三賢이시여, 모두가 빼어난 한 시대의 英傑
이라

聯芳臺省 勸操蘆桂 朝廷에 이어지는 芳香은 三學士의 절개요 剛直한 本性
이니³⁾⁴⁾

上人英猷 爭天勁節 남보다 뛰어난 훌륭한 재책, 절개는 하늘만큼 높았어라⁵⁾

2) 「肅宗實錄」14年 2月 29日 同 5月 12日.

3) 臺省: 公卿이 있는 朝廷(禁臺省中). 漢代의 尚書省, 唐代의 門下省.

4) 勸操: 節概. / 蘆桂: 剛直한 사람의 本性.

5) 英猷: 良謀.

孤城風雨 倉卒事迫 외로운 城에 몰아친 風雨로 창졸간에 일이 급해
 生投虎口 命輕鴻毛 三學士는 虜賊⁶⁾에게 던져졌어도 목숨을 깃털처럼 여겼
 어라

乾坤慘裂 日月晦韜 天地도 참혹하게 갈갈이 찢겨 해와 달도 빛을 잃으니⁷⁾
 時之罔極 天胡忍斯 시절도 罔極해라 하늘은 차마 어찌 이리 심하시뇨
 龍顏有淚 鶴野無涯 임금의 얼굴엔 눈물 흐르고 鶴野는 끝이 없건만
 白雁不來 孤魂何處 기러기는 돌아오지 않으니 외로운 혼 어느 곳에 떠도나
 뇨⁸⁾
 雲愁淙江 月黑麻渡 구름이 淙江에 드리우니 흐르는 달빛에도 黑暗이 어리
 도다⁹⁾

地分東西 義無彼此 땅은 東西로 나누이고 의리는 피차에 없어져¹⁰⁾
 立祠遺堞 于以合祀 祠宇를 세우고 담장 쌓은 후 세 분을 合祀하니
 一間棟宇 萬古風聲 한 칸 棟宇는 萬古의 聲譽일레¹¹⁾
 淸儀若接 憤氣如生 斥和疏를 접한 듯, 憤氣 아직 살았는 듯¹²⁾
 念惟忠烈 實世罕觀 생각은 오직 忠烈이라, 세상에 보기 드문 일
 所遭之慘 亦古未有 이렇게 참혹한 일 또한 옛날엔 아직 없었으니
 溫兒夢裏 歸思可憐 꿈속의 본 어린 자식, 돌아보니 가련해라

6) 虜賊: 오랑캐.

7) 晦韜: 모습을 감춤.

8) 白雁: 貴賓. 明 夏完淳「大哀賦」- 拜蔣候爲靈帝 弋白雁爲國賓.

9) 黑麻: 빛이 어두운 모양. 黑麻麻. 華山「遠航集 窟洞陣地戰」別設窟洞里黑麻麻, 心可亮咧.

10) 朝鮮과 淸나라간에는 이미 서로의 의로운 관계가 없어졌다는 뜻.

11) 風聲: 教化, 聲譽.

12) 淸儀: 三學士의 斥和疏. '淸儀囊'은 隋代 御史中丞 등 風宪官(풍헌관)이 접수한 彈章(彈劾訴狀).

柴市帶間 遺賢誰傳 柴市지사에¹³⁾ 떠도는 의로운 영혼 누가 기려 전하리오
 愴昔傷今 欲語則咽 옛날의 感愴과 지금의 슬픔을 말하려니 목이 메도다
 靈兮來些 永享芬苾 三學士 英靈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길이 享祀를 받으소서

知製敎趙持謙製進 啓下後 趙公長逝 而仍用於癸酉奉安時

顯節祠의 扁額 글씨는 領議政 南九萬의 親筆이다.¹⁴⁾

1699年(肅宗 25) 廟堂의 建議로 淸陰 金尙憲과 桐溪 鄭蘊을 顯節祠에 并享^{병향}하였다.

1701年(肅宗 27)에는 廣州의 士林들이 上疏했는데, “現在의 顯節祠는 建立한지가 10여년인데, 祠字가 너무 초라하고, 비좁으며, 場所가 陰地여서 적합하지 않으니, 이를 양지바른 곳으로 移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要旨였다. 그 이유는 留守 李世白이 맨 처음 건립한 「三臣祠」의 위치가 開元寺 올라가는 길 옆이었는데, 땅이 습하여 木造建物이 유지되기 어려워 20년이 못되어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마다 祭享을 奉行하는 廣州의 士林들이

13) 柴市: 宋나라 文天祥(1236~1282)이 元나라 쿠빌라이칸의 攔柔를 물리치고 죽음을 당한 곳. 지금의 北京 宣武門 밖 菜市口라고 한다. 淸나라 黃遵憲(황준헌)이 文天祥의 碑를 보고 읊은 「和」 平里行에 “公魂歸天在 柴市 今日隣軍猶設祭”라는 文句가 있다.

14) 肅宗 戊辰二月二十九日。南漢行在所。引見入侍時。領議政南九萬所啓。自上臨御此地。諸處戰亡之人。皆有賜祭之命。其憫忠之意至矣。三學士中尹集、吳達濟二人。自此城出送。則與死於此地者何異。以此曾因筵臣啓請。有立祠此地之命。而因年凶。尙今不得舉行云。雖曰年凶。此祠營立。所費物力。不至重大。使之從速舉行何如。上曰。分付該曹及本府。使之從速舉行可也。二月二十六日。自上展謁驪州寧陵。二十九日。還到南漢。○登西將臺。大臣及近侍本府留守引見時。有是命。留守李世白卽爲營立祠宇于城內。厥後因國恤。不卽奉安。癸酉三月十五日。始得奉安。顯節祠三大字扁額。領相南公九萬筆。實錄

양지바르고 깨끗한 자리로 옮겨 줄 것을 上疏하였다.

廣州士林들의 上疏를 접한 朝廷에서는 廣州留守에게 지시하여 上疏 內容과 부합하여 移建의 必要性이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下達하였다.

移建이 필요하다는 廣州留守의 보고를 접한 肅宗은 物品을 아끼지 말고 좋은 자리를 잡아 移建하도록 御命을 하달하였고, 工曹에서 直接 工事を 주관하여 훌륭하게 建立하도록 하였다.

顯節祠의 扁額 큰 글씨는 領議政 南九萬의 親筆이다.¹⁵⁾

1711年(肅宗 37) 顯節祠 移建을 完了하고 그 經緯와 三學士의 節義에 대한 感懷에 대한 詩를 내렸다. 또한 吳達濟의 梅花圖를 칭찬한 御製 詩文을 함께 내렸다.

1721年(景宗 元年) 이해 7월 肅宗이 崩御¹⁶⁾했는데, 3월에 御製 詩文을 木刻한 작은 詩板을 顯節祠 本殿 안쪽 벽에 붙였다. 그 詩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肅宗大王御製¹⁶⁾

顯節祠在南漢山城內 爲丙子斥和臣 洪尹吳 立祠賜額 頃因儒疏始知 移建物力之不逮特令地部 參酌顧助俾完其沒有感而作 嗟哉. 三學士凜凜節 如何知是皇朝在 力排醜虜和 拜辭忠愈款 臨死志尤 磨舊宇圖新煥 追思感實多

題贈領議政吳達濟梅花圖

妙筆吾東豈有二 觀圖仍忽感前事 辭君不輕心忌國

15) 癸酉三月十五日。始得奉安。顯節祠三大字扁額。領相南公九萬筆。(조선왕조실록)

16) 위의 글은 1705년(숙종31년)에 肅宗이 御題 한 것을 1721년에 詩板을 만들어 걸었다.

對虜何掌口絕冒 節義昭昭三子同 孝忠炳炳一身備
誰知嗣屬終無傳 於此亂謚福善理
崇禎紀元後辛丑三月 日奉刊

숙종대왕 어제 해설¹⁷⁾

顯節祠는 南漢山城안에 있다. 丙子胡亂 때 斥和臣 洪翼漢·尹集·吳達濟를 위하여 祠宇를 건립하고 賜額하였다. 近日에 儒林들의 上疏에 따라 移建하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物資와 人力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地部[工曹]에 特命을 내려 지체하지 말고 參酌해서 보살펴 주라고 하여 完工을 보았다. 그 후 三學士에 대한 感懷가 있어 이 글을 지었노라.

슬프도다. 三學士여 넘름한 그 節義
오로지 皇朝가 있음만을 알았기에
힘을 다해 오랑캐와 和親을 배척 했네
下直 인사말에서도 忠誠은 더더욱 참되었고
죽을 고비에 임해서도 그 뜻 더욱 굳건했도다.
옛 祠宇를 다시 고쳐짓고 빛내려함에
그대들 돌이켜 생각하니 感懷가 실로 많도다.

贈 領議政 吳達濟의 梅花圖에 題하노라.

17) 현 「顯節祠」 都有司 韓洛教 國譯

이렇듯 絶妙한 筆法의 그림이 東方에 또 있을까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흥연히 옛일이 생각나도다.
 임금과 작별하고 떠날 때 나라 걱정 잊지 않았고
 오랑캐를 대하여 꾸짖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節義는 밝고 밝아 세 사람이 똑같았도다.
 밝은 孝道와 忠誠은 一身에서만 빛났을 뿐
 後嗣가 전해짐이 없을 줄 누가 알았으랴.
 착한 사람에게 福이 내린다는 하늘의 理致도 믿기 어렵도다.
 崇禎紀元後 辛丑年(1721-景宗元年) 三月 日奉刊

1749年(英祖 25) 1월 弼善 鄭宗^{정포}의 疏請에 따라 顯節祠의 位土를 管理하는 守僕을 두도록 命하였다.¹⁸⁾

1755년(영 조31)11월 29일 南漢山城 顯節祠에 禮官을 보내어 致祭하게 하였다.

1764년(영 조40) 1월 20일 顯節祠와 忠烈祠에 配享된 사람들의 後孫과 명나라 사람의 後裔만 應試하는 科擧로 忠良科를 시행하였다.

1764(영 조40) 1월 22일 忠良錄을 짓고, 忠烈祠와 顯節祠에 祭祀를 올린다.

18) 命給南漢顯節祠田土守僕,以弼善鄭宗疏請之也.『英祖實錄』25年 1月

1779년(정조3) 1월10일 王이 顯節祠에 致祭하게 하였다.

1779년(정조3) 8월 9일 驪州 陵幸길에 南漢山城 行宮에 머물며 溫祚王廟와 顯節祠에 致祭하다.

1816년(순조16) 4월 5일 顯節祠에 近臣을 보내 致祭하다.

1824년(순조24) 3월 18일 顯節祠에 英祖 40년의 例에 의해 致祭하게 하니, 擇日하여 거행하다.

1861년(철종12) 2월6일 顯節祠에 承旨를 보내 致祭하다

1867년(고종4) 9월10일 顯節祠에 禮官을보내 致祭하다.

1871년(고종8) 3월 20일 전국의 書院, 祠宇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였다. 이때의 高宗實錄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때에도 顯節祠는 撤廢 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重疊하여 세운 書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下敎에 따라 臣 趙秉昌이 大院君 앞에 나아가 稟議한 結果, 「聖廟의 동쪽과 서쪽에 配享하는 諸賢과 忠節과 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百世토록 높이 받들기에 合當한 47個 書院을 제외하고는 모두 祭祀를 그만두며 懸板을 떼어 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下敎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個의 書院을 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啓下한 뒤 各道에 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전국에서 47개 書院만이 毀撤되지 아니하였다.

【경기(京畿)】

개성(開城) 숭양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院), 파주(坡州) 파산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서원(德峰書院), 과천(果川) 노강서원(鷺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功祠)

【충청도(忠淸道)】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巖書院), 홍산(鴻山) 창렬사(彰烈祠), 청주(淸州) 표충사(表忠祠), 노성(魯城) 노강서원(魯岡書院),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전라도(全羅道)】

태인(泰仁) 무성서원(武城書院),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장성(長城) 필암서원(筆巖書院),

【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嶽書院), 선산(善山) 금오서원(金烏書院),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 상주(尙州) 옥동서원(玉洞書院), 안동(安東) 병산서원(屏山書院), 순흥(順興) 소수서원(紹修書院), 현풍(玄風) 도동서원(道東書院),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상주(尙州) 흥암서원(興巖書院),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진주(晉州) 창렬사(彰烈祠), 고성(固城) 충렬사(忠烈祠), 거창(居昌) 포충사(褒忠祠),

【강원도(江原道)】

영월(寧越) 창절서원(彰節書院),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금화(金

化) 충렬서원(忠烈書院)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청성묘(淸聖廟),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 장연(長淵) 봉양서원(鳳陽書院)

【함경도(咸鏡道)】

북청(北靑) 노덕서원(老德書院)

【평안도(平安道)】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 영변(寧邊) 수충사(酬忠祠),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 정주(定州) 표절사(表節祠)

1876년(고종13)丙子 4월 10일 議政府에서 아뢰기를,

“丙子年(1636)에 殉節한 사람 및 斥和한 諸臣들에게 祭祀를 지내주라는 命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 해가 다시 돌아온 것을 인하여 感懷를 다시 追述하려는 殿下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忠烈祠와 顯節祠 外의 地方 고을에 禮曹의 官吏를 내려 보내면 接待하는 弊端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地方官과 道內의 首領으로 뽑아서 채워 差任하고 香祝은 曹吏를 정하여, 가지고 가서 傳하게 한 것이 모두 前例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도록 該曹와 該道에 분부하소서.”하니, 允許하였다.

以上은 顯節祠의 設立 經緯와 그 후에 朝鮮王室에서 代를 이어 顯節祠 祭享을 隨時로 王室에서 거행한 내용이다.

日帝强占期와 6·25 韓國戰爭을 겪으면서 多少 祭享이 소홀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形便이었으나, 近來에 와서는 傳統 典禮에 의하여 春秋로 정성껏 祭享을 받들고 있으며, 顯節祠의 總有財産(位土와 祠宇) 管理와 傳統儀禮를 繼承하기 위하여 獨立的으로 顯節祠 社團 定款을 制定하고 有司會를 組織하여 온전히 保全하여 가고 있다. 근래 定期的인 祭享外의 行事 기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서기1972년 5월 顯節祠를 京畿道 地方有形文化財 제 4 호로 指定하였다.

서기2004년 顯節祠의 祭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廣州市 當局에 支援을 요청하여 600萬 원의 豫算으로 安城市 所在 無形文化財가 經營하는 工場에서 鑄器製 祭器 一襲을 購入하여 一新하였다.

서기2008년 3월 都有司 林炳龍선생이 一身上의 理由로 退任하였다. 後任으로 韓洛教선생이 都有司로 就任하고, 同年 5月 告由禮를 올렸다. 처음으로 有司會를 조직하여 運營하기 시작 하였다.

서기2008년12월 顯節祠誌 發刊을 紀念하여 獻呈告由禮를 올렸다.

서기2010년 7월 趙億東 廣州市長이 再選되어 崇烈殿과 顯節祠에 告由禮를 올렸다.

서기2010년 7월 廣州文化院長 南載昊 就任 告由하였다.

서기2011년 5월 女性有司 2人을 選任하고 告由하였다.

서기2011년 2월 韓洛敎 都有司가 再任되었다.

서기2012년 1월 顯節祠의 祭享儀式節次를 廣州市 無形鄉土文化 遺産 第2號로 指定하였다.

서기2012년 3월 顯節祠 祠宇가 심히 壞損되어 解體復元 工事を 1年餘의 工事 끝에 竣工하였다. 工事は 京畿文化財團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主管하고 監督하였다. 따라서 五賢의 位牌를 東廡로 移安하였다가 還安하고 告由하였다.

2012년 8월 守僕舍가 한국전쟁 당시 燒失되어 임시로 건축하였으나 심히 毀損되어 顯節祠 自體 資金 4,000만원으로 解體 修理하여 面貌를 一新하였다.

2012년 南漢山城을 世界文化遺産으로 登載하기 위한 準備 作業으로 城內의 각 文化財를 補修함에 따라 顯節祠도 당초예산보다 追加하여 東廡와 西廡까지 補修하고 丹青과 담장 修理까지 새롭게 補修하여, 秋季 祭享 때, 南漢山城文化觀光事業團 全鍾德 團長에게 感謝狀을 授與하였다.

2012년 3월 顯節祠 祠宇 改築紀念 漢詩會를 開催하였다.

2012년 9월 廣州市의 補助金으로 祭床과 交椅를 交替하였다. 製作은 京畿道 無形文化財 第14號 小木匠 金義容에게 依頼하였다. 總豫算 2千萬원

2013년 10월 國立文化財研究所에서 顯節祠 祭享儀禮를 現地 撮影하여 儀軌를 冊子로 發刊하고 動映像 CD를 製作 配布하였다

2013년 10월 廣州市文化財保護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顯節祠의 祭享을 春秋(음력 3월과 9월 中丁日) 年 2회 奉行하기로 하였다.

2014년 3월 顯節祠의 總有財産(祠宇와 位土)의 유지관리와 會計業務를 執行함에 있어 廣州鄉校 典校에게 보고 하던 것을 廣州鄉校 定款 改正에 의하여 顯節祠社團이 獨立的으로 運營하도록 하고, 都有司는 廣州地域에 居住하는 儒林 중에서 選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顯節祠社團 定款을 새로 制定하였다.

2014년 3월 都有司 任期 滿了로 韓洛敎 都有司가 再推戴 되었다.

2014년 7월 南漢山城이 世界文化遺産으로 登載되었다. 따라서 顯節祠도 城內의 有形文化財 目錄에 收錄되었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每週 土曜日に 顯節祠를 南漢山城 訪問客에 開放하여 靑少年과 訪問客들에게 傳統禮節敎育과 아울러 本殿을 參拜하여 三學士의 얼을 기리는 忠節敎育을 실시하였다.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每週 土曜日に 顯節祠를 開放하여 前年度와 같이 傳統禮節敎育을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新任 朴光雲 崇烈殿 參奉이 告由禮를 올렸다.

顯節祠의 所在地는 京畿道 廣州市 南漢山城面 山城里 310-1이다. 祭享은 每年 春秋로 陰曆 3月 中丁日과 9月 中丁日에 받들고 있다. 顯節祠 祠宇는 正面 三間, 側面一間이며 正面 각 칸에는 2개의 여단이 門이 달려있다. 附屬 建物로는 東廡와 西廡가 각 三間이다. 祠宇는 京畿道 有形文化財 第4號로 指定되어있고, 祭享儀禮는 廣州市 無形鄉土文化遺産 第2號로 指定되어 있다.

◎ 顯節祠 祭享 儀禮

顯節祠에 配享된 丙子胡亂 三學士에게는 肅宗 12년 丙寅年(1686) 12월 21일(辛未) 諡號를 내렸는데, 洪翼漢은 忠正公, 尹集은 忠貞公, 吳達濟는 忠烈公이라고 하였다. 肅宗 31년 乙酉年(1705) 음력 1월 11일(丙午)에는 洪翼漢 尹集 吳達濟를 領議政으로 追贈하였는데 官職과 贈諡 내용은 다음과 같다.

贈 議政府 領議政 贈諡 忠正公 行 司憲府 掌令 洪翼漢
贈 議政府 領議政 贈諡 忠貞公 行 弘文館 校理 尹 集
贈 議政府 領議政 贈諡 忠烈公 行 弘文館 副校理 吳達濟

追後에 配享된 斥和臣 두 분의 官職과 贈職. 贈諡 내용은 다음과 같다.

贈 議政府 領議政 贈諡 文正公 行 議政府 左議政 金尙憲
贈 議政府 左贊成 贈諡 文簡公 行 吏曹參判 鄭 蘊¹⁹⁾

* 祭享日과 望帖

祭享日是 每年 陰曆 3月과 9月の 中丁日(中丁日) 이다.

19) 鄭蘊의 贈職은 廣州文化院本에서는 贈職이 吏曹判書로 되었으나 금번 수집 자료에서 숙종20년(1694) 3월에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에 追贈된 것을 발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哲宗 대에 領議政으로 追贈된 바 있으나, 後孫에게 확인한 결과 追贈 敕諭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追記：顯節祠 祭享 儀禮가 2012년 廣州市 無形鄉土文化 遺産 제2호로 지정되면서 廣州市文化財委員會 決議에 의하여 春秋로 祭享을 받들게 되었다.

朝鮮時代에는 春秋로 祭享하였으나 日帝强占期와 光復 이후 6.25戰爭을 겪으면서 財政問題 等으로 年一回 秋季祭享만을 陰曆 9月 10日에 받들어 왔었다.

祭享 十五日 前에 都有司는 獻官 및 諸 執事を 選任하여 分定하고, 望帖을 送呈한다.

望帖의 書式은 별지와 같다.

* 獻官 望帖書式

望 (官職, 姓名) 例 廣州市長 ○○○ 紀元 四千三百○○年(干支) 陰曆 ○○月 ○○日(西紀 2016. ○○. ○○.) 顯節祠 春季, 秋季 祭享 初 獻官 紀元 四三○○年 陰曆 某月某日 (西紀 2016. ○○. ○○.) 顯 節 祠 印
--

* 諸執事 望帖書式

望
某官 姓名 ○○○
紀元 四千三百○○年(干支)
陰曆 ○○月 ○○日(西紀 2016. ○○. ○○.)
顯節祠 春季, 秋季 祭享
集禮, 大祝, 贊引, 奉爵, 奠爵 司罇 等 隨稱
紀元 四三○○年 陰曆 某月某日
(西紀 2016. ○○. ○○.)
顯節祠 印

* 望帖 送呈時の 書簡文案

官職 姓名 貴下

謹啓

時下晚秋(晚春)之際에

尊體 大安하심을 仰賀且祝 하나이다. 今次 顯節祠 春季(秋季) 祭享에
別添과 如히 分定한 望帖을 送呈하오니 齋戒하시고
掃萬參祀 하시기를 敬望하나이다. 餘不備禮

紀元 ○○○○年 某月 某日 顯節祠 都有司 ○○○ 謹拜

* 祭官分定

初獻官 一 亞獻官 一 終獻官 一 大祝 一 典祀官 一
執禮 一 贊儀 一 奉香 一 奉爐 一 奠爵 一
奉爵 二 司罇 一 盥洗位 二 謁者 一

初獻官은 廣州市長, 亞獻官 및 終獻官은 適宜選定한다.
例: 廣州市議會議長, 廣州文化院長, 都有司, 元老儒林 等

* 獻官 및 諸執事 入齋守則

獻官 및 諸執事는 望帖을 받은 날로부터 祭享에 參禮하게 됨을 榮光으로 생각하고, 精誠으로 다음과 같이 基本的인 姿勢와 行動을 가다듬어야 한다.

첫 째. 飲酒와 歌舞音曲, 遊興行爲, 家庭不和, 他人과의 是非 등 상스러운 行爲를 禁한다.

둘 째. 酒色雜技와 不健全한 享樂行爲를 금한다.

셋 째. 喪家出入을 삼가고, 殺傷과 流血場面을 피한다.

넷 째. 祭享에 參禮 때에는 韓服正裝을 原則으로하고, 沐浴齋戒한 후에 入齋한다.

洋服을 着用할 때에는 반드시 黑色正裝을 着用한다.

다섯째. 一般 參祀員 服裝은 韓服正裝에 道袍를 着用하고 儒巾을 쓰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洋服을 着用할 때에는 黑色正裝을 着用

하고 儒巾을 쓴다.

* 顯節祠 제향에 관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祭享에 관한 節次와 儀禮는 『國朝五禮儀』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祭享의 종류

1. 大祀 : 조선시대에 국왕이 친히 지내던 宗廟, 永寧殿, 圓丘壇, 社稷壇 전례이다.
2. 中祀 : 국가에서 지내던 대사(大祀) 다음가는 전례로 風·雲·雷·雨·岳·海·瀆, 농업을 주관하는 神農씨를 제사하는 先農, 養蠶에 관한 先蠶, 祈雨祭인 雩祀, 成均館과 鄉校에 모신 孔子의 사당인 文宣王廟, 그리고 歷代 始祖의 神位를 모신 歷代始祖廟의 典禮 등이다.
3. 小祀 : 국가에서 지내던 소규모의 전례로 馬步, 馬社, 馬祖, 先牧, 司寒 등.

顯節祠의 典禮를 구분하면 小祀로 州縣의 常時祭에 해당된다. 顯節祠는 先賢을 모신 祠宇로 先賢의 學德과 遺志를 기리고 계승하는 제향이다. 顯節祠 전례의 큰 특징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典禮라는 사실이다. 朝鮮時代는 典禮行爲가 중요한 통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歷代 朝廷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국왕을 대신하는 官吏를 파견하여 攝事儀를 행하고 牧民官에게 香祝과 祭物을 내려 致祭하게 한 것은 顯節祠의 역사적 가치를 증거 하는 것이다.

* 顯節祠 祭享 祭需目錄

豚肉 十斤 牛肉 十斤 清酒 三升 稻粱쌀 五升 梁수수쌀 五升 黍米차조 五升 稷기장쌀 五升 石魚조기 五尾 芹菹미나리 五束 筍菹즉순 五束 菲菹부추 五束 靑菹무 五介 銀杏은행 五합 柏子잣 五합 生栗밤 五合 乾棗대추 五合 形醢소금 二升 燭양초 二匣 韓紙一券 洋紙 十枚 幣帛 五籠(광주리)
(白色 모시 또는 白色 明紬명주 각 3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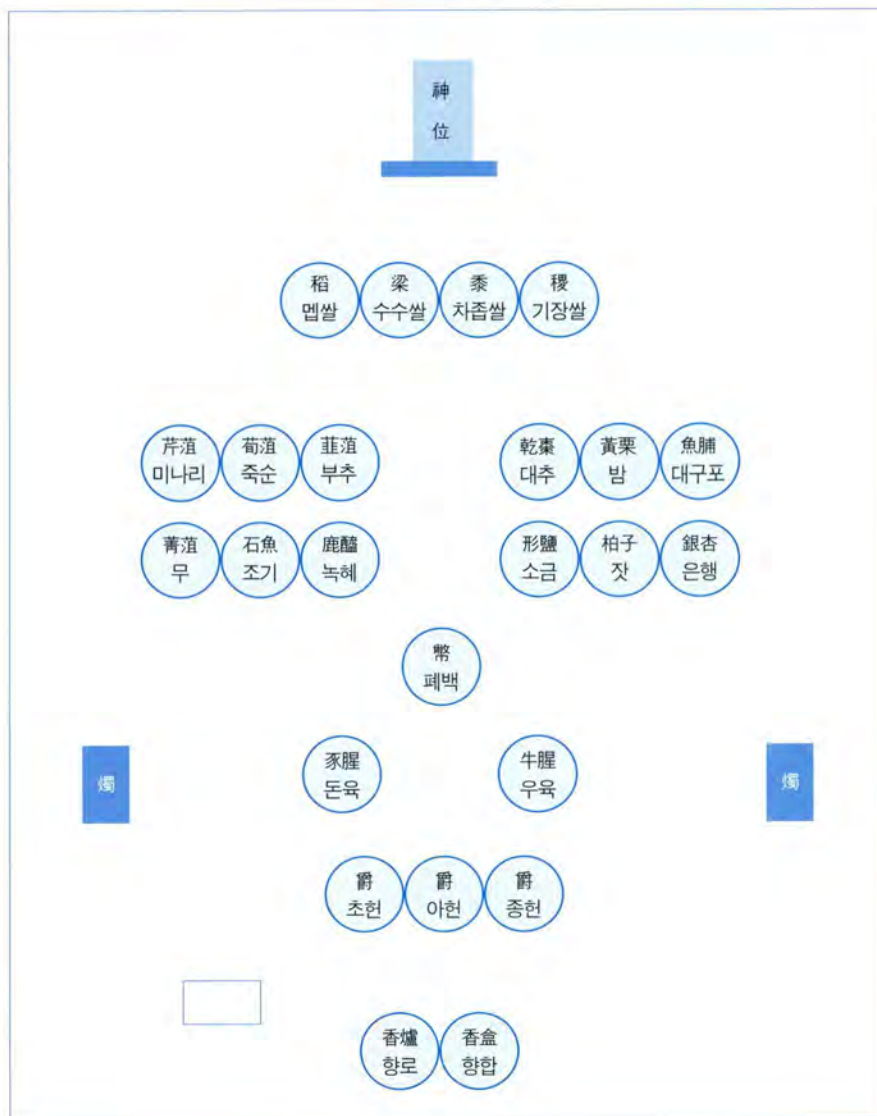
祭物은 六饔 六豆 二腥(豕,牛)으로 한다.

陳設圖는 別紙와 같다.

祭物陳設

陳設은 典祀官과 總務有司가 陳設圖에 맞추어 祭享時刻 30分 前까지 完了 한다. 司罇床과 盥洗位도 함께 갖추어 놓는다. 總務有司는 東廡 앞에 到記所를 設置한다.

陳 設 圖



◎ 顯節祠 祭享의 進行

1. 本祭禮의 儀式과 準備

祭禮의 준비는 東廡 앞에서 행하며

1. 國民儀禮 (國旗에 대한 敬禮 外 省略)
2. 執禮는 分定된 獻官 및 諸執事를 呼名한다.
3. 分定된 獻官은 左側, 大祝 及 諸執事는 右側에 堵列한다.
4. 一般 參祀員은 後面에 拱手하고 正立한다.
5. 都有司의 簡略 한 顯節祠 沿革紹介와 人事

2. 祭禮進行

祭禮順序는 奠幣禮, 初獻禮, 亞獻禮, 終獻禮, 飲福禮, 望燎禮, 禮畢의 順序로 進行한다. 進行은 執禮의 唱笏에 맞추어 贊儀의 引導로 奉行한다.

祭需와 祭酒는 都有司 責任下에 典祀官과 守僕으로 하여금 祭享 日 前日까지 준비하도록 한다. 祭享에 必要한 祭器와 香盒, 香爐 및 燭臺를 깨끗이 닦아 놓아야 한다.

總務有司는 分定記를 東廡에 揭示 한다.

大祝은 祭享 前日에 敬虔한 姿勢로 顯節祠 東廡에서 祝文을 韓紙

에 作成하여 祝板에 붙이고, 香은 木香을 3片씩 실로 묶어 各位마다 3개를 준비하여 香盒에 담아놓는다.

總務有司는 祭享日에 東廡 앞에 到記所를 設置하여 參祀員들이 到記할 수 있도록 芳名錄을 備置한다.

獻官 및 諸 執事는 祭禮 始作 10分 前까지 東廡에서 換服하고 대기한다.

都有司와 典祀官 및 女性有司는 五位의 祭床에 祭享 10分 前까지 執事들의 도움을 받아 祭物陳設을 完了한다.

樽所는 本殿 右側 門앞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盥洗位도 아울러 本殿 앞 階下右側에 設置한다. 陳設이 끝나고, 祭享 準備가 모두 完了되면 典祀官은 執禮에게 通告하여 笏記 唱에 맞추어 祭禮를 奉行한다.

祭禮奉行 전에 國民儀禮를 하는데, 國旗에 대한 敬禮만으로 대신한다. 祭禮順序는 다음과 같다.

1. 奠幣禮：初獻官이 各 神位 前에 나아가 香을 피우고 幣帛을 올리는 禮를 말한다.
2. 初獻禮：初獻官이 各 神位 前에 첫 번째 잔을 올리고, 祝文을 낭독하는 禮를 말한다. 이때 參祀員 全員은 俯伏하여 祝文 內容을 傾聽한다.
3. 亞獻禮：亞獻官이 各 神位 前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禮를 말한다.
4. 終獻禮：終獻官이 各 神位 前에 세 번째 잔을 올리는 禮를 말

한다.

5. 飲福禮 : 初獻官이 神位 前에 올렸던 첫 번째 잔을 大祝으로부터 넘겨받아 마시는 禮이다.
6. 望燎禮 : 各 神位 前에 올렸던 幣帛과 祝文을 불사르고, 땅에 묻는 禮를 말한다. 大祝이 主管하여 望燎位에서 初獻官이 절반만 사르고 집사가 받아 묻는다.

◎ 朔望奉審 焚香과 告由禮

1. 朔望 奉審 焚香禮

陰曆 每月 초하루와 보름날은 顯節祠 各 神位 前에 都有司가 有司를 帶同하여 焚香禮를 행한다. 都有司가 焚香官이 되어 儒巾 道袍하고, 奉爐 奉香은 香과 香爐를 준비한다. 都有司와 奉爐, 奉香은 盥水 帨手하고 都有司는 五賢 神位 前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奉爐는 左便, 奉香은 右便에 앉아 각기 香盒과 香爐를 받든다. 都有司는 三上香 후 再拜한다. 奉香, 奉爐 및 參禮者도 再拜한다. 陰曆 3月, 6月, 9月, 12月 朔日에는 有司 全員이 奉審 焚香禮에 參禮한다.

2. 告由禮

告由禮는 管内의 地方官이나 儒林團體의 責任者가 새로 就任하였거나 都有司가 顯節祠에 事由를 告할만한 일이 있을 때 올리는 禮를 말한다. 焚香禮와 다른 것은 三上香하고 祝官이 都有司 左側에 앉아 告由文을 必히 朗讀(告祝)한다.

祝文과 笏記는 다음과 같다.(부록참조)

* 顯節祠 祭享 祝文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〇〇〇年

歲次 干支 〇月 干支朔 初〇〇日 干支

廣州市長 〇〇〇 敢昭告于

議政府 左議政 贈 領議政 諡 文正公 金先生

吏曹參判 贈 議政府左贊成 諡 文簡公 鄭先生

司憲府 掌令 贈 議政府 領議政 諡 忠正公 洪先生

弘文館 校理 贈 議政府 領議政 諡 忠貞公 尹先生

弘文館 副校理 贈 議政府 領議政 諡 忠烈公 吳先生

猗與五賢 萬古一節 聖后褒忠 立祠敬慕 備以俎豆

恭伸享儀 寔出崇報 庶幾格思 尚饗

해설

매는 단기43〇〇년〇〇 〇월〇〇삭 초〇〇일〇〇일에

광주시장 〇〇〇은 감히 밝게 고 하나이다.

의정부좌의정 증 영의정 시호 문정공 김상헌 선생

이조참판 증 의정부좌찬성 시호 문간공 정온 선생

사헌부 장령 증 의정부 영의정 시호 忠正公 홍익한 선생

홍문관 교리 증 의정부 영의정 시호 忠貞公 윤집 선생

홍문관 부교리 증 의정부 영의정 시호 忠烈公 오달제 선생

아! 다섯 분 賢人이시여, 萬古第一의 忠節이십니다. 聖上을 위한 忠誠을 기리기 위해 여기에 祠宇를 세우고 높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여, 숭배하고 보답함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되어 격식대로 제수를 진설하여 공손히 제를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笏記(홀을 읽는다)

贊儀 引初獻官 檢視陳設 還復位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陳設을 檢視하고 돌아오시오.

執禮及贊儀先就拜位 再拜 跪. 拜. 興. 拜. 興. 平身

집례 및 찬인은 먼저 배위에 나가 재배하시오. 무릎을 꿇으시오 배흥 배흥 평신

執禮及贊儀 詣盥洗位 盥水 帨手 各就位

집례와 찬인은 관세위에 나가 손을 씻고 각 소임의 자리로 가시오.

*贊儀 引祝官及諸執事 入就拜位 再拜. 跪. 拜. 興. 拜. 興 平身

찬인은 축관과 모든 집사들을 배위로 인도하고 두 번 절하시오. 배흥 배흥 평신

*贊儀 引祝官及諸執事 詣盥洗位 盥水 帨手 各就位

찬인은 축관과 제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가 손을 씻고 각 소임의 자리로 가게 하시오.

*贊儀 率奉香奉爐 點燭 開櫝訖 復位

찬인은 봉향과 봉로를 인도하고, 봉로와 봉향은 등축을 켜 후 위패의 덮개를 열어 둔 후 복위하시오.

*贊儀 引諸獻官及參祀員入就拜位

찬인은 제 헌관과 참사원을 인도하여 배위에 서게 하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謹具請行事

알자는 초헌관 좌측에 나가 아뢰고, 행사를 청하시오.

*獻官及參祀員 再拜 跪. 拜. 興 拜. 興 平身

行奠幣禮

전폐례를 행합니다.

*贊儀 引初獻官 詣盥洗位 搯笏 盥水 帨手 執笏

찬인과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가 홍을 꿇고 손을 씻게 하시오. 초헌관은 홍을 잡으시오.

*引詣文正公金先生神位前 跪 搯笏

찬인은 문정공 김선생 신위 앞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홍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香 奉香盒 獻官之右跪 奉爐 奉香爐 獻官之左跪

봉향은 향함을 받들고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어 초헌관 좌측에 무릎을 꿇으시오.

*初獻官 三上香

초헌관은 세 번 향을 사르시오.

*大祝 初獻官之右跪 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초헌관의 우측에 무릎 꿇고 앉아 폐백상자를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 執幣獻幣以幣 授大祝

초헌관은 폐백을 들어 헌폐 하고 폐백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 受幣篚 興 奠于神位前

대축은 폐백상자를 받고 일어나 신위 전에 올리시오.

*初獻官 俯伏興 平身 執笏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 文簡公鄭先生 神位前跪 搢笏

찬인은 문간공 정선생 신위 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香 奉香盒 獻官之右 跪 奉爐 奉香爐 獻官之左 跪

봉함은 향함을 받들고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초헌관 좌측에 무릎을 꿇으시오.

*初獻官 三上香

초헌관은 세 번 향을 사르시오.

*大祝 初獻官之右跪 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고 앉아 폐백상자를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 執幣獻幣以幣 授大祝

초헌관은 폐백을 들어 헌폐하고 폐백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 受幣篚 興 奠于神位前

대축은 폐백상자를 받고 일어나 신위 전에 올리시오.

*初獻官 俯伏興 平身 執笏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 初獻官 忠正公洪先生 神位前跪 搢笏

찬인은 충정공 홍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香 奉香盒 獻官之右跪 奉爐 奉香爐 獻官之左跪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초헌관 좌측에 무릎을 꿇으시오.

*初獻官 三上香

초헌관은 세 번 향을 사르시오.

*大祝 初獻官之右跪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고 앉아 폐백상자를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 執幣獻幣以幣 授大祝

초헌관은 폐백을 들어 헌폐하고 폐백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 受幣篚興 奠于神位前

대축은 폐백상자를 받고 일어나 신위 전에 올리시오.

*初獻官 俯伏興 平身 執笏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흉을 잡으시오.

*引詣初獻官忠貞公尹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증정공 윤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호를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香 奉香盒 獻官之右跪 奉爐 奉香爐 獻官之左跪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으시오.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초헌관 좌측에 무릎을 꿇으시오.

*初獻官 三上香

초헌관은 세 번 향을 사르시오.

*大祝 初獻官之右跪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고 앉아 폐백상자를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 執幣獻幣以幣 授大祝

초헌관은 폐백을 들어 헌폐하고 폐백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 授幣篚興 奠于神位前

대축은 폐백상자를 받고 일어나 신위 전에 올리시오.

*初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初獻官 忠烈公吳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충렬공 오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香 奉香盒獻官之右跪 奉爐 奉香爐獻官之左跪

봉향은 향함을 받들어 초헌관우측에 무릎 꿇으시오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초헌관 좌측에 무릎 꿇으시오.

* 初獻官 上三香

초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大祝 初獻官之右跪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초헌관 우측에 무릎 꿇고 앉아 폐백상자를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 執幣獻幣以幣 授大祝

초헌관은 폐백을 들어 헌폐하고 폐백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 受幣篚興 奠于神位前

대축은 폐백상자를 받고 일어나 신위전에 올리시오.

*初獻官 執笏 俯伏興平身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贊儀 引初獻官 降復位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오.

****行 初獻禮****

초헌례를 행합니다.

***贊儀 引初獻官詣 樽所監爵**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준소로 나가 잔을 살피시오.

***司樽 斟酒五爵**

사준은 술을 다섯 잔 따라 놓으시오.

***引詣 初獻官 文正公金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문정공 김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以爵授初獻官 初獻官 執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初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 初獻官 文簡公鄭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문간공 정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授 奠爵**

봉작은 술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初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 初獻官 忠正公洪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중정공 홍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初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初獻官 忠貞公尹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중정공 윤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 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初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初獻官 忠烈公吳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충렬공 오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初獻官 初獻官受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初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초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贊儀 引初獻官詣 文正公金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문정공 김선생 신위전에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무릎을 꿇은 후 홀을 꿇으시오.

*獻官 及 諸執事 參祀員 皆 俯伏

헌관 및 참사원은 모두 복복하시오.

*大祝 初獻官之左東向跪 讀祝 (祝畢後)

대축은 초헌관 좌측에 동향하여 무릎 꿇고 독축하시오.

*獻官 及 諸執事 參祀員 興 平身

헌관 및 참사원 모두 평신하시오.

*贊儀 引初獻官 初獻官 執笏 降復位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홀을 잡고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시오.

** 行 亞獻禮 **

아헌례를 행합니다.

贊儀引亞獻官 詣盥洗位搢笏 盥水 悅手執笏 引詣樽所監爵

찬인은 관세위로 아헌관을 인도하시오. 아헌관은 홀을 꿇고 손을 씻은 후,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가 술잔을 살피시오

*司樽斟酒五爵

사준은 술을 다섯 잔 따르시오

*引詣 亞獻官 文正公金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문정공 김선생 신위전에 아헌관을 인도하고, 아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아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亞獻官俯伏興平身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아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亞獻官 文簡公鄭先生神位前跪 搢笏

찬인은 문간공 정선생 신위전에 아헌관을 인도하고, 아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아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亞獻官俯伏興平身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아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亞獻官 忠正公洪先生神位前跪 搢笏

찬인은 충정공 홍선생 신위전에 아헌관을 인도하고, 아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아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亞獻官俯伏興平身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아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亞獻官 忠貞公尹先生神位前跪 搢笏

찬인은 충정공 윤선생 신위전에 아헌관을 인도하고, 아헌관은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아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亞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아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亞獻官 忠烈公吳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충렬공 오선생 신위전에 아헌관을 인도하고, 아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亞獻官 亞獻官受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아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亞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아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贊儀 引亞獻官 執笏 降復位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고, 아헌관은 홀을 잡고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시오.

** 行 終獻禮 **

종헌례를 행합니다.

贊儀引終獻官 詣盥洗位搢笏 盥水 悅手執笏 引詣樽所監爵

찬인은 관세위로 종헌관을 인도하시오. 종헌관은 홀을 꿇고 손을 씻은 후,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가 술잔을 살피시오

*司樽斟酒五爵

사준은 술을 다섯 잔 따르시오

*引詣 終獻官 文正公金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문정공 김선생 신위전에 종헌관을 인도하고, 종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
시오

*奉爵以爵授終獻官 終獻官 執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종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終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종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 終獻官 文簡公鄭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문간공 정선생 신위전에 종헌관을 인도하고, 종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
시오

*奉爵 以爵授終獻官 終獻官 執爵獻爵授 奠爵

봉작은 술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종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終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종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 終獻官 忠正公洪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충정공 홍선생 신위전에 종헌관을 인도하고, 종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
시오.

*奉爵 以爵授終獻官 終獻官 執爵獻爵授 奠爵

봉작은 술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종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終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종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終獻官 忠貞公尹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종정공 윤선생 신위전에 종헌관을 인도하고, 종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終獻官 終獻官執爵獻爵 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종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終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종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引詣終獻官 忠烈公吳先生神位前 跪 搢笏**

찬인은 종렬공 오선생 신위전에 종헌관을 인도하고, 종헌관은 홀을 꿇고 무릎을 꿇으시오.

***奉爵 以爵授終獻官 終獻官受爵獻爵授奠爵**

봉작은 술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종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 受爵奠于神位前 終獻官 俯伏興平身 執笏**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종헌관은 부복 후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贊儀 引終獻官 執笏 降復位**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고, 종헌관은 홀을 잡고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시오.

**** 行 飲福禮 ****

음복하는 예를 행합니다.

***贊儀 引初獻官升詣 飲福位西向跪 搢笏**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음복위로 올라가 서향하여 홀을 꿇고 무릎을 꿇

으시오.

*大祝 就第一爵 獻官之左 北向跪 授 初獻官

대축은 첫잔을 가지고 서쪽 문으로 나와 초헌관 좌측에 무릎 꿇고 앉아 초헌관에게 술잔을 주시오.

*初獻官 執爵 飲訖

초헌관은 잔을 받아 마시시오.

*大祝受虛爵置於樽所

大祝은 빈잔을 받아 존소에 두시오.

*大祝就俎肉 獻官之左 跪 授初獻官 初獻官受俎以授大祝

대축은 조육을 서문으로 가지고 나와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은 적을 받아 飲禮 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受俎置於樽所

대축은 조육을 받아서 존소에 두시오.

*初獻官 興平身 執笏 贊儀 引初獻官 降復位

초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서시오.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시오.

*獻官 以下參祀員 再拜 跪拜 興拜 興平身

헌관이하 참사원은 모두 재배하시오.

*大祝 入撤饗豆 小移於故處

대축은 변과 두를 거두어 조금씩 자리를 옮겨 놓으시오.

** 行 望燎禮 **

축과 폐를 사르는 예를 행합니다.

*贊儀 引初獻官 詣望燎位北向立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망료위로 나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大祝 以幣篚就祝板及幣 降自西階置於坎

대축은 광주리에다 축판과 폐백을 담아가지고 서문으로 나와 구덩이에 놓으시오.

*初獻官 可燎置土半坎

초헌관은 축문을 불사르고 흙으로 반쯤 묻으시오.

*贊儀 引初獻官 降復位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고, 초헌관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執事者闔壇 消燭

집사자는 신위의 덮개를 덮고, 촛불을 끄시오.

*謁者 進初獻官之前 告禮畢

알자는 초헌관 좌측에 나가 재례를 마쳤음을 고하시오.

*贊儀 引獻官以下參祀員出

찬인은 헌관과 참사원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執禮大祝及諸執事俱復拜位 皆再拜 跪 拜興 拜興 平身

집례 대축 및 제 집사는 절하는 장소에서 재배하고 나가시오.

*執禮及大祝 諸執事 皆出

以上 享祀禮畢

* 顯節祠 先生案

예로부터 傳해오는 顯節祠 先生案이 紛失 되었으므로 前 都有司 林炳龍선생께서 追跡調査한 都有司 先生案임.

具 命 會	鄭 夏 益
姜 泰 演	具 直 書 1970
李 凡 錫	俞 亨 穆 1975
孫 基 鎬	俞 吉 穆 1980
申 寶 鉉	安 秉 善 1990
尹 廷 燮	李 慶 馥 2001
俞 晟 穆	孫 洛 鉉 2003
李 希 鍾	林 炳 龍 2004
李 長 圭	韓 洛 教 2008
李 範 龍	
尹 仁 鎬	

顯節祠 歷代 有司名簿 紛失로 인하여 詳考가 不可能하며 第一代 有司名單은 다음과 같다.

都有司 韓 洛 教 清州人

有司 具 鍾 書 綾城人 有司 朴 光 雲 密陽人

有司 俞 建 穆 杞溪人 有司 李 湍 雨 慶州人

有司 李 揆 錫 全州人 監事 朴 元 杰 密陽人

有司 李 鍾 祿 慶州人 監事 安 慶 煥 廣州人

追後 女性有司를 選任한 바 다음과 같다.

有司 林 花 子 平澤人 有司 朴 香 淑 密陽人

有司 鄭 用 錫 東萊人

顯節祠의 2015年(乙未) 현재 都有司와 有司 名單은 다음과 같다.

都有司 韓洛教 清州人

有司 朴光雲 密陽人 有司 李湍雨 慶州人

有司 金興植 安東人 有司 兪炳權 杞溪人

有司 許賢茂 陽川人 有司 安在弘 廣州人

有司 朴光敏 密陽人 有司 全鍾德 沃川人

有司 林花子 平澤人 有司 朴香淑 密陽人

監事 兪炳祐 杞溪人 監事 張東教 仁同人

總務有司 李湍雨

丙子胡亂과 三學士의 節義



丙子胡亂과 三學士의 節義

1. 朝鮮과 明의 關係

1392년 高麗가 무너지고 李成桂가 王位에 올라 開國한 우리나라의 國號는 ‘朝鮮’이라 하고 明 皇帝로부터 誥命을 받았다. 朝鮮의 建國理念은 그 첫째 항목이 事大交鄰主義였다. 明에 대하여는 宗主國이라는 名分을 세워주면서, 使臣의 往來를 통하여 經濟的, 文化的 實利를 취하고, 아울러 새로 탄생한 王朝의 國際的 地位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政策은 高麗末 李成桂가 위화도 回軍 당시 거론했던 小國이 大國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다는 回軍理由의 延長線上에 들어 있다.

高麗末 崔瑩이 추진했던 遼東征伐^{요동정벌}은 당시 元과 明의 交替時期여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遼東半島를 收復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高麗의 軍事力으로 요동반도를 정벌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요동정벌의 總司令官으로 임명된 장수가 李成桂였다. 위화도까지 도달했던 李成桂는 進軍을 멈추고, 遼東征伐은 불가능하다고 禡王^{우왕}에게 回軍을 청하였다.

그러나 平壤에 와있던 禡王과 崔瑩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回軍을 결정하고 開城에서 崔瑩의 군대를 몰아냈다. 崔瑩은 李成桂에게 잡혀 流配되었다가 죽음을 당하였고, 禡王도 江華島로 유배되었다. 이를 계기로 李成桂는 政治的, 軍事的 권력을 한손에 쥐고 朝鮮創業

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권력을 잡고 朝鮮을 세운 李成桂에게 事大交鄰主義는 빼놓을 수 없는 建國理念이 되었다.

이때부터 朝鮮은 明을 大明, 皇明, 天朝, 皇朝 등으로 불렀고, 朝鮮은 小國, 小中華, 小邦, 藩邦이라고 自稱하였으며, 따라서 明과 朝鮮은 君臣 또는 父子와 같은 關係로 이어졌다. 明은 朝鮮에 대해 尊重과 友好政策을 실시하며 禮義로 대하였고, 朝鮮은 明을 崇尚하여 事大의 禮로 섬겼다. 崇儒排佛^{송유배불}을 原則으로 삼아 性理學을 바탕으로 教育政策을 펴나갔고, 性理學的 理念을 現實政治에 俱現해 나갔다. 思想과 政治理念을 儒道와 性理學 중심으로 삼았으므로, 性理學은 朝鮮 建國 후에 政治, 社會, 教育, 文化, 外交 전반을 지배하는 基本 政治理念이 되었다.

朝鮮初에 統治手段으로 制定한 法典『經國大典』은 明에서 제정한 『大明律直解』를 토대로 하여 儒敎原理와 性理學의 理論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다. 集賢殿, 弘文館, 成均館과 같은 學問研究機關을 세워 性理學을 深度 있게 研究하여, 國策의 基本으로 삼는 일에 充實하였고, 高麗時代의 科學制度를 계승하여 全國에서 우수한 人才를 등용하는데 힘썼다.

明은 朝鮮의 內政에는 關여하지 않았다. 다만 宗主國으로서의 位相만을 지키고 있으면서 朝貢도 3년에 한 번씩만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朝鮮朝廷은 使臣을 자주 明에 파견하는 것이 先進文物을 도입하는 효과도 있어서 正朝使, 奏請使^{주정사}, 冬至使, 陳慰使^{진위사}, 進賀使^{진하사} 등의 名目으로 1년에 3~4차례 使臣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때마다 朝貢을 마련하여 보내게 되었고, 使臣團의 규모 또한 많을 때는 500 명이 되기도 하였다. 明나라에서는 仁祖 때까지 24회의 使臣을 파견하였는데 그때마다 明 皇帝가 친히 詩를 지어 使臣使에 많은 선물과 함께 보냈으며, 朝鮮朝廷의 迎接行事는 대단한 규모였다. 六曹의 判書 중에서 遠接使^{원접사}를 따로 임명하여 접대 하도록 했다. 이처럼 朝鮮과 明은 서로 善隣關係^{선린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1592년(宣祖 25) 倭寇^{왜구}가 朝鮮을 침입하여 壬辰倭亂^{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다. 朝鮮은 그동안 倭寇들의 작은 침범은 있었으나, 이처럼 대규모의 軍事力으로 침입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줄지에 國亂^{국란}을 당하게 된 것이다.

倭軍은 순식간에 首都 漢陽을 점령하고, 平壤까지 進擊하였고, 宣祖는 굳게 믿었던 申砮^{신립}의 軍隊가 忠州 彈琴臺^{탄금대}에서 패퇴하고, 申砮는 自決하였다는 보고를 접하자, 都城을 버리고 義州로 播遷^{파천}하기에 이르렀다.

당황한 朝鮮朝廷은 明 神宗에게 救援兵 派遣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朝鮮의 이 같은 요청을 明 神宗은 흔쾌히 받아들여 李如松을 都督^{도독}으로 삼아 4萬의 軍隊를 派兵, 倭軍에게 빼앗긴 平壤城을 탈환하여 戰勢를 뒤집게 하였다. 破竹之勢로 朝鮮 땅을 유린하던 倭軍을 朝鮮 各地에서 義兵이 倡義하여 朝·明 聯合軍과 함께 물리쳤다.

丁酉再亂 때에도 倭軍의 마지 막 공세를 朝·明 聯合軍과 義兵의

決死抗爭으로 倭軍을 이 땅에서 모두 擊退하고 戰爭은 7년 만에 끝이 났다. 倭亂^{왜란}은 끝났으나, 朝鮮과 明, 그리고 日本은 實로 莫大한 被害를 입었다. 특히 싸움터였던 朝鮮은 全國土가 황폐화되었고, 民生은 塗炭에 빠지고 말았다. 經濟的 破綻과 아울러 社會秩序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戰亂에 따른 人命의 損傷은 말할 것도 없고, 文化財의 損失도 상당하였다. 全國 각처에서 도둑이 만연 하였다. 明은 그 많은 피해를 입고 撤軍하면서 朝鮮에 대하여 아무런 報償도 要求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朝鮮朝廷은 明에 대한 恩惠를 더욱 깊이 認識하게 되었고, 明에 대한 再造之恩의 事大思想이 더욱 굳혀지는 반면, 倭人에 대한 再 認識과 敵愾心이 더욱 높아 졌다. 壬辰倭亂으로 朝鮮과 明은 더욱 宗主關係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朝鮮과 明은 開國初期부터 원만한 外交關係가 樹立되어 平和的으로 유지 되어왔고, 朝鮮은 明의 先進文物을 도입하여 儒敎國家로서 性理學을 심도 있게 研究 하는 學者들이 朝鮮朝 대대로 이어져 옴으로써 ‘小中華’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明의 政治理念과 中華思想을 信奉하여 왔던 것이다.

2. 女眞族의 後金과 丁卯胡亂

壬辰倭亂의 피해는 明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中國 땅 各地에서 武裝勢力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 政局은 혼 혼해 졌고, 나라의 財政도 不足하여 邊方을 다스리는데 소홀하게 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滿洲의 女眞族으로 邊方 將帥 龍虎將軍 누르하치[努爾哈赤]가 明에 忠誠을 다 하다가, 分裂되었던 女眞族을 統合하고 새로운 王朝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壬辰倭亂 이후 明의 견제가 느슨해지자, 滿洲 一帶를 武力으로 정벌하고 軍事力을 더욱 키워 ‘後金’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를 宣布하였다.

1614년(光海君 6)에는 明에서 누르하치에 대한 토벌 계획을 세우고 은밀히 朝鮮에 援兵을 요청했지만, 朝鮮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1616년 누르하치가 遼東地方을 침입하자, 明과 後金, 그리고 朝鮮 3국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光海君은 明의 援兵要請에 대하여 姜弘立을 都元帥로 하여 1만의 군사를 派兵하게 되었다. 이때 편성된 朝鮮軍은 이듬해 2월 압록강을 건너 明의 軍隊와 合勢하여 瀋河^{삼하}에서 後金軍과 戰鬪가 벌어져 部分的으로 勝利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後金軍의 기세를 막기에는 力不足이어서 크게 패하였고, 姜弘立은 휘하 장병을 이끌고 後金軍에게 投降하였다.

光海君은 姜弘立에게 後金에 대한 공격이 不利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 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하였던 것이다. 朝・明 聯合軍이 瀋河^{삼하}전투에서 패배 하자 後金軍에게 投降^{투항}하고, 姜弘立은 누르하치에게 壬辰倭亂 때에 朝鮮을 구원해준 明의 出兵要求에 부득이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르하치는 그러한 狀況을 인정하고 朝鮮에 대하여 親和的인 立場을 보임으로써 光海君 때에는 後金과의 戰爭을 피할 수가 있었다.

1618년 光海君의 暴政^{폭정}과 北人政權의 仁穆大妃의 廢黜^{폐출}, 그리

고 異腹^{이복} 동생인 永昌大君을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기화로 李貴, 金瑬^{김류}, 崔鳴吉^{최명길}, 金自點^{김자점}, 李适^{이괄} 등 西人들에 의한 仁祖反正이 일어났다. 1623년 光海君을 몰아내고 綾陽君^{능양군}(仁祖) 李倬^{이종}을 王으로 옹립하여 反正을 도모해 西人政權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反正의 理由 중에 悖倫^{배륜}을 저지른 것 외에 壬辰倭亂 때 우리나라를 구해준 明의 義理를 배반하고, 오랑캐인 滿洲의 女真族^{여진족}이 세운 後金과 去來하는 것은 萬古에 있을 수 없는 秕政^{비정}이라고 하였다. 당시 儒教를 政治理念으로 삼았던 朝鮮의 선비들로서 悖倫^{배륜}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對明義理를 배반하고 오랑캐인 後金과 관계를 유지 한다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仁祖가 王位에 오른 후 朝鮮의 外交政策은 바뀌었다.

反正의 구실이 오랑캐와 交涉하지 않고, 오직 明나라만을 唯一한 宗主國으로 인정하며, 壬辰倭亂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對明義理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즉 崇明事大와 後金에 대한 排斥論을 핵심으로 삼는 仁祖의 政策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朝鮮王室의 변화가 後金の 제1차 侵入인 丁卯胡亂의 배경이 되었다.

즉 이러한 仁祖의 對外政策은 後金으로 하여금 朝鮮을 敵對視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1624년(仁祖 2)에는 反正에 가담하였던 功臣들의 論功行賞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크게 불만을 품은 李适^{이괄} 일당이 난을 일으켰다. 이들 일당은 都城을 침공하여 점령하였고, 仁祖는 都城을 버리고 公州로 避亂^{피란}하는 朝鮮朝 初有의 事件이 발생한 것이다. 李适은 都城으로 진격하여 興安君 璉^세를 王位

에 앞섰다. 그러나 다음날 都元帥 張晩^{장만}이 이끄는 官軍이 都城으로 入城하여 李适의 軍隊와 치열한 전투 끝에 擊退^{격퇴}하였다. 李适은 간신히 水溝門을 빠져나와 잔여 部下들을 이끌고 利川 방면으로 퇴각하면서 廣州府에 들어 府尹 林檎를 慶安驛에서 죽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하들을 이끌고 利川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廣州 昆池岩 墨坊里^{묵방리}에서 手下들에 의하여 韓明璉^{한명련} 등 그의 副將들과 함께 慘殺 당하면서 李适이 일으켰던 난은 끝이 났다. 李适의 난은 對內的으로 都城의 함락과 임금이 公州로 播遷^{파천}한 사실로 인하여 民心을 크게 동요 시켰으며, 功臣勢力 內部的 갈등 또한 깊어지게 하였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韓明璉의 아들 韓濶^{한운} 등이 後金으로 도망가서 그들로 하여금 朝鮮의 不實한 國防力을 틈타 침범하도록 그들을 자극한 것은 물론, 丁卯胡亂의 名分을 제공하기도 했다. 李适의 난을 평정하는데 막대한 國力이 소모되었는데, 軍事力의 減退는 물론이고 朝廷의 財政은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西人政權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李适의 난을 평정한지 불과 2년 후인 1627년(仁祖 5) 1월, 後金은 朝鮮의 內政이 혼란에 빠지고, 反正으로 즉위한 仁祖에게서 민심이 이탈하는 것을 간파하였다. 後金은 이 기회에 그들의 最終目標인 明을 몰아내고 中原을 차지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인 朝鮮을 制壓하기로 한 것이다. 후금의 누루하치는 阿敏^{아민}으로 하여금 3만의 大軍을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義州城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점령하였다. 義州를 점령한 後金軍 중의 일부는 柯島에 있는 明의 毛

文龍軍을 공격 하고, 主力部隊는 義州를 지나 破竹之勢로 南下하여 安州城을 공격하였다.

한편 朝廷에서 後金軍의 침입소식을 접한 것은 나흘이 지난 1월 17일 이었다. 仁祖는 張晩^{장만}을 都元帥로 하고 三南地方에서 勤王兵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臨津江을 最後의 방어선으로 하되, 黃海道가 함락되면 江華島로 피난하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1월 21일에 平安兵使 南以興이 指揮하던 安州城을 함락시킨 後金軍은 1월 24일 平壤에 無血入城하였다. 그 당시 평양에는 8,000명의 兵力이 있었지만, 敵軍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도망쳤으며 平安監司 尹煥^{윤환}도 함께 도망하였다.

黃州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전해진 1월 24일, 朝廷에서는 ‘分朝’를 단행하여 都城을 버리고 仁祖는 江華로 播遷^{파천}의 길에 올라 29일 江華島에 도착하였으며, 昭顯世子^{소현세자}는 全州로 피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朝鮮朝廷이 三南地方의 徵兵도 원활하지 못했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後金과의 講和하는 길밖에 없었다. 後金도 長期的으로 朝鮮에 그들의 군대를 長期間 머무를 생각이 없어 講和를 요청하여 왔다. 後金은 講和를 제의하는 書信에서 일곱 가지의 침략 이유를 대며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後金에게 압록강이남 변경 지역 땅을 割地 할 것.

둘째, 明의 將帥 毛文龍을 잡아 보낼 것.

셋째, 明나라 討伐에 朝鮮軍士 1만 명을 지원할 것.

後金은 2월 9일 後金軍의 副將 劉海와 後金에 항복해 있던 朝鮮 將帥 姜弘立을 통해 書信을 전달하고 和親의 뜻이 있음을 전했다.

한편, 朝鮮 大臣들은 이 書信을 받고 講和의 條件을 놓고 甲論乙駁하면서 主和論과 斥和論이 대립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後金軍을 상대할 餘力이 없음을 實感한 大臣들은 主和論者의 주장에 따라 그들과 和議交渉을 하기에 이르렀다. 兵曹判書 李廷龜, 吏曹判書 張維로 하여금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朝鮮이 和議 條件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앞으로 後金軍이 平山을 넘지 않을 것.

둘째 盟約 후 後金軍은 즉시 철군할 것.

셋째 後金軍은 撤兵후에 압록강을 넘어서지 않을 것.

넷째 兩國은 兄弟之國으로 대할 것.

다섯째 朝鮮은 後金과 盟約을 맺되 明에 敵對하지 않는 것을 認定할 것.

朝鮮朝廷은 和戰 兩論이 분분했으나, 한 달 동안 和議條件을 놓고 실랑이하던 끝에 두 나라가 兄弟之國이 되며, 朝鮮은 後金에 敵對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에 合意하였다. 결국 그해 3월 3일에 講和가 성립되어 兄弟之國의 盟約을 하게 되었으며 儀式을 행하여 이를 公式의으로 확인하였다.

1627년(仁祖 5) 3월 3일 『朝鮮王朝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江華 行在所에서 後金과의 盟約儀式 行事內容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밤 上이 大廳에 나가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는 禮를 몸소 행하였다. 大臣과 勳臣은 동쪽 계단 위에 서고 胡差²⁰⁾ 등은 서쪽 계단 위에 섰으며, 承旨 3명, 史官, 여러 長官들은 殿上에서 시위하였다. 都承旨 洪瑞鳳홍서봉은 上을 引導하여 나오고 장예충은 劉海유해 등을 데리고 들어왔다. 상이 翼善冠익선관, 黑袍흑포, 烏帶오대 차림으로 탁자 앞에 섰다. 都承旨가 上에게 향을 피우라고 고하자, 上이 쉼을 피웠다. 左部承旨 李明漢이 맹세문을 읽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朝鮮 國王은 지금 丁卯年 某月 某日에 金國과 더불어 盟約을 한다. 우리 두 나라가 이미 和親을 결정하였으니, 이후로는 서로 맹약을 준수하여 각각 자기 나라를 지키도록 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金國을 적대시하여 和親을 위배하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한다면 하늘이 災殃을 내릴 것이며, 만약 金國이 불량한 마음을 품고 화친을 위배하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한다면 역시 하늘이 殃禍앙화를 내릴 것이니, 두 나라 君臣은 각각 信義를 지켜 함께 태평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天地山川의 신명은 이 맹약을 살피 들으소서.”하였다. 다 읽고 나서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서 불 태웠다. 예를 마치고 상은 환궁하고 劉海는 나갔다. 대신 吳允謙오윤겸 · 金瑬김류 · 李貴 · 李廷龜 · 申景禎 · 申景裕 · 許完 · 黃履中 등이 劉海와 함께 誓壇서단에 이르렀다. 胡人들이 소와 말을 잡아 血骨을 그릇에 담았다. 李行遠이 맹세문을 낭독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朝鮮國의 三國老와 六尚書 아무개 등은 지금 大金國의 8大臣인 南木

20) 胡差= 後金의 使臣을 卑下하여 이른 말.

太·大兒漢·何世免·孤山太·托不害·且二革·康都里·薄二計 등과 함께 白馬와 黑牛를 잡아서 盟約을 한다. 지금 이후로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할 것이니, 만약 金國을 敵對視하여 조금이라도 不善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와 같이 피와 골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 金國 大臣이 不善한 마음을 갖는다면 역시 피와 골이 나와 하늘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다. 두 나라의 大臣들은 각각 公道를 행하여 조금도 속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기꺼이 이 술을 마시고 즐겁게 이 고기를 먹을지니, 하늘이 보호하여 많은 福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南木太 등도 맹세하기를,

“朝鮮國王은 지금 大金國 二王子와 盟約을 한다. 두 나라가 이미 아름다운 和親을 맺었으니, 이후로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야 한다. 만약 朝鮮이 金國을 敵對視하여 兵馬를 정비하거나 城堡를 새로 세워 不善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이 殃禍양화를 내릴 것이며 二王子도 만일 不良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이 災殃을 내릴 것이다. 만약 兩國의 두 왕이 마음을 같이 하고 덕을 같이 하여 公道로써 처신한다면 하늘의 보호를 받아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하였다. 맹세하는 절차를 마치자, 劉海는 돌아갈 것을 고하였다.²¹⁾

21) 『仁祖實錄』의 原文이다. 是夜, 上出大廳, 親行焚香, 告天禮. 大臣, 勳臣立於東階上, 胡差等, 立西階上, 承旨三員, 史官, 諸將官, 侍衛於殿上. 都承旨洪瑞鳳, 導上出, 張禮忠引入劉海等 上以翼善冠, 黑袍, 烏帶, 立於卓子前, 都承旨告上香, 上炷香, 左副承旨李明漢, 讀誓文曰: 朝鮮國王, 以今丁卯年某月日, 與金國立誓. 我兩國已講定和好, 今後各遵約誓, 各守封疆, 毋爭競細故, 非理徵求. 若我國, 與金國計仇,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亦皇天降災; 若金國仍起不良之心,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亦皇天降禍. 兩國君臣, 各守信心, 共享太平. 皇天, 后土, 嶽瀆神祇, 監聽此誓. 讀訖, 焚之於西階卓子上. 禮訖, 上還宮, 劉海出. 大臣吳允謙, 金瑬, 李貴, 李廷龜, 申景禎, 申景裕, 許完, 黃履中等, 偕劉海至于誓壇. 胡人等宰牛馬, 盛血骨于器. 李行遠讀誓文曰: 朝鮮國三國老, 六尚書某等, 今與大金國八大臣南木太, 大兒漢, 何世免, 孤山太, 托不害, 且二革, 康都里, 薄二計等, 宰白馬, 烏牛, 立誓. 今後同心同意, 若與金國計仇, 存一毫不善之心, 如此血出, 骨暴; 若金國大臣仍起不良之心, 亦血出, 骨白, 現天就死. 二國大臣, 各行公道, 毫無欺罔. 歡飲此酒, 樂食此肉, 皇天保佑, 獲福萬萬. 南木太等亦誓之曰: 朝鮮國王, 今與大金國二王子立誓. 兩國已講和美, 今後同心合意. 若與金國計仇, 整理兵馬, 新建城堡, 存心不善, 皇天降禍; 若二王子仍起不良之心, 亦皇天降禍. 若兩國二王, 同心同德, 公道偕處, 皇天保佑, 獲福萬萬. 誓罷, 劉海仍告歸.

後金軍의 본래 目的은 明을 侵犯하기 위한 장애물인 朝鮮을 견제하고자 함이었으므로 장기간 朝鮮에 주둔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和議가 급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朝鮮의 和親條約은 한마디로 明과 後金 사이에서 中立을 지킬 것이니, 더 이상 朝鮮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後金이 朝鮮의 이 提議를 받아들여 戰爭은 끝나고 後金軍은 撤軍하였다. 이때 朝鮮과 後金이 맺은 條約을 흔히 ‘丁卯約條’ 또는 ‘丁卯和約’이라고 한다. 그러나 朝鮮과 後金사이의 이 條約은 양쪽 모두에게 滿足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朝鮮은 그 동안 野人으로 배척해 오던 女眞族과 兄弟 관계를 맺은 것은 힘에 밀려 敗戰한 입장에서 취한 恥辱的^{치욕적}인 措置였을 뿐만 아니라, 後金에 대해 歲幣^{세폐}를 바쳐야 한다는 經濟的 부담마저 안게 되었고, 後金 역시 비록 朝鮮과의 盟約으로 歲幣를 통해 물자 조달을 약속받았지만, 明의 毛文龍의 세력을 꺾을지 못한 상태에서 朝鮮은 君臣이 모두 排金 경향이 더욱 高潮되어가는 등 여전히 背後에 不安의 씨앗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3. 丁卯胡亂 후 朝鮮의 排金政策

丁卯胡亂이 끝난 후 後金과 兄弟之國의 盟約을 하였으나,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두 나라는 丁卯約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朝

朝鮮朝廷은 後金과 兄弟之國의 盟約을 하고 丁卯胡亂을 당한 것 자체가 크게 불쾌한 것이었다. 비록 後金の 軍事力에 굴복하여 그들의 和議條件을 수락하였지만, 그들과 兄弟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당시 朝鮮의 性理學的 理念을 現實政治에 구현하고 있는 朝廷臣僚들과 士林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親明排金을 적극 주장 하였고, 오랑캐에게 당한 수모를 복수해야 한다고 외쳤다.

당시 士林들의 價値觀은 물론이요, 仁祖反正의 名分중의 하나가 光海君이 明을 배반하고, 오랑캐인 後金을 섬기는 배신자라는 것이었다. 때문에 主和論者들을 매도하기에 충분한 理論과 原則이 있었으므로 主和論者들 보다는 斥和論者들의 주장이 國家基本政策이 되었다. 결국 後金과의 外交관계에서는 충돌이 잦았다. 後金은 朝鮮이 明에 대한 事大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청 하는 소위 國書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 國書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國王은 백성의 어버이인데, 백성으로 하여금 兵禍에 시달리게 하고, 오직 明만을 믿어 우리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우리와 戰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1633년(仁祖 11) 이래로 朝鮮과 後金은 갈등이 深化 되었다. 後金이 요구한 開市貿易은 끊겼고, 朝鮮은 後金の 요구에 事事件件 평계를 대며 거절하였다. 같은 해 4월에 後金軍은 요동 앞 바다 섬에 주둔하고 있던 明將 毛文龍의 예하부대 들이 投降 해 옴으로써 明進擊의 장애세력을 일소하였다.

1635년(仁祖 13) 12월 초에 仁祖妃 仁烈王后의 喪을 당했다. 後金은 弔問使臣으로 馬夫大를 보내면서 國書를 지참시켰다. 그러나 仁祖는 國喪을 핑계로 接見을 피했다. 그들의 國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蒙古의 王과 太后가 王子 및 온 나라 兵士와 백성을 이끌고 歸依하였고, 明 나라 장수 셋이서 바다를 건너 歸附 해왔으며, 東部の 바닷가 나라도 萬餘 兵士와 함께 항복하여, 西北의 天下 절반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여 위력이 더해 날로 융성하니, 바야흐로 慶事를 기뻐하고 祝賀하여 극진히 恭敬해야 할 것이오”

이때부터 朝鮮朝廷에서는 斥和나 和議나를 놓고 論爭이 시작되었다. 朝鮮이 宗主로 삼고 있는 明과 同等하게 淸을 宗主國으로 삼는다는 것은 天下에 있을 수 없다는 斥和論者들은 淸과 和議를 맺어 兵亂을 피하기보다 차라리 싸우다 滅亡하는 것이 낫다는 主張을 했다. 즉 後金에 대하여 事大의 禮를 행하는 것은 儒敎의 名分論을 根本에서부터 否定하는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당시 朝鮮朝廷의 確固한 信念은 崇明排金政策이었다. 斥和臣들은 淸의 침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仁祖에게 防備策을 上疏 하였으나, 仁祖는 斥和를 基本政策으로 確定 했으면서도 主和派의 의견이 나오면 그들 意見을 묵살하지 못하고 右往左往 하였다.

鄭蘊은 압록강 연안의 防備를 튼튼히 하고, 江華에 주둔하고 있는 兵力을 西北방면으로 移動시켜 防禦陣地를 구축하고, 임금이 직접

開城에 進駐하여 軍民을 독려하여 防備策을 강구하라고 仁祖에게 上疏를 올렸다. 그러나 仁祖는 備邊司와 相議하여 施行 하겠다고 하였고, 備邊司는 이를 反對하였다.

朝廷에서는 現實的으로 敵의 침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놓고 두 가지 主張이 對立되었다. 하나는 敵의 浸透路^{침투}로 예상되는 平安道와 黃海道의 주요 要塞인 義州, 安州, 平壤, 黃州, 平山을 중심으로 防禦線^{방어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江華島와 南漢山城을 최후의 抵抗線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처음에는 後者의 方案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나중에 平安道, 黃海道 地方의 主要山城을 防禦線으로 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져 山城들을 修築하고 兵力을 집중 배치하였다.

결국 淸과 朝鮮의 가장 중요한 爭點은 흥타이시(청태종)가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王位에 오른 후 淸과 朝鮮의 關係가 君主와 臣下의 上下관계로 正立돼야한다는 淸의 요구와 이에 대한 朝鮮의 強力한 反撥이 正面衝突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情勢는 淸과 明 사이의 戰爭이 主軸이고, 朝鮮은 副次的 要因에 불과했다. 그런데 鴨綠江 주변 遼東地方이 戰爭舞臺가 되면서 朝鮮이 급속하게 휩쓸리게 된 것이다. 明은 지금 內政이 虛弱할대로 허약해져 있지만 遼東都督 毛文龍의 끈질긴 抵抗으로 요동에서 淸과의 對峙線^{대치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淸에게는 遼東征伐이 急先務로 떠올랐고, 이 時點에서 朝鮮이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淸은 이미 전부터 戰線이 중국 전체로 확장되고 軍費부담이 늘어나자, 수차례에 걸쳐 朝鮮에게 支援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丁卯胡亂 때의 和議條約을 깨는 것 일뿐 아니라, 仁祖 反正 이후의 國內情勢에서 外交路線이 對淸 強硬策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 要求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런 兩國間의 緊張狀況이 遼東征伐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淸은 이제 強盛해진 軍事力을 배경으로 태도를 한층 강화 시켜 지난 高麗 때 蒙古가 그랬듯이 朝鮮에게 全面的인 事大를 요구해왔다. 遼東을 정벌하고 明 本土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불안 요소인 朝鮮을 완전히 制壓해두어야 했다. 한편 明의 형편은 各地에서 叛亂이 일어나고, 나라가 점점 쇠퇴하여 갔고, 後金의 軍事力은 날로 강해 저서 明과의 遼東地方 戰鬥에서 毛文龍의 예하부대 將帥가 3만의 군사와 함께 後金에 투항해옴으로써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1635년(仁祖 13)에는 홍타이시(皇太極)(청태종)가 滿洲 全域과 內蒙古를 석권하고 明의 北京을 공격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朝鮮에 대하여는 兩國關係를 兄弟之國에서 君臣之義로 고칠 것과 黃金·白金 1만량, 戰馬 3,000필 등 歲幣와 精兵 3만을 요구하였다.

4. 丙子胡亂의 발발과 南漢山城

1636년(인조 14) 2월 16일 淸은 龍骨大(英俄爾岱)²²⁾ 馬夫大(馬福塔)를 대표로하는 대규모 使節團을 朝鮮에 보냈다. 使節團 규모는 最近에 歸順한 內蒙古 대장 77명과 從胡 98명을 데리고 왔다. 使節

22) 朝鮮에서는 龍骨大라고 칭하였으나 청나라 기록에는 英俄爾岱, 馬夫大를 馬福塔이라고 하였다.

團은 後金의 여러 諸侯와 蒙古 王子들의 書信을 전했는데, 書信에는 後金이라는 國號를 ‘大清’이라 改稱하고, 淸太宗에게 ‘寬溫仁聖皇帝’의 尊號를 올리는 일에 朝鮮 國王이 찬동해 줄 것과 兄弟의 禮 대신에 君臣의 禮를 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朝廷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上疏가 빗발쳤고, 連日 會議를 거듭한 끝에 決死抗戰하여 나라가 滅亡하더라도 오랑캐에게 또다시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結論을 내렸다. 仁祖는 後金 使臣의 接見마저 거절하고, 같은 해 3월 초하루에 8道에 宣戰論文을 내려, 後金과 決戰할 의사를 굳혔다. 그 論文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丁卯胡亂을 당하여 부득이 오랑캐와 丁卯和約을 했던 바, 오랑캐의 慾求가 한이 없어서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우리나라에 전에 없던 치욕이다. 그러니 치욕을 참고, 痛恨을 견디면서 장차 한번 기운차게 일어나 이 치욕을 씻기를 생각함이 어찌 끝이 있는가.

지금 오랑캐는 방자하게 세력을 뻗치고, 감히 皇帝라 칭하기를 떠들면서 서로 의논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편지를 보내왔다. 이 어찌 우리나라의 임금과 신하로서 차마 들어 줄 수 있겠는가. 이에 強弱과 存亡의 形勢를 헤아리지 않고, 오직 올바른 義로 決斷을 내려 그 書信을 뿌리치고 받지 않았다.

胡差 등이 여러 날 요청을 거듭했으나 끝끝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내고 돌아가게 되었다.

서울 장안의 男女들은 戰爭의 慘禍참화가 눈앞에 박두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오랑캐를 뿌리치고 거절한 일을 통패히 여기고 있다. 만약 八道
의 백성들이 朝廷에서 내린 이 公明正大한 措置와 긴급하고 절박한 시
기가 닥쳐왔음을 알게 되면, 소문만 듣고도 격동하고 분발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원수를 갚으러 나설 것이니,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身分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忠義로운 선비는 각기 있는
策略을 다 하고, 용감한 사람은 從軍을 자원하여 다 함께 어려운 난국을
구제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러나 朝鮮朝廷은 公論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主和論과 斥和論
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主和論者들은 “政治는 現實이므로 後金
과의 관계를 正常化하고, 明과는 종전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소위 等
距離外交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性理學的 理念을 現實政治에 具現하려는 당시의 朝廷臣
僚들과 士林들은 崇明排金만을 主張하였고, 오히려 오랑캐인 後金
에게 丁卯年에 당한 수모를 복수해야 한다고 외쳤다. 당시의 士林들
로서는 主和論者들을 매도하기에 충분한 理論과 原則이 있었으므로
자연히 主和論者들 보다는 斥和論者의 주장이 優勢하였다. 즉 政策
적으로 朝鮮朝廷의 確固한 信念은 斥和 主戰論이었던 것이다. 청
태종은 王子대신 斥和論者들을 잡아 보내고, 謝罪하지 않으면 朝鮮
을 攻擊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朝鮮朝廷은 이를 묵살하고, 義
州府尹 林慶業을 비롯하여 압록강의 要衝地와 平安道の 白馬山城
등을 굳게 지키라고 命令하였다. 그러나 仁祖의 이와 같은 命令은
말로서 그치게 되었고, 實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明나
라 監軍 孫茂가 1636년 10월 24일 仁祖에게 보낸 回帖이 있는데, 朝

鮮이 國境의 守備가 너무나 엉망이니, 속히 敵의 侵入에 對備하라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았다.

'당초 安州에 배를 띄워 속히 섬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했던 것은 奏達 주달하기 편리함 때문이었는데, 바람과 潮水에 막혀 3일 동안에 겨우 30리 밖에 갈 수 없어서 부득이 언덕으로 올라서 陸地로 행하여 이를 밤낮을 포복하여 초 2일에 섬에 당도하였소이다. 沿道の 비좁고 험악함은 伏兵을 埋伏하고 奇計를 배플 만하며, 더구나 두어 갈래의 긴 江과 天然의 要塞地는 하늘이 賢王에게 保障을 주신 것이요. 이런 시기를 틈타 將帥를 선발하고, 兵卒을 훈련시켜 30리마다 亭障²³⁾과 敦臺²⁴⁾를 하나씩 세우고, 兵士를 뽑아서 나누어 지키며, 火藥과 銃砲, 투구, 갑옷, 器械를 단단하고 날카롭게 製造하면 奴賊노적이 감히 동쪽을 향하여 東征을 엿보지 못할 것이요. 대체로 經學을 研究하는 것은 장차 利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政事를 말저도 통달하지 못하면 詩 300 편을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나는 貴國의 學士 士大夫가 誦讀²⁵⁾송독하는 것이 무슨 冊이며, 經濟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理解할 수가 없었소. 뜻도 모르고 응얼거리고 衣冠이나 갖추고 榮華를 누리고 있으니, 國都를 건설하고 郡縣을 구획하며, 軍隊를 강하게 만들고 稅金을 정리하는 것을 王의 臣下 중 누가 처리할 수 있겠소. 임금은 있으나 臣下가 없으니, 몹시 탄식 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왕에게 知遇지우를 받았으므로 변변치 못한 見解를 대략 進達하오니, 王은 살피소서.

23) 亭鄣: 邊防 要塞에 설치하여 人馬의 出入을 檢問하던 곳

이回帖을 보낸 監軍은 압록강 부근의 明나라 장수이므로 淸軍의 動靜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오죽 朝鮮의 國境 守備가 허술하였으면 明 將帥가 그런 말을 仁祖에게 전했겠는가. 그보다 앞서 朝廷의 지혜로운 臣僚들은 맹목적으로 斥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對策으로 여러 가지 計略을 仁祖에게 올렸다. 龍骨大, 馬夫大가 使臣으로 왔을 때 가지고 온 國書를 배척하여 그들이 노하여 돌아갔을 때, 이미 戰爭은 必然이라고 단정하고, 防禦策을 강구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방비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한 朝廷이었다.

청 태종은 드디어 丙子年(1636 仁祖 14) 12월 1일 淸兵 7만8천명, 漢兵 2만 명, 蒙古兵 3만으로 편성된 都合 12만 8,000명의 군사를 瀋陽으로 集結 시켰다. 朝鮮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城안에서 방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大路를 따라 漢陽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通告하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騎兵部隊를 앞세워 침범하였다. 『淸太宗實錄』과 史料를 바탕으로 淸軍의 編成과 戰略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았다.

馬夫大：先鋒部隊로 예하병력 騎兵 6천

左翼軍

豫親王 多鐸：예하병력 騎兵 6천

버일러(貝勒) 岳託：예하병력 騎兵 6천

貝子 尼堪 : 예하병력 騎兵 6천

中軍

禮親王 代善 : 예하병력 騎兵 6천

群王 滿朱習禮 : 예하병력 騎兵 6천

群王 布塔齊 : 예하병력 騎兵 6천

都統 譚泰 : 예하병력 騎兵 6천

土謝圖親王 巴達禮 : 예하병력 蒙古兵으로 騎兵, 步兵 混成 3만

貝勒 杜度 : 예하병력 騎兵 6천

恭順王 孔有德 : 예하병력 漢族兵 步兵, 騎兵 混成 1만

右翼軍

睿親王 多爾袞 : 예하병력 騎兵 6천

버일러 호거(太宗長男) : 예하병력 騎兵 6천

懷順王 耿仲明 : 예하병력 漢族兵 步兵, 騎兵 混成 1만

朝鮮의 防禦策을 꿰뚫어 보고 作戰을 세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部隊를 편성하여 공격하여 왔다. 즉 左翼軍 3만은 예친왕(豫親王) 도도(多鐸)의 총 지휘 하에 先鋒部隊의 뒤를 따라 首都圈으로 들어가, 漢陽을 우회하여 朝鮮國王의 南方退路를 차단하고, 中軍 5만은 청 태종과 함께 左翼軍을 따라 진격하면서, 義州 安州 平壤 黃州 등 各城을 공략한 다음 漢陽으로 들어갔다.

蒙古兵 3만은 中軍이 점령한 朝鮮 西北地方의 各陣에 500~1,000명 단위의 兵力을 駐屯시키면서 南下했다. 右翼軍 2만2,000명은 도르곤(多爾袞)의 총지휘하에 中軍이 점령한 길을 따라 임진강을 건

너 江華島로 진격했다.

12월2일 맨 먼저 출발한 馬夫大가 이끄는 騎兵 6천이 先頭에 서고, 左翼軍과 右翼軍 전부가 뒤따라 출발했다.

12월 3일 청 태종은 中軍을 이끌고 심양을 출발하여 義州로 향했다.

12월 8일, 가장 먼저 출발한 馬夫大의 기병 6,000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馬夫大의 騎兵은 朝鮮 땅에 들어서자 지나는 길에 있는 山城이나 城邑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질풍같이 漢陽으로 直進했다. 有史 이래 보기 드문 속도의 進軍이었다.

12월 12일에야 朝鮮朝廷은 義州府尹 林慶業의 狀啓로 淸軍의 침입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다. 장계에는, “9일 압록강 건너편에 賊兵이 가득 차더니, 이날 저녁에 길을 나누어 강을 건너서 속도를 갑절로 하여 급히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12월 13일에는 都元帥 金自點이 장계를 보내와 淸軍이 安州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고, 날이 저물 무렵 金自點의 장계가 또 도착하여 淸軍이 平壤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날 朝鮮朝廷은 江華島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4일 開城留守의 장계로 淸軍이 開城을 통과한 것을 알게 되자, 급히 漢城判尹 金慶徵(領議政 金瑬의 아들)을 都檢察使로, 李敏求를 副檢察使로 임명하고, 江華留守 張紳을 舟師大將을 겸임하게 하여 江華島를 지키게 하였다. 한편 喪中에 있던 沈器遠을 서울을 지

킬 留都大將에 任命했으나 그에게는 수하 병력이 600에 불과했다.

世子嬪과 元孫, 鳳林大君, 麟坪大君은 江華島로 피신했다. 오후에 仁祖는 昭顯世子와 더불어 都城을 빠져나와 江華島로 출발했다. 그러나 淸軍의 선봉부대가 陽川에서 길을 차단하는 바람에 南大門으로 돌아왔다. 이때 崔鳴吉이 自請하여 淸軍진영을 찾아가 馬夫大와의 會談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仁祖는 世子와 百官을 이끌고 수구문을 빠져나와 얼어붙은 信川과 松坡 나루를 건너 한밤중에 南漢山城에 들어갔다. 이때 仁祖를 호위하던 軍士는 中途에 달아나 겨우 5~6명만이 山城에 따라 들어갔으며, 昭顯世子^{소현세자}를 수행하던 軍士들도 모두 도주하여 世子가 손수 말채찍을 잡고 말을 몰아 南漢山城으로 들어가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12월 15일 새벽 仁祖는 南漢山城을 나와 江華島로 避身하려 했다. 그러나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다 큰 눈이 내린 후 길이 얼어붙어 仁祖가 탄 말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仁祖가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으나 수없이 자빠지고 엎어져서 발을 다쳐 城內로 다시 들어왔다.

성안에 있는 군사는 1만2,000여 명이었고, 文武官과 散官이 200여 명, 下吏가 100여 명이었다. 王을 따라 入城한 御營廳^{어영청}, 摠戎廳^{총용청}, 訓練都監 軍을 모두 합하여 1만3,800명의 군사를 확보했다. 이 兵力으로 備邊司에서는 다음과 같이 指揮部를 편성하였다.

都體察使	金 瑬
協守使	兪伯曾
東門守備軍 大將	申景禎
中軍	李榮達

西門守備軍 大將 李時白

中軍 李 植

南門守備軍 大將 具 宏

中軍 具仁厚

北門守備軍 大將 李 曙

中軍 元斗杓

戰爭이 발발하였을 때에는 王이 總指揮官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 데, 용렬한 君主인 仁祖는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하는 생각으로 江華島로 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적에게 길목을 차단당했기 때문에 光熙門을 빠져나와 밤중에 南漢山城으로 避身하였다. 그와는 對照的으로 淸은 王과 王의 兄弟와 자식들이 指揮官으로 出征하였는데, 朝鮮은 王과 王子가 피신하느라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이다.

5. 『二十五史-淸史稿』 丙子胡亂時 淸軍 戰役 記事

청나라의 역사기록인 『淸史稿』에 실린 그들의 丙子胡亂 戰役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월 辛未日 초하루에, 변방 蒙古의 여러 왕 貝勒^{배록}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盛京[심양]에서 만났다. 鄭親王 濟爾哈朗[지르하란]이 머물러 지키고, 武英郡王 阿濟格은 牛莊 근처에 주둔하여 邊境의 침입에 대비했으며, 饒餘貝勒^{요어배록} 阿巴泰는 喝海城^{갈해성}에 주둔하

여 변방 백성을 모아
적을 방어했다.

壬申日에 皇帝는 禮
親王 代善 등을 거느
리고 朝鮮 征伐을 했
는데, 大軍이 沙河堡
에 이르러 睿親王 多
爾袞[도르곤]과 貝勒
豪格이 군대를 나누어
寬甸^{관훈}으로부터 장산
구로 들어갔다.

癸酉日에 馬福塔[마
부대] 등을 보내니, 군
사 삼백 명을 거느리
고 장사치로 꾸며 몰
래 朝鮮의 國都(서울)
로 가서 둘러싸고, 多
鐸과 貝子 碩託, 泥勘^{니감}이 군사 천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으며, 郡
王 滿朱習禮와 布가 馬福塔과 만났다.

己卯日에 貝勒 岳託(누르하치 손자)과 揚古利가 군사 3천으로써 多鐸
軍을 도왔다. 황제의 大軍은 鎮江²⁴⁾ 30리에 營寨^{영채}를 세우고, 安平

24) 平安北道 寧邊郡 古城里의 서쪽 泰川郡과의 경계로 흐르는 개울.



『清史稿』의 丙子胡亂 記錄

貝勒 杜度와 恭順王 孔有德으로 하여금 뒤에서 二重으로 大軍을 호위하게 하였다.

庚辰日에 鎭江을 건너 義州에 이르렀다.

壬午日에 皇帝는 郭山城에 이르렀다. 朝鮮軍이 定州에서 郭山城을 도우러 왔으나 淸軍에게 패하자 그 장수는 스스로 목을 찢어 자결했고, 郭山城은 항복했다.

癸未日에 定州에 이르렀다. 定州 또한 항복하였다.

乙酉日에 安州에 이르러 朝鮮을 지키려는 신하들에게 글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己丑日에 多鐸 등이 進軍하여 朝鮮의 國都를 포위했다. 朝鮮國王 李倧은 南漢山城으로 달아났다. 다탁 등이 다시 포위했다. 아울러 각 도에서 온 朝鮮 救援兵도 敗退했다. 辛卯日에 瓦爾喀葉辰과 麻(馬)福塔이 朝鮮에 머물러 있다가 황제의 대군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군사들과 돌아왔다.

丁酉日에 황제의 대군이 臨津江에 이르렀으나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녹아 건너지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며 날씨가 추워져 얼음이 얼어 대군이 모두 건넜다. 己亥日에 都統 譚泰에게 명하여 조선의 國都를 살살이 뒤흔들게 하였는데 머물러 있던 몽고군과 함께 었다. 皇帝의 大軍이 南漢城을 포위했다.

이 해에 土默特部の 古祿格楚虎爾, 鄂爾多斯部の 額林臣濟農과 台吉의 土巴 등이 함께 朝貢해 왔다.

2년 봄 正月 壬寅日에 朝鮮의 全羅道 總兵이 朝鮮國王을 救援하

러 왔는데 岳託이 쳐서 敗走시켰다(廣州 雙嶺전투). 英俄爾岱[용골대]와 馬福塔에게 勅諭칙유를 가지고 조선의 閣臣들에게 보내 그 前後의 敗盟에 대한 罪를 꾸짖었다. 甲辰日에 皇帝의 大軍이 漢江을 건너 江邊[松坡]에 營寨를 설치했다.

丁未日에 朝鮮의 全羅道와 忠淸道 군사들이 合勢하여 國王을 구원하러 왔는데, 多鐸이 쳐서 敗走시켰다. 淸將 揚古利는 창에 찔려 죽었다(險川전투).

庚戌日에 多爾袞[도르곤]과 豪格이 거느린 군대가 長山을 넘어 連戰連勝하여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합류했고, 杜度 등도 砲車를 운반하여 이르렀다. 朝鮮의 軍勢는 갈수록 위축되어 李倧(인조)은 여러 차례 글을 보내 和親을 구걸했다. 황제는 나와서 항복할 것을 허락했다. 이종은 글을 올려 稱臣하면서도 겁을 내며 감히 성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壬戌日에 多爾袞[도르곤]의 군대가 江華島에 들어가 조선국왕 李倧의 처자를 잡아서 황제의 軍陣 앞으로 데려왔다. 황제는 다시 李倧에게 勅諭하여 말했다. “네가 오면 王室과 食率이 온전할 것이고 사직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짐은 食言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기다릴 수 없다.” 이종은 강화도의 妻子가 淸軍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南漢山城이 위급해지자 마침내 請成[和親을 청함]해 왔다.

庚午日에 朝鮮國王 李倧은 그 아들 王(왕)과 群臣을 거느리고 朝服을 입은 채 漢江 동쪽 언덕에 있는 三田渡로 나와서 항복하면서 명나라가 준 勅印을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는 조선국왕을 위로하고 자리를 내려주었으며 그 妻子와 群臣 家屬을 돌려주고 厚하게 恩賜

하였다. 英俄爾岱와 馬福塔에게 명하여 李倬을 그 國都로 돌아가게 護送하고, 그 아들 弋埜(왕)과 溲(호)를 淸陣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았다.

2월 壬申日에 군사를 나누어 貝子 碩託과 孔順王 孔有德 등이 朝鮮의 水軍을 거느리고 明나라 皮島를 취했다. 조선국왕 李倬이 표를 올려 貢物의 量을 감해달라고 청하매, 조서를 내려 丁丑年과 戊寅年 조공을 減免해 주고, 己卯年 가을 九月부터 始算하여 貢物을 바치게 하였다. 甲戌日에 多爾袞[도르곤] 등에게 教諭하여 항복한 백성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자는 該管의 관원과 같은 죄로 다 스리게 했다.

辛卯日에 황제가 盛京에 돌아왔다. 癸巳日에 戶部에 教諭하여 백성들에게 쌀을 풀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3월 甲辰日에 朝鮮의 台(臺)諫官 洪翼漢·校理 尹集·修撰 吳達濟를 죽였는데 敗盟의 죄를 물은 것이다. 丁未日에 武英郡王 阿濟格이 군사를 거느리고 皮島의 攻勢를 도왔다. 戊午日에 蓋州城 工役을 끝냈다.

(韓國語文敎育研究會 朴光敏 研究委員 譯)

『淸史稿』原文

十二月辛未朔, 外藩蒙古諸王貝勒率兵會於盛京. 鄭親王濟爾哈朗留守, 武英郡王阿濟格駐牛莊備邊, 饒餘貝勒阿巴泰駐噶海城收集邊民防敵.

壬申上率禮親王代善等征朝鮮, 大軍次沙河堡, 睿親王多爾袞, 貝勒豪格分兵自寬甸入長山口, 癸酉遣馬福塔等率兵三百爲商賈裝, 潛

往圍朝鮮國都，多鐸及貝子碩託，尼堪以兵千人繼之，郡王滿朱習禮，布塔齊引兵來會。己卯貝勒岳託，公揚古利以兵三千助多鐸軍，上率大軍距鎮江三十里爲營。

令安平貝勒杜度，恭順王孔有德等護輜重居後。庚辰渡鎮江至義州，壬午上至郭山城。其定州遊擊來援，度不敵，自刎死。郭山降。癸未至定州，定州亦降。乙酉至安州，以書諭朝鮮守臣勸降。己丑多鐸等進圍朝鮮國都，朝鮮國王李倧遁南漢山城，多鐸等復圍之，並敗其諸道援兵。辛卯瓦爾喀葉辰麻福塔居朝鮮，聞大軍至，以其衆來歸。

丁酉上至臨津江，會天暖冰泮，不可渡，忽驟雨冰結，大軍畢渡。己亥命都統譚泰等搜剿朝鮮國都，留蒙古兵與俱。上以大軍合圍南漢城。

己亥，命都統譚泰等搜剿朝鮮國都，留蒙古兵與俱。上以大軍合圍南漢城。

是歲，土默特部古祿格楚虎爾，鄂爾多斯部額林臣濟農、台吉土巴等俱來朝。

二年春正月壬寅，朝鮮全羅道總兵來援，岳託擊走之。遣英俄爾岱馬福塔齎敕諭朝鮮閣臣，數其前後敗盟之罪。甲辰，大軍渡漢江，營於江澚。丁未，朝鮮全羅忠清二道合兵來援，多鐸揚古利擊走之，揚古利被創卒。庚戌，多爾袞豪格軍克長山，連戰皆捷，以兵來會，杜度等運砲車亦至。朝鮮勢益蹙，李倧以書數乞和。上許其出降。倧上書稱臣，逡巡不敢出。壬戌，多爾袞軍入江華島，得倧妻子，護至軍前。復諭倧曰，來則室家可完，社稷可保，朕不食言，否則不能久待。倧聞江華島陷，妻子被俘，南漢城旦夕且下，乃請降。庚午，朝鮮國王李倧率其子㮮垕及群臣朝服出降於漢江東岸三田渡，獻明所給敕印。上慰

諭賜坐，還其妻子及群臣家屬，仍厚賜之。命英俄爾岱馬福塔送倭返其國都，留其子？豈誤為質。

二月壬申，班師。貝子碩託，恭順王孔有德等率朝鮮舟師取明皮島。朝鮮國王李倭表請減貢額。詔免丁丑戊寅兩年貢物，自己卯秋季始，仍貢如額。甲戌諭多爾袞等禁掠降民，違者該管官同罪。辛卯上還盛京。癸巳諭戶部平糴勸農。

三月甲辰，殺朝鮮台諫官洪翼漢校理尹集修撰吳達濟，以敗盟故。丁未武英郡王阿濟格率師助攻皮島。戊午，罷蓋州城工。

『清史稿』관련 追錄

丙子胡亂에 대한 『清史稿』 기록은 『朝鮮王朝實錄』 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清史稿』에 “2년 봄 正月 壬寅日에 朝鮮의 全羅道 總兵이 朝鮮國王을 救援하러 왔는데 岳託이 쳐서 敗走시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壬寅日(1636년 음력 1월 3일)은 全羅道 군사가 아니라 慶尙左道 兵馬節度使 許完 장군 휘하 군사와 慶尙右道 兵馬節度使 閔楮 장군 휘하의 군사, 公清道[忠清道] 兵馬節度使 李義培 장군 휘하의 군사, 慶尙左道 安東營將 宣世綱 장군 휘하의 군사 등 勤王軍이 廣州 雙嶺里 가마소[鼎沼] 인근에서 1千餘騎의 淸나라 騎兵과 전투를 벌이다가 敗戰하여 많은 군사들이 戰歿당한 전투다.

『清史稿』에, “丁未日에 朝鮮의 全羅道와 忠清道 군사들이 合勢하여 國王을 救援하러 왔는데, 多鐸이 쳐서 敗走시켰다. 淸將 揚古利는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였는데 淸將 揚古利는 險川 전투에서 죽었다. 『朝鮮王朝實錄』 仁祖 15년(丁丑年-1637) 음력 1월 5일(乙巳), “전라 병사 金俊

龍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들어와 光教山[水原]에 주둔하며 전투에 이기고 前進하는 상황을 馳啓[치계-급히 아뢰]하였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 이는 淸나라 史官이 慶尙道 군사와 公淸道 군사, 全羅道 군사 등 각 地域에서 蜂起한 朝鮮軍의 움직임과 地名, 전투 날짜 등을 混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朝鮮王朝實錄』 仁祖 16년(戊寅年-1638) 음력 1월 15일자[己卯日] 鄭太和의 馳啓에, "……本道の 險川·雙嶺·江都에서 전사한 자들이 도합 2천6백여 명이니 恤典[조정에서 罹災民(이재민)을 救恤하는 것]을 꼭 갈게 시행하는 것이 온당합니다.……"라고 하였다. 險川 戰鬪는 金俊龍 장군의 朝鮮軍이 승리했고, 江華島에는 군사도 많지 않아 전투다운 전투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咸鏡 전투와 강화도 전투의 戰死者는 몇 백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雙嶺戰鬪 戰死者를 2천 명以上으로 推算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朴光敏)

南漢山城은 地形이 험준하여 敵의 공격을 막는 데에는 有利한 條件들을 갖추고 있는 반면, 平野地帶와 떨어져 있어서 孤立되어 포위되면 外部와 연락이 곤란하다는 短點이 있었다. 丙子胡亂 당시에는 酷寒期혹한기로 兵士들이 입을 衣服마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軍糧도 50일을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八道の 兵馬節度使에게 勤王兵을 인솔하여 속히 山城을 포위하고 있는 淸軍陣營을 뚫고 救援하라고 諭示를 내렸으므로 勤王兵이 당도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山城을 지키고 있었다. 淸軍은 장비가 월등하고 防寒服을 제대로 갖춘 騎馬兵이 대부분인 상태였다.

12월 15일 馬夫大는 仁祖가 南漢山城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휘하의 군사 중에서 江華島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2,000명을 제외하고, 4,000기의 騎兵을 이끌고 漢江을 건너 三田渡에 다다랐다. 南漢山城 西門 앞에서 4개로 部隊를 分散 配置하였다. 이 先鋒部隊는 먼 길을 달려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으므로, 그 물결이 마치 귀신과 같아보였다고 『丙子錄』에서 전하고 있다. 兵力은 4,000에 불과했고, 지친 상태였으므로 이때 城을 나가 기습공격을 했으면 그들 선봉부대를 물리칠 可能性이 많았으나, 朝鮮의 將帥들과 軍卒들은 모두 겁에 질려나가 싸울 생각을 안했다.

仁祖는 처음 山城에 들어가 朝廷臣僚들을 모아놓고, 이곳에서 決死抗戰할 것을 결심하였고, 各門의 전쟁준비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尹集, 鄭雷卿 등 젊은 斥和臣들을 督戰御使^{독전어사}로 임명하여 수시로 臨戰態勢를 督察독찰하게 하였다. 12월 19일에 淸의 左翼軍 2만 4,000명이 모두 당도하자, 이들은 南漢山城의 동쪽과 남쪽에 분산 배치되어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12월 15일부터 淸軍은 騎兵 100餘騎를 西門에 접근시켜 形勢를 정탐하였고, 朝鮮軍은 12월 18일에 元斗杓가 이끄는 50여 명이 北門을 통해 나가 淸軍을 공격하여 6명을 射殺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몇 차례 出城攻擊을 감행하여 敵 수십 명을 죽였다. 이같이 몇 차례 탐색전이 있었으나, 兩軍이 正面對決한 것은 아니었다. 淸軍은 견제공격을 통해 出城 및 外部와의 연락을 방해하고, 本隊가 포위망을 완전히 굳히는 동안 지연작전을 폈다. 그러나 朝鮮軍은 淸軍의 情勢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出城攻擊이나

御駕^{어가}의 移動을 도모할 수 없었다. 12월 22일 淸軍의 大攻勢가 있었다. 淸軍은 아침나절부터 5,000여 병력을 동원하여 各門에 1,000여 명씩 배치하고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火砲를 동시에 사격하여 돌격부대를 엄호하고, 雲梯^{운제}(사다리)와 당차 등 攻城器具를 동원하여 城을 공격하였다. 이에 맞서 朝鮮軍도 火砲 사격을 가하고 화살과 돌을 날려 淸軍을 공격하였으며, 正午 무렵 淸軍은 成果 없이 후퇴하였다. 이튿날에도 청군은 1만여 명을 동원하여 공세를 폈다. 아침 일찍부터 淸軍이 城壁에 접근하자, 朝鮮軍은 전날과 달리 淸軍이 공격진영을 갖추기 전에 兵力을 내보내어 先制攻擊을 가하였다. 出城한 朝鮮軍과 淸軍은 城 아래에서 白兵戰을 벌였고, 다시 城壁을 두고 兩側의 軍隊는 正午까지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의 전투에서 朝鮮軍은 80여명이 戰死하고 淸軍 200여명을 射殺하였다.

12월 29일 漢陽에 入城한 청 태종이 4만여 兵力을 이끌고 南漢山城 부근으로 進軍하여 淸軍의 軍勢가 더욱 강해졌다. 淸軍의 포위망이 강화되는 반면, 南漢山城 안의 朝鮮軍은 外部의 支援을 전혀 받지 못하여 점차 軍糧이 부족해져갔다. 各道에서 출발하여 南漢山城으로 향하던 勤王軍들은 이듬해 1월 초에 廣州의 雙嶺에서 慶尙道 左·右 兵使 許完과 閔祿의 수만의 군대가 淸軍의 騎兵들과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 두 兵使와 竹州山城에 주둔하였던 수천의 李義培 忠淸道 兵使의 支援軍도 패퇴하고, 세 兵使가 모두 戰死하였다. 水原의 光教山 전투에서는 全羅 兵使 金俊龍의 部隊가 처음에는 많은 戰果를 거두어 淸軍에게 큰 타격을 주고 승리하였으나, 종래는 패퇴하였다. 淸軍에게 많은 타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山城의 포위망을 격

과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1637년(仁祖 15) 1월 11일에 그때까지 별다른 공세를 취하지 않던 淸軍은 兵力을 再配置하여 南漢山城에 대한 外部의 支援을 보다 확고히 차단하였다. 아울러 西門과 北門 앞에 兵力을 집중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오랫동안 고립된 朝鮮側의 降伏을 촉구하는 행동이었다.

1월 24일 兩軍은 하루 종일 砲擊戰을 전개하였다. 새벽에 淸軍은 東門 밖 尾羅洞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를 黔伏里 一帶로 이동시켜 南漢山城 東門 一帶에 대해 砲擊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淸軍의 砲擊으로 東門 門樓 일각과 성벽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朝鮮軍 역시 天子砲를 이용하여 淸軍 砲臺를 공격하였고, 朝鮮軍의 對應砲擊을 견디지 못한 淸軍은 兵力을 철수시켰다. 저녁이 되자 淸軍은 다시 東門 밖에 진출하여 紅夷砲 7~8문을 거치하여 砲擊을 가하였다. 紅夷砲는 射距離가 길고 破壞力이 강하여 東門과 南門 일대의 성벽 여러 곳이 파손되었고 城內의 司倉과 行宮까지 피해를 입었다. 朝鮮軍도 이에 대응하여 火砲 공격을 개시하였다. 특히 淸軍 砲臺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淸軍의 火藥더미에 명중탄을 작렬시키자 淸軍은 수십 명의 死傷者를 내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南漢山城 戰鬪는 防禦戰에는 유리한 地形을 가지고 있으나, 外部의 支援을 받지 못하여 孤立된 처지에서 內外에서 연계작전을 펼 수 없었고, 食糧不足과 戰意喪失로 말미암아 끝까지 城을 지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淸軍은 接近戰이나 砲擊戰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攻擊을 한동안 멈추고 있었다.

그러나 1월 26일에 淸軍은 자신들이 江華島를 점령하고, 그곳에 피난한 妃嬪과 王子, 宗室, 臣僚의 家族 등을 포로로 잡아 南漢山城 밑으로 護送하여 왔다고 朝鮮 측에 알리고 仁祖의 出城降伏을 촉구하였다. 出城降伏 여부를 두고 성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淸軍은 포위망을 강화하고 攻城器具를 배치한 채 28일까지 여전히 포격만을 가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사태가 악화되어 가자 결국 朝鮮朝廷은 최후까지 抗戰하려던 방침을 포기하고, 國王의 出城降伏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淸軍 진영에 通告하였다.

1월 30일 仁祖는 南漢山城에서 내려와 三田渡에 마련된 受降壇에서 청 태종에게 굴욕적인 降禮를 치르고 항복하였다. 이로써 45일간에 걸친 南漢山城의 戰鬪는 종식되었다.

6. 三學士의 北行과 節義

三學士는 斥和를 積極 主張하다가 淸軍에게 押送되어 瀋陽에서 殉節한 洪翼漢·尹集·吳達濟 등 세 臣僚를 말한다. 이들은 丙子胡亂 당시 모두 言官職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畿湖學派로 西人에 속해 있었다는 것도 같다. 洪翼漢은 李廷龜^{이정구}의 弟子로 黨色은 西人이었고, 尹集은 代表的인 斥和臣이었던 金尙憲의 조카사위로 역시 西人 黨色이었다. 吳達濟는 李珥와 成渾의 양 門下에서 修學한 伯父 吳允謙에게서 배웠으니, 역시 畿湖學派이며 西人이었다. 세 사람 모두 20세 前後에 司馬試에 합격한 生員 출신으로 性理學的

理念을 어려서부터 공부하여 仁·義·禮·智와 名分論, 大義로 體質化 된 學者들이었다. 1623년 仁祖反正 후에 官職生活을 시작하여 淸要職을 두루 거쳤는데, 1634년부터 丙子胡亂이 발발하기 前後에 洪翼漢은 司憲府 掌令, 尹集은 弘文館 校理, 吳達濟는 弘文館修撰 등 言官職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知識人社會의 輿論인 士論을 代辨하였던 것이다.

丙子胡亂은 淸이 朝鮮에게 兄弟의 義理에서 君臣의 義理를 強要함으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自然히 斥和論이 비등하게 되었고, 丁卯胡亂 때의 恥辱_{지욕}을 복수하여야 한다는 主戰論이 士林社會의 公同된 公論이었다. 洪翼漢은 士論을 대신하여 斥和를 積極 主張하는 上疏를 올렸다. 淸의 使臣을 목 벨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稱帝의 僭濫_{참람}함을 지적하였고 朝鮮은 禮義로 天下에 알려진 ‘小中華’인데 北方의 오랑캐가 兄弟의 義理도 모자라 君臣의 義理를 強要하니 마땅히 책임을 추궁하고 禮義之大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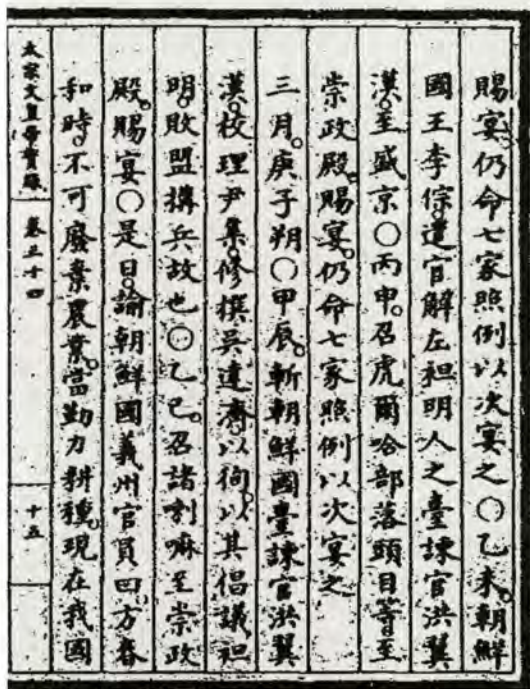
尹集과 吳達濟는 30세 前後의 젊은 엘리트 官僚로 弘文館의 校理와 修撰이었다. 丙子胡亂이 발발하기 전에 廟堂에서 斥和論者와 主和論者가 諫爭할 때에 朝廷의 公論으로 결정된 主戰論을 王을 설득하여 政策修正을 꾀하려는 主和論者의 代表格인 崔鳴吉을 심하게 탄핵하였고, 反正功臣들의 主和論에 흔들리는 仁祖를 論駁_{논박}하기도 하여 결국은 官職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淸軍이 침입하자 主和派에서 洪翼漢을 平壤府의 庶尹으로 부임하도록 하여 亂中에 死地로 보냈고, 尹集과 吳達濟는 罷職된 뒤 집에

있다가 南漢山城으로 仁祖를 扈從^{호종}하여 入城하였던 것이다. 尹集과 吳達濟 두 사람은 山城에서도 최후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仁祖가 淸軍과 講和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먼저 和親을 하자고 하면, 敵은 더욱 경멸하여 和議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니, 오직 한마음으로 싸워 지키겠다는 意志를 보여주어야 講和를 제대로 議論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守城의 意志를 보여주면서 講和條件을 협상 해야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和議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斥和主張은 職務遂行 차원이었으며, 斥和論은 士論이자 國論이었기에 이들은 소신껏 朝廷에서 自己主張을 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三學士는 淸國에 押送되어 끝까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抵抗하다가 悽慘하게 刑殺당하고 말았으니, 1637년(仁祖 15) 4월의 일이다.

丙子胡亂을 당하여 斥和臣들이 斥和(主戰)를 그토록 강력히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淸과 같은 오랑캐에 대하여 文明國을 自處하는 朝鮮이 그들을 宗主國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요, 둘째는 國難을 당하여 臣下들이 國家를 위하여 죽는 것은 마땅한 道理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明에 대한 義理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女眞族에 대한 優越意識과 朝鮮 선비로서의 節義그리고 明에 대한 尊明事大와 國際的 義理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武力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明에 대한 義理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重要的 斥和의 論理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弱小國이라 하더라도 國家의 自尊이 不當하게 侵害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굳게 인식하고 이를 主張하면서 목숨까지



『清太宗實錄』의 三學士殉節 기록

바친 것이다.

청 태종이 和議의 條件으로 내건 첫째 항목은 昭顯世子^{소현세자}, 嬪宮^{빈궁}, 鳳林大君등을 인질로 심양에 데려가고, 斥和의 主唱者 洪翼漢 외에 斥和를 주장한 모든 臣僚들을 押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仁祖는 洪翼漢 외에 斥和臣의 押送만은 안 된다고 國書로 간청하였다. 그러자 청 태종은 洪翼漢 외에 두 사람만 더 잡아 보내라고

하였다. 이때 朝廷의 主和派에서는 洪翼漢 외에 그동안 斥和를 주장한 臣僚들은 모두 自首하라고 하였다. 맨 처음 金尙憲과 鄭蘊이 自首하였고, 尹集과 吳達濟가 仁祖에게 疏를 올려 淸軍 진영에 갈 것을 自請하였다. 廟堂에서는 斥和臣 11명을 보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主和派의 重鎮인 崔鳴吉이 두 사람을 淸軍 陣營에 끌고 가서 청 태종에게 넘겨줌으로써 다른 和約條件과 함께 國王 仁祖는 청 태종 앞에 屈辱의인 降伏을 하고 말았다.

洪翼漢은 平壤에서 押送되어 청 태종 앞에서 朝鮮의 臣僚로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청 태종과 맞서 그의 朝鮮 侵略과 稱帝의 不當함을 지적하고 抗拒하다가 殉節하고 말았다. 尹集과 吳達濟는 淸軍陣營으로 끌려가 瀋陽에서 청 태종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거하여 朝鮮 선비의 氣概를 떨치며 30세 전후의 젊은 나이로 殉節하고 말았다.

7. 丙子胡亂이 끝난 후의 朝鮮

三田渡에 나아가 形言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며 청 태종에게 항복한 仁祖는 목숨을 부지하여 漢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昭顯世子와 鳳林大君은 볼모로 잡혀 淸軍 陣營으로 넘겨져서 그들의 監視下에 淸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斥和臣 洪翼漢은 平壤에서 仁祖의 指示에 의하여 甑山縣令 邊大中以 체포하여 淸軍 진영으로 押送하였고, 尹集과 吳達濟도 淸의 斥和臣 押送 要求에 自請하여 가기를 仁祖에게 상소하매, 主和派 臣僚들에 의해 淸軍陣營으로 압송되었다.

江華島에서는 朝廷의 많은 重臣들이 自決하였고, 士大夫 집안의 夫人들이 수 없이 희생되었다. 淸軍의 노략질에 치를 떨었으며, 仁祖에 대한 國民의 信望은 땅에 떨어졌고, 斥和를 주장하던 臣下들은 스스로 官職에서 물러나 落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江華島를 지키지 못한 金慶徵은 檢察使로서 강화도를 방어할 作戰은 퍼지 않고, 酒色에 빠졌다가 淸軍의 奇襲을 받아, 江華가 함락하게 된 죄를

물어 처음에 江界로 귀양 보냈다가 얼마 후에 賜死하였고, 副使 李敏求는 寧邊에 위리안치 하였고, 張紳도 賜死되었다.

청 태종은 仁祖로 하여금 三田渡의 受降壇에 彩閣^{채각}을 짓고, 石層을 쌓은 후 勝戰을 紀念하고 恩惠를 베푼데 感謝하는 碑를 세우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朝廷은 大提學 李景奭에게 명하여 碑文을 짓게 하고, 參判 吳俊이 글씨를 쓰며, 參判 呂爾徵^{어이징}으로 하여금 篆額^{전액}을 쓰게 하였다. 이 碑가 「三田渡碑」라는 것이다.

丙子胡亂이 끝나자 피폐해진 社會的, 經濟的 問題와 더불어 淸에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男女同胞들의 送還問題가 크나큰 社會問題로 擡頭되었고, 昭顯世子和 鳳林大君(孝宗)의 歸還問題와 아울러 深刻한 理念的 문제가提起되었다.

즉 淸에 事大의 禮를 행하는 것은 儒敎의 名分論을 根本的으로 否定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兩班들의 支配體制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崇禎反淸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것이 孝宗의 北伐論이었다. 이러한 北伐論은 社會的, 經濟的 改革과 軍事力 再建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도 했으나, 根本的으로는 義理名分の 強化를 통해 ‘小中華’로서의 朝鮮의 自尊意識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었으며, 兩班支配體制를 유지하려는 理念的 標榜^{표방}이었다고 생각된다.

崇禎反淸의 具體的 表現은 年號를 사용함에 있어 崇禎이라는 明의 年號를 朝鮮 末期까지 계속 사용하였고, 宋時烈이 『三學士傳』을 지어 三學士를 再評價한 朝鮮後期 社會의 再編過程에서 하나의 象徵性을 가지고 있었다. 文治國家였던 朝鮮이 武力을 崇尚하는 북방 오랑캐에게 패배하고, 極度の 좌절감 속에서 들고 나온 北伐大義는

胡亂時의 殉國烈士들의 行績을 再評價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1704년(肅宗 30)에는 王이 明나라 마지막 皇帝인 毅宗의 종
忌日에 親祭를 행함으로써 公式的으로 朝鮮이 明의 後繼者임을 천
명했으며, 나아가 大報壇을 설치하여 明 皇室에 대한 設壇祭祀를 결
정하기도 했다.

洪翼漢의 行狀과 事蹟



洪翼漢 선생과 淑夫人 陽川許氏, 淑夫人 陵城具氏 合葬墓(京畿道 平澤市 彭城邑 本井里)



洪翼漢 선생 墓前 褒義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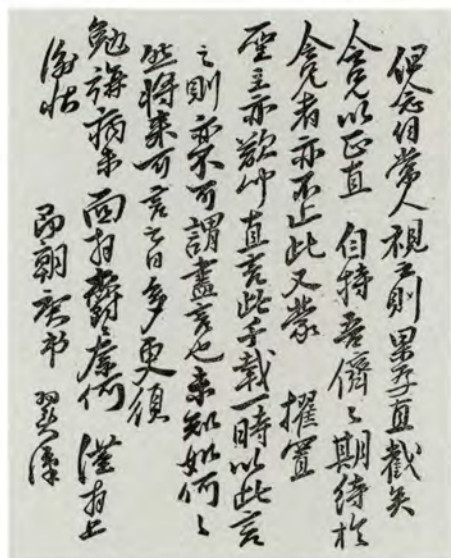
洪翼漢 선생의 事蹟碑 忠烈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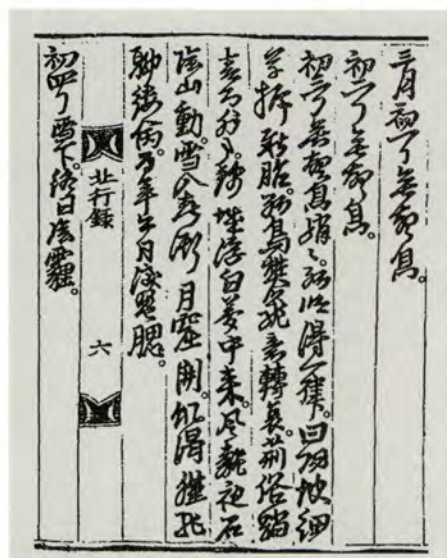
忠正公花浦洪先生墓表 앞면



忠正公花浦洪先生墓表 뒷면



洪翼漢 선생이 同甲의 벗에게 쓴 簡札



洪翼漢 선생 문집 『花浦遺稿』중 『花浦先生北行錄』. 사진은 선생의 마지막 3일간 行錄이다.

洪翼漢의 行狀과 事蹟

洪翼漢은 1586年(宣祖 19)에 태어나 1637(仁祖 15)년 瀋陽 敵地에서 殉節한 朝鮮 中期의 文臣이다. 本貫은 南陽. 初名은 靑승, 字는 伯升, 號는 花浦화포 雲翁운옹이다. 中宗朝에 左贊成을 역임한 淑의 玄孫으로, 進士 以成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金琳의 딸이며,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15세에 伯父인 校尉 大成에게 입양되었다. 그는 두 번 결혼하여 前妻인 具氏사이에서 큰아들 晬元수원과 딸 하나가 있었고, 後妻인 許氏 사이에 아들 晬寅수인과 두 딸이 있었다. 月沙 李廷龜이정구의 문인인데 月沙에게서 수학 할 때 月沙는 그를 평하여 “異日에 반드시 偉人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빼어난 資質을 보였고, 歷史書를 읽을 때마다 節義에 죽은 사람을 欽慕흥모하였다.

1615년(光海君 7) 生員이 되고, 1624년(仁祖 2) 仁祖가 李适의 亂으로 公州에 行幸하였다가 난이 평정되고 나서 행한 庭試文科에 應試하여 壯元及第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39세였다. 司書를 거쳐, 司憲府 監察로 있을 때 仁祖가 反正으로 王位에 올랐다는 이유로 明에서 誥命고명을 보내지 않아 奏請使주청사를 보낼 때 李德洞이덕형의 書狀官이 되어 明에 가서 仁祖에게 誥命과 冕服년복²⁵⁾을 내려 줄 것을 주청하였는데, 일을 주관하는 자가 이를 저지시켜 일이 거의 成就되

25) 면류관과 곤룡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지 못할 뻔하다, 끝내 所請을 달성하고 돌아오게 되어, 이로부터 侍從을 거쳐 高靈縣監^{고령현감}으로 나갔다.

丁卯胡亂 때에는 고령현감으로 있으면서 仁祖가 江華島로 播遷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縣兵을 인솔하고 올라왔으나, 이미 和議가 성립되어 任所로 돌아갔다. 1635년 司憲府 掌書이 되었다.

丁卯胡亂 후에 後金은 계속하여 朝鮮을 자기들의 屬國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朝鮮은 丁卯胡亂의 國恥를 복수하려고 노심초사하였다. 洪翼漢은 言官의 職責에 있으면서 항상 後金과는 國家로서의 상대를 하지 말 것을 奏請하였다. 小中華라고 自讚하고 있던 朝鮮이 北方의 오랑캐와 兄弟之國의 盟約을 한 것 자체가 심한 모욕이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國恥라는 것이었다.

1636년(仁祖 14) 2월에 後金에서는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星太極} [칭태종]가 王位에 올라 자칭 ‘寬溫仁聖皇帝’라 칭하고 國號를 ‘大清’이라고 宣布하였으며, 年號를 崇德이라 하였다. 1636년 3월에는 朝鮮에 대하여 兄弟之國의 盟約을 버리고, 앞으로는 君臣之義로 관계를 改約해야한다고 하면서, 龍骨大를 대표로하여 使臣을 파견하였다. 이때 司諫院에서는 다음과 같이 上疏하였다.

丁卯年에 和親을 허락한 것은 오랑캐를 얻어매어 발악하지 않게 하자는 計策이었으나, 그 후 10년 동안 수치스럽고 욕된 일과, 침해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은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도, 무심하게 세월만 보

낼 뿐, 일찍이 抗戰과 守備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다만 朝貢 바치는 것에
 만 일을 삼아, 국가의 存亡을 저 오랑캐들의 喜怒에 맡기고 있으니, 아
 아 古今 天下에 어찌 國家를 이런 처지에 두고서 장구히 나라가 유지 되
 리라 믿으십니까. 이번에 오랑캐의 差使가 가지고 온 書信은 비록 그 內
 容이 어떤지는 모르오나, 우리 地方官과의 問答한 말로서 미루어 본다
 면 그 悖慢패만함이 極度에 달했고, 저들이 皇帝라고 僭稱참칭하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분개하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가 그
 것을 義理로서 배척할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그
 심정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닥쳐올 難關이 十分 우려되
 는데, 人心은 안정되지 아니하여 朝夕을 보전할 수가 없으며, 上下가 無
 事泰平하여 조금도 격려하는 뜻이 없고,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되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저절로 통곡이 나올 뿐입니다.
 아 뉘우치고 깨달아야 할 기회는 지금인데, 분발하는 舉事를 어찌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오랑캐의 差使가 오거든 준엄한 말로 배척 거절함으
 로써 大義를 밝히시고, 더욱 분발하는 마음을 가다듬어 防備할 方策을
 講究하시옵소서. 그리하면 中外의 人心이 움직일 것이며, 忠義의 선비
 들이 모두 전하를 위하여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결심하지 않
 겠습니까?

또한 弘文館에서는 校理 尹集과 鄭雷卿^{정뇌경}이 다음과 같이 상소
 하였다.

大義로서 오랑캐의 使臣을 책하시고, 嚴峻한 말로 통렬히 배척하여,
 그 방자한 逆心을 꺾는 동시에 西嚱^{서달}은 이즈음 背叛하였고, 明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와 통하지 않고 있으니, 급히 監司에게 명하여 두 差使를
구급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지 못하도록 하소서

朝鮮朝廷은 公論이 斥和였음으로 主和派들의 主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使臣을 接見하지도 말고, 소위 國書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배척하였다. 이때 司憲府 掌令 洪翼漢은
仁祖에게 다음과 같은 上疏를 올렸다.

臣이 들으니, 지금 龍胡(용골대)가 온 것은 바로 오랑캐 汗을 皇帝라
칭하는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臣이 태어난 처음부터 다만 大明의 天子
가 있다고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말이 어찌하여 들린단 말입니까.
丁卯年 초에 賊臣 姜弘立이 도적을 이끌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乘輿(임금
이 탄 가마)가 피난하였습니다. 이에 和親을 애걸하는 일이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꺾이고 무너져서 이와 같은 지
경에 이르렀으니, 통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그 때 먼저
姜弘立의 머리를 효시하여 우선 임금과 臣下의 分義를 밝힌 다음에 交
隣의 도를 강구하고 兄弟의 義를 약속했다면, 오랑캐들이 비록 승냥이
나 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찌 감동하는 마음이 없었
겠습니까. 計巧를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姜弘立을 얻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겨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명령을 들었으니, 저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의 風俗을 오랑캐 화하고 우리 君臣을 신첩으로 삼으려는 것
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디 禮義의 나라로 소문이 나서 天下가 小中華라 일컫
고 있으며, 列聖들이 서로 계승하면서 한마음으로 事大하기를 정성스럽

고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랑캐를 섬기며 편안함을 취해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을 연장해 가고 있으나, 祖宗들에 대해서는 어찌겠으며, 天下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찌겠으며, 後世에 대해서는 어찌겠습니까. 그리고 胡差가 데리고 온 자들 중 반은 새로 부속된 西隣서달이라고 합니다. 서달은 우리나라와 交聘교방의 예가 없는데, 어찌 續接빈접의 도가 있겠습니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國境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廟堂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臣은 모르겠습니다만, 廟堂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배개를 높이 베고 깊이 잠을 자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 몸소 廟堂에 在職하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날짜만 보내고 있으며, 잠시 뒤에 닥칠 禍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웃나라와 越나라 사람들이 서로 보듯 보통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랑캐가 皇帝라 일컫는 것은, 오랑캐가 스스로 황제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廟堂에서 황제라 일컫게 해서 오랑캐가 할 수 없이 皇帝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天子라 일컬고 大位에 오르고 싶으면 스스로 제 나라에서 皇帝가 되고, 제 나라에서 호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누가 그것을 금하기에 반드시 우리나라에게 물어본 뒤에 皇帝의 일을 행하려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盟約을 변경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실마리를 만든 것은, 우리를 호통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에게 信義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장차 天下에 일컫기를 '朝鮮이 우리를 높여 天子로 삼았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殿下께서는 무슨 面目으로 天下에 서

시럽니까. 臣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가 보낸 使臣을 죽이고, 그 國書를 취하여 使臣의 머리를 함에 담아 明나라 朝廷에 奏聞한 다음, 兄弟의 약속을 배신한 것과 참람하게 天子의 號를 일컫는 것을 책하면서 禮儀의 중대함을 분명히 말하고, 이웃 나라의 道理를 상세히 진술한다면, 우리의 說明이 더욱 퍼지고 우리의 形勢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여겨집니다.²⁶⁾ 하니,

仁祖가 답하였다.

"그대의 나라를 위한 精誠을 가상하게 여긴다. 使臣을 斬하라고 進達한 것은 이른 것 같다. 形勢를 보아가며 처리해도 늦지 않다."²⁷⁾

1636년(丙子) 3월 초하룻날 仁祖는 全國에 諭文을 내려 오랑캐의 侵入을 決死抗戰으로 막기 위하여 온 백성이 총 쫓기 할 것을 呼訴하였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로부터 信任을 잃은 朝廷에서 내려 보낸

26) 洪翼漢의 上疏 국역문은 『三學士傳』에 기록되어 있음.

27) 臣聞今者龍胡之來, 卽金汗稱帝事也. 臣墮地之初, 只聞有大明天子耳. 此言奚爲而至哉? 丁卯初, 賊臣弘立, 引寇猝至, 乘輿播越. 乞和之舉, 雖出於不獲已, 而一向摧頹, 以至如此, 可勝痛哉? 苟於其時, 先皇弘立之首, 首明君臣之分然後, 請交隣之道, 約兄弟之義, 則戎狄雖豺狼, 豈無感聳之心, 而計不出此, 唯以得弘立爲幸, 而俯首聽命焉. 彼虜之欲左衽我國俗, 臣妾我君臣者, 實由是耳. 我國素以禮義聞天下, 稱之以小中華, 而列聖相承, 事大一心, 恪且勤矣. 今乃服事胡虜, 偷安僅存, 縱延晷刻, 其於祖宗何, 其於天下何, 其於後世何? 且胡差所帶來, 半是新附西遼云. 西遼之於我, 既無交聘之禮, 奚有償接之道? 拒而不納可也, 而入境有日, 迄無廟堂一言, 臣未知處廟堂者何人, 而高枕熟睡, 尚不覺悟也? 噫! 身居廟堂, 恬嬉度日, 朝夕禍迫, 而猶且晏然不動, 其視君父之受侮, 不翅若吳越人之尋常. 然則虜之稱帝, 非虜之自帝, 廟堂使之帝, 而虜不得不以爲帝也. 苟欲稱天子, 位大位, 唯當自帝其國, 號令其俗, 誰復禁之, 而必欲稟問於我而後, 行帝事哉? 其所以淪盟, 開盟, 囑我, 藉我者明矣, 而亦見其要我立信, 將以稱於天下曰: "朝鮮尊我爲天子." 殿下何面目, 立天下乎 臣愚以爲, 戮其使而取其書, 函其首, 奏聞于皇朝, 責其背兄弟之約, 僭天子之號, 明言禮義之大, 悉陳隣國之道, 則我之說益申, 我之勢益張矣. 懇乞殿下, 奮發自勵, 益振大勇, 亟執虜使之在館者, 列于藁街, 顯加天下之誅. 如以臣言爲謬妄, 而不可用, 請先斬臣頭, 以謝虜人. 答曰: "嘉爾爲國之誠. 所陳斬使事似早, 觀勢處之未晚也." 『仁祖實錄』 1636, 2, 11.

이 諭文은 아무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12월 13일에 오랑캐가 國境을 넘어 侵入하였다는 狀啓가 朝廷에 이르렀다. 이때 平壤 庶尹의 자리가 비어있음으로 崔鳴吉이 體察使 金瑬에게 말하기를, “和議를 배척하여 오랑캐의 侵犯을 초래한 張本人이 바로 洪翼漢이다. 지금 洪翼漢을 平壤 庶尹으로 보내 오랑캐와 對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자 드디어 그에게 平壤府 庶尹을 除授하여 빨리 부임하기를 재촉하였다.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慰問하였으나 조금도 언짢은 氣色이 없었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내 평소의 마음이다.” 라고 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그 다음날 임금에게 謝恩肅拜²⁸⁾하고 출발하려는데, 오랑캐의 騎兵이 벌써 西郊에 도착했다. 급히 江華 自宅으로 가서 母夫人과 食率들을 마니산에 머물게 하고, 교동을 거쳐 서쪽으로 平壤을 향해 달렸다. 당시 홍익한의 자택이 강화에 있었다.

그는 平壤으로 가는 도중의 苦楚를 『上巡相書』에 日記體로 간략히 써 놓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正月初一日 偵探 朴德成이 鳳山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山에는 盜賊이
우글우글하고 노략질하며, 사람과 家畜을 마구 죽이니, 우
리는 더 前進하기가 어렵겠다고 한다.

28) 謝恩肅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손한 마음으로 절하는 것.

正月初二日 아침 일찍 조반을 먹고 망설이는 사이에 몇몇이 鶴峴에서 달려와 급히 하는 말이, 놈들의 軍隊가 닥친다하여 洪一之와 같이 津頭完城으로 갔다. 洪一之의 奴僕이 식량을 구해왔다.

正月初三日 아침에 앉았노라니, 도적 떼가 온다고 下人이 보고하기에 洪一之, 南遠伯과 같이 산속 바위굴에 숨었다.

正月初四日 놈들이 물러났다기에 급히 나와 마을에 내려가 하루 종일 고통스러웠다.

正月初五日 떠나려고 洪一之와 작별하였으나 一之는 내가 놈들에게 잡힐까봐 걱정되어 만류하였다. 靑龍浦의 사공 成應春을 찾아 건너 갈 수 있나 물었더니, 그 역시 힘들다는 것이다.

正月初六日 닭이 울자 길을 떠나 載寧 延津까지 배타고 갔더니, 飢餓이 아와 피곤이 오고, 속에서는 불이 나지만 마을은 없어지고 머무를 곳이 없다.

正月初七日 鼎耳山 쪽으로 배를 불러 哈島 下流까지 가서야 平壤 寶山城에 도착하였다.

洪翼漢은 寶山城에 入城한 후 城內에 후퇴하여 있는 江西 縣令 李大純, 左營將 康元叔, 右營將 鄭順男 등 관원들과 함께 避難民들을 안부하고, 흩어진 兵士들을 모으고 城을 지킬 器物을 수리하여 淸軍의 侵入으로 造成된 不安한 局面을 安定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檄文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檄文의 내용은 이러했다.

일전 오랑캐가 깊이 쳐들어오던 처음에 本府에 官長이 없어서 民衆이 통솔되지 못하여 兵火를 유독 많이 입었는데, 將官이나 牙兵까지도 동

시에 이산되었으니, 이는 실로 公務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形勢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혈혈단신으로 흩어진 백성들은 과연 어느 곳에서 곤욕을 당하는지,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측은한 마음을 어이 다하랴.

지금은 本官이 本府에 부임하였으니, 각기 父母와 妻子를 거느리고 즉시 돌아와 힘써 성곽을 고치고 모이라. 또 元帥府의 軍兵이 도망하여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미 軍律을 범했으면 결코 용서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오직 마음을 고쳐서 스스로 일신할 것을 도모하여, 적의 形勢를 정탐하거나, 적의 뒤를 追擊하거나, 밤을 이용해서 적의 진영을 공격하거나,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로 붙잡아 온다면, 장래의 戰績을 수립할 것을 기약하여 지난날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것이다. 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 각기 힘써 하라.

그러자 人心이 조금 진작되고, 士氣가 분발하여 다투어 서로 돌아와 모였다. 洪翼漢은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 策略을 세워 守備할 武器가 대략 갖추어 졌다. 정월 23일, 敵兵은 약탈하려고 50여 騎兵이 먼저 북쪽 木柵을 침범하자 洪翼漢은 휘하의 精銳射手로 하여금 砲를 쏘고 북을 치면서 出擊하였더니, 적은 퇴각하였다. 이번 勝利의 戰果는 비록 작아도 그 영향이 매우 커서 淸軍의 騎兵들은 감히 城을 점령하지 못하고, 隣近 民家에서 약탈하지 못하게 되어 平壤地域 백성들의 生命과 財産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였다.

청 태종은 마침내 4만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와서 左翼軍과 右翼軍을 합하여 10만여 兵力으로 南漢山城을 완전 고립시키기에 이르렀다. 朝鮮朝廷은 斥和臣들의 決死抗爭 주장을 물리치고 淸과 和親

하여 전쟁을 종결시키기로 최종 결정하고, 正月初2日 洪瑞鳳, 金璫國, 李景稷을 적진에 보내 청 태종의 書信을 받아 왔다.

“大清國 寬溫仁聖皇帝는 朝鮮 國王에게 詔諭조유하노라. …丁卯年の 치욕을 씻는다고 하다가 生民을 도탄에 빠뜨리고, 宮室을 버리며, 山城에 들어가 있으니, 비록 千年을 산다고 무엇이 有益하겠는가. 그리고 하늘이 도우면 匹夫도 天子가 되고, 하늘이 벌을 내리면 天子도 匹夫가 된다는 말 또한 망령되도다. 네가 하늘같이 믿고 있는 明나라 君主가 무엇으로 너를 구할 것인가”

이 書信을 받은 朝廷에서 主和派의 洪瑞鳳, 金璫, 崔鳴吉 등은 속히 答書를 보내야 한다고 主張하였고, 禮曹判書 金尙憲은, “지금 謝罪한다고하여 청 태종이 노여움을 풀지 않을 것이며, 더 가혹한 요구를 해 올 것이 뻔 하니, 이 書狀을 三軍에게 돌려 보게 하여 士氣를 진작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和議나 斥和냐를 놓고 朝廷의 公論이 심히 엇갈리고 있었으나, 결국은 淸의 講和 條件을 相互 동의하여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조건 중에는 2월 달에 龍骨大가 使臣으로 왔을 때 그들을 모조리 斬首하여 明나라로 首級을 보내야한다고 上疏한 洪翼漢을 필두로 그간 斥和한 모든 臣下를 잡아 보내라는 淸의 요구가 있었다. 그들을 梟示²⁹⁾함으로써 다시는 淸에 대한 敵愾心^{적개심}을 갖는 臣僚가 없게 하려함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런 요구에 대하여 仁祖

29) 梟示 : 목을 베어 매달아놓아 ant 사람들이 보게함.

는 이미 朝鮮의 王인 내가 降伏을 했는데, 올봄에 극력 斥和한 洪翼漢은 지금 平壤에 있으므로 淸軍이 철군하면서 잡아가면 되고, 다른 나의 臣下가 斥和를 주장하였더라도 그들은 부화뇌동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淸의 요구대로 처벌 할 것이니 맡겨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淸에서는 洪翼漢 외에 두 사람만 더 押送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尹集, 吳達濟 편에 상세히 기록 하였다.

1637년(仁祖 15) 2월 12일 平安道 都事 全鑒^{전백}에게 洪翼漢의 押送을 지휘하여 차질 없이 淸軍에게 인계하라는 指令이 내려졌다. 甌山 縣令^{증산현령} 邊大中을 시켜 平壤 豆里島에서 洪翼漢을 체포하여, 오랑캐 진영으로 결박하여 보냈다. 이때 洪翼漢은 미처 식사를 못하였으므로 결박을 풀어 밥을 먹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邊大中이 不許하였다. 殷山 縣監^{은산현감} 李純敏이 와서 洪翼漢을 보고 위로하자 洪翼漢이 말했다.

“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개미 같은 잔약한 이 목숨이야 논할 것도 없지만,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 할 사람인가. 더구나 임금의 命을 어찌 감히 회피하리라고 이렇게 까지 속박하는가?”.

李純敏이 이 말을 듣고, 邊大中을 타일러, 잠시 결박을 풀고 식사를 하게 하였다.

서쪽으로 밤낮을 달려 5일 만에 義州에 도착하니, 府尹 林慶業이 洪翼漢을 반갑게 맞아 들여놓고 하는 말했다.

“洪公의 이 行次는 참으로 大丈夫의 일입니다. 살아서는 이미 大義를 붙들었고, 죽어서는 史冊에 빛날 것이니, 다시 무엇이 恨이 되겠습니까.”

洪翼漢이 말했다.

“나의 上疏 한 장으로 인하여 災殃재앙이 이토록 극심하니, 죽어도 속죄를 다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다른 일을 논하겠습니까. 다만 빨리 가서 임금의 命令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林慶業은 洪翼漢의 行資 有無를 물어보고 잘 갖추어 주선했다. 드디어 淸의 軍士에게 완전히 인계되어 通遠堡^{통원보}에 이르자, 胡人 몇 사람들이 와서 결박 해가는 이유를 묻자, 그 이유를 대강 갖추어 알려주니, 胡人이 하는 말이, “나는 바로 칸[汗]의 家人이오.” 하고는 이어 전대를 풀어 음식물을 꺼내어 주면서 말하였다. “먼 길을 오느라고 아마도 배가 몹시 고프겠이오. 당신이야 무슨 죄가 있겠소. 심양에 다다르면, 청 태종이 반드시 放免하여 歸還시킬 것이오.” 라고 하였다. 洪翼漢은 25일에야 비로소 심양에 도착했는데, 오는 도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줄을 이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悲憤^{비분}을 금치 못하였고, 낙타 위에 우리나라 御寶^{어보}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였다. 심양에 도착하자, 胡服을 입은 漢族들이 다투어 둘러서서 모두 감탄하며 번갈아 가면서 위로하였다. 洪翼漢을 別館에 가두도록 하였다.

한편 洪翼漢의 家族들은 그가 平壤으로 떠날 때 江華島의 마니산에 피란 시켰는데, 江華島가 함락 당했을 때, 그의 長男 降元^{수원}이

洪翼漢의 母親과 後室 許氏, 그리고 어린 누이동생들과 함께 다시 교동으로 가다가, 겨우 浦口에 이르렀을 때에, 오랑캐의 騎兵이 갑자기 接近하여 許氏가 잡혔다. 許氏가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敵에게 항거하자, 칼을 휘둘러 치려함으로 아들 晬元이 자기 몸으로 이를 막다가 적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다. 許氏는 죽음을 면했으나 아들의 죽음을 보고 물에 빠져 自決하였고, 晬元의 아내 李氏도 남편 곁에서 스스로 혀를 깨물어 죽었으니, 1637년 정월 25일이었다. 하루 먼저 次男 晬寅은 벌써 적을 만나 마니산에서 被殺되었던 것이다. 오직 늙으신 母親과 어린 두 딸 만이 죽음을 면하였다.

洪翼漢이 심양으로 압송되어 가면서 宣川에 당도하여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家屬의 存沒을 매우 염려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할머니를 잘 모시고, 끝까지 몸을 잘 보호하여 祖上의 祭祀가 끊기지 않도록 하여라.”

瀋陽의 別館에 갇혀있던 洪翼漢을 청 태종은 博士官을 시켜 잔치를 베풀게 하였는데, 주방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훌륭하게 차려 와서 말했다.

“이는 皇帝께서 下賜한 음식이니 먹어야 합니다.”

洪翼漢이 말했다.

“나는 다만 한 번 죽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이것을 어찌 먹겠느냐.”
홍익한은 끝내 받아먹지 않았다. 龍骨大가 別館에 와서 通譯人을 시켜 말을 주고 받았다.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나는 斥和를 으뜸으로 제창한 것 때문에 잡혀왔다.”

“너희나라 朝廷臣僚 가운데 斥和를 主張한 자가 매우 많을 것인데, 어찌 너 한 사람 뿐이겠느냐?”

이에 홍익한이 웃으며 답했다.

“내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겠느냐?”

龍骨大는 再次 三次 질문했다.

“너 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니,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고하라.”

“지난봄에 네가 우리나라에 使臣으로 왔을 때, 네 首級을 베라고 請했던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뿐이었다.”

이에 龍骨大도 웃으면서 나가 버렸다.

3월5일에 청 태종이 武裝한 軍士들을 도열시켜 놓고 불러들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태연한 낯빛으로 그를 수행했던 下人을 돌아보며 말했다.

“칸[汗]이 반듯이 나를 굴복시켜 목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나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오늘 죽게 될 것이다.”

이윽고 淸의 졸개들이 매우 급하게 부르며 달려와 두 손을 묶어가지고 빨리 가기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洪翼漢은 더욱 태연하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下人이 혹시 淸의 軍士가 격노할까 염려하여 옆에서 재촉하자, 洪翼漢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男兒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의당 조용히 죽음에 임하여야 하는데, 어찌 허둥지둥하며 品位를 잃어서야 되겠느냐.”

청 태종이 앉아 있는 뜰아래에 이르러서는 우뚝 서있자, 여러 胡人들이 모두 일어서서 洪翼漢을 쳐다보고 있었다. 청 태종이 결박을 풀게 하고 洪翼漢과 아래와 같이 문답을 주고 받았다.

“네가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이처럼 거만하게 뻗뻗이 서 있는 것이냐?”

“내가 그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있는가?”

“너는 왜 먼저 盟約을 違背위배하고 和議를 배척하여, 두 나라가 틈이 벌어지게 하였는가?”

“너희는 우리나라와 兄弟가 되기로 약속 해 놓고, 도리어 皇帝를 自稱하여 우리나라를 臣下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盟約을 違背한 것은 너희가 먼저 한 것이지 우리가 위배한 것은 아니다.”

그러자 청 태종이 말문이 막혀 한참 있다가 말했다.

“네가 이미 으뜸으로 和約을 배척하였으니, 그 뜻은 반드시 우리를 殲滅멸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大軍이 나갔을 때 어째서 맞아 싸우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生捕되어 왔느냐?”

洪翼漢이 답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만 大義뿐이다. 成敗와 存亡은 論할 필요가 없

다. 만일 우리나라 臣民들이 한 절 같이 나의 뜻과 같다면 너희 나라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홍익한은 곧 옷을 벗어 땅에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말했다.

“듣건대, 너희는 刑殺할 때에 반드시 마디마디 저며서 죽인다고 하던데, 왜 빨리 刑罰을 시행하지 않느냐?”

홍익한은, “그대와 言語가 相通하지 않아 상세히 진술할 수가 없으니, 붓을 가져오라”고 하여 붓으로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썼다.

‘朝鮮國의 잡혀온 臣下 洪翼漢은 斥和한 事實의 內容을 分明하게 陳述할 수 있으나, 言語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文字로서 告하겠다. 대저 四海 안의 나라들이 모두 兄弟가 될 수는 있으나, 天下에 두 아비를 가진 자식은 없는 것이다. 朝鮮은 본디 禮義를 崇尚하고있어, 諫官은 오직 곧게 判斷하여 임금에게 進言하는 것을 風道로 삼기 때문에 지난해 봄에 내가 마침 言官의 職任을 맡고 있어, 너희 나라가 장차 盟約을 어기고 皇帝라고 自稱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盟約을 어진다면 이는 兄弟의 義를 어기는 것이요, 만약 稱帝를 한다면 이는 天子가 들이 되는 셈이다. 한 집안에서 兄弟의 義를 끊을 수 있으며, 天地間에 어찌 天子가 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너희는 朝鮮에 대하여 交隣의 盟約이 있었으나, 너희가 먼저 背信하였고, 大明은 朝鮮에 대하여 옛날부터 자상하게 돌보아준 恩澤이 있어 더욱 깊이 結탁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먼저 背信한 公約을 지킨다

면, 理致에 매우 어긋나고 事理에도 매우 부당하다. 그러므로 前述 한바와 같이 稱帝를 배척하는 上疏를 올려, 禮와 義를 지키려한 것은 臣下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어찌 다른 意圖가 있겠는가. 단지 臣子の 분수에 맞는 道理라는 것은 의당 忠孝를 극진히 할 뿐인데, 위로 君親이 있지만 모두 扶護하여 안전하게 해 드리지 못하여 지금 世子와 大君이 모두 포로가 되어 있고, 老母의 存沒마저 모르는 실정이다. 내가 진술한 上疏文한 장으로 말미암아 家庭과 나라가 이처럼 禍를 당하였으니, 忠孝의 道가 전부 없어진 셈이 되었다. 스스로 나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몸이니, 비록 만 번 도륙을 당하여도 실로 달게 받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넓은 하늘을 날아 故國으로 돌아가 노닐다면 이보다 상쾌할 일이 또 있겠느냐. 이밖에 다시 할 말이 없으니, 오직 어서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

청 태종이 漢人을 시켜 통역하여 들어보고는 左右를 돌아보고,

“이 사람은 어렵겠군.”

하고는 洪翼漢의 斥和 疏를 내보이며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皇帝가 될 수 없단 말이나?”

洪翼漢이 말했다.

“너는 바로 天朝(明)에 대하여 叛亂반란을 일으킨 盜賊도적인데,

어찌 皇帝가 될 수 있단 말이나?"

청 태종이 크게 노하여 마침내 두 刑官을 시켜 겨드랑이를 끼고 붙들어 나가게 하였다. 이 두 刑官은 死刑을 집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洪翼漢은 處刑당하고 屍身도 수습을 못한 채 瀋陽 西門 밖 刑場에서 1637년 3월 5일 殉節하고 말았다. 마침 昭顯世子가 심양에 인질로 도착해서 洪翼漢이 刑殺 당했을 때 尺帛에다가 招魂하여 본국으로 보냈다.

洪翼漢의 性品은 지극히 孝誠스러워 父親의 喪을 당해서는 3년 동안 侍墓살이를 하며 애통해 했고, 母親을 섬기는 데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써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으면서도 母親이 싫어했기 때문에 母親 곁에서는 한 번도 술 냄새를 풍긴 적이 없었다. 그의 文章은 淸建하고 警敏하며 氣格이 竒逸하여, 한마디 한 구절도 모두가 忠義에서 나온 것이었다.

平生 著述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모조리 江華島에서의 變亂^{변란}으로 流失되었다. 그가 瀋陽 옥중에 있을 때 지은 詩와 平壤庶尹으로 發令받아 敵陣으로 가면서 지은 詩가 전해 온다. 이 詩는 寶山城에 도착하여 防衛態勢를 어느 정도 정비하고, 漢陽 쪽을 바라보며 문득 임금이 南漢山城에서 守城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지은 詩이다.

翠輦今安否 임금님 요사이 안부 궁금한데
腥塵市漢中 피비린내 티끌먼지 장안에 가득하고
腐心恒坐甲 썩은 관리들이 항상 곁에 있어

揮涕戀行宮 눈물 뿌리며 행궁을 그리워하네.
 意氣晨昏異 의기는 조석으로 변하고
 江波日夜東 강물의 파도는 밤낮으로 동쪽으로 밀려가네.
 經營城守事 성 지킬 일 말아야 할 몸이
 還愧護微躬 보잘 것 없는 몸 보호하려니 부끄럽네.

備嘗艱苦賊中來 온갖 괴로움 겪으며 적진 뚫고 왔는데
 堪嘆驚魂浪自哀 놀랜 혼 탄식하며 참으려니 슬퍼지는 구나
 玉趾猶爲當日窘 임금님 발자취 오늘날 근색하겠지만
 金城僅免此時摧 단단한 성이라 꺾이지는 않았겠지

아래는 심양옥중에서 읊은 시다.

陽坡細草折新胎 양지바른 언덕에 새싹이 돋아나니
 孤鳥樊籠意轉哀 새장 속의 외로운 새 마음 더 슬프구나
 荊俗踏青心外事 옥중에서 답청놀이 생각이나 할 소나
 錦城浮白夢中來錦城에서 들던 술잔 꿈속에 떠오르네
 風飄夜石陰山動 밤바람 돌을 날려 음산이 진동하고
 雪入春澌月窟開 봄물엔 눈이 섞여 서쪽 땅이 열리누나
 飢渴僅能聊縷命 기갈 속 실낱같은 목숨저우 이어가노니
 百年今日淚盈腮 人生百年 오늘에 눈물이 뺨을 적시네.

首陽山 나린 물이 夷齊이재의 寃淚원루되야
 晝夜不息하고 여흠여흠 우는 뜻은
 至今의 爲國忠誠을 못내 슬퍼하노라

『朝鮮王朝實錄』(1637년(仁祖 15) 3월 5일)에 洪翼漢의 卒記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洪翼漢 卒記³⁰⁾

清나라 사람이 洪翼漢을 죽였다. 洪翼漢은 일찍이 掌令이 되어 오랑캐 使臣을 배어 大義를 밝히자고 上疏하였다. 이때 청나라 軍兵이 침입하여 서울을 떠나는 날 廟堂에서 건의하여 洪翼漢을 平壤 庶尹으로 差出하여 속히 赴任하게 하였다.

吳達濟와 尹集이 잡혀가게 되자, 朝廷에서 平安都事에게 洪翼漢을 罪人 실어 나르는 수레에 실어 함께 오랑캐 진영에 보내게 하였는데, 심양에 들어가 마침내 害를 당하였다. 죽을 때 紙筆을 구하여 글을 지어 그 뜻을 말하고, 오랑캐들을 꾸짖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大明 朝鮮國의 잡혀온 신하 洪翼漢이 和親을 배척한 뜻을 역력히 進達할 수 있으나, 다만 言語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므로 감히 글로써 밝힌다.

무릇 四海의 만이 모두 兄弟는 될 수 있으나 天下에 아버지가 둘인 자식은 없다. 朝鮮은 본래 禮儀를 숭상하고 諫臣간신은 오직 直截적절로 氣風을 삼는다.

그러므로 지난해 봄에 마침 言責의 임무를 부여받고, 金나라가 盟約를

30) 仁祖實錄 15年丁丑 3月5日 甲辰/ 清人殺 洪翼漢. 翼漢 曾爲掌令, 上疏請斬 虜 使, 以明大義. 至是, 清 兵入寇, 去郛之日, 廟堂建議以 翼漢差 平壤 庶尹, 促行赴任. 及 吳達濟, 尹集 被執而去也, 朝廷令 平安都事, 械繫 翼漢, 竝送于虜陣, 入瀋陽, 遂被害. 臨死, 索筆爲文, 言其志, 以責虜人 其文曰: 大明朝鮮國 蠻臣 洪翼漢, 斥和事意, 歷歷可陳, 而但語音不相慣曉, 敢以文字控白. 夫四海之內, 皆可爲兄弟, 而天下無兩父之子矣. 朝鮮本以禮義相向, 諫臣唯以直截爲風, 故上年春, 適授言責之任, 聞 金國 將渝盟稱帝, 心以爲: “若果渝盟, 則是悖兄弟也; 若果稱帝, 則是二天子也. 門庭之內, 寧有悖兄弟哉; 覆載之間, 寧有二天子哉? 況 金國之於朝鮮, 新有交隣之約, 而先背之; 大明之於朝鮮, 舊有字小之恩, 而深結之, 則忘深結之大恩, 守先背之空約, 於理甚不近, 於義甚不當, 故首建此議, 欲守禮義者, 是臣職耳, 豈有他哉? 但臣子分義, 當盡忠孝而已. 上有君親, 俱不得扶護而安全之, 王世子大君, 皆爲俘, 老母存歿, 亦不知. 良由一疏之浪陳, 以致家國之禍敗, 揆諸忠孝之道, 掃地蔑矣. 自究乃罪, 可殺罔赦, 雖萬被誅戮, 實爲甘心 此外更無所言, 惟願速死惟願速死云

어지고 皇帝라 칭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만일 과연 盟約을 어겼다면 이는 패역한 형제이며, 참으로 과연 皇帝라 칭했다면 이는 두 天子가 있는 것이다. 한 집안에 어찌 패역한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天地間에 어찌 두 天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金나라는 朝鮮과 새로운 交隣의 조약이 있는데 먼저 배반하였고, 明나라는 朝鮮에 예전부터 돌보아준 恩惠가 있어 깊이 맺어졌다. 그런데 감히 맺어진 큰 은혜를 망각하고, 먼저 배반한 헛된 조약을 지키는 것은 理致에 맞지 않고 義理에도 부당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맨 먼저 이 論議를 주장하여 禮義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이는 臣下의 職分일 뿐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다만 臣子의 分義는 忠과 孝를 다할 뿐인데, 위로는 임금과 아버지가 있으나 모두 보호하여 安全하게 하지 못하였고, 王世子와 大君을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老母의 生死도 알지 못한다. 진실로 上疏한 장을 올림으로써 家庭과 나라에 敗亡을 招來하였으니, 忠孝의 道理로 헤아려 보면 비로 쓸어버린 듯이 없어진 것이다. 나의 죄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죽어야 하고 용서될 수 없다. 비록 만 번을 도륙 당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달게 받을 뿐, 이 밖에 다시 할 말은 없다. 오직 속히 죽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洪翼漢은 아들 兄弟가 淸軍에 의해 江華에서 참혹하게 殺害되어 子孫이 없음으로 養子인 應元이 洪翼漢의 옷과 신발을 平澤 서쪽 先塋에 禮葬하고 夫人 許氏를 合葬하였다.

1661년(顯宗 2)에 平澤의 洪翼漢 虛墓 앞에 자그마한 祠堂을 士林들이 建立하고 忠節을 기려 尹集, 吳達濟도 함께 위패를 모시고 처음으로 祭享하였고, 三學士를 顯揚^{현양}한 것이다.

1703년(肅宗 29)에이 祠堂을 「褒義祠」라고 賜額하였다. 1871년(高

宗 8) 大院君의 書院撤廢令이 내릴 때 훼손된 후 아직도 復元되지 못하고 있다. 神道碑도 당초에 있었던 장소에서 옮겨져서 지금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면 본정리 산32'에 소재하고 있다. 남아있는 것은 「褒義閣」이라고 懸板을 붙인 碑閣이 墓前에 있는데, 碑閣 안에는 洪翼漢의 神道碑와 墓碑 그리고 江華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둔 그의 큰아들 晬元 内外의 孝子·烈女碑가 함께 碑閣 안에 있다. 平澤市에서는 「洪學士碑閣」이라고 하여 1983년 文化財資料 제 5 호로 지정하였다.

洪翼漢이 남긴 文集으로 『花浦集』이 있다. 『北行錄』과 『西征錄』을 한데 묶어 발간한 것이다. 北行錄에는 洪學士가 平壤庶尹으로 발령받아 敵陣을 뚫고 가면서 겪은 여러 일들과 오랑캐에게 잡혀 瀋陽까지 끌려가면서 日記體로 적은 것으로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宋時烈은 『三學士傳』에서 아래와 같이 읊었다.

日月의 밝음이여 山岳의 높음이여
그 누가 그와 더불어 높고 밝으랴
오직 花浦公의 節概 뿐이로다.

廣州의 南漢山城에는 1688년(肅宗 14年) 祠堂을 짓고 「三臣祠」라고 懸板을 달았을 때 尹集, 吳達濟의 位牌와 함께 모셔졌고, 「顯節祠」로 賜額한 뒤 조정에서 祭文을 보내 여러 번 致祭하였으며,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廣州에서 地方官이 初獻官이 되어 市民과 儒林들이 정성껏 祭享하고 있다. 諡號는 忠正이며, 議政府 領議政에 追贈 되었다.

A photograph of a weathered, upright stone monument in a grassy field. The monument is dark and shows signs of aging and discoloration. It is surrounded by tall green grass, and a dense line of evergreen trees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A photograph of a weathered stone monument standing in a grassy field. The monument is inscribed with the text '忠臣故學士尹集宅址' (Site of the residence of the late scholar and loyal subject Yi-gup). The background shows some trees and a blue tarp.

時因世之各務其要者
下盡心法屬於經
書禮樂而安其望以息事立德
保金克時久無事入耳茲年已
下道一答爾快哉
下為公家深憂此與弗能
告歸以此不備法惟
上堂上堂兮是
乙亥十月卯了 息集

134_ 重刊 顯節祠誌

仁祖朝
尹

三考士

集字號伯統林溪蔡第官校理 贈領議政趙忠貞

集為人懷情猶介好直諫

王雖不聽亦不止也

集諫曰王自皆願一戰而

敵一不許及致牛酒饋虜營

是 敵一見侵行焉去也

焉者因啓曰今神師而米

如道使問起居則和親可

成矣王又許之集諫曰虜

乃伐我而米何問起居集

入見敵焉集以死爭之

集曰臣等嘗以不死為恨

今得死處又何憾哉 獻

王 虜營有書送還成西門

外無不協笑成中 觀者皆流涕虜曰何不戰而反集對曰名等者其不可不爭者義而已

故戰行而不倫也者國就送者皆想絕 蓋者無遺自又趣斯者頭多後言此於虜庭是明

我之義也宜不與哉時諸事不物將集大罵不從謂其奴曰虜必殺我集曰王曰何不語彼若者集笑曰臣體之辱甚死亦快所如也



傳 尹集 선생 肖像(종이에 수묵, 83.9cm 37.3cm 자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尹集의 行狀과 事蹟

尹集은 1606年(宣祖 39)에 태어나 1637年(仁祖 15) 瀋陽 敵地에서 殉節한 朝鮮 中期의 文臣이다. 本貫은 南原, 字는 成伯이며, 號는 林溪·高山이다. 父親은 縣監 尹衡甲이며, 祖父 尹暹^{윤섬}은 壬辰倭亂 때 尙州戰鬪에서 巡邊使 李鎰^{이일}의 從事官으로 參戰하여 戰死하였다. 三兄弟 중 次男으로 兄 尹桀는 丙子胡亂 당시 南陽府使로 있으면서 淸軍과 싸우다 戰死하였다. 그러므로 尹集의 家門에서 대를 이어 三節臣이 나왔다.

13세에 父親을 여의고 兄을 따라 공부하여 1627年(仁祖 5) 22세에 生員이 되었고, 1631年(仁祖 9) 26세에 別試文科에 乙科로 及第하여 世子侍講院 說書, 吏曹正郎, 弘文館 副校理를 거쳐 1636年(仁祖 14)에는 弘文館 校理가 되었다.

丁卯胡亂 때 맺어진 丁卯和約으로 오랑캐 나라인 後金과 兄弟之國이 되어 朝貢을 바치게 된 것은 朝鮮이 開國한 이래 처음으로 당한 크나큰 치욕이어서 仁祖를 비롯한 朝鮮의 朝廷은 물론이요 온 국민이 失意에 빠져있었다.

仁祖反正으로 政權을 잡은 西人들은 朝廷의 財政이 어렵더라도 軍事力을 키워 後金の 再侵에 대비하자는 斥和派와 後金과 對抗하길란 여간 어렵지 않으니, 그들과 和議하여 戰爭을 抑制하자는 主和派로 갈리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朝鮮으로서는 明과 관계를 끊

고, 오랑캐 나라인 後金을 하나의 國家로 인정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事大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일이었다. 斥和를 적극 주장하던 洪翼漢은 1636년 봄 後金에서 보낸 使臣의 목을 베어 明에 보내자고 까지 하였다.

1636년 봄부터 後金은 國號를 淸으로 고치고, 급기야 朝鮮에 대하여 君臣의 禮를 갖추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1636년 11월 8일 弘文館 校理 尹集은 다음과 같은 上疏文을 仁祖에게 올렸다.

‘和議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明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父母의 나라이고, 虜賊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父母의 원수입니다. 臣子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兄弟의 義를 맺고 父母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壬辰年의 일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모두 皇帝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서 숨 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형세가 크게 확장하여 京師(明의 수도)를 핍박하고 皇陵을 더럽혔는데,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殿下께서는 이때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義理上 구차스럽게 生命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兵力이 미약하여 모두 出兵시켜 征伐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또한 어찌 차마 이런 時期에 다시 和議를 提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聖名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義理에 의거하여 和議를 물리치고 中外에 포고하고 明에 알리시니, 온 나라 수천 리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서로 고하기를, ‘우리가 오랑캐가 뭘을 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려하는 勅書^{칙서}가 내려지자마자 不貞한 의논이 나왔는데 차마 ‘淸國汗’이란 3자를 그 입에서 거론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承旨와 侍臣을 내보내라고 한 말이 있으니, 아, 너무도 심합니다.

國政을 도모하는 것은 껏속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君臣간에는 密語하는 義理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면 千萬名이 참석하여 듣더라도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으며, 만일 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아무리 隱密한 곳에서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이니, 비밀로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아, 옛날 和議를 주장한 자는 秦檜진회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데, 당시에 그가 한 言語와 事迹이 史官의 筆誅³¹⁾를 피할 수 없었으니, 비록 크게 간악한 秦檜로서도 감히 史官을 물리지지 못한 것은 명확합니다. 대체로 秦檜로서도 감히 하지 못한 짓을 崔鳴吉이 하였으니 殿下의 罪人이 될 뿐 아니라 진회의 죄인이기도 합니다. 洪處厚의 啓事와 吳達濟의 상소는 실로 公論에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峻嚴한 見責을 당하여 私情을 따라 모함하였다고 脂斥^{지척}하고, 껏비린내 나는 어린 사람으로 지목하였으며, 심지어는 申恟^{신수}신상을 擬望^{의망}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히 銓官³²⁾을 파직시키기까지 하여 萬人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였으니, 천둥 같은 위엄에 억눌려 꺾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삼司의 직책을 가진 자가 벌벌 떨면서 모두 입을 다물었고, 심지어 李敏求 같은 이는 官職이 높은 諫長대사간으로서 스스로 聖上의 寵愛만 믿고 公議는 생각지 아니하여 글을 읽어 引避하고, 갑자기 지난번 올린 啓事を 중지하여 위로는 聖上의 뜻에 迎合하고, 아래로는 崔鳴吉에게 아

31) 筆誅 : 臣下의 허물이나 罪를 글로 써서 꾸짖음.

32) 銓官 : 朝鮮時代 吏曹와 兵曹에 속하여 文武官을 뽑던 官吏.

점하고 있으니, 기타 新進 후배 중 李時雨 같은 사람들이 간사하게 아첨하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 됩니다. 臣은 모르겠습니다만, 聖明께서는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걱정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 걱정하는 그들의 作態를 살피고 계십니까?

臣이 崔鳴吉의 筭子차자를 취하여 보니, 邪說을 장황하게 하여 聖上の 귀를 현혹하고 있기에 다 훑어보기도 전에 눈언저리가 찢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른바, 國家의 大計는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것이니, 年少한 무리가 감히 참여하여 알 것이 아니라는 것과, 政治가 臺閣대각에 돌아가고 浮議에 制裁 당한다는 등의 말은 은연 중 대각을 협박하고, 公議를 저지하려는 흉계가 있는 것이니, 아, 奸巧간교하고 참혹합니다.

옛날에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자는 남이 알까봐 숨기려고 하였는데, 지금 崔鳴吉이 和議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팔뚝을 걷어 올리고 나서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방자하며, 마침내 朱熹^{주희}·胡安國 두 賢人과 우리나라의 몇몇 名賢을 들어서 구실을 삼았습니다. 또 지난번 和議를 물리친 것을 聖上の 過誤로 지적하였고, 심지어는 잘못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였으며, 계속하여 말하기를, 生民이 도탄에 빠지고 宗廟社稷종묘사직이 國典으로 祭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말을 변화시켜 聖心を 동요케 하였습니다.

대체로 밖으로 盜賊의 强盛한 세력을 업고서 안으로 자기 임금을 겁주었으니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 입니까.

그리고 臺論대론이 提起되었더라도 한편으로 書札을 보내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하였었는데, 殿下를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臣은 듣건대, 이것도 崔鳴吉이 經筵에서 드린 말이라고 합니다.

朝廷을 무시하고 臺閣을 무시함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이 말 역시 殿下의 나라를 망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그 죄를 바로잡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들어주어 三司가 連名으로 啓事를 한참 펼치고 있는데, 國書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아, 國家가 臺諫대간을 설치한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차 임금으로 하여금 위에서 獨斷하여 義理를 돌아보지 않고 臺論을 생각지 않으며, 不貞한 議論만을 따르고 아첨하는 臣下만을 의지하여 결국 나라를 잃게 하고 말 것이니, 이것은 崔鳴吉이 計圖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머리털이 곤두섭니다. 李行健의 避嫌피혐하는 말에 이르기를, “臺論이 調整되기 전에 지레 들여보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니, 만일 是非를 몰랐다면 이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 크게 책망할 것이 못되지니와, 혹 是非를 알고도 일부러 이런 모호한 말을 하였다면, 안으로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밖으로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鄭太和는 公議가 한참 펼쳐질 당시에 부정한 의논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극진히 아첨하다가 高潔고결하고 공정한 言論에 버림을 당했는데, 殿下께서 특별히 執義를 除授하셨으니, 이는 殿下께서 臣下들에게 아첨하도록 引導하신 것입니다. 아, 國事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殿下의耳目이 되고 殿下의 至近에 있는 자 중 임금의 뜻을 거슬러가며 直諫직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臣下들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지은 것인데,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 祖宗朝의 부여한 책임과 臣民의 커다란 소망이 모두 殿下의 한 몸에 모여 있는데, 뜻을迎合하는 부정한 말에 현혹되시어 直諫직간하는 자가 있으면 온 힘을 기울여 震怒진노하여 물리치시고, 聖意를 살피어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자는 미치지 못할 듯

이 높여 권장하고 총애하여 발탁하시니, 臣은 天下 後世에 殿下를 어떤 임금이라고 이르며, 나라를 어떤 지경에 놓아두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당당하던 수백 년의 宗廟社稷을 결국 崔鳴吉의 말 한 마디에 망하게 하시렵니까? 臣은 大庭에서 통곡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臣은 타고난 性品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때에 따라 맞추어 나가지 못하니, 차마 오늘날의 三司와 더불어 행동을 같이하여 구차스럽게 마음에 들도록 결코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仕版[관직자 명부]에서 깎아내어 公私간에 편케 하소서.

上疏가 들어가자 대내에 머물러 두었다. 이에 大司諫 李敏求는 배척을 당했다는 이유로 引避하고, 司憲府와 司諫院의 많은 官員도 서로 뒤를 이어 인피 하였으며, 玉堂[弘文館]은 “三司와 한 몸이니 감히 처치할 수 없다” 하며 上疏하여 辭職하였다. 상이 下敎하였다.

“尹集이 三司를 꾸짖어 욕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닌 듯싶고, 玉堂이 처치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소견이 있는 듯하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처럼 걸핏하면 허물을 얻는 자는 進退시키기가 어려운 形便이니, 尹集으로 하여금 兩司를 처리하게 하든지, 該曹로 하여금 회계하게 하라.

그리고 判尹 崔鳴吉은 당일의 말이 重臣을 침범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몹시 부당하다. 중한 律에 따라 推考하여 是非를 함부로 논하여 國家에 해를 끼친 죄를 징계하라.”

지난날 經筵 席上에서 崔鳴吉이 金尙憲의 단점을 말하였는데, 尹

集은 尙憲의 일가 사람이다.³³⁾ 上은 그가 金尙憲에게 偏黨하여 崔명길을 공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으므로 이런 下敎가 있는 것이다. 政院이 兩司가 尹集의 上疏로 인하여 引避 하였는데, 尹集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니, 이에 吏曹가 玉堂 臣 下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왕이 따랐다.

校理 趙贊^{조빈}, 修撰 李禰^{이도}, 李曼^{이만} 등이 마침내 차자를 올렸다.

“사람들의 말이 실정 밖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處身을 구차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臣들이 얼굴을 치켜들고 무릅쓰며 나온 것도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臺諫대간이 된 자는 반드시 남의 비방을 당하고도 그대로 在職하는 이치가 없으니, 함께 遞差체차하소서.”

왕이 答敎하였다.

“이미 말이 실정 밖에서 나왔다고 하고는 또 모두 遞差체차하기를 청하니古今에 어찌 이런 公論이 있는가. 그대들은 是非를 가리는 것으로 증함을 삼지 않고, 다만 죄를 부려 피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참으로 몹시 한심스럽다.

위로는 임금의 손을 묶어놓고, 아래로는 意見을 달리하는 자의 혀를 붙들어 맨 뒤에야 마음이 상쾌하겠는가. 모두 啓事에 따라 시행하라.”

33) 尹集의 夫人 安東金氏가 金尙憲의 姪女이다.

이상은 『仁祖實錄』에 등재된 내용인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朝廷의 國政 亂脈像^{난맥상}을 如實히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또한 仁祖의 無能함도 읽을 수 있다. 尹集은 당시의 확고한 政策은 淸의 再侵이 있을 경우 끝까지 抗戰할 것을 朝廷의 公論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崔鳴吉이 主動이 되어 和議를 해야 한다고 仁祖에게 政策의 수정을 요구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仁祖의 決斷性 없는 행동을 질책한 상소였다. 尹集은 이때 弘文館 校理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마침내 12만의 淸軍이 騎兵^{기병}을 앞세워 1636년 12월 초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朝鮮을 침범하였다. 尹集은 官職에서 물러 난지 얼마 안 되었으나 無冠으로 仁祖가 南漢山城으로 入城할 때 扈從^{호종}하여 들어갔다.

山城 안에서 仁祖가 決死抗戰 할 것을 결심하고, 東西南北에 군사를 배치하고 守城 態勢를 갖추는 때, 尹集도 督戰御使의 一員으로 北門 방면의 군사배치 상황과 臨戰態勢의 실상을 督察하면서 仁祖의 軍事參謀 역할을 하였다.

南漢山城에서도 그는 崔鳴吉의 罪를 다스리라고 仁祖에게 上疏하였다.

1637년 1월 4일 尹集이 請待하여 仁祖에게 上疏하였다.

‘오늘날의 일은 모두 崔鳴吉의 罪입니다. 使臣을 보내자고 청하여 헤아릴 수 없는 恥辱지욕을 불러들였고, 答書 보내기를 서두르면서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그가 지은 文書에 대해서는 이를 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三司의 諸臣들은 大部分 용렬하여 고려와 머리를 감추고 자신의 몸만 보호할 計策을 품고 있으니, 聖明께서 무슨 방법으로 아시겠습니까. 崔鳴吉이 和親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罪는 머리털을 뽑아 세어도 贖罪하기 어렵습니다.

戰鬪와 守備를 말하면 번번이 저지시켰고, 敵의 形勢를 논할 때는 반드시 誇張과장하였으니, 이것으로 죄를 삼더라도 스스로 변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仁祖가 말했다.

“이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이 實情에 어긋난 말은 하지 말라.”

尹集의 옆에서 李命雄 이 아뢰었다.

“戰鬪와 守備에 관한 計策을 언제나 崔鳴吉이 甘言으로 動搖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本心を 헤아려 볼 때 꼭 나라를 그르치려는 것이 아니었고 또 社稷에 功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臣들이 감히 未減하여 請하는 것이니, 그의 罪를 바로잡아 和親과 戰鬪가 兩立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소서. 만일 允許하지 않으신다면 臣들의 罪를 다스리소서.”

仁祖가 말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이러한 患亂이 있을까 염려하여 언제나 時期에 맞춰 周旋하려고 하였다. 지금 속임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실로 남보다 뛰

어난 識見이 있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 그대들은 물러나서 생각해 보라.”

南漢山城에서 힘겹게 城을 지키며 主和, 斥和論이 분분할 때, 淸陣에서 國書라는 것이 왔다. 요약하면 하루속히 出城하여 降伏하고, 斥和한 臣僚들을 잡아 보내라는 것이다. 그런 書狀이 왔다는 것을 전해 듣고, 尹集은 仁祖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이제 兇書가 오게 된 것은 모두 崔鳴吉의 罪입니다. 臣이 그가 作成한 答書를 보니, 이는 講和가 아니라 降伏이었습니다. 臣子の 立場으로 어찌 차마 이런 글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앞서 尹集은 12월 22일 南漢山城에서 三司의 젊은 言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主和한 사람을 斬할 것을 王에게 請하자고 하였는데, 大司諫 金槃, 執義 蔡裕後가 너무 지나치다고 하며 힘써 만류하여 그만 두었다.

南漢山城에 孤立 된 朝廷은 江華가 함락 당하는 危迫^{위박}한 時點에서 講和하지 않고는 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結論을 내렸으나, 講和를 교섭하는 過程을 尹集과 吳達濟 등 젊은 言官들은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우리가 스스로 講和를 애걸하면, 敵은 더욱 우리를 경멸하여 和議는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 질것이기 때문에 오직 한마음으로 最後까지 싸워 지킴겠다는 意志를 보여 준 후에 講和를 의논하여야 한다.”

비굴하게 애걸하면 상대가 輕蔑^{경멸}하게 되므로 一方的인 屈辱만 당하게 되리라는 인식이었다. 당시 朝鮮 士大夫의 氣概가 넘치는 지혜로운 發想이었다. 尹集은 무조건 싸우자는 헛된 名分論者가 아니라, 講和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도 朝鮮의 強靱함을 적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高次元的인 戰略을 구사하자고 提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淸軍은 朝鮮에 들어와 長期間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最後 目的은 明나라이지 朝鮮은 아니었다. 사실 45일간 南漢山城을 포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청 태종도 초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朝鮮의 '버티기 작전'이 조금만 더 길었어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主和派의 和議條件이라는 것이 거의 매듭을 지어 屈辱的인 條件에서 仁祖는 出城하여 降伏하기에 이르렀다. 斥和臣을 잡아 보내라는 청 태종의 요구에 대하여 朝廷에서는 금년 봄에 積極的으로 使臣의 목을 베라고 주장한 洪翼漢은 지금 平壤에 있으니, 撤軍하면서 잡아 압송해 가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 태종은 南漢山城 안에 있는 臣僚들 중에서 和親을 반대한 臣下들을 모조리 잡아 淸軍 진영으로 보내야 한다. 고 하며, 그들의 목을 梟示^{효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자 함이라고 龍骨大가 崔鳴吉을 통하여 國書라는 것을 朝廷에 보내왔다. 그러나 仁祖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斥和한 臣下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그들을 차마 敵陣으로 잡아 보내지는 못 하겠다"

王에게 忠誠한 臣下들을 敵陣에 보내 죽게 한다면 장차 임금에게 忠誠할 臣下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청 태종에게 용서를 빌었다. 청 태종은 溫情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 두어 사람만 더 잡아 보내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尹集과 吳達濟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1637년 1월 23일 『仁祖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있다.

前 校理 尹集, 前 修撰 吳達濟가 上疏하였다. “臣들이 삼가 듣건대 廟堂이 前後에 걸쳐 和親을 排斥한 사람으로 하여금 自首하고 가게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君父의 위급함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朝廷에 있는 어느 臣下인들 감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臣들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上疏를 올려 崔鳴吉의 主和論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바로 더욱 드러나게 和親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랑캐 진영에 가서 한 번 칼날을 받음으로써 교활한 오랑캐의 하나의 요청을 막도록 하소서.

다만 듣건대 廟堂의 의논이 臣들로 하여금 짐승들에게 謝罪시키려 한다고 하니, 廟堂의 뜻 역시 슬프기만 합니다. 臣들에게는 이미 謝罪할 것이 없고, 또 命을 받은 臣下도 아닌데, 어떻게 虜賊노릇과 수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廟堂의 主和派 臣僚들은 “尹集과 吳達濟가 斥和臣으로서 오랑캐에게 謝罪하러 가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에 대하여 두 사람

은 不滿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1월 26일에는 申景稷과 具宏의 군사가 대궐 앞에 모여 斥和臣을 빨리 敵陣으로 보내라고 시위를 하였다. 將官들이 行闕^{행권} 庭園까지 들어가 떠들기를 그치지 않으니, 承旨 李荇元이 “大內가 멀지 않은 곳에서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느냐?” 고 하였으나 軍兵들은 더 크게 떠들면서 장차 亂動을 부릴 형상을 하니, 城內의 人心이 흥흥하였다. 이날 江華島가 함락되어 妃嬪^{비빈}과 王子들이 포로가 되었다.

1월 28일에 尹集과 吳達濟는 仁祖에게 下直인사를 하려고 行闕로 들어갔다. 尹集과 吳達濟가 下直인사를 하자, 仁祖가 引見하고 말하며 嗚咽하니 君臣간에 아래와 같은 말이 오갔다.

“그대들의 識見이 알다고 하지만, 그 원래의 意圖를 살펴보면 본래 나라를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古今 天下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尹集이 아뢰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眞實로 國家에 利益이 된다면 만 번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殿下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구구한 말씀을 하십니까.”

仁祖가 말했다.

“그대들이 나를 임금이라고 여겨 외로운 城에 따라 들어왔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吳達濟가 아뢰었다.

“臣은 自決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仁祖가 다시 말했다.

“古今 天下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인조는 목이 메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吳達濟가 아뢰었다.

“臣들이 죽는 것이야 哀惜할 것이 없지만, 단지 殿下께서 城에서 나가시게 된 것을 罔極하게 여깁니다. 臣下된 자들이 이런 때에 죽지 않고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仁祖가 말했다.

“그대들의 뜻은 君上으로 하여금 正道를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대들에게 父母와 妻子가 있는가?”

尹集이 아뢰었다.

“臣은 아들 들이 있는데, 모두 南陽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舍兄 府使가 적을 만나 몰락하였다고 하니 生死를 알 수 없습니다.”

吳達濟가 아뢰었다.

“臣은 단지 70세 된 老母가 있고 아직 子女는 없으며, 姪姪 중인 아내가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말했다.

“참혹하고 참혹하다.”

尹集이 아뢰었다.

“臣들은 떠나갑시다만, 殿下에서 만약 世子와 함께 나가신다면 城 안이 무너져 흩어질 可能性이 있으니, 이점이 실로 염려됩니다. 원컨대 殿下에서는 世子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함께 나가지 마소서”

仁祖가 말했다.

“장차 죽을 곳에 가면서도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대들이 죄 없이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出城한 뒤에 國家의 存亡 역시 斷定할 수는 없다만, 만일 온전하게 된다면, 그대들의 늙은 아버지와 妻子는

마땅히 돌보아 주겠다. 그대들의 늙은 아버지의 年歲는 얼마이며, 그대들의 나이는 또 얼마인가?”

吳達濟가 아뢰었다.

“어미의 나이는 戊辰生 70세이며, 臣의 나이는 戊申生 29세입니다”

尹集이 아뢰었다.

“臣은 일찍이 父母를 여의고 단지 祖母가 있는데 나이는 지금 77세입니다. 臣의 나이는 丁未生 31세입니다”

두 사람이 드디어 절하고 下直하니, 왕이 말했다.

“앉아라.”

인조는 內官에게 명하여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承旨가 아뢰었다.

“使臣이 벌써 문에 나와 재촉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어찌 이와 같이 급박하게 재촉하는가.”

두 臣下가 술을 다 마시고 아뢰었다.

“시간이 이미 늦었습니다. 下直하고 떠날까 합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소중히 하도록 하라. 혹시라도 다행히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吳達濟가 아뢰었다.

“臣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 곳을 찾았는데 무슨 유감이 있었습니까?”

다음은 仁祖가 두 신하를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면서 작성한 國書의 내용이다.

‘小邦에 일찍이 一種의 근거 없는 論議가 있어 國事를 무너뜨리고 그 르쳤기 때문에, 昨年 가을에 臣이 그 가운데에서 더욱 심한 자 약간 명을 적발하여 모두 排斥해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드머리가 되어 斥和를 주장한 臺諫대간 한 명은³⁴⁾ 淸軍이 國境에 도착하였을 때 平壤庶尹으로 임명하고 그 날로 즉시 부임하도록 독촉하였는데, 혹 軍士에게 잡혔는지 아니면 샛길로 부임하였는지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34) 장령 홍익한을 말 함.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자는 혹附和雷同한 죄는 있다 하더라도 앞서排斥을 당한 자에 비교하면輕重이 현격히 다릅니다. 그러나 臣이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게만 여긴다면 陛下께서 本國의 사정을 살피지 못하고 臣이 숨겨주는 것으로 의심하시어 臣의 진실한 마음을 장차 밝힐 수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조사해 내어 軍前에 보내면서處分을 기다립니다.

崔鳴吉이 두 사람을 이끌고 청나라 진영에 나아가니, 청 태종이 그들의 결박을 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崔鳴吉 등을 불러 자리를 만들어 크게 대접할 기구를 올리게 하면서 招裘^{초구}³⁵⁾ 1襲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崔鳴吉 등이 이것을 입고 네 번 절하였다.

尹集과 吳達濟는 그들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때에 한 將帥에게 끌려서 軍陣의 뒤를 따라 北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淸國 장수는 尹·吳 두 學士를 끌고 가면서도 그 節概와 義理에 感服하여 恒常尊敬하였다. 처음 양화나루에 도착하여 尹集이 아우 柔剛^{유강}에게 보낸 書札의 내용이다.

“2월 3일에 처음 형님이 끝내 死節하셨다는 기별을 듣고, 차라리 곧 죽으려고 하였으나 나라를 위하여 억지로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끌려가는 것은 대개 淸이 지난봄에 斥和한 사람을 잡아 보내라고 要求함으로 朝廷에서 洪翼漢이라고 대답하였더니, 또 南漢山城 안에 있는 사람으로 斥和한 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城中에는 마침 그럴

35) 招裘: 담비의 모피로 만든 가죽옷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와 吳達濟가 疏를 올려 自進하여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은 곧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니 조금도 남을 원망할 것은 없다. 다만 늙으신 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다시 뵈 수 없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피눈물을 흘릴 뿐이다.”

4월 15일에 淸軍에게 끌려 심양에 도착하자, 禮部의 한 작은 방에 가둔 채 자물쇠를 잠그고 엄중하게 지키고 있었다. 4월 19일 龍骨大가 불러내어 問招하기 시작하였다. 淸 皇帝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였다.

“너희들이 비록 和親을 배척하였다고는 하나, 앞장선 것 같지는 않으니, 반드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妻子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살게 하라.”

이에 尹集이 대답했다.

“그 말에 결코 따를 수 없으니, 어서 빨리 죽여 다오.”

龍骨大가 되풀이하여 거듭 달래고 또 위협하기도 하였으나 굽히지 않으므로 일어나 나가버렸다. 尹集과 吳達濟가 나와서 데리고 온 下人에게 말했다.

“오늘 오랑캐가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下人이 놀라 울며 말했다.

“왜 龍骨大의 말을 좇지 않고, 그들의 怒氣를 돋우어 스스로 큰 禍를 앞당기려고 하십니까?”

이에 尹集이 웃으며 말했다.

“몸을 굴복하는 모욕은 죽는 것 보다 도리어 더한 수치이다. 이것을 너는 알지 못 한다.”

吳達濟가 尹集에게 말했다.

“죽는다는 것은 비록 사람의 常情으로서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잠깐 동안만 참으면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니,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것이요. 더구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不義에 굴복하는 것인데, 구구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어찌 비루하지 않겠소, 우리들이 만약 저들의 말을 좇아 妻子를 거느리고 와서 이곳에서 산다면 마침내 오랑캐가 되고 말 것이니, 이 말을 좇을 수 있겠소”

드디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웃고 이야기하며 평소와 같이 음식도 먹고 지냈다. 한참 뒤에 龍骨大가 다시 와서 두 學士를 끌어내고, 또한 따라간 下人 3명도 잡아다가 담 옆에 가두어 놓았다.

瀋陽 質館에 있던 宰相 南以雄, 朴魯, 朴潢과 兼輔德 李命雄이 朝廷에 올린 狀啓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龍骨大가 우리들 館員들을 衙門아문에 불러놓고, 尹集과 吳達濟를 그 앞에 데려다가 청나라 皇帝의 命을 전달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和議를 거절하기를 부르짖어 두 나라가 紛爭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그 죄가 지극히 중하다. 그러나 皇帝께서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기고 아끼시어 저들의 死刑을 용서하고, 妻子를 거느리고 여기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자, 尹集은 곧 말하기를,

“妻子가 난리에 흩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뒤에 마땅히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吳達濟는 말하기를,

“내가 죽음을 참고 여기에 온 것은 만일 살아서 돌아간다면 다시 나의 임금과 늙은 어머니를 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故國에 돌아갈 수 없다면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皇帝께서 살리고자 하시는데 제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어서 事勢가 안 죽일 수 없게 되었다. 고 하여, 宰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젊은 사람들로써 다만 임금과 아버지를 戀慕연모하는 마음만 간절하여 망령되게 이렇게 한 말입니다. 만약 끝까지 曲盡곡진히 保全하여 주신다면 어찌 千秋萬代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龍骨大가 말하기를,

“이것은 宰相들이 形便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하였다. 宰相들이 간곡히 빌어 마지않았지만 尹集과 吳達濟는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世子侍講院에 있던 弼善 鄭雷卿이 譯官 鄭命壽

를 시켜 그들의 屍身만이라도 거두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오랑캐들이 끝내 허락하지 않아 屍身 수습조차 할 수 없었다.

瀋陽 質館의 宰臣으로부터 狀啓가 도착한 것은 6월 6일이었다. 仁祖는 承政院에 傳敎하였다.

“두 臣下의 일이 지극히 참혹하고 슬프다. 마땅히 每月 그들의 집에 俸祿을 支給하라”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尹集의 家門은 祖父 尹暹섬과 尹榮 尹集 兄弟 등이 代를 이어 節臣이 나온 것이다.

宋時烈의 宋子大典에서 발견된 墓碑銘이 있는데, 서울의 서쪽 盤松坊에 祠堂만 짓고 碑가 없어 墓碑銘을 지어달라고 尹集의 아들 以宣·以徵과 조카인 以性·以健이 간청하여 지었다고 한다. 碑銘은 다음과 같다.

有明朝鮮 弘文館校理 尹公集 成伯이 죽은 뒤에 棺이 없고, 그 祠堂만이 서울의 서쪽 盤松坊에 있는데, 그의 아들 以宣·以徵과 조카인 以健·以性이 돌을 깎아 碑石을 세우고 銘을 청하여 새기려 하였다. 다음과 같이 銘한다.

天有敍秩 하늘엔 질서가 있고
聖作春秋 성인이『春秋』를 지으므로
彝倫罔晦 이륜이 어둡지 않아서
夷夏有區 이적과 중화가 구분되었으니

矧我青丘 어찌 우리나라뿐이겠는가
 帝都東屏 제도의 동쪽 번방(藩邦)으로
 箕疇旣明 기자의 범주가 이미 밝았고
 周禮又秉 주나라 예를 붙잡았는데
 皇帝九年 황제 구년에
 有虜僭號 오랑캐가 帝號를 참칭하고는
 謂我可嚇 우리나라를 협박할 만하다고 여겨
 且利以要 이로써 요구 하였네
 我王赫怒 그러자 우리 임금 크게 노하시어
 義折凶狡 의로써 음흉한 간교 거절 하였네
 英聲所振 훌륭한 명예 떨친 곳에
 暗聲增氣 말없이 기세가 증가되었네.
 事聞天庭 일이 天子의 朝廷에 알려지자
 褒詔下賜褒賞하는 詔書 내려 주었건만
 廟筭低徊 朝廷의 계획이 위축되어
 不遂于始 처음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亟發間使 급히 간사를 보내어
 以謝前事 전의 일을 사과 하였네
 侃侃尹公 강직한 尹公이
 正色朝端 朝廷에서 정색하고
 察衆人議 여러 사람의 의논 살피니
 氣湧如山 義氣가 山같이 솟아 올랐네
 遂爲上言 마침내 임금에게 進言하기를
 此甚無章 이것은 매우 법이 없는 일입니다

天惟一日 하늘엔 오직 하나의 太陽인데
 土豈二王 땅에 어찌 두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我事天朝 우리나라가 天朝를 섬기고 있으니
 彼則讎賊 저들은 원수요 적입니다
 今乃自帝 지금 帝라 참칭하고
 益肆狂逆 더욱 미쳐서 패역을 부리고 있는데
 縱坐力弱 비록 國力이 약한 처지라서
 未問其罪 그들의 죄를 問責하지는 못하나
 忍與通使 차마 그들과 使臣을 통하여
 義之與悖 옳게 여겨 함께 패역할 수 없다 하였는데
 我言桢鑿 나의 이 말이 그들과 서로 맞지 않으니
 姦徒讎齟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갈았네
 是年季冬 이해 늦은 겨울에
 虜騎大入 오랑캐의 騎兵이 크게 침입하니
 從難于南 난을 피해 南漢山城으로 호종 하였네
 孤城危迫 외로운 城이 위급해지자
 公又上言 공이 또 말을 올렸으니
 死守之策 그것은 죽기로써 지키자는 計策이었네
 曰無言和 和親을 말하지 말아서
 以墮虜計 오랑캐의 계획 떨어뜨려야 한다 하였는데
 士氣一沮 士氣가 한 번 沮喪되었으니
 直壯安恃 強直하고 씩씩한 사람 어디를 믿을꼬
 勢窮理屈 事勢가 궁하고 事理가 굴했으니
 惟有義死 의로운 죽음이 있을 뿐이었네

蓋人安燕 사람들은安逸에 빠져 있으니
 名節俱惜 名譽와 節義 모두 애석 하여라
 利害劫之 利와 害로 겁박하매
 遽忘疇昔 문득 지난날의 일 잊었는데
 危不捨正 위태할수록 正義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寔惟公獨 실로 公 한 사람뿐이었네
 明年丁丑 다음해 정축년
 月正元日 정월 초하루에
 君臣揮泣 君臣이 눈물을 흘리면서
 遙拜帝闕 멀리 명나라를 향해 절하였지만
 事已無奈 事勢가 어찌할 수 없어
 惟虜是聽 오직 오랑캐의 명령만 따랐네
 虜曰誰與 오랑캐가 말하되 누가
 斥和者名 斥和한 者인가 하자
 公言和議 公이 말하되 和議를
 臣實力攻 臣이 실로 힘써 반대하였으니
 當往見戮 마땅히 잡혀가 죽임을 당하여
 幸以彌縫 國難이 미봉되었으면 다행이겠다고 하니
 聖主至仁 聖主께서 지극히 仁慈하시나
 罔存孤忠 외로운 忠臣 보호할 길 없어
 惟吳學士 오 학사와
 與洪庶尹 홍 서운을
 旣許縛執 이미 결박할 것을允허하여
 同詣其陣 함께 오랑캐의 陣中에 나가게 하였네

是月廿八 이달 二十八日
 拜辭行闕 行闕을 배사하니
 上泣曰吁 임금이 울며 말하되
 古寧有是 아 고금에 어찌 이런 일 있었는가 하고는
 顧謂中人 座中の 사람에게 일러
 酌酒以賜 술을 따라 내려 주라 하시고
 爾之初心 너희들의 처음 먹은 마음은
 欲予守正 나에게 正道를 지키도록 하였지만
 事今大謬 지금의 事勢 크게 잘못 되어서이니
 爾則自靖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안정하라
 在予曷忍 난들 어찌 차마 할 일이라
 惟爾家恤 오직 너의 家族 보살피 주마하고
 因問爾等 인하여 물기를 너희들은
 有無倫屬 가족이 있느냐 하니
 公拜曰臣 공이 절하고 말하기를 臣에게는
 家有釋耄 집에 어린 자식과 늙은 조모 있는데
 就臣兄榮 臣의 兄 榮에게 가면 될 것이나
 今聞陷沒 지금 들으니 적에게 함몰되었다 합니다
 上曰慘矣 임금이 말하기를 처참한 일로다
 爾其珍重 너는 몸조심하라 하였네
 翌日己巳 다음날 己巳일에
 出就于莘 나가 수갑을 받자
 謂公息息 공에게 길을 서두르라 하였으나
 公峙而竦 공은 우뚝 솟은 기상으로

萬人吾往 만 인이라도 당해 낼 기세인데
 一毛寧動 털끝 하나인들 어찌 움직이라
 有謂公言 공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多引自免禍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示唆하니
 公笑曰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것은
 意實非善 실로 좋은 계책이 아니다
 欲假吾手 내 손을 빌려서
 盡除諸彦 여러 어진 분을 모두 제거하려는 것이라 하였네
 遂至江頭 드디어 압록강 가에 다다르니
 大酋偃蹇 큰 酋長이 거드름을 피웠고
 渠有嗔詰 저들은 성내며 힐책하였으나
 我無遜辭 공에겐 위족된 말이 없었네
 遂驅以北 마침내 북쪽으로 몰고 가서
 雪窖幽羈 눈 쌓인 음 속에 가둬 놓았다가
 維夏四月 여름 사월
 十九日朝 열 아흐레 아침에
 虜人引出 오랑캐 졸개 공을 끌어내며
 威脅咆哮 위협하고 호통 치기를
 曰爾改心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서
 爲我國臣 우리나라 臣下가 된다면
 並取妻孥 너의 妻子까지 데려다가
 永爲吾人 영원히 우리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니
 公與吳公 공과 吳學士가
 同奮其舌 함께 강경히 말하기를

如蘇子卿 漢나라 蘇武가
 拒蹈陵律 李陵과 衛律을 꾸짖듯 하니
 虜慙其下 오랑캐가 그만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且不忍聽 또 차마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어
 是日城西 이날 성 서쪽에서
 遂與并命 殉節하고 말았네.

尹集의 詩文이 三節遺稿에 몇 편 전해온다.

除夜

半壁殘燈照不眠 가물거리는 등잔아래 잠은 안 오고
 夜深虛館思悽然 밤깊은 쓸쓸한 다관, 마음만 처량하네
 萱堂定省今安否 고향제신 어머니 평안하신지
 鶴髮明朝又一年 흰머리로 내일이면 한살 더 드시겠네.

그의 遺書와 紀行文 1冊이 衣帶 속에 들어 있었으나 殉節하기 直前に 淸人에게 수거 당하여 散失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南漢山城에서 出城하기 전에 自作詩 3편을 鄭雷卿에게 지어주었다고 하나, 난리 중에 흩어져 정확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때 弘文館에서 함께 校理職에 있던 鄭雷卿이 和答한 詩가 전해오는데, 다음과 같다.

君今死義不須悲 의에 죽는 그대 슬퍼할 것 없네.
 我見吳城豎白旗 나는 오성에 꽃은 백기를 보았네.

臨別丁寧贈劍意 이별할 때 정녕 칼을 넘겨준 뜻은
 百年慚負故人知 백년이가도 친구의 뜻 저버림을 부끄러이 알게 함일세.

尹集 詩 三首(三節稿)에서

如何驕虜尚橫行 어찌하여 교활한 오랑캐가 횡행을 하는가.
 媚賊姦臣壅物情 적에 아첨하는 간신들 모든 정황을 가리네
 禽鳥不如宗社耻 사직에 부끄러움 금수만도 못한데
 臨風猶作舊時聲 권세에 임해서는 옛날의 공만을 내 세운다

强策青藜屋後行 강력한 척화소 올리고 사직하고 돌아오니
 隔林鶯語引鄉情 앵무새들 숲에 가리어 고향정취에 끌리누나
 此日微禽猶慷慨 이날의 작은 몸 오히려 강개하니
 傍人休道凱歌聲 사람들아 말을 마라 이것다는 소리를

翠華遙作去邠行 오랑캐의 깃발 따라 먼 땅에 가려는데
 帷幄誰能測虜情 장막 속에서 뉘 능히 오랑캐의 사정 헤아리랴
 廟堂區畫惟和事 묘당에선 구구하게 화친만을 떠들어대고
 西塞終無戰鬪聲 서쪽 변방에선 전투하는 소리 끝내 없었네.

尹集의 位牌가 顯節祠에 配享 된 것은 1688년(숙종 14) 三臣祠를
 짓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春秋로 祭享하여 오다가 일제강점
 기로부터 최근까지 년 1회 음9월10일에 제향 하였다. 2012년 매년 음
 력 3월과 9월 中丁日에 年2回 廣州市 當局과 顯節祠 社團, 그리고

廣州地域 儒林들이 祭享하고 있다.

墓는 虛墓로 衣冠을 매장하였고, 부인 安東金氏(淸陰 金尙憲의 姪女)와 합葬이며, 忠淸南道 扶餘郡 內山面 溫蟹里 南原尹氏 宗山에 소재하고 있고, 神道碑가 墓下에 있는데 尹集이 殉節 한지 338년 후인 1975년에 세워졌다. 碑文은 宋時烈이 찬하였다.

尹槩의 아들 以明이 『三節稿』 木版本 10卷 3冊을 發刊하여 전해오고 있다. 序文은 尤菴 宋時烈이 썼고, 宋浚吉, 鄭斗卿이 跋文을 썼다. 세 節臣의 詩文을 모아 編纂한 文集인데, 尹集의 詩·疏·策 등은 9권과 10권에 실려 있다. 諡號는 忠貞이며, 議政府 領議政에 追贈 되었다.

尹集 肖像畫에 대한 辨正



傳 尹集 肖像(종이에 수묵 83.9cm 37.3cm)

자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國立中央博物館에는 ‘尹集肖像’과 ‘傳尹集肖像’이라는 두 肖像畫가 소장되어 있다. 종이에 白描法으로 그린 초상화에는 “仁祖朝 三學士”라는 畫讚이 있어서 三學士 모두를 그린 것이 아닐까 추정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洪翼漢 吳達濟 두 分の 肖像畫는 확인되지 않는다.

絹 바탕에 채색으로 그린 尹集의 肖像畫 또한 나라에서 이를 그리게 하였다면 三學士 모두를 그렸을 가능성이 큰데 洪翼漢 吳達濟의 채색 肖像畫는 확인할 길이 없다. 後에라도 두 分の 肖像畫가 발견되어 나라를 위해 殉節하신 三學士의 尊影을 우러러 敬拜할 날이 오기를 懇願하며 發見된 尹集의 두 肖像畫를 살

펴보기로 한다.

仁祖朝 三學士

尹集 字誠伯 號林溪 榮弟 官校理 贈領議政諡忠貞

集爲人潔清狷介好直諫王雖不聽亦不止也

集諫曰土臣皆願一戰而 殿下不許反致斗酒賀虜營是 殿下見慢於鳴吉也 鳴吉因啓曰 今帥師而來如遣使問起居則和親可成矣 王又許之 集諫曰 虜爲伐我而來何問起居 集入見數鳴吉罪以死爭之 集曰 臣等嘗以不死爲恨 今得死處又何憾哉 獻予虜營賓客 送至城西門外 無不慟哭城中觀者皆流涕 虜曰何不戰而反 集對曰 吾等言其不可所爭者 義而已成敗 存亡不論也 吾國既送吾首 謀絕盟者 無遺臣矣 趣斷吾頭勿復言 死於虜庭 是明我之義也 豈不樂哉 朴演等亦勸降服 集大罵不從 謂其奴曰 虜必殺我矣 奴驚且泣曰 何不姑從異言 集笑曰 屈體之辱是於死 非汝所知也

尹集의 字는 誠伯이요, 號는 林溪이다. 榮의 아우이며, 벼슬은 校理인데 領議政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忠貞이다.

尹集은 사람됨이 깨끗하고 慷慨하여 直諫을 좋아했는데, 임금이 비록 듣지 않아도 또한 그치지 않았다. 집이 말했다. “土臣은 모두가 적과 한 번 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殿下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반대로 말을 내어 虜營[淸軍]에 賀禮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崔鳴吉의 거만함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최명길 이 아뢰었다. “지금 청나라 군대가 온 이래 使臣을 보내 起居[問候]

를 묻는 것을 보면 和親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최명길의 啓奏를 받아들여 허락하였다.

集이 諫하여 말했다. “虜賊[淸]이 우리를 친 이래 언제 起居[問候]를 물었습니까?” 집은 임금께 들어가 자주 鳴吉의 잘못을 지적하며 죽기로 爭論했다. 집이 말했다. “臣 등은 일찍이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지금 죽을 곳을 얻었으니 어찌 遺憾이 있겠습니까? 저를 虜賊의 軍營에 보내주십시오.” 집이 城 西門 밖에 이르자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성 안에서 보는 사람마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虜賊이 말했다. “어찌 싸우지 않고 도리어 잡혀 왔는가?” 집이 대답했다.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爭論할 바가 아니다. 義理로써 이미 成敗를 논한 것이니 存亡은 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내 머리를 보냈으니 너희와의 絶盟을 圖謀하고 우리 조정에 남아 있는 臣下는 없다. 어서 내 머리를 자르고 다시 말하지 말라. 노적의 조정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明國에 대한 우리나라의 義理를 지키는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朴演(『三學士傳』 등에는 朴潢으로 표기됨.) 등이 또한 항복을 권하니 집은 크게 욕하면서 따르지 않고 그 奴僕에게 말했다. “虜賊[淸]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노복이 놀라서 말했다. “어찌 잠깐 저들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집이 말했다. “몸을 굽혀 욕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죽는 것이니, 너의 알 바가 아니다.”(顯節祠 有司 朴光敏 譯)

尹集 肖像畫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尹集 肖像畫’ 두 점 중 한 점은 白描畫法으로 그린 ‘傳尹集肖像’이라는 작품이고, 또 한 점은 전통 초상화 기법의 尹集肖像畫다. ‘傳尹集肖像’은 “그림 속 인물이 윤집이라고 전해 온다.”는 뜻이다. 두 肖像畫의 특징을 살펴보자.

1. 傳尹集肖像(유물번호 德壽-003916-000)

이 그림은 종이에 水墨線描로만 그린 尹集의 肖像畫인데, 크기는 세로 83.9cm, 가로 37.3cm다. 작자는 알 수가 없으나 人體比나 線描 처리의 능숙한 솜씨로 보아 專門畫員의 그림으로 추정할 수 있다. 畫讚을 쓰기위해 그림 위에 충분한 餘白을 남긴 점과, 그림 선의 먹과 畫讚 글씨를 쓴 먹의 濃淡과 먹색의 變色 상태를 살펴보면 그림을 그린 분이 畫讚까지 쓴 것이 확실해 보인다.

몇 년 전 어느 美術競買에 朱子를 그린 朱文公肖像 한 점이 출품된 적이 있는데, 이 朱文公肖像畫 역시 線描畫 기법으로 그리고 얇은 淡彩를 사용해서 그렸다. 전형적인 釘頭鼠尾[선의 윗부분 시작점은 못의 대가리 같고, 아래는 쥐의 꼬리처럼 내리 굽는 그림 기법] 형식이 보이는데 이는 金弘道나 申潤福을 비롯한 18세기 後期 화가들이 많이 사용한 技法이다.

윤집초상도 주문공초상과 비슷한 기법의 線描 작품이지만, 朱文公 초상화와는 선묘 기법이 많이 다르다. 이 그림이 金弘道가 활동하던 시기의 작품이라면 그려진 時期는 18세기 中後期가 되겠지만, 釘頭鼠尾 기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김홍도보다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17세기 中期에 최소한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畫員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尹集과 同時代의 17세기 畫家라면 선비화가인 滄江 趙涑 같은 분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조속은 유명한 金櫨圖[金樞圖]를 그린 분으로 많은 花鳥翎毛畫를 남겼다. 仁祖反正 때 공을 세웠으나 勳名을 사양했고, 性稟도 맑고 節操가 있어서 윤집과 같은 충신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적합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는 조금 뒤이지만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활동하며 肖像畫와 人物俗畫에서 최고의 솜씨를 보여주었던 觀我齋 趙榮祐도 떠올려 볼 수 있다. 畫讚 뒤에 名號를 남기지 않은 것도 관아재의 평소 언행과 닮았다. ‘世祖’와 ‘肅宗’의 御眞을 그리는 ‘御容畫師’로 부름을 받았지만 끝내 畫師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書畫帖인 『窮臍帖사제첩』에도 “勿示人犯者非吾子孫-남에게 보이지 말라. 이를 범하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후손에게 전했을 만큼 화가로서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관아재의 潔氣와도 겹쳐지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초상화의 얼굴에 주름이 보이고, 많이 늙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인지 ‘傳尹集肖像’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얼굴을 확대해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 사람에 따라 실제 나이보다 더 年晩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童顔인 사람도 있는 법이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보다 훨씬 早熟하고 年晩해 보이는데다 수염조차 깎지 않아서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畫讚의 내용은 尹集의 평소 모습과 南漢山城에서 崔鳴吉과의 諫

爭, 淸塵에 끌려가서 龍骨大와 問答하는 내용, 죽음에 이르러, 義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毅然한 모습 등을 담고 있는데, 많은 내용을 제한된 글자에 담다보니 무리하게 縮約된 점도 있어 보인다.

이 그림을 尹集 肖像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畫讚의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화찬을 쓴 분도 이 肖像畫 속 인물을 윤집이라고 여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生前의 尹集을 보았던 분이 그 모습을 기억했다가 그리고 畫讚을 쓴 것이라면 더 그렇다. 그림의 作者와 畫讚을 쓴 분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지만 나라에 忠誠하고 節義를 위해 毅然하게 죽어간 三學士 중 한 분의 모습이나마 그 尊影을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웃음을 여며 우러러 보게 된다.

2. 尹集肖像(유물번호 德壽-004744-000)

전통 초상화 기법으로 비단 바탕에 彩色으로 그린 이 작품은 ‘傳尹集肖像’과 달리 ‘尹集肖像’이라고 표기하여 ‘傳’字가 붙지 않았는데, 朝廷에서 그려 내린 功臣肖像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三學士 세 분을 모두 그렸을 것인데, 洪翼漢 吳達濟 두 분의 肖像은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앞으로라도 두 분의 초상이 발견 되어서 忠臣의 眞影을 우러러 敬拜할 수 있게 되기를 懇願한다. 尹集 肖像畫의 특징을 앞의 白描肖像畫와 對比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눈에 띈다.

머리에 紗帽를 쓴 인물은 앞의 ‘傳稱作’ 보다는 젊게 보이는데 얼굴색은 背彩法으로 처리한 듯하다. 두 초상화의 얼굴은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눈썹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으며, 콧대와 콧방울,

콧바퀴, 뚜렷한 人中, 갈매기가 나는 듯 윗입술의 가운데가 깊이 내려온 점 등이 똑 같아서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다만 彩色 肖像畵의 눈매가 위로 치켜 올라가고 炯炯^{형형}한 光彩는 剛固한 성품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白描肖像의 눈매는 비교적 평범하여 對比되고, 턱선의 모습도 다르다. 백묘 초상은 먹선으로만 인물을 표현했으므로 얼굴이나 옷주름에 明暗 처리가 없어서 완벽한 對比는 불가능하다. 콧수염과 턱수염은 백묘 초상화에 비해 조금 성긴데, 귀밑수염과 머리털이 희게 세어서 나이는 30대 前後로 보인다. 오른쪽 광대뼈 뒤로 사마귀가 보이고, 콧등과 양쪽 눈 밑에 희미한 斑點까지 여러 개 그려 넣은 것을 보면 傳神寫照의 초상화 기법이 충실히 구현된 작품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작품은 尹集의 眞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물은 交椅에 앉아 있는데 등받이에는 豹皮를 깔았고 옷감에는 녹두색 바탕에 흰 구름 무늬를 넣었으며, 가슴에는 五色 구름이 둘러싼 바탕에 雙鶴이 날아오르는 胸背를 장식하였는데, 옷 주름 선을 다소 圖式的으로 그었다. 이 흉배로써 초상화가 그려진 연대를 대강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端宗 때 시행된 복식 제도에는 胸背로써 신분을 나타내게 했는데, 왕은 五爪龍 繡를 놓은 흉배를 장식했고, 世子는 四爪龍 胸背를 장식했다. 大君은 麒麟, 都統使는 獅子, 諸君은 白澤(神獸), 1품은 孔雀, 2품은 雲鶴, 3품은 白鵬^{백한(펭과 비슷한 새)}, 武臣 1품과 2품은 虎豹, 3품은 熊豹, 大司憲은 獬豸^[해태] 흉배를 달아 정3품 당상관 이상만 해태 흉배를 장식하였다. 1505년(燕山君 11)에 다시 흉배에 대한 논의가 있어 堂下 9품까지 흉배를 장식하게 하였는데 사슴·멧돼지·아(鵝:거위)·기러기 등의 문양을 추가해 品階를 구분하였다.

英宗[英祖] 10년(1734)에는 흉배를 간략하게 통일하여 文臣堂上官은 雲鶴胸背, 堂下官은 白鷗胸背 백한흉배를 장식하게 하여 고종 때까지 시행하였다. 1871년(고종 8)에 문신당상관은 雙鶴, 당하관은 單鶴, 무신 당상관은 雙虎, 당하는 單虎로 정하여 韓末까지 사용하였다.

尹集은 正五品인 弘文館 校理를 지냈으므로 堂下官인데, 肅宗 12년 丙寅年(1686) 12월 21일(辛未) 삼학사에게 諡號를 내렸으니, 洪翼漢에게는 忠正, 尹集에게는 忠貞, 吳達濟에게는 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肅宗 31년 乙酉年(1705) 음력 1월 11일(丙午)에는 洪翼漢 尹集 吳達濟를 領議政으로 追贈하였다. 초상화 인물은 堂上官만이 할 수 있는 雙鶴胸背를 장식하고 있으므로, 尹集이 領議政으로 追贈되고, 英宗 10년(1734)에 胸背制度 개선이 있는 후에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초상화의 제작 연대를 19세기 초로 보는 見解도 있는데, 18世紀 中後期 정도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顯節祠 有司 朴光敏 謹識_{근지})



尹集肖像(緋에 채색 153,6cm 91,8cm)

자료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吳達濟의 行狀과 事蹟



吳達濟 선생·貞敬夫人 高靈申氏, 貞敬夫人 宜寧南氏 墓(京畿道 龍仁市 處仁區 慕賢面 吳山里)



吳達濟 선생 帶囊藏碑

오달제선생 묘 및 대낭장비

Tomb of Teacher, Oh Dal-je & Waistband

- 등록번호 : 용인시 향토유적 제3호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산 45-14

- Registratin number : No.3, Local ruins of Yongin City

Teacher, Oh Dal-je(1609-1637) was a civil minister during the middle period of Chosun Dynasty and was one of three great scholars with the second given name of Gwchal, son name of Chadoon, and his place of origin was Hwang. In the 13th year of reign of King Injo (1634), he had passed the special civil examination in the top and he had become deputy manager (Yeo 5th grade government offici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16th year of reign of King Injo (the 1636) via the Position of a teacher of National University and an editor. At that time, he had inspired Mr. Chok Myeong all of the party of power prominent in aggressive opposing to the exchange of money with China. During Japanese invasion (Ching's invasion of Korea in 1627), he returned to Hwangsan mountain fortress and supported to the great treaty with China and had insisted a war against Ching. After the completion of confliction with Ching, he was transferred to the camp of enemy and he never gave up to the interrogation of the enemy. General of Ching, Jongsigul and again he was transferred to Shenyang. In there, he was murdered together with Hong, Yi-han and soon, etc. Later he was transferred punishment house of prison minister and kept the name of Chingprent was awarded. As his publication, there is "Punishment edition of his Chingprent". In his tomb, his waistband and pouch he used to carry were found. As he was murdered in Shenyang, China and even his corpse was not recovered and returned to Korea. In the front of the grave, there are stone stele, table stone, inscribed stone and on the both sides, there are stone materials such as a box stone, a pair of stone points, and a civil official image stone. On the both sides of the front of the grave, there are tomb of his first wife, Mr. Shin of Gyeongju and his second wife, Mr. Nam of Enryoung. At the entrance of the tomb, Mr. Oh Gyeong-woo who is a grandson of Teacher Oh had erected "Waistband pouch Tombstone" to commemorate remarkable character service of the teacher. Judging from document regarding of established in a tablet of the year of the Bat after death matter on the backside, it is estimated that the tombstone was erected in the 19th year of reign of King Seonjo (1820). The tombstone is 201cm high, 50cm wide, and 30cm thick and has cover stone with eight corners road as well as rectangle base stone of the tombstone and main body of the tombstone is made of granite.

吳達濟 선생 帶囊藏碑 설명

琴瑟恩情重 (금슬은짐중)
 : 부부간의 정을 음하기도 하건만
 相逢未二暮 (상봉마이지)
 : 우리 서로 만난지 두 돌이 못 되었오
 今成萬里別 (금성만리별)
 : 이제 서로 만리 밖에서 떨어져 있어
 虛負百年期 (허부백년기)
 : 백년기약이 헛되어 깬구려
 地闊書難寄 (지광서난기)
 : 땅은 넓고 편지 편지조차 부치지 어쩔고
 山長夢亦遲 (산장몽역지)
 : 산은 길고 꿈이 꿈조차 어디 구려
 吾生未可卜 (오생미가복)
 : 내 삶을 짐칠 수 없으니
 頻護腹中兒 (빈호복중아)
 : 배속의 아이나 잘 길러 주시오

秋潭 吳達濟 先生 詩 三學士



吳達濟 先生의 詩와 墨梅畫

憶 母親 親用進退體 行到正月日 被執北去 詩此
 風塵南北各萍洋 誰謂相分有此行 別日同兒同拜
 母未時一子獨處庭 絕裾已負三遺教 絳空懸寸
 草情關塞遠 帶西景暮此生何路更歸寧
 孤臣義正心無作 聖主恩深死亦輕 最是此生無
 際憾 北堂慈母倚門情 五 忠烈公遺稿
 南漢當時就死身 楚囚猶作未歸臣 西來幾涉思兄
 淚 東里遙憐憶弟人 鴻恩雲漢難堪 雲漢池草惜
 殘春 想當彩服趨庭日 忍作何辭慰老親 寄伯氏 寄內
 琴瑟恩情重 相逢未二暮 今成萬里別 虛負百年期
 地闊書難寄 山長夢亦遲 吾生未可卜 頻護腹中兒

오달제 선생의 絕命詩 三首(「忠烈公遺稿」)

山嶺外窮僻曉聞
 山嶺外窮僻曉聞
 而還正此耶抑別有他三丘耶弟等青陽邑
 去時事奉談話尚奇神精不異於平
 日人事了不可料若如此慟矣
 喪出時立京左御并未可仲若弟生師
 別初喪在石亦何以來據耶乃玄流
 播甲無銘前聞二十年交誼於此已
 尚何言了壯歸之期未有定時前頭
 靈送一慟亦未知何時必先慰慰惟
 諸哀痛讀此懷耳
 耶并期或可同咸平互轉示耶不宣
 廿九日 達濟啟

吳達濟 先生 簡札

吳達濟의 行狀과 事蹟

吳達濟는 1609年(光海君 1)에 태어나 1637年(인조 15) 瀋陽 敵地에서 殉節한 朝鮮 中期의 文臣이다. 本貫은 海州, 字는 季輝, 號는 秋潭이다. 父親 府使 吳允諧의 3男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伯父는 仁祖 때 領議政을 歷任한 楸灘 吳允謙으로 吳達濟는 그의 伯父에게서 修學하였다. 伯父 允謙은 成渾의 門人으로 性理學의 大家였다.

吳達濟는 1625年(인조 3) 17세에 혼인했다. 夫人은 高靈申氏로 申得淵의 딸이었다. 1633년 夫人이 妊娠 중의 몸으로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1634년 3월에 縣監 南弼의 딸로 당시 19세였던 宜寧南氏를 再娶로 맞았다.

1627년 19세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1635년 26세에 別試文科에 壯元及第하였다. 慣例에 따라 成均館 典籍에 除授 되었고, 이어 兵曹 佐郎, 侍講院司書, 司諫院 正言, 司憲府 持平 등 淸要職을 두루 거쳤다. 1636년 겨울 丙子胡亂이 발발하던 해 봄에 弘文館 修撰이 되었고, 10월에 副校理가 되었다. 같은 해 봄 朝鮮朝廷의 確固한 政策은 청 태종의 自稱 皇帝라 칭하는 것과 ‘金’이라는 國號를 ‘大清’으로 개칭하면서, 朝鮮을 그들의 屬國으로 만들려는 强要를 물리치고, 淸이 침범할 것에 대비해 一戰을 不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朝廷 안에서는 여전히 決戰을 각오하고 對備하자는 斥和派와 淸과 和議하여 戰爭을 막자는 主和派의 논쟁이 극렬하였으며, 斥和臣들은 綿密하게 作戰計劃을 세워 仁祖에게 上疏하였다.

尹煌은 江華島에 配置한 兵力을 모두 平安道로 보내고, 江華島에 지어놓은 行宮마저 태워버림으로써 決戰의 意志를 보여 달라고 했다. 鄭蘊은 尹煌 보다 더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仁祖에게 決戰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都元帥를 義州로 보내 압록강을 방어하고, 義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城을 지키겠다는 勇士를 選拔^{선발}하는 科擧(效死守城科)를 실시하여 決死隊를 뽑고, 仁祖도 開城에 進駐하여 將卒들을 陣頭指揮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決戰을 위한 具體的인 작전계획까지 제시했다. 그는 朝鮮의 射手와 火砲兵을 ‘天下無敵’이라고 評價하고 그들을 활용하면 後金軍 騎兵의 돌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主和派의 首長格인 崔鳴吉의 주장은 이와는 달랐다.

崔鳴吉은 決戰에 突入하기 전에 한 번 더 瀋陽에 사람을 보내 淸의 속내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었다. 崔鳴吉의 主張이 나온 직후 備邊司는 심양으로 譯官 權仁祿을 보내 淸의 내부 상황을 탐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吳達濟는 差使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上疏를 올렸다. 『仁祖實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修撰 吳達濟·李禰^{이도}가 笏子^{차자}를 올렸다.

“지금 오랑캐에 사람을 보내는 일은 크게 不可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것 역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까? 교활한 오랑캐가 猖獗^{창열}할까 하여 더욱 방자하게 공갈을 치고 제멋대로 僭呼^{겸호}하며 감히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니, 血氣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하늘이 聖衷을 啓導하여 兇書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오랑캐의 使臣을 준엄하게 배척한 다음 八道에 布告하니 士氣가 倍加되고, 上國에 전주하니 의성이 충분히 들리었으며, 칙사가 광림하고 獎諭장유가 돈독하니, 온 東土 全域이 눈을 씻고 서로 賀禮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요즈음 여기저기서 異論이 생겨나 정탐을 칭탁하여 差使를 보내고, 責諭책유를 핑계하여 書信을 통하였습니다.

이에 謀策이 不良하여 義理가 막히고 떠도는 소문이 자자하여 人心이 이미 흩어졌으며, 비방하는 의논이 흉흉하여 國事가 장차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殿下께서는 미처 살피지 못하신 것입니까? 지금 議論드리는 者는 때와 形便에 따라 둘러대어 일을 칭탁하고, 利害로 움직여서 위로는 天聽을 현혹시키고, 아래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계략을 眩亂현란시켜, 반드시 다시 和親을 닦아 구차스럽게 편안하기를 도모하고자 하니, 아, 너무 심합니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自彊策을 講究하지 않고, 오로지 姑息的인 것만 힘쓰며 義理를 돌보지 않고 恥辱치욕을 달게 여기면, 위로 明朝를 섬김에 어떻게 변명하며, 아래로 臣民에 臨함에 어떻게 忠誠을 권하겠습니까? 萬世에 欺弄지룡을 끼칠 뿐, 目前의 급함을 救濟할 수 없을 것이니, 得失의 기미를 어찌 지혜로운 자라야 알겠습니까. 人心이 분노하여 허물을 위에 돌리고, 士氣가 쇠약해져 목숨을 바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니, 혹시라도 危急한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臣民에게 忠義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경에 이른 후에는 議論한 者의 살을 씹어 먹더라도 有益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봄 和親을 끊은 것은 天下의 大義이니

우리가 먼저 끊지 않으면 어찌 족히 義理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리어 사람을 보내고 書札을 통하여 먼저 끊지 않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僭逆참역한 오랑캐는 참으로 당연히 우리 스스로 먼저 끊어야 할 것인데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기에 이처럼 꼭 변명하고자 하십니까? 구차한 攀條거조는 차마 말할 수 없고, 廟堂의 成算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差使를 보내는 것은 본디 間諜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間諜을 행하는 일을 중지하였은즉 다시 무슨 名分을 빌리겠습니까? 本意가 書信을 통하는 데 있으면서 반드시 겉으로 가리고자 하니, 이처럼 正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을 服從시킬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譯官을 보내고 書信을 통한다는 命을 속히 中止하여 나라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上이 답하였다.

“檄書격서를 보내어 敵情을 탐색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없으니 그대들은 자세히 살피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즉 吳達濟는 崔鳴吉이 위로는 임금의 귀를 미혹하고, 公議를 억누르며,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義理를 돌아보지 않고, 公論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한다고 하면서, 後金과 和解를하고, 和親을 맺자는 것을 격렬히 反對하여 서로 원한을 갖게 되었다. 이때 三司가 집요하게 다투어 論議가 심히 험악해졌다. 崔鳴吉은 臺論이 비록 發議되었으나 한편으로 差使를 보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1636년(仁祖14) 10월 弘文館 修撰으로 있을 때의 吳達濟는 28세로 三學士 중 가장 젊었는데, 崔鳴吉이 仁祖의 뜻에 편승하여 斥和論으로 모아진 言論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和議를 진행시키는 行爲를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仁祖는 崔鳴吉이 社稷에 功이 많은 朝廷의 重臣인데 껄비런내 나는 아이가 함부로 모욕한다고 책망하고, 그러한 言官의 彈劾權을 인정한 國家의 風習을 한탄하였다. 『仁祖實錄』에 실려 있는 吳達濟의 上疏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崔鳴吉이 使臣을 보내어 書信을 통하자는 議論을 和議를 거절한 후에 發論했고, 또 三司의 公論이 이미 提起되었는데도 오히려 國家의 事體는 생각지 않고 上의 意中만 믿고서 經筵席上에서 등대한 날 감히 황당한 말을 진달하여 위로는 聖上의 귀를 현혹시키고 公議를 전제하였으며, 심지어는 臺論이 제기되었더라도 한편으로 使臣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 한 마디의 말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인가 봅니다. 그 말의 전도됨이 몹시 해괴합니다.

玉堂(홍문관)이 對面하여 責望하고 衆論이 격분하여 일어나기까지 하였으니, 崔鳴吉은 의당 황공해 하고 위축되어 物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거늘, 오히려 태연하게 筭子를 올려 理致에 어긋나는 論理를 다시 전개하여 오히려 講和하는 일이 끝이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면서 義理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臺閣의 議論은 체면이 몹시 중한 것입니다. 비록 大臣의 지위에 있더라도 감히 對抗하지 못하고, 責任을 지고 辭職하여 불안한 뜻을 보이는 것인데, 鳴吉은 어떤 사람이기에 유독 公論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처럼 극도에 이른단 말입니까?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죄를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臣이 이런 의향을 本館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러 번 發論하였으나 끝내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臣이 이미 發論했으나 전제가 이와 같으니 臣을 罷職하소서.”

이어 임금의 下敎하였다.

“대체로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만 責望하는 것은 옳지만, 만약 輕重을 살피지 않고 또 地位의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틈타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하는 것은 몹시 옳지 못한 것이다. 判尹 崔鳴吉은 一品 重臣으로 社稷에 功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설사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蔑視하고 辱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짓비린내 나는 어린 사람도 모욕을 주니, 오늘날 國家 風習은 과연 한심스럽다 하겠다. 吳達濟를 우선 罷職하라”

承政院과 司憲府가 함께, 罷職하라는 命을 도로 거두도록 奏請하였으나, 왕이 끝내 듣지 않았다.

이리하여 吳達濟는 집에 居處하고 있다가, 胡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南漢山城으로 들어가 仁祖를 扈從^{호종}하게 되었다. 南漢山城에서 처음에 仁祖는 最後까지 抗戰하여 淸軍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各門에 軍士를 배치하여 臨戰態勢를 강화하였다. 젊은 斥和臣들을 督戰御使로 임명하여 軍律을 다스리게 하고, 武器의 효율적인 배치와 軍糧의 不足을 인식하여 그 對備策을 講究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金瑬와 崔鳴吉 등이 주관하여 淸軍과 和議를 進行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면서 吳達濟는 仁祖에게 尹集과 더불어 和議를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끝까지 싸워서 버티겠다는 意志를

보이면서 협상을 해야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有利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고 強力히 主張하였다. 和議論者들은 하루라도 빨리 戰爭을 끝내고자 하여 淸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결국 江華島가 함락되어 仁祖의 妃嬪비빈을 비롯하여 王子들이 포로가 되자, 抗戰을 포기하고 淸軍에게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울봄에 으뜸으로 斥和한 臣下들을 모두 잡아 押送하라는 청 태종의 降伏條件을 가지고 온 崔鳴吉은 金瑬와 더불어 지난해 봄에 斥和를 主唱한 臣僚들을 모두 淸軍 陣營으로 押送하자고 하였다. 그들이 斥和臣으로 지목한 臣僚들은 11명이었다. 金尙憲, 鄭蘊, 尹煌의 父子, 吳達濟, 尹集, 金壽賢, 金益熙, 鄭雷卿, 李行佑, 洪瑒 등이 다. 그리고 斥和한 臣僚들은 모두 自首하라고 공포하였다. 이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느냐 하는 선택의 어려움 때문이었고, 金尙憲과는 斥和論爭에서 항상 심한 격돌이 있었으며, 위에 열거한 斥和臣들이 金瑬를 몹시 탄핵하고 서로 저촉된 바가 많았던 까닭이다. 이때 羅萬甲이 洪瑞鳳을 책하여 金瑬에게 말했다.

“11명은 너무 많으니 다시 御前에 들어가 뵈고 청하여 若干名만을 뽑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金瑬가 답하였다.

“이제 公의 말을 들으니, 반드시 누구는 보내야 하고 누구는 보내서는 안 될 것을 아는 듯하니, 만일 보내야 할 사람을 指目하여 준다면 그에 따르겠다.”

自首하라는 金瑬의 말에 맨 처음 自首한 사람은 金尙憲과 鄭蘊이었고, 이어 尹集과 吳達濟였다. 仁祖는 洪翼漢 외에 다른 斥和臣은 보낼 수 없다고 버티었으나 최후에는 洪翼漢 외에 두 사람만 더 押送하라고 하였다.

이때 吳達濟는 尹集과 의논하였다.

“南漢山城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保身에만 신경을 쓰는 言官들을 대신하여 言論을 주도하였던 우리들이 自進하여 敵陣으로 가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合意를 보고 王에게 上疏文을 連名으로 써서 올렸다. 그 상소문은 다음과 같다.

‘臣들이 삼가 듣건대 廟堂이 前後에 걸쳐 和親을 배척한 사람으로 하여금 自首하고 가게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君父의 危急함을 救援할 수만 있다면 朝廷에 있는 어느 諸臣인들 감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臣들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上疏를 올려 崔鳴吉의 主和論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바로 더욱 드러나게 和親을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랑캐 진영에 가서 한 번 칼날을 받음으로써 교활한 오랑캐의 要求條件 中 하나를 막도록 하소서.’

(이하생략)

그날 저녁 吳達濟의 兄 達升이 그의 아우를 보고 말했다.

“오랑캐가 찾는 사람은 지난봄에 斥和를 極烈하게 論議한 臣下를 잡

아 보내라는 것이지, 너 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吳達濟가 대답했다.

“비록 내가 으뜸으로 斥和를 論議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미 重臣을 맹렬히 攻斥하였고, 특히 임금이 屈辱을 당하면 臣下는 응당 죽어야 하는 것은 내가 흡족하게 생각하는 바인데, 오늘날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꾀하겠습니까? 男兒가 한 번 죽는데, 죽을 곳을 얻은 것도 귀중합니다. 뒷일은 형님에게 말기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兄도 그 뜻을 더는 말리지 못하였다.

1월 28일에 尹集과 吳達濟는 仁祖에게 下直 인사를 하러 대궐로 들어갔다. 尹集과 吳達濟 등이 下直 인사를 하자, 仁祖가 引見하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嗚咽하였다.

“그대들의 識見이 알다고 하지만, 그 원래의 意圖를 살펴보면, 본래 나라를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古今天下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吳達濟가 아뢰었다.

“臣은 自決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仁祖가 다시 말했다.

“古今天下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왕은 목이 메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吳達濟가 다시 아뢰었다.

“臣들이 죽는 것이야 애석할 것이 없지만, 단지 殿下에서 城에서 나가시게 된 것을 망극하게 여깁니다. 臣下된 자들이 이런 때에 죽지 않고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仁祖가 말했다.

“그대들의 뜻은 君上으로 하여금 正道를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대들에게 부모와 妻子가 있는가?” 하였다.

吳達濟가 아뢰었다.

“臣은 단지 70세의 老母가 있사옵고 불행히도 아직 자식은 없사오나, 전하께서 下問하시니, 臣은 숨기지 못하고 여쭙는 바 現在 뱃속에 一點 血肉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참혹하고 참혹하다.”

장차 죽을 곳에 가면서도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하는 그대들이
죄 없이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城에서 나간 뒤에 國家의 存亡 역시 단정
할 수는 없다만, 만일 온전하게 된다면, 그대들의 늙은 아버지와 妻子는
마땅히 돌보아 주겠다. 모르겠다만 그대들의 늙은 아버지의 年歲는 얼
마이며, 그대들의 나이는 또 얼마인가?”

吳達濟가 아뢰었다.

“제 어미의 나이는 戊辰生 70세이며 臣의 나이는 戊申生 29세입니다.”

드디어 절하고 하직하니, 仁祖가 말했다.

“앉아라.”

임금은 內官에게 명하여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두 臣下가 술을 다
마시고 아뢰었다.

“時間이 이미 늦었습니다. 下直하고 떠날까 합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소중히 하도록 하라. 혹시라도 다행히 살아서 돌
아온다면 그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吳達濟가 울며 아뢰었다.

“臣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 곳으로 나아가니 조금도 유감이 없습니다.”

그날 밤 형 達升이 울면서 아우에게 말했다.

“우리 兄弟의 永訣이 오늘 밤을 남겨 두고 있을 뿐이니, 내일은 어떻게 서로 이별을 한단 말이나. 또 어떻게 집에 가서 老母와 새 弟嫂제수를 본단 말이나? 너는 이 밤이 다 새기 전에 뒷일을 처리해야 한다.”

아우 達濟가 나무를 깎아 조그마한 牌패를 만들어 차면서

“내가 오랑캐 진영에 이르면 기필코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屍體를 수습할 때에 이것으로 信標를 삼으십시오.”

하고는 잠자리에 들어갔다.

1월 29일 두 사람이 敵陣으로 떠나기 직전에 吳達濟의 兄 達升은 官員들에게 애걸하며 부탁하였다.

“내 아우가 山城에 들어올 때 말이 없어서 거의 맨발로 걸어서 들어와서 발이 모두 부르터 걸음도 잘 못 걷는 형편이니, 제발 오랑캐 진영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차마 걸려 보내지는 못하겠으니, 원컨대 한 필의 말을 얻어 타고가게 해 주시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애처로워 눈물을 흘렸다. 崔鳴吉이 앞장서서 吳達濟와 尹集을 데리고 西門으로 나가는데, 三司의 同僚들이 西門 밖에까지 나와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였다. 그러나 두 學士는 神色の 변함이 없이 태연자약 하였다. 오랑캐 진영으로 가다가, 한 양지바른 언덕에 이르러 잠깐 쉬는데, 崔鳴吉이 말했다.

"그대들이 스스로 죽음을 면하는 방도가 있소. 저들에게 가서 저들이 만일 詰問힐문하면, 그대들은 마땅히 斥和를 그대들만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인하여 그때의 臺閣대각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列擧열거한다면, 形勢上 다 죽이지는 못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좋은 꾀가 아니겠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길을 가면서 서로 말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빙자해서 一時의 名流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니, 大奸의 꾀는 더욱 奸巧간교하고 慘酷참혹하다"³⁶⁾

吳達濟와 尹集은 철군하는 淸軍 陣營의 뒤를 따라 한 將帥에게 이끌려 北으로 끌려갔다. 吳達濟가 漢江의 양화나루를 건너면서 2월 9일에 간직하고 있던 書札 한통을 형 達升에게 人便으로 보냈다.³⁷⁾

36) 三學士傳에서 [行至一陽坡少憩 鳴吉謂曰 公等自有可免之道 到彼 彼若詰問 公等宜對以此 非獨吾等爲之 因悉舉其時臺閣之人 則勢不可盡殺 此豈非良謀乎 二公不答 卽起去 相謂曰 彼欲借我 盡殺一時名流 大奸之計 尤甚巧慘矣]

37) 南漢之別. 何忍言. 國事至此. 私情有不足道者. 一家消息. 已得聞之耶. 諸眷能無否. 想今已作歸觀之行. 往拜親庭. 當作何心. 弟初來與龍將問答. 多有以死相怯之語. 厥後則留于陣中. 而其露處艱楚之狀. 不可勝

‘南漢山城에서 헤어질 때의 事情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습니까? 國事가 이 지경인데 사사로운 情을 말할 수 없습니다만 一家의 소식을 이미 들었으나 모든 식구들이 別故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서 돌아가서 어머님께 절하여 뵙고 싶은 마음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잡혀 와서 龍骨大와 對話를 했는데, 많이들 죽인다고 겁을 주며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랑캐 陣中에 머물면서 겪은 苦楚는 形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病이 없는 것이 多幸입니다. 요새 저들끼리 말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瀋陽에 도착하면 반드시 오래도록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니, 근심이 泰山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빨리 죽이거나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義理로는 반드시 죽어 없어지는 것이 道理이나 私的으로는 반듯이 살아야하는 形便이니, 다만 그 마땅한 바른길을 따라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저의 妻가 제가 오랑캐에게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속이 상해 생으로 병환이 나셨을 텐데, 慰勞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 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 이로울 것이 없습니

言。然尙無大段疾病。此則良幸。近間屢聞彼中說話。則既到瀋陽之後。必將有久留不送之患。果如是則不如速死無知之爲愈也。然義理無必死之道。私情有必生之勢。只當順受其正而已。老親弱妻。若聞弟之西行。則必至傷懷生病。須以好語開導萬端如何。無益只傷生耳。天若有助。豈無生還相見之日乎。此行最所切急者。如梳頭諸具及網巾履子耳。此皆彼中所無。雖欲得未由也。後日使臣之來。使之急速措送爲可。但網巾則邊子必須堅固然後可着。此則室人已知弟性矣。日暖在近。春服亦宜備送。而亂離之後。家力必難周旋。如有舊着之衣則送之。無則不必送也。方今所着。亦有厚者薄者。可以推移度日。但暑衣則不可不送耳。且弟之藍掛子。後便送之爲可。兵禍之餘。家產蕩盡。必無以奉養老親。奉入京城。尤無所賴。未知何以爲計耶。聘家結城農莊。若得保全。可以相周。幸與室人相議。奉親姑留。以度今夏如何。聘家風俗頗厚。必能相容也。母親室人昌姪及諸同生前。無紙不得作書。並以此意傳達也。方在楊花渡近處。作此書藏置袖中。欲於中路見歸便付送。未知果免浮沈否。紙短心擾。只此後當一一。丁丑二月初九日。舍弟達濟。

다. 하늘의 도움이 있다면 어찌 살아서 돌아가 서로 만나볼 날이 없겠습니까? 이곳에 오니 가장 급하고 필요한 것은 머리 빚는 기구와 망건과 신발입니다.

이것들은 저놈들한테는 없는 것이고, 얻으려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후일 使臣이 올 때 급히 措處하여 보내주십시오. 망건과 신발은 튼튼하고 널찍해야 쓰기가 좋습니다. 이는 제 妻가 저의 性味를 잘 알고 있습니다. 日氣가 따듯해집니다. 봄옷을 준비해 보내주세요. 胡亂 뒤에 집안의 形便이 주선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전에 입던 옷이 있으면 보내시고 없으면 그만 두십시오. 지금 입는 것은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이 있어 얼마간은 지낼 수 있으나 여름옷은 꼭 보내주십시오. 또한 해진 옷이라도 나중에 人便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리 틈에 家産이 탕진되어 어머님을 봉양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을 텐데, 서울로 들어오시면 더 더욱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어찌하실 요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妻家は 農事하는 시골이라 保全된 것이 있다면 서로 두루 의지 할 수 있을 것이니, 제 妻와 다행히 相議 할 수 있으면 어머니를 奉養하며 잠깐 머물 수 있을 것이니 물여름은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妻家の 人心이 厚德하시니, 반드시 許容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제 妻 조카 여러 동생들에게는 종이가 없어서 글을 쓰지 못하고 아울러서 이 뜻을 전합니다.

양화도 나루 근처에서 이 편지를 써 소매 속에 간직하였다가 中途에서 人便을 보아 편지를 붙이려 했습니다. 어색함을 면할지 못 면할지를 알지 못해서 종이도 다 되고, 마음도 흔들려 此後에나 자세히 쓰겠습니다.」

丁丑年 2月 9日 弟 達濟

이 書札은 吳達濟가 南漢山城에서 끌려나와 양화나루에 도착하여 썼음을 알 수 있다. 29세로 앞날이 창창하고 壯元及第하여 出仕한지 불과 2년이 조금 넘는 젊은 선비로서 自請하여 死地로 끌려가며兄에게 家族의 安否를 전하는 애처로운 사언이며, 그의 節義 精神과 老母를 생각하는 孝心, 그리고 따뜻한 家族愛를 느낄 수 있다.

吳達濟가 대동강 가에 이르러 어느 村家에 留宿하면서, 벽에 絶句한 수를 써 놓았더니, 청나라 사람이 漢族을 데리고 와서 보았으나 별다른 말이 없으므로 가버렸다. 집주인 老人에게서 간신히 종이와 붓을 구하여 詩를 짓고 老人에게 주어 平壤監營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政院을 통하여 그의 집에 도착한 詩는 다음과 같다.

母親에게 부친 詩

風塵南北各浮萍	난리 속 남북으로 부평처럼 흩어졌으니
誰謂相分有此行	이처럼 헤어져 갈 줄 누가 알았으랴
別日兩兒同拜母	어머님 헤어질 때 두 아들 함께 절했는데
來時一子獨趨庭	올 때는 한 아들만 홀로 뜰에 기어드네
絕裾已負三遷教	불효자식 옷깃 끌고 왔으니, 삼천지교 저버렸고
泣線空悲寸草情	소리 없이 우시는 큰 슬픔 애뜻한 어머님 정이로다
關塞道修西景暮	변방의 길은 멀고 저녁 해 저무는데
此生何路更歸寧	이승에서 어느 길로 다시 문후들이리까

孤臣義正心無忤	외로운 신하 반듯한 의리 부끄러운 마음 없고
聖主恩深死亦輕	임금님 은혜 깊어 죽음 또한 가벼워라

最是此生無限慟 가장 이 생애에서 한없이 슬픈 것은
北堂虛負倚門情 동구에서 헛되이 기다리실 어머니 정 버렸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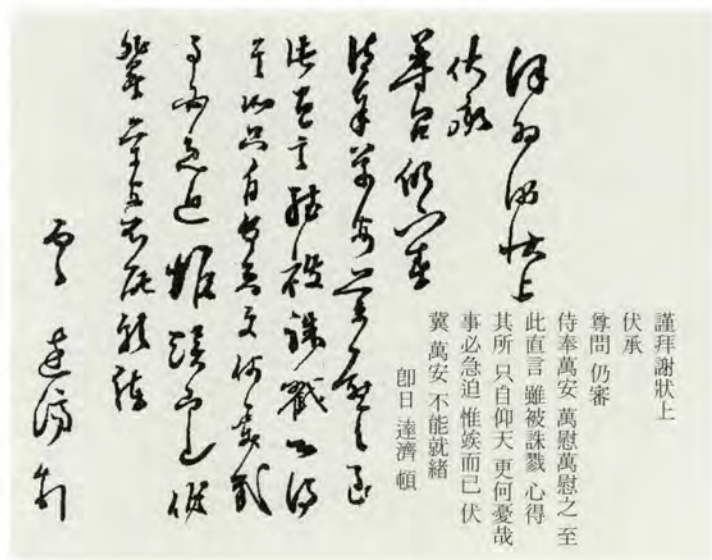
兄에게 보낸 詩

南漢當時就死身 남한산성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楚囚猶作未歸臣 적에게 불모되어 아직도 못돌아간 신하라오
西來幾酒思兄淚 심양오며 형 생각에 몇 번이나 눈물 뿌렸던고
東望遙隣憶弟人 동녘을 바라보니 아우 그릴 형이 가련하네.
魂逐塞鴻悲隻影 님은 변방 기러기 쫓는데 외짝그림자 서럽고
夢驚池草惜殘春 꿈속에서 놀라 깨니 연못가새싹 가는 봄 아쉬워 하네
想當彩服趨庭日 새 옷 입고 마당에 나아가 뛰놀던 생각하니
忍作何辭慰老親 늙으신 어머니께 무슨 말로 위로할까

夫人 南氏에게 보낸 詩

琴瑟恩情重 부부의 깊은 정 중하기도 하건만
相逢未二朞 서로 만난 지 두 돌이 못 되었소
今成萬里別 이제는 만리 밖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虛負百年期 백년가약도 헛되어 졌소
地闊書難寄 땅 넓고 길이 멀어 편지조차 부치기 어렵고
山長夢亦遲 산은 첩첩하여 꿈조차 더디구려
吾生未可卜 내 살길은 점칠 수 없으니
須護腹中兒 모름지기 뱃속의 아이나 잘 보호해 주오

吳達濟 선생이 瀋陽에서 누군가에게 보낸 간찰도 있는데, 내용은 죽음 앞에서도 毅然했던 선생의 衷情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급하게 흘려 쓴 글씨를 보면, 죽음 앞에서 홀어머니와 夫人, 뱃속의 자식을 떠올렸을 선생의 처절함이 보이는 듯하여 눈시울이 젖는다.



삼가 답장 올립니다.

보내주신 서신 받자옵고 尊問하신 서찰을 살피오매

어른을 모시고 편안하시다니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의 直言으로 비록 죽음을 당하는데 이르렀어도 마음을 평온히 하여 다만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오니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事勢가 급박하여 오로지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萬安[편안]하십시오. 頭緒를 갖추지 못합니다.

편지 받자옵고 바로 오달제가 올립니다.

北으로 끌려오면서 尹集이 吳達濟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참을 수 없는 욕을 보고 오랑캐의 뜰에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 땅에서 죽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소?”

이에 吳達濟는 답하였다.

“그것은 옳지 않소. 丈夫의 죽음은 한번 뿐이요. 오랑캐 땅에서 죽어
우리들의 의로움을 밝혀야 하오. 이제 와서 한때의 욕을 참지 못하고 匹
夫의 節概를 본받으려 하시오”

윤집이 말했다.

“그대 말이 옳소.”

4월 15일에 심양에 도착하자 한 작은 방에 가두어 자물쇠로 잠그고
5일 동안 엄중하게 지키고 있었다. 4월 19일 龍骨大가 불러다가 訊問
신문하기 시작하였는데, 청 태종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였다.

“너희들이 비록 和親을 排斥하였다고는 하나 앞장선 것 같지는 않으니,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지는 않겠다. 너희들의 妻子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하여라”

吳達濟는 대답했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만에 하나라도 살아서 돌아가
우리 임금님과 老母를 다시 뵈게 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다시 故國에 돌아갈 수 없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속히 나
를 죽여라”

龍骨大가 말했다.

“저것이 皇帝가 살려주는 恩惠를 생각하지 않고, 抗拒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이하니, 이제는 용서 할 수 없다”

侍講院의 宰臣 朴渙과 宮官 李命雄이 옆에서 말했다.

“나이 젊은 사람이라 다만 임금과 어버이를 思慕하는 마음만 간절하
여 함부로 생각하였던 것을 말한 것이니, 아무쪼록 용서해 주시오.”

그들은 간절히 살려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았다. 朴渙이 이어 되돌
아보고 吳達濟에게 말했다.

“그대는 유독 徐庶의 일을 듣지 못했는가? 그대의 老親에게 그대가 살
아 있다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이 비록 異域에 있다 하더라도 죽었다고 하
는 것 보아야 낫지 않겠는가?”

吳達濟가 대답하지 않고,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처럼 되풀
이하여 달래고 또 위협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굴복시키려고

하였으나 듣지를 않자 돌아가고 말았다. 吳達濟가 尹集에게 말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어차피 나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온 몸이니, 잠깐 동안만 참으면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므로 두려워 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이요. 더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不義를 쫓아 구구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 얼마나 비루한 것입니까?”

尹集도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이야기 하며 평상시로 돌아왔다. 龍骨大는 그 후에도 侍講院의 宰臣들을 참석시켜 놓고, 소리 질러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5~6차에 걸쳐 힐문하였으나 그때마다 抗辯하며 拒否하고 오히려 그를 꾸짖었다. 宰臣들도 두 번 세 번 권하여 타일렀으나 듣지 않으니, 龍骨大가 끝내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드디어 부하들을 시켜 단단히 결박하여 끌어냈다.

吳達濟는 뒤 돌아 보며 龍骨大를 꾸짖었다. 4월 19일 吳達濟와 尹集을 西門 밖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은 바로 오랑캐들이 死刑을 집행하는 곳이었다. 吳達濟가 刑場으로 끌려갈 때 마침 昭顯世子를 陪從하여 심양에 와 있던 鄭雷卿^{정뇌경}이 譯官을 통하여 屍身이나마 수습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청나라 刑官은 끝내 들어주지 않아 屍身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말았다.

아래는 鄭雷卿이 吳達濟의 本家로 보낸 書札 내용이다.

“修撰 吳公은 지난 4월 19일 심양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람 사

는 세상에 어찌 이렇듯 원통하고, 참혹한 일이 있습니까. 살아서는 果敢히 諫하였고, 죽어서는 仁을 이루었으니, 깊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老親과 아내의 가슴에 칼을 꽂은 듯한 아픔을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時運이 이러하여 오랑캐의 포로가 되어 잡혀 왔는데,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있습니다. 죽을 때 벗처럼 彰明한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나중에 죽는 사람이 무엇을 깨달을 것이며, 도리어 앞서 죽은 사람이 속이 답답한바가 될 것입니다. 피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더 쓰지 못하겠습니다."

鄭雷卿은 나이가 吳達濟보다 두 살이 위이고, 吳達濟 夫人 南氏와는 姨從間^{이종간}이다. 그는 弘文館 校理로 있으면서 胡亂이 끝나자 南漢山城에서부터 昭顯世子가 볼모로 심양에 올 때 自請하여 陪從해 와서 侍講院 文學으로 質館에 있었다.

1640년(仁祖 18)에 朝廷에서 계책을 써서 明과 密通하다가 淸에 들통이 나서 崔鳴吉이 심양으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때 三學士가 잡혀가 殉節한 일을 回想하며 그가 지은 詩가 있다.

我雖不殺三學士 내 비록 삼학사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中夜思之心自驚 조용히 생각하면 마음 질로 놀라네.
天道由來好回換 天道란 원래부터 순환하기 좋아하여
白頭今日又西行 백두 된 오늘날에 또 서녘을 가는구나.

尤菴 宋時烈은 이 詩를 보고 말했다.

“崔鳴吉이 만일 이때 심양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면 조금이나마 贖罪속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끝내 無事하였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피차간에 억누르고 찬양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秋譚 吳達濟는 性格이 寬厚하고, 忠信하며 端正하고 方直하였다.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공손하여 말을 잘 못하는 듯하지만, 나라의 이해와 政令의 得失을 논할 때에는 士氣가 激昂격양하여 회피하는 일이 없음으로 듣는 자가 위축되었다.

性品은 매우 孝誠스럽고 友愛가 敦篤하였으며, 평소 言行이 모두 여기에서 根本 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孝悌의 마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곤 하였다. 죽음을 앞당겨 押送되는 罪人 아닌 罪人の 처지에 있었으나, 極端的인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늠름하였으며, 오로지 임금의 臣下로서, 子息으로서, 兄弟로서 또 지아비로서의 범상치 않은 苦惱고뇌를 세편의 詩에 실어 보냈다. 당시 朝鮮 士大夫들의 標本인 ‘반듯한 義理’에 살고자 言行이 일치하게 살았던 代表的인 朝鮮의 선비였다.

吳達濟의 夫人 宜寧南氏에게 夫君의 訃音이 전해진 것은 한참 뒤였다. 왜냐하면 伯兄인 達升이 瀋陽으로부터 전해온 佩玉패옥과 임금으로부터 下賜 받은 黃錦囊황금낭을 받고 열어보니,兄에게 부친 편지와 夫人 南氏에게 부치는 諺文書札이 있었다. 그러나兄 達升이 弟嫂 南氏의 産月이 임박했으므로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招魂초혼하여 다른 장소에서 祭祀를 지냈다. 시간이 지나 南夫人은 딸을 낳았으나 돌이 못되어 夭死하고 말았으며, 1641年(仁祖 19)에야 南夫人은 夫君이 殉節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때서

야 神主를 만들어 祠堂에 安置하고 夫人에게 黃錦囊^{황금낭}과 佩玉을 전하니, 夫人은 생을 마칠 때까지 품속에 간직하고 살았다.

胎音을 전해들은 南夫人은 주야로 통곡하며 食飮을 전폐하고 죽기로 마음먹었다. 드디어 주위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毒藥^{독약}을 마셨으나, 집안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면하였다.

朝廷에서 每月 祿俸을 내렸는데, 夫人이 슬퍼하며 이를 받아 한 톨도 먹지 않고, 夫君의 祭祀에 祭需로만 썼다. 1653年(孝宗 4) 門中에서 吳達濟의 後嗣로 22세의 道玄을 養子로 들였다. 朝廷에서 특별히 順陵 參奉에 除授하였다.

그러나 1671年(顯宗 12) 惡疾이 걸려 南夫人은 내가 낳은 자식처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였으나 효험이 없이 그해 4월18일에 죽고 말았다. 이에 夫人은 크나큰 충격을 받아 平生 의지하며 살려고 하였던 養子가 죽자, ‘너를 구하지 못한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라고 탄식하며 食飮을 전폐하니, 達升과 온 집안사람이 백방으로 권하고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고, 보름동안 입을 꼭 다물고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아 그의 養子 道玄이 죽은 뒤 보름만인 5월 4일에 55세를 일기로 別世하고 말았다. 殞命하기 전에 별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嫗叔^{시숙}에게 부탁하였다.

“우리 집안은 孫이 완전히 끊겼으니, 後嗣를 세워 祭祀를 맡아 이어가도록 할 사람은 嫗叔^{시숙}뿐이니 잘 부탁 합니다.”

三學士 중 洪翼漢 尹集은 衣冠을 매장하고 虛墓를 만들어 葬禮를 치렀으나, 吳達濟는 南夫人이 作故할 때까지 끝내 禮가 아니라고 하

면서 虛墓쓰기를 반대하였다.

夫人이 別世하자 申夫人 墓所 옆에 나란히 墓를 썼다. 養子 道玄에게 아들이 있었으나 그도 6세의 어린 나이로 죽었던 것이다. 南夫人이 품고 살았던 佩玉^{패옥}과 黃錦囊^{황금낭}을 1684년(肅宗 10)에 두 夫人 墓 뒤편에 封墳도 없이 묻었다.³⁸⁾ 그 뒤 1705년(肅宗 31) 吳達濟를 議政府 領議政에 追贈하고, 旌閭^{정려}하면서 封墳을 만들었다. 후에 다시 道玄의 養子로 兄의 孫子 遂一을 嗣孫으로 입적 하였다.

吳達濟는 평소 墨梅^{묵매}를 즐겨 그렸다. 그의 梅花圖 한 폭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매화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곧고 굳게 단련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肅宗은 그의 그림을 대궐 안에 걸어두고 즐겨 감상했으며, 御製 詩를 넣어주었다.

題贈領議政吳達濟梅花圖

妙筆吾東豈有二 觀圖仍忽感前事 辭君不輕心忘國

對虜何掌句節 節義昭昭三子同 孝忠炳炳一身備

誰知嗣屬終無傳 於此亂謀福善理

崇禎紀元後辛丑三月 日奉刊

絶妙한 筆法の 梅花圖는 우리 東方에서 두 번 다시 볼수 없으랴.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홀연히 옛일이 생각난다.

임금과 작별하고 떠나서도 나라걱정 잊지 않았고

38) 遺衣服埋安告辭

古崇守祧。衣裳並藏。葬魂非禮。典有明訓。吁嗟祖考。志在尊周。迨至臨命。寄以所御。寔初依神。洎他遺衣。訖祖妣世。抱痛謹守。惟罔循俗。憑起家塾。宜藏于廟。一倣古義。顧茲藐孤。喪慘靡家。禍亂之作。誠亦難料。苟節疏虞。勢將不度。敢謀埋安。兩妣墓後。處變則然。衆議攸同。第惟薄劣。乃不克嗣。撫躬摸腹。惶愧無堪。祇事之始。略申厥意云云。甲子三月初一日埋安(1684(肅宗 10))

오랑캐를 대할 때 꾸짖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밝은 節義를 지켰음은 세 사람이 똑 같았도다.
 밝은 孝道와 忠誠은 一身에서만 빛났을 뿐
 後嗣가 없음을 누가 알았으랴.
 이런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하늘의 이치도 믿기 어렵도다.

崇禎紀元後 辛丑年(1721)(景宗元年) 三月 日 奉刊

顯節祠 都有司 韓洛教 극역

이 御製 詩額은 지금도 「顯節祠」祠宇 本殿 扁額 뒤편에 붙어 있다.
 肅宗에 이어 英祖는 御製詩를 지어 그림 左側 上段에 써 넣으라고
 吳學士의 玄孫인 大司成 彦儒에게 일러 쓰게 하고, 그때까지 宮中
 에 있던 것을 下賜하여 後孫이 保管 傳授하도록 하였다. 이 그림에
 英祖가 御製한 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忠烈公吳達濟梅花簇

今日望拜, 緬憶昔年, 遙望中州, 某切悵然, 豈行此辰.
 得覽一簇 東閣一梅, 忠烈筆跡, 上有御詩, 追慕興歎.
 韻律停久, 敬續以贊 樹忠何歲, 漢南夕雲, 何以聊表.
 特賜其孫.

崇禎紀元后三丙子仲冬忠烈公吳達濟玄孫

嘉善大夫行成均館大司成 吳彦儒奉教敬書

오늘 예를 갖추어 바라보니, 아득한 옛날이 생각나고,
 멀리 오랑캐 땅을 바라보니, 깊이 간절하게 슬프고 애처롭다.

일찍이 그나마 다행한 것은 한 폭의 죽도를 볼수 있음이라.

동각에 걸린 한 폭 매화도는 충렬공의 筆跡이로다

상단에 있는 御詩는 追慕의 감탄을 일깨 하고, 韻律은 오래도록

머물러 공경하고 이어 기림이어라. 충성을 세운 것이 어느 해였던가.

남한산성의 저녁노을아 무엇으로 마음을 표현코.

특별히 이 그림을 子孫에게 내리노라.

1736년(英祖 32) 11월 吳達濟 玄孫 大司成 彦瑞 奉謹書

現在 이 그림은 後孫들이 國立中央博物館에 寄贈하여 잘 保存되어있다.(그림 참조)

嗣孫 遂一은 丹陽郡守를 歷任하였는데, 그의 祖父에 관한 資料를 백방으로 수집하여 『忠烈公遺稿』를 간행하여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吳學士는 29세의 젊은 나이로 殉節했기 때문에 그가 남긴 記錄이 많을 수 없으나, 어려서 공부하면서 지은 詩도 있고, 司馬試와 文科試에 壯元及第 할 때의 答案紙를 비롯하여 斥和疏와 그의 節義를 欽慕^{흥모}하고 追慕하는 朝鮮後期 學者들의 詩가 여러 편 실려 있다. 宋時烈的 『吳學士傳』도 포함되어 있다.

吳達濟의 墓所는 京畿道 龍仁市 慕賢面 吳山里 산 45-14에 있는데, 앞쪽 좌측에는 첫 번째 부인 高靈申씨^{대낭장묘}의 墓가 있고, 우측에는 宜寧南씨의 墓가 나란히 있으며, 그 뒤편에 吳達濟의 帶囊藏墓^{대낭장묘}가 있다. 앞의 夫人 墓에는 墓表가 각기 있으나, 뒤의 吳學士墓에는 墓表가 없다. 다만 墓所入口에 吳學士의 7세손 慶元이 1828년(純祖 28)에 建立한 「帶囊藏碑^{대낭장비}」가 있는데, 碑文은 純祖의 國舅 金祖淳이 撰하였고, 李相璜이 글씨를 썼으며, 金思穆이 篆額^{전액}을 썼다.

碑의 높이는 200cm이고 폭이 86cm 두께가 36cm 이다. 墓域은 龍仁市 향토유적 제 3 호로 지정되어있다.

「顯節祠」에는 「三臣祠」立祠 당시부터 洪, 尹 學士의 位牌와 함께 奉安되어 있다. 諡號는 忠烈이고 議政府 領議政에 追贈 되었다.

吳達濟夫人 贈貞夫人 南氏行錄

夫人。密直副使君甫之後。十世祖乙蕃。門下侍中。九世祖在。宜寧府院君領議政。號龜亭。七世祖智。左議政。高祖諱致勛。八典州府。卒官僉知中樞。贈兵曹參判。曾祖諱彥純。左承旨。祖諱柁。行副護軍。贈兵曹判書。考諱斌。平康縣監。贈左贊成。始承旨公暨仲季東岡先生彥經。考槃先生彥紀。俱以禮學才望。見重師友間。其流風遺教。自有異於人者。平康公娶連山徐氏贈參判澍之女。以丙辰七月十七日。生夫人。徐夫人備有婦德。自胎至育。俱有法教。而夫人自孩提時。容貌端潔。性行貞靜。稍長。時聽弟姪讀書。不自學而能通大義。動止行事。自合儀則者多矣。從母鄭弼善雷卿母夫人及俞杞平夫人。皆絕愛之。擇佳壻久未值。至年十九時。吳公達濟新喪耦。其伯父楸灘相公實主其婚。送媒議親。吳公時年二十六。而方任禮曹佐郎。委禽之夕。卽崇禎八年三月六日也。禮成見舅姑。六親交賀。吳公素甚清貧。而夫人奉尊章承君子。既無違言。執女紅不怠。朝衣僕馬。皆無乏焉。至丙子十二月。虜猝至。吳公曾以副校理。上疏斥和。忤罷家居。卽扈入南漢。夫人隨兄金城公。南下避亂。臨發。箱篋皆不顧焉。只持一匹藍絹。到良才驛村。達曉手縫帖裏。送奴南

漢。寄問公行李。然後乃行。仍自結城莊。轉向龍安縣先府君任所。自京奉侍吳公大夫人及其伯承旨夫人子姪。以爲同死生之地。倉皇顛頓之間。獨能周旋慰安。悉有條理。有非丈夫之所易能者。及吳公被執去。道間手寫一詩寄夫人曰。琴瑟恩情重。相逢未二朞。今成萬里別。虛負百年期。地闊書難寄。山長夢亦遲。吾生未可卜。須護腹中兒。托金城公傳說詩意。此蓋在我境時。寫藏袖中者。及丁丑四月十九日。縛出瀋陽城西門外之後。胡人以公腰帶佩刀及曾受賜黃錦囊。傳于公所率奴子而出還故國。與前封詩草而俱到。發囊。更有寄夫人諺札。金城公以其臨產祕諱之。結帛招魂。別祭於他所。及期。乃生女子而旋夭。至辛巳歲。始發喪。承旨公已發喪而連諱於夫人至辛巳始傳訃。造主且傳詩札囊帶夫人日夜號痛。腐心坐臥。佩持終身。仍吞嚙毒藥。欲無生者屢矣。賴兄弟傍人救視而免。朝家有月廩之賜。夫人哀而藏之。只備祭享之需。一不入口焉。始吳公無第宅。只得同爨於夫人家。至是金城公爲僦屋門巷之前。朝夕相依焉。及己亥出宰鎮川。爲邀夫人。同享官俸焉。且曾訪問公之賤出於高原。撫而教之。名曰道南。吳宗零替。久無可以繼後者。至癸巳歲。始以公之從姪道玄爲後。道玄年二十二。朝廷特錄除順陵參奉。至辛亥四月遭厲。夫人以爲我之生。惟爾依。爾不救。我生何爲。弟判書公百方勸勉出避。終不聽焉。參奉竟不起。夫人閉口不飲一勺者旬望。至五月四日。繼逝。臨絕無他語。只屬判書公曰。我家已覆滅矣。立夫子主祀者。惟恃君。後六日。參奉之遺孩又夭。於是三世盡絕矣。判書公奉引葬訖。適按湖西。奉几筵行。以終三年。又以參奉之從姪遂一年十三歲者爲後。道路聞者。莫不爲之嗚咽焉。京兆以全家死亡啓聞。官給大小米各一碩。綿布三尺。又有以吳學士身後如此。仰白筵席者。顯廟爲之惻然。給擔卒護夫人喪。至龍仁吳氏故山。翌年。參奉之妻。亦毀而滅。遂一追代夫人喪於考妣。用包特

焉。服闋。娶判書趙珩孫女。無後而喪。繼娶南氏縣監拭女。與夫人同宗。生一男。又蒙恩。方任禁府都事。人皆以奉承祀不墜爲期。天其終以此少報之耶。始夫人以贈公職副學例。封淑夫人。乙丑夏。夫人之兄子左議政南公。啓請特諡三學士。允之。遂加贈公吏曹判書諡忠烈。夫人隨加至貞。始變亂後。或欲以遺衣服虛葬。夫人以其非禮而止之。更以我人無目覩被刑者。爲冀萬一之幸。故夫人號天飲泣。至誠默禱。擬有蘇郎之還者。殆四十年。嗚呼。彼蒼蒼者果不可必耶。設有以也。夫人其已舍恤入地矣。嗚呼。婦人之行。雖有至美者如此。無獨彰之道。必依君子而相成焉。婦人于歸學士。亦可謂佳矣。而卒不祿。且不育焉。旣得繼嗣。又看勦滅。其於天地間。可謂窮毒之極矣。倘所謂福善禍淫者。乃反參差若是之甚耶。其將何以勸後人也。夫人之葬。卽縣東大也峙坐子之原。與公之前夫人爲雙墳。遂一以夫人所曾守帶囊及遺衣服。埋于墓側。嗚呼。千萬代之下。惟天地人三者。不廢之前。其有過夫人墓而能不慘然以悲者耶。嗚呼。唏矣。歲戊辰七月。從孫鶴鳴。爲遂一書此識之。

金尙憲의 行狀과 事蹟



金尙憲 선생 묘(京畿道 南楊州市 瓦阜邑 德沼里 山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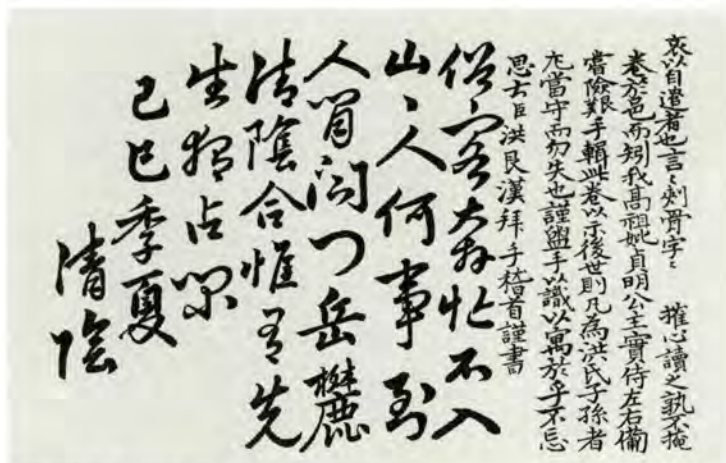
石室書院 廟庭碑



清陰金尙憲先生詩碑



『清陰遺稿』에 실린 金尙憲 선생의 自序



金尙憲 선생 簡札(己巳年-西紀 1629년, 陰曆 六月)

金尙憲의 行狀과 事蹟

朝鮮 中期의 文臣, 學者이다. 本貫은 安東, 字는 叔度, 호는 淸陰, 石室山人, 西礪老人이며, 諡號는 文正이다. 海平府院君 尹根壽의 門人이다. 윤근수는 退溪 李滉의 제자로 性理學의 大家였고, 壬辰倭亂 때에는 명나라를 아홉 번이나 往來한 外交의 達人이었다.

金尙憲은 1570년(宣祖 3) 敦寧府都正 金克孝의 四男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伯父 大孝에게 出系하였다. 그의 兄은 丙子胡亂 때 江華가 함락되자, 폭약을 깔고 自決한 仁祖 때 右議政 金尙容이다.

1590年(宣祖 23) 進士가 되고 1596年(宣祖 29) 壬辰倭亂 중에 庭試文科에 丙科로 及第, 이후 副修撰·佐郎·副校理를 지냈고 高山 察訪과 鏡城 都護府判官을 지냈다.

1601년(선조34) 壬辰倭亂 후 제주도에서 吉雲節 등이 모의한 역모가 사전에 발각되어 逆獄을 다스리게 되어 按撫使로 金尙憲이 발탁되어 제주에 6개월간 머무르며 民心을 진정하고 돌아왔다.(그의 저서 南槎錄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1608年(光海君 卽位年) 文科重試에 及第, 賜暇讀書한 후 校理·應敎·直提學을 거쳐 同副承旨가 되었으나 李彦迪이언적과 李滉이황 배척에 앞장선 鄭仁弘을 탄핵하였다가 廣州府使로 左遷되었다. 이어 李滉, 李彦迪을 文廟에 從祀하는 일을 놓고, 1611년 鄭仁弘이 이들을 격렬히 비난 하는 상소를 올리자, 承旨로 있으면서 鄭仁弘을

몹시 규탄하였다. 마침내 永昌大君을 죽이고, 仁穆大妃 廢母論이 나오자, 그는 강력히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鄭仁弘, 李爾瞻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1613년(광해 5) 仁穆大妃의 부친 金悌男이 모략으로 죽음을 당할 때 姻戚이 된다하여 罷職을 당하자, 집권세력인 北人의 迫害를 피하여 官職을 버리고 安東 豊山의 素山 마을로 食率을 이끌고 이사하였다. 金尙憲의 아들 光燦이 金悌男의 孫壻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金尙憲은 약 십년간을 安東에 蟄居하면서 많은 저술을 하였고,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仁祖反正이 일어나다.

1623년 仁祖反正이 일어나 光海君이 退出되고, 仁祖가 왕위에 오르자 金尙憲은 吏曹參議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功臣勢力의 保合爲主 政治에 反對하여 是非와 善惡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하여 功臣이 아닌 西人 중에 淸西派의 領袖가 되었다.

1624년 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李适의 亂이 일어나자, 그는 仁祖에게 누차 상소를 올려, 朋黨과 派閥을 타파하고 人材를 등용하며, 言路를 넓혀 줄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剛直한 성격으로 누차 時事를 비판하다가, 反正主體들의 뜻에 거슬려 鄉里인 楊州의 石室로 歸鄉하기도 하였다.

이후 大司諫, 都承旨, 副提學을 거쳐 1627년 丁卯胡亂이 일어났을 때 왕명으로 陳奏使에 임명되어 명나라를 뱃길로 건너가 구원병을

요청하였고, 돌아와서는 後金과의 和議를 끊을 것과 姜弘立을 관직에 복귀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 仁祖가 자기의 生父인 정원대군을 王으로 追尊하려는 이른바 追崇論議가 일어나자, 禮法에 어긋남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고, 찬성한 反正功臣 李貴 등과 갈등을 빚어 다시 낙향하였다. 그 뒤 다시 六曹의 判書, 藝文館, 成均館의 提學을 역임하고, 1633년 司憲府 大司憲에 기용되었는데, 2년간 5차례나 大司憲에 임명되었으나 강직한 언론활동을 벌이다가 여러 고관들과 충돌, 出仕와 辭退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1635년(仁祖 13) 大司憲으로 再 起用되자, 軍費의 確保와 北方 軍事施設의 擴充을 주장하였다. 後金과의 관계가 점점 惡化되어 그들의 侵入이 豫見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侵入路인 압록강 부근의 守備를 強化하자는 것이었다. 後金 使臣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그들의 脅迫이 加熱되어가고 있었으나 朝廷에서는 그에 대한 對備가 부족하였고, 朝廷의 公論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一戰을 不辭한다는 主戰論이 對 後金政策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反正功臣들이 주축이 된 主和派에서는 이를 뒤집어 그들과 和親하기를 주장하며, 金尙憲은 이를 極口 反對하였다.

1636년 3월에는 西路에 진을 설치해 군사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後金의 침략에 對備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때 올린 상소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오랑캐와의 和親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兵亂이 비록 언제라고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항상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國家가 宗社의 安危를 義州나 安州城의 승부에만 걸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도적이 만약 다른 곳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臣의 어리석은 計策으로는, 關西地方에 세 개의 큰 陣을 설치하고 都元帥로 하여금 慈母城을 지키게 하고, 副元帥로 하여금 鐵甕城을 지키게 하고, 本道の 兵使로 하여금 安州城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다음 關西를 셋으로 나누어 세 진에 소속시키고, 屬邑의 精銳로운 郡民과 용감한 武士를 선발하여 어루만져 주고 훈련시켜, 때에 맞추어 번갈아 교대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게 하면, 반드시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軍士의 수가 적고 힘이 약하여 오랫동안 大賊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유사시에는 黃海道의 軍사로 자모성을 구제하고, 咸鏡南道の 軍사로 安州城을 구제하고, 咸鏡北道の 軍사로 철옹성을 구제하게 하되, 안주성이 공격을 받을 때는 자모성과 철옹성이 함께 구제하게 하고, 철옹성이 공격을 받을 때에는 안주성과 자모성이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大臣과 重臣 가운데 충성스럽고 威望이 있는 자를 가려 뽑아 平壤에 보내어 세 진을 統御하게 하되, 먼 곳에서 꼭 일마다 다 制御하게 하지는 말고, 전쟁에 임하여 우물쭈물 동요하여 軍律을 잃는 자가 있으면 왕명을 침하여 군법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또 三南과 關東과 畿内の 軍사를 뽑아서 武器를 정비하게 하였다가 위급할 때 즉시 불러서 宿衛에 채워 넣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都元帥가 평안 감사를 겸하여 거느릴 경우에는 세 진에 소속된 要害處의 수령을 간혹 主將이 천거하여 아뢰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아울러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이 그 대략으로, 손익을 따져 보아 다시 가다듬는 것은 오직 廟堂에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강구하며, 聖上께서 잘 살펴보고 시원스럽게 결단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계획이 이미 늦어서 화급한 화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목마름에 임해서 우물을 찾고 급한 병에 삼 년 묵은 썩을 찾는 것도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은 형세를 만나서 오늘날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역시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상헌은 1636년 봄부터 斥和나 主和나를 놓고, 反正功臣들과의 논쟁이 심하게 일어날 때 강력하게 척화를 주장하는 斥和派의 領袖였다. 高官職에 있는 臣僚가운데 桐溪 鄭蘊과 더불어 젊은 言官들과 함께 崔鳴吉을 비롯한 金瑬, 申景稷 등과 다투었다. 자연히 主和派는 金尙憲을 모략하여 조정으로부터 逐出하려고 하였다. 사소한 일로 金尙憲을 모략하여 주화파들은 仁祖에게 遞差할 것을 상소하여 仁祖는 그를 遞職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金尙憲은 禮曹判書였다. 1636년 8월에 그는 楊州 石室로 돌아왔다.

12월에 청나라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14일에 仁祖는 南漢山城으로 行幸하였다. 오랑캐들의 기세가 몹시 치성하여 國境을 범한지 3일 만에 정탐하는 馬兵이 이미 서쪽 郊外에 도달하였다. 仁祖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 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그 소식을 접한 金尙憲은 南漢山城 行在所로 뒤따라 들어갔다. 병으로 인해 寓舍에 누워 있다가 17일에 行宮에 가서 숙배하고는 面對

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仁祖가 곧바로 引見하였다. 仁祖와 아래와 같은 말이 오갔다.

“時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 臣下들의 죄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말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오늘날의 計策으로는 반드시 먼저 싸워 본 다음에 和親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한갓 비굴한 말로 講和해 주기만을 요청한다면, 講和 역시 이를 가망이 없습니다. 宋나라 사람이 한 말이 있으니, ‘和親으로 形式을 삼고 지키는 것으로 實際를 삼아야 하며, 싸우는 것으로 對應을 삼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聖上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하였다. ,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城內에서 主和派들은 청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일단 싸워보지도 않고 國書를 보내 하루라도 빨리 和親을 성립하자고 재촉하였다. 이때 金尙憲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仁祖에게 상소하였다.

“城堞을 지키고 있는 軍兵이 1만 7천 수백 명이고, 성 안의 백성 및 扈從한 百官의 奴僕들과各司의 관리와 本州의 官奴 역시 7, 8백 명을 밀돌지 않으며, 本城의 형세 역시 험준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防守가 조금 느슨한 곳을 지금 모름지기 미리 헤아려서 잘 분배하고서 各營의 精兵을 추려 내면 4, 5천 명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武臣 가운데 將領의 職任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자를 택해 각각 천 명이나

혹 수백 명씩 配屬시켜, 밤낮으로 함께 거처하면서 편의에 따라 적을 기습하거나 한밤중에 오랑캐의 군영을 치게 하면, 만에 하나나마 헤쳐 나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죽을 처지에서 살아날 계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糧食은 限定이 있고, 외부의 후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만히 앉은 채로 망하기만을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金瑬가 城堞을 지키고 있는 군졸은 결단코 빼내어 쓸 수 없다고 하였으며, 상의 뜻 역시 그렇게 여겼으므로, 끝내 듣지 않았다.

1월 16일에 병으로 인해 備局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는데, 여러 大臣들이 재촉하였으므로 병을 무릅쓰고 나아갔다. 그때 崔鳴吉이 바야흐로 國書를 起草하고 있었는데, 마치 뜻을 얻어 고무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金尙憲은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곧바로 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 그러자 領相이 崔鳴吉이 기초한 국서를 가져다 보였는데, 글 가운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애처롭게 여겨 주고 降伏하게 해 주기를 청하는 말이 아주 비루하여 ‘신의 죄가 머리카락을 뽑아 헤아려도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臣罪擢髮難數]’

그는 채 반도 읽기 전에 憤激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國書를 찢고는 大臣에게 말했다.

“제공(諸公)은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金鑾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너무 심한 곳만 고치면 될 것입니다.”

최명길은 국서를 다시 주워 들고서 히죽히죽 웃으면서 말했다.

“공은 비록 찢어 버렸지만, 나는 다시 이어 붙여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국서를 찢어 버리고 통곡을 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최명길이 말했다.

“부축하고 갈 뿐, 어찌겠습니까.”

金尙憲이 다시 책하여 말했다.

“오늘날의 일은 國家에 있어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바입니다. 비록
公의 한 몸으로써 말을 하더라도 累代에 걸친 名文家의 子孫으로서 이

일을 담당하면서 先祖들에게 욕을 끼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더구나 공의 先人께서도 역시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士類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자못 동료들이 許與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뒷날에 地下에 가서 先人을 무슨 면목으로 볼 것입니까.”

崔鳴吉이 말했다.

“어찌 유독 저만을 이처럼 허물하십니까?”

김상헌이 말했다.

“오늘날의 이 일을 공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責任지겠습니까?”

최명길의 얼굴빛이 변하면서 나갔다. 그는 閤門으로 나아가 仁祖에게 面對를 요청하였는데, 憤氣가 가슴에 가득 차 눈물이 줄줄 흘렀으며, 울음이 북받쳐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 한참 뒤에 비로소 아 되었다.

“臣이 國書를 찢어 버렸으니, 그 죄는 마땅히 處刑을 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의논은 兩立할 수 없으니, 청컨대 먼저 小臣을 쳐 죽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團結시키소서.”

仁祖가 갑자기 저지하면서 말했다.

“경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나는 내 한 몸을 위한 計策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宗廟社稷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王室의 尊屬들이 모두 城 안에 있어서 참으로 온 親族들을 誅滅주 멸되도록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金尙憲이 아뢰었다.

“臣이 進達한 바도 바로 살아나기를 求하는 方途입니다. 옛날 宋나라 靖康의 亂 때 宋나라의 臣下들이 모두 欽宗에게 권하여 친히 오랑캐의 軍營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찌 모두 不忠한 자들이겠습니까. 단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오랑캐들이 講和하자는 설에 이끌려서 끝내 君父로 하여금 함몰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저 徽宗과 흠종이 오랑캐들에게 핍박받으면서 沙漠의 사이에서 千辛萬苦를 겪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 비록 변경에 있는 宗廟社稷종묘사직의 아래에서 죽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나,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옛날부터 降伏한 나라의 임금을 잘 대우하기로는 晉나라 武帝와 隋나라 文帝와 宋나라 太祖만 한 임금이 없었으나, 그 나라의 임금 노릇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범이나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殿下께서는 和親의 의논에 誤導되지 마소서.

지금 군사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糧食은 한 달은 충분히 지탱할 수가 있으며, 山城의 形勢는 아주 險固한바, 賊兵이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공격해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君臣 上下가 죽기로 다짐하고 死守한다면, 어찌 殿下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자가 없겠습니까.

니까. 만약 天心이 끝내 뒤우치지 않아 地下에 가서 先王을 뵙게 된다면, 부끄러운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금 靑城의 前轍전철을 되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朝鮮이 나라를 세운 것은 名分과 義理가 정대합니다. 지금 만약 머리를 수그리고 나아가 오랑캐들의 臣下가 되어 그들이 命令하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이 장차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草野에 있는 義士들은 반드시 분통해하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難言을 하는 변고는 더욱더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오랑캐의 사신이 와서 성 밖에 있으면서 宰臣들을 만나 보려고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또 아뢰었다.

“國家의 存亡이 오늘날에 결판나게 생겼으니, 한 두 臣下와만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2品 이상과 侍從臣 및 臺諫들을 불러 모두 함께 可否를 의논하게 하소서.”

金尙憲은 물러나 나왔으나, 끝내 會議하는 일은 없었다. 다음 날 宰臣들이 降書를 받들고서 오랑캐의 軍營으로 나갔는데, 바로 1월 17일의 일이었다. 金尙憲은 엿새 동안 밥을 먹지 않았으며, 또 스스로 목을 매달아 거의 죽을 뻔하였다. 곁에 있던 사람이 풀어 주어서 소생하였다. 仁祖는 그를 禮曹判書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廟堂에서 장차 斥和한 신하들을 잡아 오랑캐에게 보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부축을 받아 宮門에 나아가 잡혀가게 해 주기를 청하

였다. 오랑캐들이 당초에 斥和한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였는데, 體府(都體察使)에서 조사해 내는 것을 어렵게 여겨 스스로 자수하게 함으로 인해 일이 지체되었다. 그러자 四營의 將官과 군병들이 각자 兵器를 들고 行宮 바깥에 와서 斥和한 신하들을 찾아내 敵에게 주라고 떠들어 댔는데, 말이 아주 패만스러워 보는 자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이는 대개 洪振道와 申景禪 등이 李英達과 柳瑚를 시켜서 사영에 사주하여 이런 짓을 해서 君父를 위협하는 동시에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성을 나가자는 의논을 막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로 그 근원을 따져 보면, 和親을 主導한 자의 計策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金尙憲이 아뢰었다.

“朝廷에서 장차 斥和한 臣下들을 오랑캐의 軍營에 보내어 큰 화를 막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盟約을 맺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謀議한 것은 臣이 비록 스스로 감히 그렇게 하였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臣이 廟堂에서 極力 諫爭간쟁하면서 降書를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으며, 그 降書 가운데 臣下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서 臣은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고는 손으로 그 草案을 찢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斥和한 罪는 臣이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자리를 깔고 엎드린 채 命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임금이 傳敎하였다.

“경이 命을 청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 마음 편히 먹고서 물러가라.”

어느 날 廟堂에서 斥和臣으로 參判 鄭蘊과 大司諫 尹煌 등 11인을 추려 내고는, 金尙憲을 우두머리로 삼아 오랑캐의 軍營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는 밥을 먹지 않은 지 이미 여러 날이었다. 이에 몸이 피폐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억지로 밥을 먹으면서 命을 기다렸다. 그러던 차에 大諫이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극력 간쟁하였다. 이에 드디어 尹集과 吳達濟 두 사람만 보냈다.

1월 30일 仁祖는 南漢山城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 三拜九叩頭禮의 치욕을 겪으며 항복하고 胡亂은 끝났다. 金尙憲은 아픈 몸을 부축 받으며 길에 나아가 仁祖가 城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2월 1일에 그의 형인 金尙容이 江華에서 殉節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 번 통곡하였다. 2월 7일에 간신히 몸을 추슬러 東門을 통하여 安東으로 落鄉하고 산속에 草家 三間을 짓고, [木石軒]이라고 扁額을 달고 그곳에서 살았다.

4월에 朝廷에서 扈從한 功勞를 인정하여 崇政大夫에 加資한다는 첩지가 왔으나 回答하지 않았다.

1639년 70세에 청나라 오랑캐들이 장차 明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軍士를 보내 도우라고 脅迫하였다. 이에 朝廷에서는 將帥를 命해 군사를 출동시켜 돕기로 하였다. 金尙憲은 그 소식을 듣고 개탄하면서 上疏를 지어 받들고 가 祠堂에 告한 다음 왕에게 올렸다. 아래는 그 상소의 개략이다.

“삼가 생각건대, 臣은 쌓인 울분이 뺏속까지 파고들어 거친 들판에 버려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있었는데, 삼가 천지 부모와 같으신 聖上의 은혜를 받아 처벌 받음을 면하고 직첩을 도로 돌려받았기에 草野에서 편안히 누운 채 一生을 마치기로 期約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건대, 늙고 병들어 겨우 살아 있는 이 목숨은 아침저녁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니, 聖德에 萬分の 一이나마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오직 밤낮으로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지난번에 삼가 聖上의 기후가 편치 않아 오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臣下 된 자의 마음에 비록 근심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본디 醫術에는 어두워서 정성을 바칠 길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또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을 듣건대, 朝廷에서 北使의 요청에 따라 장차 5000명의 軍兵을 징발하여 瀋陽이 大明을 침범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臣은 그 말을 듣고 놀랍고 의심스러워 마음의 安定을 찾지 못하면서 그럴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무릇 臣下가 君主에 대해서도 따를 수 있는 일이 있고 따를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子路와 冉求⁴가 비록 季氏에게서 臣下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孔子는 오히려 ‘따르지 않는 바가 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當初에 國家가 형세는 약하고 힘은 다하여 우선 눈앞의 保存만을 도모하는 계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殿下께서 어지러움을 平定하여 바르게 되돌리려는 큰 뜻을 가지고 臥薪嘗膽⁴와 신상담해 오신 지 지금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치욕을 씻고 원수를 갚는 일이 머지않아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가면 갈수록 더 미약해져 일마다 순순히 따르기만 해서 저들이 끝내 하지 못하는 바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줄이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예로부터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죽고 망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叛逆을 따르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殿下께 어떤 사람이 '누가 원수를 도와 제 부모를 쳤다'고 아뢰면, 殿下께서는 반드시 有司에게 명을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이 아무리 교묘한 말로 자신에 대해 解明한다고 할지라도, 전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王法을 施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天下의 共通된 道理입니다.

오늘날 計策을 세우는 자들이 禮義는 족히 지킬 것이 못 된다고 하니, 臣은 禮義에 의거하여 分辨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利害만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强暴한 이웃의 一時的인 사나움만 두려워하고, 天子의 六師가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원대한 계책이 못 됩니다.

정축년(1637, 인조15) 이후로 中國 朝廷의 사람들이 하루도 우리나라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中國에서 우리를 구해 주지 못하여 패배하였고, 우리가 오랑캐에게 降伏한 것이 本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關下의 여러 屯에 주둔해 있는 軍兵들과 海上에 떠 있는 樓船의 兵卒들이 비록 오랑캐를 쫓아 내고 옛 강토를 회복하기에는 不足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行動을 禁하기에는 充分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의 앞에서 길을 이끌어 주는 짐승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죄를 문책하는 군대가 벼락같이 달려와 배를 띄운 지 하루 만에 곧바로 海西와 경기의 섬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가 두려워할 상대가 유독 瀋陽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저들의 세력이 한창 강하여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臣은 名分과 義理야말로

지극히 중대한 것인 만큼, 이를 범하면 반드시 災殃이 이를 것이라고 여깁니다. 義理를 저버리고서도 끝내 망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보다는 正道를 지키면서 하늘의 命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명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한갓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이 순조로우면 백성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기뻐하면 根本이 鞏固해집니다. 이것으로써 나라를 지키고서도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太祖大王께서는 義理를 들어 回軍하여 200년의 공고한 基業을 세우셨고, 宣祖大王께서는 至誠으로 事大하여 壬辰倭亂 때 救援해 주는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만일 義理를 버리고 恩惠를 잊고서 차마 이런 거조를 한다면, 비록 天下 後世의 議論은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地下에 계신 先王을 뵈는 것이며, 또 어떻게 臣下들로 하여금 國家에 忠誠을 다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殿下께서는 赫然하게 생각을 바꾸시고 서둘러 큰 計策을 정하소서. 그리하여 強暴함에 뜻을 빼앗기지 말고 사특한 의논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어, 太祖와 宣祖의 뜻을 잇고, 忠臣과 義士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臣이 國家의 두터운 恩惠를 받아 大夫의 班列에 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폐해져 물러나 있는 중이나, 이와 같은 국가의 막대한 일을 당하여서는 義理상 잠자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柳琳이 갈 적에는 臣이 먼 외방에 있었고 일도 急迫하여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빼에 사무쳐 잊히지 않는 원한이 지금까지 경경하기만 합니다. 이에 감히 忌諱(꺼리거나 기피함)를 피하지 않은 채 어리석은 정성을 진달 드리고는 공손하게 형벌이 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殿下께서는 굽어 살펴 주소서.”

仁祖는 회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의 이와 같은 상소가 朝廷臣僚들에 의해 청나라에 알려졌다. 청나라에서는 龍骨大를 조선 조정에게 보내 상소문을 확인하고 즉시 金尙憲을 심양으로 連行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였다.

仁祖는 金尙憲이 늙고 병들어 먼 길을 行步 할 수가 없으니 서울에서 문책하자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당시에 70세라면 上老人인데, 持病까지 있었으니 참혹한 일이며, 때는 12월 嚴冬雪寒이었다. 서울을 떠나면서 남긴 詩가 전해오는데, 유명한 詩이다.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수야
古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청나라의 屬國이 된 朝鮮朝廷은 할 수없이 老齡의 大臣을 심양으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 朝旨를 내렸다. 金尙憲은 祠堂에 告由하고 安東을 떠나 1640년 12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仁祖는 承旨를 보내 御札과 貂裘조구(족제비 털로 만든 외투)를 내렸다. 이에 謝禮의 書信을 임금에게 올리고 떠났다. 12월 26일에 심양에 도착하였다.

심양에서 龍骨大 등 청나라 중신들이 그를 문책하기 시작하였다. 용골대가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가 명나라를 치려는데 援兵을 보낼 것을 반대 하였는가?”

金尙憲이 답하였다.

“나는 나의 뜻을 우리나라 임금에게 올린 것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 알고자 하며 상관을 하느냐.”

용골대는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두 나라가 이미 한 집안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른 나라라고 하는가?”

김상헌이 답하였다.

“兩國에는 각자 境界가 있다. 그러니 어찌 다른 나라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용골대가 곧바로 종을 시켜서 내보내게 하였으며, 이내 北館에 구류되었다.

다음 해 12월에 金尙憲의 病勢가 갑작스럽게 위독해지자 오랑캐의 汗이 龍骨大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고는 내보내어 義州에 머물도록 하였다. 義州로 오는 도중에 호송하는 胡差가 험한 길을 만나면 문득 말에서 내려 앞에 서서 직접 金尙憲이 타고 있는 수레를 부축하였는데, 尊敬하는 마음을 終始토록 해이하게 하지 않았다. 義州로 나오니, 義州府尹이 접대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詩 한수를 읊은 것이 있다.

고향 산의 松柏 속에 무덤 잠겨 있거니와 故山松柏鎖幽宮

지난날에 즐겁던 일 꿈속으로 들어오네 曠昔歡娛入夢中
 오늘에는 한잔 술을 어느 누가 올리려나 今日一杯誰爲進
 흰머리로 천리 뉘서 눈물 줄줄 흘리누나 白頭千里泣無窮

1643년 1월 오랑캐들이 다시 심양으로 데리고 가서 북관에 拘留시켰다. 이때 崔鳴吉도 심양에 끌려와 있었다. 그는 명나라와 내통한 것이 발각되어 領議政 자리에 있으면서 심양으로 끌려와 북관에 拘留되었던 것이다.

심양 북관 감옥에서 崔鳴吉과 주고받은 유명한 詩句節이 있는데, 먼저 崔鳴吉이 金尙憲에게 준 詩다.

“끓는 물과 언 얼음은 모두 물이고, 湯水俱是水
 가죽 옷과 갈포 옷은 모두 옷일세. 裘葛莫非衣

이에 金尙憲이 답하여 지어준 시도 있다.

成敗는 다 하늘 운에 달려 있거니 成敗關天運
 義에 맞는 것인가만 보아야 하리 須看義與歸
 제아무리 아침저녁 바뀐다 해도 雖然反夙暮
 어찌 옷을 뒤바꾸어 입어서 되랴 詎可倒裳衣
 (이하 생략)

1644년 4월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오랑캐들이 점령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金尙憲은 통탄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使臣되어 朝會 가서 지난날에 賓客 되매 奉節朝周昔作賓
 바다 같은 皇帝 恩惠 陪臣에게 미치었네 皇恩如海到陪臣
 하늘과 땅 뒤엎어진 오늘날을 만나서는 天翻地覆逢今日
 죽지 않아 부끄럽게 義를 등진 사람 되네 未死羞爲負義人

1645년 2월 76세에 6년간의 심양 옥살이를 마치고, 昭顯世子和 鳳林大君과 함께 귀국하였다. 그에 앞서 龍骨大가 質館에 와서 말했다.

“이번에 바야흐로 크게 恩典을 베풀어서 특별히 석방해 世子가 있는 館所에서 가까운 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어 자물쇠를 풀었다.

龍骨大가 金尙憲 및 崔鳴吉로 하여금 서쪽을 향하여 皇帝의 명에 謝恩하라고 하자, 崔鳴吉이 金尙憲의 팔을 잡고 함께 하자고 하였다. 이에 김상헌은 허리에 病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는 끝내 禮를 올리지 않았으며, 龍胡가 강요하였으나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崔鳴吉만 홀로 서쪽을 향하여 四拜를 올리고 꿇어앉아서 龍胡에게 謝禮하니, 龍胡가 눈을 부릅뜨고 金尙憲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드디어 世子에게 謝禮하고서 그대로 質館에 머물렀다.

서울에 돌아와서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왕에게 상소문을 써 올렸다.

“臣은 임금의 命을 無視한 죄가 쌓여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기에,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채 아직까지 저의 실정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

쓰고 대궐 뜰에 나아가 크나큰 은혜에 대해 공손하게 사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거둬들여 질병이 들어 攀動하는 것을 거의 閉하고 있기에, 머리를 들어 대궐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만 할 뿐 대궐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犬馬와 같은 臣의 나이가 이미 八旬이 다 되어 가는바, 기울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매 아침저녁으로 떨리기만 할 뿐입니다.

이제 한번 시골로 돌아가면 영원히 聖上을 뵈을 수 없을 것이기에, 팔막한 上疏를 올리노라니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하였다.

그런데 십여 일이 지나도록 回報가 없었다. 이에 드디어 楊州의 石室로 나갔다.

1646년 3월에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에 除授되었다. 그는 극구 사양하였으나 仁祖가 허락하지 않았다. 承旨를 石室로 보내 出仕하라고 독촉하여 조정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 遞差시켜 줄 것을 32회나 요청하여 閒職인 領敦寧府事로 옮기게 되었다.

1649년 仁祖가 賓天하고, 鳳林大君이 王位에 올랐으니, 孝宗이다. 김상헌은 領敦寧府事직을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孝宗이 허락지 않았다. 孝宗은 김상헌을 左議政에 다시 제수하고 北伐政策을 의논하자고 하였다.

1651년(효종 2) 82세에 좌의정을 사직하고, 石室로 돌아왔다. 다음해인 1652년 6월에 病勢가 위독해졌다. 孝宗이 御醫를 보내어 진찰하게 하였다. 25일 2更에 正寢에서 卒하였다. 향년 83세였다. 그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遺書를 써 놓고 있었다.

“墓 앞에는 碑石을 세우지 말고 단지 작은 墓標만 세우고서 貫鄉과 姓名만 기록하라. 喪祭와 吉祭는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아름답게만 하느라고 禮制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祠堂을 옛 制度대로 回復하지 못하여 유감스럽기 그지없으니, 집안의 物力이 다시 지을 만하게 되기를 기다려서 먼저 사당을 세우되, 한 결 같이 옛 제도대로 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지 바란다. 初喪 때 棺은 크고 높게 하지 말며, 옷가지와 이불은 몸이나 겨우 두를 정도로 하며, 埋葬하는 데 쓰는 여러 도구는 검소한 제도를 따라서 하기를 힘써서, 나의 평소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靈寢에는 붓과 벼루 및 平常時에 읽던 책 몇 질을 놓아두라.”

이보다 앞서 김상헌은 병을 앓아누워 있으면서 遺疏를 짓고는 子弟들에게 명하여 쓰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올린 것이다. 그 상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삼가 아웁니다. 臣은 본래 庸劣한 資質을 가진 몸으로 요행히 여러 대의 朝廷에서 은혜를 입어 地位가 崇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티끌만 한 보답도 하지 못하고 한갓 죄만 쌓아 왔습니다. 丙子年(1636, 인조14)과 丁丑年(1637)의 난리 이후로는 벼슬할 생각을 끊었으며, 중간에 다시 화를 당하여 온갖 어려움을 두루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도 先王께서 草野에 있던 臣을 부르시어 三公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臣은 은혜로운 命에 감격하여 마지못해 한번 나아갔으나, 허물만을 쌓은 餘生이라 힘을 쏟아 盡力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에 祖上의 墓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물러나 지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聖上을 만남에 이르러서는 남다른 은총을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구구한 저의 마음속으로는 단지 士類를 顯揚하고 綱維를 振作시켜 새로운 敎化를 펴는 데 萬分의 一이나마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서 뜻을 조금도 펴 보지 못하고 聖上의 恩德을 저버린 채 낭패하여 돌아왔습니다. 疾病과 근심 걱정으로 인해 점점 더 痼疾病이 되었으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목숨이 거의 다하게 되었는바, 다시금 天顏을 뵈는다는 것은 以生에서는 이제 끝나 버렸습니다. 이에 멀리 대궐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서는 목숨을 바치고 죽어서는 結草報恩하겠다는 忠心만 더할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殿下께서는 처음 王位를 물려받던 때에 품었던 뜻을 더욱 더 가다듬으시고, 어진 이를 좋아하는 精誠을 버리지 마시어, 善한 사람을 登用하여 훌륭한 政治를 이루고 實際的인 덕을 잘 닦아 王業을 넓히소서.

그리하여 우리 東方이 億萬年토록 무궁할 아름다움의 基盤을 크게 닦으신다면 臣은 비록 죽어 구천에 가 있더라도 餘恨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임해 기운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遺疏를 받아본 孝宗은 承政院에 다음과 같이 傳敎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남저 두지 않고, 내게서 元老를 앗아갔으니, 매우 슬프고 슬프다. 이 遺疏를 보니 말이 아주 간절하고 訓戒가 매우 至極하다. 나라 위한 忠誠이 죽음에 이르러서 더욱 篤實하니 몹시 歎服스럽다. 그러니 가슴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近臣에게 下諭한다.”

王이 承旨를 보내 弔問하고, 校理를 보내 致祭하였다. 王世子도

宮官을 보내어 弔祭하고 賻贈하였다.

8월 18일 丁巳에 石室의 先塋 안 癸坐丁向의 산등성이에 禮葬하였다.

1654년(효종 4)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大提學觀象監事世子二師를 追贈하라고 명하였다. 諡號를 의논하여 文正이라고 하였다.

1693년(숙종 19) 南漢山城에 三臣祠를 세우고, 三學士의 位牌를 모셨는데, 1700년(숙종 26)년 三臣祠를 顯節祠로 賜額하면서, 淸陰 金尙憲과 桐溪 鄭蘊을 配享하고 位版을 三學士의 위에 두게 하였다.

1661년(현종2) 孝宗의 廟廷에 配享되었다.

『朝天錄』·『南槎錄』·『淸平錄』·『雪窩集_{설교집}』·『南漢紀略』 등으로 구성된 『淸陰集』 40卷이 전한다.

鄭蘊의 行狀과 事蹟



鄭蘊 선생 묘(慶南 居昌郡 渭川面 薑川里)



鄭蘊 선생 生家 古宅(慶南 居昌郡 渭川面 薑川里 50-1번지)



桐溪鄭先生遺墟碑(濟州 西歸浦市 大靜邑 安城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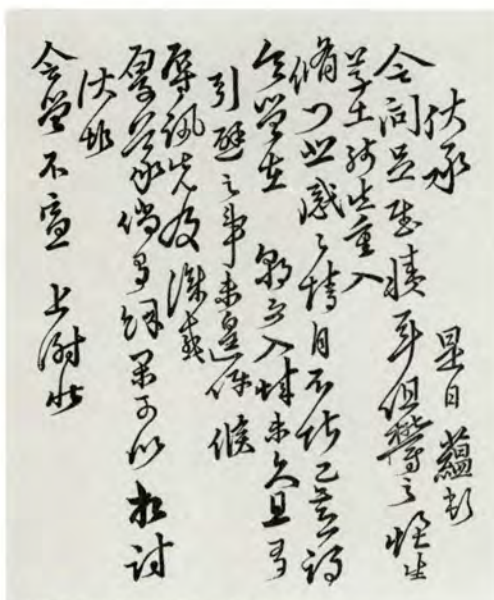
鄭蘊先生文集冊板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21호
木版 私刊本 299매(가로 54cm, 세로 29cm, 폭 2.5cm)
지정일 1997.01.30.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현종 1년(1660)에 初刊, 철종 2년(1851)에 再刊.



정온 숙종20년 증직교지



鄭蘊 先生 旌閭門과 御製詩板



鄭蘊 先生 簡札(海東歷代名家筆譜)

鄭蘊의 行狀과 事蹟

本貫은 초계(草溪). 자는 휘원(輝遠), 호는 桐溪·鼓鼓子. 別提玉堅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좌승지 淑이고, 아버지는 진사 惟明이다. 어머니는 장사랑 姜謹友의 딸이다. 1569년(宣祖 2)에 태어나 1641(仁祖 19) 73세에 卒逝하였다.

1601년(宣祖 39)에 進士가 되고, 1610년(광해군 2) 別試文科에 乙科로 及第하여 侍講院兼說書·司諫院正言을 歷任하였다. 司諫院正言으로 在任하고 있을 때인 1611년(光海 4) 李爾瞻과 鄭仁弘이 권력을 쥐고 부당한 처사를 자행하자, 이를 諫言하다가 미움을 사서 함경도 경성 관관으로 좌천당하였다. 이듬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掌樂院僉正이 되었다. 1613년 永昌大君의 獄事가 일어났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얼 出身들인 朴應犀를 비롯한 10여명이 뜻을 얻지 못하자 결의하여 도적이 되었는데, 商人을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다가 미행한 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마침내 朝廷의 뜻에 迎合하여 스스로 逆謀를 위하여 그랬고 永昌大君 李璘를 추대하려 하였다고 말하여, 獄事가 크게 일어났다. 또 고변한 자가 말하기를, “延興府院君 金悌男(인목대비의 아버지)이 永昌大君의 옹립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이에 양궁(兩宮)의 틈을 엿보는 자들이 날뛰며 爭論하여 반드시 永昌大君을 죽여 禍의 根本을 끊으려 하였다.

하루는 鄭蘊이 李爾瞻이이침을 만나 獄事를 言及하다가 正色하며 말했다.

“여덟 살의 어린아이가 어찌 逆謀를 알겠소. 또 듣건대 仁穆大妃께서 수라를 全閉하고 함께 죽으려 한다고 하니, 만일 불행한 일이라도 벌어 진다면 公들이 뒷날 무슨 할 말이 있겠소.”하니, 이이침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설령 大妃를 함께 廢位시키더라도 不可하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소.” 하고, 즉시 그 아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내 심기가 편치 못하니,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鄭蘊이 웃으며 말했다.

“公은 들어갈 필요 없소. 내가 곧 갈 것이요.”

정은은 즉시 일어나 나와 드디어 絶交하였다. 후일에 여러 곳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선생이 자리를 피하였으므로 이이침이 크게 원망하였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

鄭蘊이 이미 물러나서 鄭仁弘에게 편지를 보내 永昌大君의 일을 논하였다. 편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여덟 살 먹은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逆謀를 꾀할 리가 만무한데 만약 조만간에 禍本으로 삼아 반드시 提舉하려 한다면 孟子가 이른바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이를 죽이고 天下를 얻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義理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上의 비답 가운데, ‘先王이 어린 아들을 부탁

한 뜻은 바로 오늘을 위해 염려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명령께서 모르내리며 이곳에 계시니, 내가 어찌 차마 어린아이에게 법을 가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上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三司가 일제히 發議하고 二品이 陳啓하여, 마침내 大臣이 百官을 거느리고 延請하기에 이르렀으니, 죽이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을 形勢입니다. 天理와 人情으로 헤아려 보면 이러한 일을 어찌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듣건대, 慈殿께서 항상 永昌大君을 품에 안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으면 나도 또한 죽으려다.’ 하시고 수라를 전폐한 지 여러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뜻밖의 변고가 발생한다면 오늘날 朝廷의 臣下가 장차 天下萬世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613년 2월 侍講院 弼善으로 있으면서 封事를 올려 永昌大君을 蒸殺한 江華府使 鄭沆을 斬首하고 永昌大君의 位號를 追復하라고 청하였다. 지난해에 金悌男이 이미 죽음을 당하였고, 永昌大君이 江華에 유폐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江華府使 鄭沆이, 大君이 병으로 죽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로는 朝廷의 의논이 죽인 것이라고들 하였다. 鄭蘊이 이에 封事를 올려 아뢰었다.

“아, 仁聖한 德을 지닌 殿下께서 불행히도 人倫의 변고를 당하시어 이러한 변고에 대처하는 方途를 다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아 거칠고 사나운 武夫에게 손을 빌림을 면하지 못하셨으니, 그 聖德에 累가 됨이 이미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永昌大君의 罪를 논하는 자들이 첫째는 ‘禍本’이라 하고, 둘째는 ‘奇禍’라고 하니, 한번 濟王 蟾蜍의

일을 援用하여 건주어 보겠습니다. 제왕이 처음 太子가 되었을 때에 奸臣의 嫉視를 받아 변방으로 쫓겨 갔다가 얼마 후 賊徒의 옹호를 받게 되자, 黃袍를 몸에 두르고 賊徒들과 誓約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할 줄 알고서 곧바로 討平한 공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제 몸 에 직접 惡名을 얻게 된 점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로써 비추어보면 당시의 禍本으로는 玆璁만한 자가 없었고, 凶賊의 奇禍로도 玆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史彌遠사미원^{사미원}이 음모를 꾸며 살해한 것이 社稷을 안정시킨 忠誠이라 할 수 있건만 당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겼고, 후세 사람도 그를 살해한 것을 심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찌서이겠습니까.

眞德秀가 말하기를, ‘三綱과 五常은 宇宙를 부지하는 동량이며 백성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니, 사람에게 이것이 없다면 의관을 갖추었다라고 짐승에 지나지 않고, 나라에 이것이 없다면 中夏일지라도 오랑캐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처럼 痛切하였던 것은 진실로 璁의 行蹟에 대해서 비록 이런저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본래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심을 따져 보아 그 원통함을 씻어 주고, 이어 追封과 立後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永昌太君은 일개 王子일 뿐이니, 心迹이 璁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逆賊의 供招에서 나온 말일 뿐 일찍이 擁立한 흔적이 없으며, 어려서 아는 것이 없는데 또한 어찌 역모를 꾀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만약 진덕수와 같은 사람이 本朝에서 벼슬하고 있다면 죽이기를 청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殿下께서는 어린아이의 無知함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先王의 遺敎를 우러러 體察하시어 그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할 바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百官들이 뜰에 가득히 모이고 三司가 번

갈아 상소한 것이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모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마는 측은한 생각을 막기 어려워서 끝내 兪音を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逆賊의 자식이라도 오히려 성장하기를 기다린 일이 있는데, 더구나 어린 아우에게 어찌 갑자기 刑章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江都에 安置하여 나이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뜻과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고서 천천히 처리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가 어찌 아니겠습니까.

聖上の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推鞠을 담당한 臣下들이 한 해가 넘도록 入侍하면서 그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 따르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三司에 判원이 많으나 附和雷同을 잘할 뿐 임금을 덕으로 사랑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君德의 잘잘못을 보기를 자신과 전혀 무관한 듯이 보아 넘길 뿐만 아니었으니, 殿下의 형세는 고립되어 도움 받을 곳이 없다 하겠습니까.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殿下께서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를 대하였는데, 鄭沆은 죽이는 것으로 그를 대하였고, 朝廷에서는 정당한 법으로써 의논하였는데, 鄭沆은 핍박하여 죽게 함으로써 殿下로 하여금 大舜이 象을 처리했던 것처럼 할 수 없게 하였고, 漢唐 以下の 임금들처럼 理致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결과를 면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 사람을 죽인 자는 死刑에 처한다는 國法이 지엄합니다.

무고한 凡人을 죽이더라도 또한 용서할 수 없는데, 더구나 우리 임금의 親同氣를 죽인 경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어리석은 臣의 생각으로는 鄭沆을 斬首하지 않으신다면 殿下께서는 先王의 廟庭에 설 면목이 없을 듯합니다.

아, 이미 지나가 버린 허물은 諫言할 수 없다지만 장래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 宋나라 太宗은 廷美에 대하여 이미 죽이도록 하고서 곧바로 封爵과 恤孤恤孤의 恩典을 내렸고, 眞宗은 元佐에 대하여 主謀者만을 誅罰하였고, 오래도록 폐기했던 가운데에서 封爵을 회복시켰으니, 이는 盛德을 지닌 사람의 처사였습니다. 어진 사람은 아우에게 노여움을 품지 않으며, 원한을 묵혀 두지 않는 법입니다. 더구나 殿下께서는 永昌大君에 대하여 이미 품을 만한 노여움이 없는데, 어찌 묵혀둘 만한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가 원통하게 죽은 것은 길 가는 사람조차 슬퍼하는데, 더구나 聖上의 애통한 마음은 응당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臣의 생각으로는 의당 有司에게 명하여 永昌의 位號를 追復하여 大君의 禮로 葬禮 지내게 하시고, 또 애통하다는 傳敎를 내려서 온 나라의 臣民들로 하여금 殿下의 友愛하는 本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면 위로는 하늘에 계신 先王의 英靈을 慰勞할 수 있고, 아래로는 萬民의 의심하는 耳目을 풀어 줄 수 있으며, 後世에 傳하더라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臣의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염려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있습니다.

宋나라의 정승 韓琦가 말하기를, ‘父母가 慈愛로운데 자식이 孝道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므로 말할 것이 못 되고, 부모가 자애롭지 못하는데도 자식이 효성을 잃지 않아야 비로소 일컬을 만한 것이 된다.’ 하였습니다. 大妃께서 혹 殿下께 자애롭지 못하더라도 殿下께서 어찌 大妃께 효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永昌이 이미 죽었으니, 다시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참소하는 말을 끊어 誣陷무함하는 길을 막으시고, 만일 간사한 무리들이 감히 좋지 않은 말로 大妃를 言及한다면 卽時 有司에게

님저 重律로 論罪하게 하소서. 아, 母子와 兄弟 사이를 남들이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鄭造, 尹詡, 丁好寬 등이 맨 먼저 廢母와 殺弟의 논의를 폈으나 同僚와 의논하지도 않고, 他司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며, 大臣에게 알리지도 않고, 宰臣들에게 묻지도 않은 채 슬그머니 完席에서 발언하고 갑자기 피험하는 말 가운데 드러냈는데, 이는 일개 官吏를 彈劾하는 데에도 오히려 慎重을 기하던 모습과는 전혀 같지 않았으니, 그 속셈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 近年 以來로 요행의 문이 한번 열려 勳名이 지나치게 남발되자, 功勳을 탐하고 災殃을 즐기는 무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임금의 至親을 자신의 富貴를 누는 미끼로 여기기까지 하였으니, 비유하자면 짐승을 쫓는 자가 남들을 밀치고 홀로 달려가 먼저 죽인 공을 얻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남의 臣下가 되어서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臣의 생각으로는 殿下께서 母子간의 은혜를 온전히 하려 하신다면, 속히 이 세 사람을 잡아다가 변방으로 쫓아내어 나라 안에 함께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뒤에라야 참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三綱五常이 우주에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상소가 들어가자 光海君이 진노하여 傳敎하였다.

“내가 逆謀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 될 수 있는 한 너그럽게 하여 逆黨이 重罪를 입은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므로 못된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다투어 疏章을 올려 거리낌 없이 업신여기고 농락하였다. 人心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政院은 王命의

出納을 맡은 곳인데 흉악한 상소를 공공연히 捧入하였으니, 지금 이후로는 잡된 疏章을 일체 봉입하지 말라.”

光海君이 막 수라를 들고 있었는데 上疏를 읽다가 先王의 廟廷에 설 面目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에 이르러 몹시 분노하여 수라상을 엎어버리고 옥정으로 上疏를 받들어 올린 侍女의 머리를 때렸다.

위의 소장을 받아 본 光海君은 즉시 鄭蘊을 鞠問 할 것을 지시하고, 親鞠을 열어 問招하였다. 鄭蘊은 뜻을 굽히지 않고 永昌大君의 옥사가 부당함을 역설하였고, 드디어 濟州道 大靜縣에 圜籬安置³⁹⁾ 안치³⁹⁾의 형벌이 내려졌다.

제주도 大靜縣에 도착하였는데, 圜籬가 縣의 東門 안에 있었고, 圜籬記를 짓고 또 白雲歌를 지어서 老母를 생각하는 뜻을 붙였다. 配所에서 鼓鼓子라고 自稱하였으니 어리석음을 일컫는 것이다. 縣監이 鄭蘊을 위해서 書室 두 칸을 지어 주었는데, 날마다 그곳에 거처하여 經史子集 수백 권을 시렁 위에 올려놓고 10년 동안에 돌려가며 보았다.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첫 새벽에 옷을 떨치고 단정히 앉아 송독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대정현감의 요청에 의하여 제주의 儒生들을 곡진히 訓育하기도 하였다. 이때 지은 曉起吟이 있다.

닭이 울기 전에 잠에서 벌써 깨었는데 鷄未鳴時已罷眠

닭이 울자 일어나 앉으매 생각이 아득하구나 鷄鳴起坐意茫然

39) 圜籬安置- 조선시대 관료에게 내린 형벌의 하나로 유배지에 오두막을 짓고 가서 울타리로 둘러쳐서 밖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형벌.

시비 득실은 천년 동안 항상 있는 일이고	是非得失千年事
비태와 영허는 만고에 변치않는 법이로세	否泰盈虛萬古天
야기 청명하니 모쪼록 낮에 경계해야 하니	夜氣清明須戒晝
마음 근원 맑으니 깊은 연못같이 해야 하리	心源澄澈也如淵
천리 밖 모친 생각 눈물 그칠 수만 있다면	若除千里思親淚
걱정 없음이 도리어 태고 이전과 같겠구나	無慮還同太古先

濟州에서의 귀양살이는 꼭 十年을 하였다. 그는 濟州에서 수많은 著述을 하였고, 그 地方 사람들로부터 推仰을 받아 젊은 선비들을 불러 모아 學問을 가르치고 教化에 힘썼다. 그가 1623년 3월 仁祖反正으로 풀려나 제주를 떠나자, 제주 사람들이 그를 欽慕하여 귀양살이 하던 곳에 遺墟碑를 세우기도 하였다. 40여세에 제주도에 들어와 白首가되어 풀려난 것이다. 仁祖는 그에게 司諫院 司諫을 제수하였다. 그는 老母를 奉養하기 위해 南原都護府使로 보내 줄 것을 청하여 外職으로 나아갔는데, 당시 그의 老母는 86세였다.

그 후 吏曹參議, 刑曹參議, 大司諫 등을 역임하였고, 1624년 李适의 亂 때에 仁祖가 公州로 播遷할 때 扈從하였다. 亂이 平定 되어 還宮한 후에 都承旨에 被命되었다.

1627년 丁卯胡亂이 일어나 仁祖가 江華로 播遷 할 때에 扈從하면서 오랑캐와 절대 和議하면 안 된다고 상소를 거듭 올렸다.

“오랑캐들이 講和를 요구하는 데는 두 가지 理由가 있습니다. 後援軍이 없는 軍隊를 깊이 賊地에 들여보내 兵家의 忌諱를 범한 데다 安州戰鬪에서 피차간에 죽이고 죽은 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가고

자 하여 이것으로 미끼를 주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우리나라의 虛實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南以興처럼 굳게 지켜 힘써 싸우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우리 군사를 나태하게 만들고자 하고 이것으로 誘引하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우리를 우롱하는 계략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만에 하나 있을 僥倖을 바라고 戰鬪에 對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어찌 하늘과 조종이 부락한 뜻이겠으며 온 나라의 臣民이 일찍이 殿下에게 기대했던 것이겠습니까.

臣이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軍兵이 비록 모두 精銳化 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효는 10만 명을 밑돌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六路의 勤王兵이 거의 다 집결하였고, 鄉兵과 義旅가 곳곳에서 蜂起하고 있습니다. 平安道의 몇 개 城이 이미 함락되었지만, 黃海 一路는 아직 완전합니다. 江原道와 함경도의 兵使로 하여금 적의 後尾를 에워싸게 하고, 黃海道의 軍卒은 저들의 중심을 공격하게 하고, 畿甸 이하 四道의 병사들로 臨津江을 把守하게 한다면, 저 오랑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데다 좌우에서 공격을 받아 세력이 나뉘고 힘이 약해져 수레 한 대도 돌아가지 못하는 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오직 殿下께서 확고하게 결정할 뜻이 없고 廟堂에는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鞭軍과 砲手 수백 명은 平素에 교육이 잘 되어있고 技藝가 능숙하여 오랑캐를 방어하기에 이보다 나은 자들이 없는데 宿衛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쪽에다 몰아 놓으셨습니다. 아, 안은 실로 중하고 밖은 실로 가벼운 것이지만, 輕重을 재는 저울은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 오늘날의 外方을 과연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도적이 그의 집에 들어오려고 문밖에서 엿보고 있는데, 그 문을 닫지 아니하고 亂

入하도록 내버려 둔 채 활과 칼을 안방에다 깊이 감추어 두고 말하기를, '집안의 財物을 죄다 가져가도록 기다렸다가 안방에 이른 뒤에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殿下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지혜롭지 않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事勢가 이것과 서로 비슷하니, 臣은 삼가 괴이하게 여기며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이른바 四大將 중에서 金瑬와 李貴는 書生이므로 실로 出征하기가 어렵고, 李曙는 人心을 많이 잃었으므로 壯士들이 필시 命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申景禎만은 名將의 家門으로 代代로 國家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감히 목숨을 바칠 마음이 없겠습니까. 鞭軍과 砲手를 절반으로 나누고, 두 장수의 軍官을 한곳으로 합하여 申景禎에게 주어서 한 곳을 지키게 한다면 군사들이 답답해하던 차에 한번 戰鬪를 벌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軍隊의 의리가 바르고 군사들의 義氣가 굳세니 어찌 대적하지 못할까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는 단지 殿下께서 한번 玉音을 내리시는 데에 달려 있는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으십니까."

임금이 답하였다.

"경의 忠義를 가상히 여긴다. 진달한 바는 헤아려 처리하겠다."

이때에 朝廷이 싸워 지키는 對備를 하지 않고 오직 和議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서 姜弘立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또 그 親屬을 보내어 陣中에서 姜弘立을 만나게 하여 朝廷이 박하지 않게 대우하였다고 말하게 하였다. 강홍립과 朴蘭英이 오랑캐 사신 劉海 등과 함께 和議를 의논하기 위해 나루에 도착하였는데, 李廷龜와 金蕙

國으로 하여금 迎接하게 하였다. 왕이 강홍립 등을 引見하자, 劉海는 拜禮하기 어렵다고 핑계 대고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右議政 吳允謙과 崔鳴吉이 억지로 청하여 오게 하였다. 이에 和議가 드디어 결정되었다.

1636년 봄에 오랑캐들이 差使를 보내 자칭 大清皇帝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兄弟의 義로 하였던 관계를 君臣之義로 바뀌야 한다는 요지의 國書를 가지고 와서 조정이 당황하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라고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인열왕후의 國喪이 났는데, 예에 따라 5월장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鄭蘊은 그들이 심히 노하여 돌아갔는데, 화가 속히 닥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비가 없음을 개탄하였다. 이때 主和派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나 斥和派에서는 극력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司憲府 掌令 洪翼漢은 差使의 목을 베어 明나라에 보내자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당시 鄭蘊은 吏曹參判으로 있으면서 적의 침입에 대항 할 계책을 상세히 상소로 올렸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戰鬪가 벌어질 곳에 먼저 陣을 칠 장소를 정합니다. 砲手 4000명을 4隊로 나뉘 2000명은 앞에 진을 치고, 2000명은 地形을 살펴 左右에 陣을 칩니다. 포수 뒤에는 射手를, 그 뒤에는 殺手를, 그 뒤에는 鞭棍軍편곤군과 騎射兵을 각각 배치합니다.(중략) 賊이 鶴翼陣^{학익진} 형태로 공격해 오면 我軍의 前隊 1000명이 먼저 鳥銃을 쏩니다. 쏜 뒤에는 앉아 火藥을 장전하고 후대 1000명이 앞으로 나가 다시 쏩니다. 적이 만약 長蛇陣^{장사진}으로 공격해 오면 左軍이 戰隊가 했던 방식처럼 먼저 쏘고, 적이 40~50보 안에 들어오면 射手들이 포수가 쏘던 방식대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그

러면 砲聲이 그치지 않고, 화살은 비 오듯이 쏟아질 것이니 비록 저들의 堅甲鐵馬견갑철마라 할지라도 어찌 깨멸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鄭蘊의 계책은 丙子胡亂 무렵 제기된 決戰論 가운데 가장 具體的이고 論理 정연한 것이었다. 또 아뢰었다.

“臣이 지난해에 國事를 言及하다가 잘못되어 물러났건만, 지금 馮婦처럼 팔뚝을 걷어붙이고 다시 나서니, 어찌 선비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時期에 끝내 身病만 言及하는 것은 또한 職分上 온당한 바가 아니라 생각하여 나가서 謝恩하고자 했던 것인데, 발이 약하고 다리가 떨려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넘어지니 臣의 사정이 또한 낭패스럽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이 급하면 천천히 걸어갈 수 없고, 마음이 아프면 느긋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臣이 나가서 謝恩하지 않고 먼저 말로써 대신하는 것은 이 또한 천천히 걸어갈 수 없고 느긋하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 금나라 오랑캐는 사나운 범이며 독한 살모사입니다. 조정이 義理를 들어 排斥하자 저들이 발끈 화를 내고 가버렸으니, 이미 그 꼬리를 밟고 그 혀를 건드린 격입니다. 그런데 방어하거나 잡아 죽이려는 계책은 어찌 아득히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事態의 촉박함이 눈썹을 태우는 것보다 더 급하거늘 어느 저를에 날을 받는단 말이며, 元帥의 行裝이란 하나의 長劍 뿐이거늘 어느 저를에 행장을 꾸린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臣의 생각으로는 즉시 파전을 명하여 성화처럼 달려가서 군사를 다스리고 기계를 정돈하며 강여울을 막고 城池를 수리하여 死守할 계책을 세우고, 후퇴할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聖上께서

위임하여 功效를 기대하는 뜻이며 帥臣이 몸을 바쳐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천하의 精銳兵이 있는 곳입니다만 저들은 곧바로 進擊하여 후퇴함이 없고 우리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기만 하니, 이것으로 勝負와 強弱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元帥의 責務를 맡은 자로 하여금 황금을 허리에 차는 즐거움을 잊고 宗廟社稷이 망하려 할 때의 서러움을 잊고서 三軍을 격려하고 義氣를 진작시키게 한다면, 저들이 비록 숫자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戰守의 편리함과 措置의 마땅함에 대해 말하자면, 또한 元帥가 요량하여 처리할 일이지만 兵事란 먼 곳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반드시 金城에 도착한 뒤에야 趙充國의 대비책이 비로소 적합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臣이 西北方으로 내려 보내기를 서둘러 요청하는 까닭입니다.

정묘년(1627, 인조5)에 있었던 江都의 일을 識者들이 지금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精銳兵을 모아다가 섬 안에서 늑게 할 뿐, 한 명 군사를 내보내고 한 필 말을 내달려서 賊兵을 나루 밖에서 糾察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内部의 變亂이 걱정스럽다는 말로 聖上의 귀를 현혹시켰단 말입니다. 國家와 苦樂을 함께 하는 勳臣들은 富貴가 이미 極에 달하여 살려는 마음만 있고 죽으려는 기상이 없음이 으레 이와 같으니, 緊急한 사태에 믿을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달라서 저들이 이미 군사를 출동시킨다면 비록 卑遜한 말로 和親을 청하더라도 필시 듣지 않을 것이니,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決死 각오로 一戰을 벌여 勝負를 결정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大將과 軍官 및 砲手, 殺手 등 여러 군사는 그 精銳兵의 반을 나누어 元帥에게 맡긴다면 八道에서 徵兵하지 않더라도 군대의 위용이 벌써 떨쳐

질 것입니다.

5개월 만에 葬事를 치르는 것은 비록 諸侯의 禮制이긴 하지만, 經禮와 權道는 각기 형편에 따라 달라지므로, 墨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침략당하는 患亂이 장사하기 전에 발생한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어리석은 臣의 생각에는吉日을 앞당겨 잡아서 大事를 속히 이루고 미처 하지 못한 役事는 형세를 보아 追後에 완성하더라도 不可한 일이 아니라고 보니, 이것이 바로 權道를 행하여 中道를 얻는 방법입니다.

대저 그렇게 한 뒤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싸울 준비를 하시되, 전하께서 친히 六飛를 타고 松京에 進駐하여 將士를 독책하고 軍政을 엄격히 밝힘으로써 宋나라 태조의 ‘칼이 있을 뿐’이라는 뜻을 더욱 가다듬으신다면 전연(漣淵)의 만세 소리가 교활한 오랑캐의 혼백을 빼앗을 것이고, 삼군의 士氣도 백배 진작될 것입니다.”

임금이 批答하였다.

“上疏文을 보고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상소문은 비록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지만 마땅히 廟堂으로 하여금 債用하게 하겠다.”

며칠 후에 仁祖에게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방책을 다시 상소한 내용을 朝鮮王朝實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臣이 듣건대, 賊을 막는 데에는 험한 곳에 依據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長江(압록강)의 험함은 하늘이 東과 西를 갈라놓은 것이건만, 이를 버리고서 지키지 않고 물러나서 山城을 보존하려고 하니, 이는

옳은 計策이 아닙니다.

예전에 金人이 宋나라를 침범하자, 宋나라는 河水를 지키지 않고 물러나서 内地를 지키니, 金人이 河水를 건널 때에 건너는 대로 곧바로 行軍하여 다시 隊伍를 갖추는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에 비웃으며 말하기를, '南朝에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하구나. 만약 1, 2천 명으로 河水를 지키게 했다면 우리들이 어찌 건널 수 있었겠는가?' 하였고, 粘沒喝이 南北關을 넘으면서 우러러 탄식하기를, '關門의 험함이 이와 같건만 우리들로 하여금 지나오게 하였으니, 南朝에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하다.' 하였으니, 이것이 宋나라가 끝내 진작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지금 만약 압록강을 버리고 물러나 궁벽한 땅을 지킨다면 어찌 오랑캐들이 비웃고 탄식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義州府尹 林慶業은 城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고, 군민들 또한 그 父母와 妻子의 원수를 갚기를 생각하여 자못 목숨을 바칠 뜻을 가졌으니, 이것은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士氣를 振作시키는 舉措거조가 없다면 必死的으로 싸우려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義州에 科擧를 施行하시되, 法規를 완화하여 많은 武士를 뽑는 것이 最善策이라 여겨집니다.

그 명칭을 '效死守城科'라고 하여 장려하는 恩惠를 보이신다면 먼 邊方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聖恩에 감격하여 죽음으로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물러나서 지키는 것을 上策으로 여긴다면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盜賊에게 아첨하며 말하기를, '도적이 장차 나를 사랑하여 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임금이 비답하였다.

“進達한 바는 마땅히 議處하겠다.”

그러나 備邊司에서는 ‘開城에 進駐하는 일은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科擧를 베푸는 條目은 該曹로 하여금 稟達하여 處理하게 하소서’ 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仁祖는 ‘서서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鄭蘊은 王이 開城에 나아가 陣頭指揮하라고 건의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上疏를 올린 것이 1636년 3월 中旬이었다.

1636년 4월에 身病으로 辭職하고 故鄉인 居昌으로 내려갔으나, 9월에 大司憲에 除授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12월 초에 吏曹參判에 피임되었다. 鄭蘊은 10년 동안 귀양살이로 인하여 몸이 무척 쇠약하여져서 職務를 담당하기 어려워 官職을 제수 받을 때마다 辭讓하는 上疏를 여러 번 올렸으나 仁祖는 이를 允許하지 않았다.

1636년 12월 오랑캐들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십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범하였다. 丙子胡亂이 일어난 것이다. 仁祖는 허둥지둥 南漢山城으로 入城하였고, 臣僚들은 徒步로 뒤를 따라 扈從하였다. 主和냐 斥和냐를 놓고 城內에서 論爭이 심할 때 鄭蘊은 우선 都元帥 金自點의 罪를 물어 斬首하여 軍中에 머리를 매달 것을 청하였다. 그때 上疏文이 다음과 같다

“지금 하늘이 순조롭게 도와주고 聖上의 노여움이 대단하시니, 諸將들은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이 있고, 士卒들은 자신만 살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應募하는 軍士가 날로 더욱 증가되고 죽었다는 보고가 날로 더

욱 많아지니, 이는 바로 危機의 狀況을 安定으로 되돌려서 옛 疆土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때입니다.

어제 胡差가 다녀간 것은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놀리는 것이며, 우리를 어리석게 본 것입니다. 만약 그 달콤한 말을 믿고서 다시 그들의 計略에 빠져든다면 지난날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을 가졌던 자가 도리어 살려 할 것이고, 자신만 살려는 기색이 없던 자들도 도리어 죽지 않으려 할 것이니, 宗廟社稷의 存亡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殿下에서 처하신 다급한 憂患에 대해서 또다시 血書를 쓰고 降伏하자는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臣이 크게 괴이하게 여기는 것은 元帥에 관한 일입니다. 奴賊을 임금이 계신 곳까지 오도록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危機一髮의 孤立된 城에 읍츠리고 있게 하고는 자신은 편안히 물러나 있으면서 아직까지 이곳의 어려움을 救援하러 달려온다는 소식이 없으니, 古今天下에 어찌 이러한 元帥가 있겠습니까.

殿下께서는 펼쳐 일어날 뜻을 굳게 정하시고 간사한 논의에 흔들리지 마셔서 속히 金吾郎을 보내어 元帥의 머리를 취해다가 軍中에 매달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오랑캐의 수레가 한 대도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꿈을 며칠이 되지 않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차자가 들어갔으나 宮中에 繫留시키고 내려 보내지 않았다.

鄭蘊은 主和派에 의해 使臣이 오가며 소위 國書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崔鳴吉이 작성한 국서에 稱臣의 議論을 통렬히 내쳐서 賣國의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였다.

“臣이 삼가 떠들썩하게 전하는 말을 듣건대, 어제 使臣의 行次에서 臣이라 일컬으며 陳乞한 자가 있었다고 하니, 이 말이 참으로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필시 崔鳴吉의 말일 것입니다. 崔鳴吉이 稟旨하여 裁決을 받은 뒤에 간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臆測으로 결정하여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臣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心膽이 모두 내려앉았고 오열하느라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國書는 모두 崔鳴吉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말을 極度로 卑下하고 아첨하였으니, 이는 바로 一種의 降伏文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臣이라는 한 글자를 쓰지 않아서 名位가 그래도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만약 臣이라 일컫는다면 君臣의 분수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君臣의 분수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앞으로 그들의 命을 따라야만 합니다. 저들이 만약 나가서 降伏하라고 명하면 장차 나가서 항복하시겠습니까. 북쪽으로 가라고 명하면 장차 북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술을 따르라고 하면 장차 술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들의 命을 따르지 않으면 저들은 필시 君臣間의 義理를 가지고 죄를 聲討할 것이고, 그들의 命을 따른다면 나라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殿下께서는 장차 어떻게 對處하시겠습니까. 崔鳴吉의 생각은 한 번 臣이라 일컫기만 하면 山城의 包圍가 풀릴 수 있고, 임금도 온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小人의 忠誠이 될 뿐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天下의 國家로서 길이 保存되고 망하지 않는 것이 어찌 있었습니까만 무릎을 꿇고서 망하기보다는 차라리 正義를 지켜 社稷을 위해 죽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君臣과 父子가 決死의 각오로 한 번 싸운다면 나라를 보존할 이치가 없지 않음에 있어서겠습니까.

까. 아, 우리나라와 中國의 관계는 高麗 말의 金·元과 같은 것이 아니니, 父子의 은혜를 잊을 수 있으며, 君臣의 義理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거늘, 崔鳴吉은 그 해를 두 개로 만들려 하고, 백성에게 두 왕이 없거늘 崔鳴吉은 그 왕을 둘로 만들려 하니,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臣은 몸이 병 들고 힘이 약해서 비록 手板으로 내리치지는 못하지만 자리를 함께 하여 서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殿下에서는 崔鳴吉의 말을 통렬히 排斥하여 賣國한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만약 그럴 수 없으시다면 속히 臣의 官職을 罷斥하여 妄言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차자가 들어갔으나 宮中에 계류시키고 내려 보내지 않았다. 차자를 올리고 시를 지었다.

生世何嶮巇	세상살이 너무도 험난하여
三旬月暈中	포위 속에 한달을 지냈네
一身無足惜	이 몸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千乘奈云窮	나라 운명 다함을 어찌할까
外絕勤王帥	밖에는 근왕병이 끊어지고
朝多賣國兇	조정에는 매국노가 많도다
老臣何所事	늙은 신하 무엇을 일삼으랴
腰下佩霜鋒	허리에 흰 칼만 차고 있을 뿐

조정에서 講話가 성립 될 무렵에 斥和臣을 모두 오랑캐 진영으로

押送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 소식을 듣고 鄭蘊은 다음과 같이 자기를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달라고 進言하였다.

“臣이 구구하게 차자를 올렸던 뜻은 실로 崔鳴吉이 臣下라 일컫는 말을 미리 막으려던 것이었습니다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 계획을 시행했기 때문에 臣이 미처 알지 못하여 죽음으로 諫爭하지 못했으니, 臣의 罪가 크다 하겠습니다. 임금의 욕됨이 이미 極에 達했으면 臣下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徘徊하고 참으면서 自決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 행스럽게도 殿下께서 分明 城을 나갈 뜻이 없으시기 때문이니, 臣이 어찌 곧바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듣건대, 저 虜賊이 斥和臣을 要求함이 매우 緊急하다고 했습니다. 臣은 始終一貫 싸우기를 주장한 것으로 말하면 臣에게도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臣이 죽음으로서 조금이라도 國家存亡의 計策에 보탬이 된다면 臣이 어찌 몸을 아끼느라 임금을 위하여 죽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殿下께서는 속히 廟堂으로 하여금 議處하게 하시어 臣으로써 오랑캐의 要求에 應하도록 하소서.”

차자가 들어갔으나 궁중에 계류되었다.

드디어 임금이 오랑캐 진영으로 나아가 降伏하기로 하였다. 鄭蘊은 침통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自決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大駕가 나가서 降伏하려 하니, 臣下가 몸을 내버림은 바로 이때일 것이다. 이에 城을 나가는 날 이미 自決을 결심하고, 昌謹(동행한 서자)으로 하여금 나를 軍器의 북쪽에 묻고 標示하였다가 오랑캐가 물러간 뒤

에 얹은 널판을 사용하여 運柩해 돌아가 龍山(거창의 선영)의 墓下에 묻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네 어머니를 孝誠으로 섬기고 兄弟를 友愛로써 대할 것이며, 두 叔父를 섬기는 데에 거스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 昌謹이 만약 죽음을 벗어난다면 또한 同腹兄弟처럼 돌보아 飢寒으로 죽게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내 말이 여기에 이르매 통한이 어떠하겠느냐.”

드디어 편지를 봉함하여 衣帶 가운데에 두었다.

이날 새벽에 홀로 일어나 통곡하고 이어 이불과 베개를 정돈한 다음 누워서 佩刀로 자결하였다. 侍者가 알아차리고 이불을 걷어 살펴본즉, 칼이 뱃속으로 두 치 남짓 박혀 있었다. 즉시 놀라 부르짖으며 칼을 뽑아내자 鮮血이 뿜어져 나왔고, 혼수상태로 기운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온 성안이 크게 놀라며 그 義理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平素에 알던 朝廷 臣下가 달려와서 구원하였고, 임금 또한 즉시 御醫로 하여금 藥物을 가지고서 救濟하게 하여 며칠 만에 소생하였다.

大駕가 城을 나갈 때에 차자를 올려 下直을 告하고, 또 變亂에 대처하는 방도를 아뢰었다. 大駕가 나갈 때에 鄭蘊이 扈從 할 수 없어서 남의 손을 빌려 짧은 笥子를 구두로 완성하였다.

“臣이 自決한 것은 바로 殿下가 겪고 계시는 오늘의 일을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실날같은 목숨이 3일이 지나도 保存되고 있으니, 臣이 실로 괴이하게 여깁니다. 崔鳴吉이 이미 殿下로 하여금 오랑캐에게 臣이라 일컫고 나가서 降伏하게 하였으니, 君臣의 분수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臣下는 임금에 대해 한갓 따르는 것만을 恭順함으로

삼지 않으니, 主張할 만하면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만약 皇明의 印章을 반납하라고 요구하면 殿下께서는 마땅히 ‘祖宗朝에서 이 印章을 받아 使用한 것이 지금 거의 300년이 되었으니, 이 印章은 마땅히 明나라 朝廷으로 還納해야 할 것이고, 淸나라에 반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만약 명나라 군사를 공격할 군사를 요구하면 殿下께서는 마땅히 ‘明나라와는 父子間의 恩惠가 있음을 淸國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격하게 함은 倫紀에 관계된 문제이니, 공격하는 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게 한 자 또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교활한 저들도 필시 양해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殿下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장하시어 天下 後世에 죄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臣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大駕를 호종할 수도 없고, 또 길가에서 낫하며 下直하지도 못하니, 臣의 죄가 큼니다. 臣의 本職과 兼職을 아울러 遞改하도록 명하시어 臣으로 하여금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소서.”

上이 차자를 보았으나 허둥지둥 城을 나가느라 미처 비답을 내리지 못하였다.

2월 初旬에 筏輶편여에 누운 채 남쪽으로 내려와서, 3월에 故鄉으로 돌아왔다. 당시 士大夫들이 대부분 남쪽 지방으로 피난하였다. 난리가 안정되어 북쪽으로 돌아올 때 길에서 鄭蘊을 만나 國事에 대해 물으면, 문득 痛哭하면서 對答하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목이 막히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4월에 支石(거창)에 寓居하였다. 支石은 집 서쪽 北上의 穴山 아

래에 있다. 스스로 탄식하기를, “내가 南漢山城에서 죽어 國恩에 보답하지 못했으니, 어찌 차마 나라의 백성 노릇을 하며 妻子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려서 스스로 보통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궁벽한 곳을 취하여 은둔하는 장소로 삼았다. 이때 詩를 지었다.

揮刃初期一死過	칼로 찌르던 당초에는 빨리 죽기 기약했던만
如何殘命尚頑然	최잔한 목숨 어찌하여 아직까지 끊기지 않나
仲連高潔終難跂	노중련의 고결함 따를 수 없을지라도
元亮田園可省愆	원량의 전원에서 허물을 살필 수 있으리라

鄭蘊이 산속에 있으면서 出入하는 일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 또한 드물었기 때문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고 사립문도 언제나 닫혀 있었다. 상자에 담긴 程朱의 글을 때때로 펼쳐보다가 잠이 오면 문득 턱을 괴고 졸았고, 또 어른과 아이 6, 7명을 따르게 하여 적료 함을 달래는 거리로 삼았다. 또 關東에서 온 義巖이라는 한 老僧을 얻어 西南 모퉁이 100步 쯤의 石泉 가에 작은 암자를 짓게 하여 산속의 이웃으로 삼았다.

向晦端宜燕息時	날이 저물면 정히 편히 쉬어야 할 때이거늘
如何不寐苦吟詩	어찌하여 잠 못 이루고 괴롭게 시를 읊는가
東窓待月月遲吐	東窓에서 달을 기다려도 달은 더디게 뜨고
北牖防風風徹肌	北窓이 바람을 막지만 바람은 살을 파고드네
時事欲忘猶灑淚	時事를 잊고자 하면서 오히려 눈물을 뿌리고

主憂非職且攢眉 임금님 걱정은 職分이 아닌데 눈썹을 찡그리네
 夜深推枕無人語 깊은 밤 베개 를 밀치지만 말할 사람 없으니
 童子居傍睡不知 곁에 누운 童子야 잠자느라 알지 못 한다네

1640년5월 부인 尹氏가 별세하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산중에서 내려왔다가 병환이 점점 위독하여 季氏의 집 外寢에 머물렀다. 行步도 어려워 山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1641년 鄭蘊이 73세가 되었는데, 병으로 지친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정신은 손상되지 않아 筆劃이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2월에 ‘病中吟’ 한 수를 손수 적었다.

한 번 든 병이 지리하여 석 달이나 누웠더니 一病支離臥九旬
 매화꽃 버드나무가 봄을 다투는 줄도 몰랐네 不知梅柳已爭春
 생사는 조석간의 일인지라 무엇을 한탄할까 死生朝暮何須歎
 평생 내세울 것 없는 사람됨이 부끄럽도다. 愧作無稱沒世人

그해 6월 21일 季氏댁 外寢에서 別世하였으니 享年이 73歲였다. 臨終하기 전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隣近 선비들에게 輓詞를 청하지 말며, 널과 수의를 모두 호화롭게 하지 말고 부인과 합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8월에 朝廷에서는 禮曹正郎 李惟達을 보내 參判 鄭蘊 영전에 致祭하였다.

그때 致祭文이 다음과 같다(仁祖實錄에서 발췌)

崇禎 14年(1641, 인조19) 歲次辛巳8月甲辰朔 24日丁卯 故 前參判 鄭
蘊 靈前諭祭.

생각건대 영령께서는	惟靈
순수하고 굳센 기운을 타고나고	純剛之氣
예스럽고 소박한 바를 지녔다오	古素之質
덕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이 있어	有德有言
충직하고 독실하게 간언하였소	謇諤篤實
시대의 비색함을 만나게 되어	遭時否塞
비로소 굳센 절개 드러내었고	始著勁節
내가 옛 왕업을 계승하게 되자	暨予纂舊
훈계하는 말 더욱 간절했구료	訓戒彌切
얻고 잃음과 재앙과 복록이야	得失禍福
기쁘지도 두렵지도 않았으니	靡欣靡懼
자신을 잊고서 나라를 위함은	忘身徇國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다오	終始如一
국가의 큰 변고를 만난 뒤로는	遭罹變故
물러나 땃집에 몸을 숨겼으나	退藏圭筆
상도를 따르고 도리를 지킴은	循經守道
곧 왕실에 마음을 둔 것이리	乃心王室
어느 달 어느 때쯤이 되어야	言念曷月
나를 보필하러 돌아올까 했더니	言歸予弼
어찌 한 원로도 남겨 두지 않아	云胡不慙
이러한 병이 있게 했단 말인가	而有斯疾

꽃다운 영혼은 흩어지지 않아	英魂未散
정대한 기운 길이 맺혀 있으리	正氣長結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서	契予衷情
이 정결한 재물을 흠향하소서	歆此芬潔

1652년(효종 2) 10월에 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에 贈職되었다. 1657년(효종 7) 文簡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1694년(숙종 20) 3월에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總府都總管에 追贈되었다.

1700년(숙종 26) 南漢山城의 顯節祠에 配享되었다. 1688년(숙종 14) 봄에 上이 南漢山城에 駐驛^{주필} 하였을 때, 故 學士 忠正公 洪翼漢 · 忠貞公 尹集 · 忠烈公 吳達濟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거늘, 上이 특별히 廣州留守에게 명하여 城內에 祠堂을 설치하게 하고 顯節祠라 賜額하였다. 이해에 이르러 諸生들이 上疏하여 先生과 文正公 金尙憲을 并享하였다.(桐溪集) 道山書院, 藍溪書院, 龍門書院, 濟州의 橘院書院 등에 配享되기도 하였다.

1799년(정조 23) 正祖가 文簡公 鄭蘊의 奉祀孫인 內膳寺奉事 鄭軾에게 특별히 首領을 除授하고, 七言絶句 한 수를 써 내려서 忠正公(洪翼漢)과 文簡公(鄭蘊) 두 忠臣의 家廟에 揭板하게 함으로써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뜻을 보이노라.” 하였는데, 아래는 그 詩다.

日長山色碧嵯峨	日長山 산 빛이 푸르게 우뚝 솟았나니
鍾得乾坤正氣多	천지의 바른 기운 많이 모아 간직 했네
北去南來同一義	남쪽 북쪽 어디 가든 同一한 義理이니
精金堅石不曾磨	堅固한 金石처럼 결코 닳지 않았네.

註：日長山은 南漢山의 다른 이름이고, 北去南來는 三學士의 瀋陽으로 押送된 것과 鄭蘊이 남쪽으로 내려가 德裕山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함.

鄭蘊의 居昌 生家は 重要民俗資料 제 205 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鄭蘊이 생존 해 있을 때 건립한 것은 아니고, 朝鮮 後期에 그의 後孫이 같은 장소에 새로 지은 것인데, 약 200년이 흘렀다고 한다.

鄭蘊의 贈職은 朝鮮 哲宗 때에 領議政에 追贈한 내용이 朝鮮王朝 實錄에 記錄되어 있으나, 後孫에게 問議 한즉 追贈 敎旨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 丙子胡亂 후 三學士에 대한 禮遇와 評價

丙子胡亂은 武力을 優先으로 崇尚하는 北方民族인 淸으로서는 朝鮮의 三學士와 같은 斥和臣들의 性理學的 大義名分論을 理解하기 어려웠겠지만, 이들 三學士는 굳은 節義와 不撓不屈의 態度로 朝鮮 知識人의 만만치 않은 精神世界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청나라로서는 이들의 士氣를 꺾어 굴복 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斥和論은 士林의 士論이자 國論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신껏 言官으로서 朝廷에서 自己主張을 폈던 것이다.

三學士의 節概는 儒敎의 名分論에 忠實하고자하는 行動樣式의 表出이었다고 보아야한다. 性理學과 禮學 그리고 春秋學의 發達로 인해 名分意識과 原理主義가 팽배했던 당시 支配階層의 精神的 風土와 意識構造를 배경으로 더욱 成熟되었었다. 三學士는 모두 言官 출신이다. 그들이 現實에 順應하는 것을 떨치고, 죽음을 택한 內面에는 면면히 이어온 正統性에 대한 意識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三學士 精神의 繼承과 評價는 朝鮮後期 知識人層이 主導하였다. 朝鮮 後期 知識層은 極度の 挫折感에서 自己回復의 方案을 강구하였다. 이런 過程에서 學問의 性向에 따라 相異한 方法論을 전개하였다. 즉 對外的으로는 공통된 北伐論을 제창하는 目標設定은 樹立하였으나, 당시 兩亂(丁卯, 丙子胡亂)의 後遺症을 치유하고, 國民的 自尊心을 固守 하려는 공통된 목표로 부각되었으나, 意識的인 면에서는 當面한 先行課題로 北伐의 共感帶를 形成하나, 現實的인 여러 가지 문제와 結付되면서 名分論만 固守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三學士는 殺身成仁의 精神으로 淸에 끌려가 刑殺을 당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淸으로 하여금 朝鮮 知識層의 투철한 國家觀과 性理學에 바탕을 둔 선비정신에 感服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즉 청 태종은武力으로 잠시 朝鮮을 征服했지만 民族魂만은 征服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三學士가 그 당시 청 태종의 懷柔와 脅迫에 服從하였다면, 그들은 朝鮮을 더 무시하고, 나약한 弱小民族으로 恥部하였을 것이다.

三學士는 個別的으로 訊問^{신문}을 받으면서 다른 斥和臣의 이름을 대면 살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자기들만이 斥和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一貫되게 主張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이들의 人間性과 朝鮮 선비의 끈고 바른 義理精神을 把握할 수 있다. 三學士의 瀋陽 殉節은 당시의 朝鮮은 물론이요, 淸國에까지 커다란 事件이었다. 위로는 君臣으로부터 아래로는 匹夫에 이르기까지 大義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전 國民에게 感動과 衝擊을 주었고, 三學士의 節義를 깊게 欽慕하였다. 朝鮮 忠臣의 三綱五倫의 孤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고, 그 名聲이 千秋에 길이 빛내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三學士에 대한 歷史的 位相은 이른바 近代史學이라는 이름아래 植民史學과 그 후 實用主義 社會의 歷史認識 體系에서 平價切下 되기도 하였다. 帝國主義的 힘의 논리에 立脚한 植民史觀 내지 功利主義的 視角으로는 名分을 중히 여긴 그 時代 知識人의 行爲를 이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義理와 殉節의 象徵으로 선비들의 推仰을 받던 三學士가 언제부터인가 ‘名分에 집착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 虛妄한 名分論者’의 地

位로 전락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傳統文化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歷史에 대한 새로운 解釋과 再評價 作業이 시작되면서 三學士는 다시 전비정신의 象徵으로 復活 되었다.

三學士 중 洪翼漢과 吳達濟는 文科에 壯元及第하였고, 尹集은 乙科로 及第하여 出仕 후 계속 淸要職에 있었으니, 앞날의 榮華가 保障되어 있는 젊은 臣僚들이었다. 더구나 吳達濟는 婚姻한지 一年餘 밖에 안 된 28세의 新郎이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妻家에서 살다가 胡亂을 맞았다. 一身의 榮華만을 생각했다면 自進하여 淸軍陣營으로 갔겠는가.

그러므로 歷代 君臣들의 筆墨필묵에서는 三學士를 칭송하는 文章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또한 朝鮮 後期の 歷代 王들과 知識層에서는 三學士를 顯彰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며, 대대로 그 後孫들을 錄用하고 廩料^{음료}를 지급하며, 官職을 주는 등 은전을 베풀어 왔다. 朝鮮 後期에 淸國을 다녀오는 官僚들은 瀋陽에 들러 三學士가 刑殺 당한 西門 밖 刑場을 둘러보고 감회를 넣어 作詩한 것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三學士에게는 贈職이 계속되어 朝廷의 最高位職인 議政府 領議政에 追贈되었고, 忠臣으로 旌閭하였으며, 不遷位^{불천위}로 祭祀를 받들게 하고, 諡號를 下賜하였다.

三學士에대한 朝鮮王朝의 禮遇內容을 簡略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37년(仁祖 15) 三學士 瀋陽에서 殉節

1646년(仁祖 20) 三學士에게 追贈과 諡號를 내리고 旌閭할 것을 建議

1653년(孝宗 4) 侍讀官 金始鎭이 三學士의 追贈을 奏請

- 1661년(顯宗 2) 士林들이 平澤에 三學士를 위한 祠堂을 建立
- 1668년(顯宗 9) 豊基郡守 魚相儒이 三學士 祠堂 建立을 上疏
- 1669년(顯宗 10) 宋時烈이 三學士 節義에 대한 褒贈 할 것을 建議
- 1681년(肅宗 7) 趙持謙이 三學士 遺族들을 보살필 것을 建議. 承旨
李師命南漢山城에 祠堂 세울 것을 建議
- 1683년(肅宗 9) 禮曹判書 南二星과 領相 金壽恒이 三學士에 旌門할
것을 建議
- 1686년(숙종 12) 領議政 南九萬이 三學士에게 贈職할 것을 建議
- 1686년(숙종 12) 三學士에 諡號를 내림. 忠正 洪翼漢, 忠貞 尹集, 忠烈
吳達濟
- 1688년(숙종 14) 南漢山城에 廣州留守 李世伯이 三臣祠를 建立
- 1693년(숙종 19) 三臣祠를 顯節祠로 賜額
- 1704년(숙종 30) 平澤의 祠堂을 褒義祠로 賜額.
- 1705년(숙종 31) 三學士에게 旌閭를 세우도록 하다.
- 1711년(숙종 37) 顯節祠를 現在의 位置로 擴張 移建
- 1717년(숙종 43) 忠淸道 鴻山에 彰烈祠 建立, 三學士 配享

그 외에도 全國의 既存 書院에 三學士를 配享하고 節義를 崇拜하여 祭享하고 있었으며, 朝鮮朝 말 大院君의 國祭 철폐와 書院撤廢令에 의하여 毀撤^{해철}된 書院이 많았다. 全國의 수많은 書院 중에서 47개의 書院만이 남았으며, 顯節祠와 彰烈祠는 훼손되지 않고 現在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瀋陽의 「重修三學士碑」에 대하여

筆者가 瀋陽에 三學士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약 20년 전이다. 要約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청 태종이 三學士를 刑殺하였으나 그들의 忠節에 感動되어 비록 敵臣이기는 하지만 나라와 임금을 섬기는 그들의 忠誠心은 본 받을 만하니, 瀋陽 성밖에 祠堂을 지어주고, 「三韓山斗」⁴⁰⁾라는 글씨를 돌에 새겨 碑를 세워주라고 하여 碑石이 西門 밖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 碑가 淸朝 末까지 전해 오다가 淸朝가 무너지고 國民黨 蔣介石 政府가 들어서면서 淸朝의 文化를 말살하는 政策을 써서 그때 훼손되고 流失 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 日帝가 滿洲國을 세우고 朝鮮사람들이 심양에 건너가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吳達濟의 後孫 중에 심양에서 勤務하던 사람이 中國人들에게서 그 말을 듣고, 碑石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西門 밖에서 「三韓山斗」가 새겨진 碑頭를 찾았다는 것이다. 碑身이 없는 碑頭를 가지고 「重修三學士碑」를 1935년 당시 심양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誠金을 모아 만들어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毛澤東의 文化革命 때에 紅衛兵들에 의해 舊時代의 殘滓^{잔재}라 하여 碑石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重修三學士碑」의 碑身이 두 동강이 난 채 발견된 것은 1980년대 말이라고 한다. 그 碑身의 一部가 中國 瀋陽에 소재한 「渤海大學」(學長 千文甲) 歷史館에 保管되어 있음을 筆者도 確認하였다.

40) 三韓山斗: 三韓은 朝鮮을 말하고, 山斗는 泰山과 같이 높고 北斗星같이 빛난다는 뜻이다.

1935년에 세워진 「重修三學士碑」는 吳達濟의 後孫들에 의하여 당시 촬영한 寫眞이 있어 確認 할 수 있었다. 碑文은 黃潤德이 짓고, 金九經이 글씨를 썼다.

청 태종의 命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三韓山斗」碑는 關聯 文獻을 찾지 못해 實證的으로 確認할 길이 없다. 說話처럼 口傳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가 심양의 歷史學者들을 만나 確認한바로는 小說冊 같은 것에서 言及 된 것이 있다고 한다. 『淸太宗實錄』이나 기타 淸初의 文獻에서는 찾을 길이 없었다.

「重修三學士碑」의 碑文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300年前 仁祖 14年丙子 겨울에 淸太宗이 朝鮮을 침입하여 南漢山城이 위태로워지자, 朝廷



의 議論으로 和議를 請하였다. 그때 洪翼漢, 尹集, 吳達濟는 大義를 내세워 和議를 배척하였다. 급기야 三學士를 斥和의 우두머리로 指目하여 瀋陽으로 執送하니, 淸 朝廷에서는 三學士를 歸化시켜 復屬케 하고자 榮華와 福利로 구슬리기도하고 때로는 酷毒한 刑罰로 脅迫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3월 마침내 굴하지 않고 죽으니, 그 높은 大義는 가히 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룰 만큼 빛나니, 萬古에 길이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國內에서는 南漢山城에 顯節祠를 建立하였고, 扶餘에 彰烈祠를 세우고, 榮川에 壯巖書院을 비로소 세워 三學士의 高節大義를 밝히 드러내니, 그 祭享이 지금까지도 쇠퇴하지 않고 있다. 청나라 朝廷 역시 三學士의 貞節을 褒獎하는 뜻으로 瀋陽城 西門 밖에 祠堂을 세우고 그 앞에 碑를 세웠으니, 그 碑額에 三韓山斗라 하였다. 이런 내용이 淸人 軼史에 실려 있다고 한다. 癸酉年(1933) 겨울에 내가 瀋陽에 居留하면서 三學士의 遺蹟을 찾고자 하였으나, 歲月이 너무 오래되어 祠堂과 碑는 모두 허물어져 없어지고, 빈 별판만 바라보며 슬퍼하니 서글퍼 한숨만 쉬었다.

그 鄉里에 사는 高齡의 老人들에게 물어 小西邊門 밖 殉節地에 예전에 작은 寺刹이 있었는데, 朝鮮 三學士의 廟라고 전해 내려왔음을 알았다. 寺刹 앞에서 흙 속에 묻혀있는 碑額을 발견하여 먼지를 털고 씻어내니, 三韓山斗 네 글자가 나왔다. 당시 瀋陽에 거류하고 있는 朝鮮同胞들이 뜻을 모아 三韓山斗碑를 영원히 保全하기로 하여 三學士遺蹟保存會를 發起하고 各界 各層에서 誠金을 모아 碑身과 龜趺은 새로 만들고, 舊 碑額을 없어서 다시 碑를 세웠다.

이 碑文의 내용으로 보아 確實한 文獻으로 實證된 것은 없고, 다

만 口傳되어온 事實만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筆者도 여러 차례 瀋陽을 訪問하여 그곳의 歷史學者들과 만나 토론하였으며, 渤海大學 校庭에 새로 세워진〈重修三學士碑〉를 보았고, 최근 개최한 學術會議 資料들을 받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筆者의 結論은 〈三韓山斗碑〉는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이를 確實하게 淸太宗의 命에 의하여 세운〈三韓山斗碑〉가 있었다고 斷定하기에는 아직 未洽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8년간이나 심양에서 체류하던 世子侍講院의 『瀋陽日記』나 『瀋陽狀啓』는 물론이고 仁祖實錄 이후 朝鮮後期에 北京에 갔던 朝鮮 官吏들이 심양을 거쳐서 오갈 때, 西門 밖에 刑場이 있었음을 알고 있어, 그 쪽을 바라만 보아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초리가 찢어지며 두 손을 불끈 쥐고 분노하며 슬퍼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碑石이 있었다는 記錄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三學士遺蹟保存會」에서 1935년 간행한 『重刊三學士傳』에 會員名單이 附錄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發起人 8명, 贊助會員 42명, 特別會員 54명, 普通會員 236명의 姓名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發起人 名單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건립 당시의 重修 三學士碑와 건립위원들
(1935년 瀋陽)

吳斗煥 봉천총영사관 부영사 - 오달재 후손

洪思翊 관동군 중좌 - 홍익한 후손

尹相弼 관동군 소좌 - 윤집 후손

金九經 심양국립도서관 사서

黃潤德 중.일이 강습소 강사

林漢龍 교민회장

朴準秉 교민회 이사

池錫模 청년회장

中國 歷史學者の 論文에 관하여

論文의 筆者 顧奎相 教授는 中國歷史學會 理事이며, 遼寧大學 歷史學科 教授로 재직 중이다. 특히 淸國初期 歷史를 專攻하는 學者로서 丙子胡亂과 三學士에 대한 研究를 深度 있게 研究한 歷史學者이다. 그의 論文 《三學士와 南漢山城의 戰鬪를 論함》을 別添으로 揭載하였다. 그의 論文은 中國 歷史學者로서 三學士의 節義와 丙子胡亂의 敗因을 冷徹하게 分析하고 批判한 글이다.

參考文獻 中 《三學士傳》, 《吳學士傳》은 原文과 國解文을 別添 附錄으로 添附하였고 아울러 南九萬의 吳學士 遺事도 함께 添附하였다.

參考文獻

- 「朝鮮王朝實錄」,「重訂南漢志」
「瀋陽日記」,「山城日記」
「清太宗實錄」中國「南漢紀略」
「三學士傳」,「南漢日記」
「吳學士傳」,「桐溪集」
「花浦集」,「丙子錄」
「三節遺稿」,「燃藜室記述」
「南原尹氏族譜」,「宋子大典」
「海州吳氏晚雲公派眞譜」,「吳學士遺事」
「廣州鄉校誌」,「南夫人行錄」
「清陰集」,「吳忠烈公遺稿」
「南漢山城斗三學士」,「瀋陽狀啓」

附錄

三學士와 南漢山城 戰鬪를 論함

三學士와 南漢山城의 戰鬪를 論함

顧奎相

42) 中國 遼寧大學 史學科教授

1636年 12月 南漢山城의 戰鬪는 朝鮮歷史上 그 影響이 莫甚하였던 하나의 크나큰 歷史的 事件이다. 이 싸움의 原因과 結果는 모두 三學士와 연관 되어 있기에 당시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의 三學士에 대한 評價는 非難과 稱讚이 각각 다르다. 筆者는 良心 있는 歷史學者로서 根本부터 뜯어 고쳐 歷史의 眞實을 밝히기 위해 南漢山城戰鬪의 根本原因 및 朝鮮이 失敗한 原因 등에 대해 公平하고 合當한 辯論을 하고자 한다.

三學士의 斥和 는 南漢山城戰鬪의 導火線

1636년(明 崇禎 9년 12월 초2일), 淸 太宗 皇太極은 친히 12만 大軍을 인솔하고 朝鮮을 侵入하였다. 그해 十二月 十四日, 侵略軍은 朝鮮의 首都인 王京, 오늘의 서울을 壓迫하였다. 國王 李宗(仁祖)은 서울을 保衛하기 힘들 것을 짐작하고, 서울 東南 40 리 거리에 위치한 南漢山城(원문에 현 성남으로 표기된 것은 오류임)으로 황급히 播遷

42) 顧奎相=1939年生, 祖籍山東蓬萊, 1965年 遼寧大學歷史學科卒業, 遼寧大學 副總長歷任, 現任 遼寧大學歷史學教授, 中國史學會理事, 遼寧省歷史學會會長.

하였다. 淸軍은 즉시 그 뒤를 쫓아 1월11일 南漢山城을 완전 포위하였다. 그때부터 朝鮮 歷史上 유명한 南漢山城 戰鬪가 시작 되었다. 朝鮮의 고통스런 防禦戰에서 朝鮮의 軍民들은 힘을 내어 몇 차례 勝利도 하였으나, 終局에는 外部 支援이 미치지 못하고 補給이 따르지 못하는 등 戰爭準備不足으로 인하여 山城의 形勢는 날마다 惡化되어 위험은 코앞에 닥쳤다. 江都지금의 강화의 함락은 온 나라가 기절 할 만큼 크게 놀랐다.

나라와 國民의 生存을 考慮하여 李宗(仁祖)은 二월초二일, 검은 옷을 입고 文武 官員을 引率하여 성밖으로 5리 떨어진 漢江邊 三田渡까지 步行하여 淸 太宗에게 三拜九叩삼배구고하고 허리 굽혀 臣下라 일컬었다. 이로부터 朝鮮은 할 수 없이 200여년의 親善歷史를 지닌 明 王祖를 이탈하고, 淸 王祖의 臣下가 되어 청나라를 宗主로 삼고 崇德年號를 쓰기로 하였다. 또한 世子와 王子를 보내라 하여 瀋陽에 데려다 人質로 삼고, 처음 斥和를 提唱한자, 즉 斥和를 가장 強力하게 主張한 三學士를 보내라 하여 淸軍 兵營에 잡아다가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盟約에 의해 해마다 청나라에 朝貢하게 했다.

城下의 約束이 체결된 그 이튿날, 淸軍은 비로소 瀋陽으로 돌아갔다. 45일간 山城의 싸움은 丙子年에 시작 되었기에 朝鮮의 史學者들은 丙子胡亂이라 칭하고, 中國 史學家들은 丙子之役 이라고 칭한다.

南漢山城 싸움의 始作과 結末은 朝鮮王朝의 斥和派와 연관된다. 즉 세상에 三學士로 알려진 斥和派의 주요인물인 司憲府 掌令 洪翼漢, 弘文館 校理 尹集과 修撰 吳達濟와 연관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연관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청나라에 대한 斥和派와 三學士의 拒逆

言行이 南漢山城싸움이 일어난 直接的인 原因인가, 아니면 根本的인 遠因인가?

이 문제는 斥和派로부터 이야기 되어야 한다. 이른바 斥和派란 明朝에 忠誠하고 清朝에 거역하는 抗戰派를 가리킨다. 이 일은 皇太極(청태종)이 淸을 세우고 皇帝라 自稱함에서 起因되었다. 淸朝의 前身은 後金이고 皇太極은 後金의 汗칸이다. 1635년 12월, 皇太極은 後金을 '淸'으로 고쳐 나라를 세우고, 皇帝라 칭하려는 와중에 朝鮮에 書翰을 보내, 明朝와의 親善關係를 단절하고, 蒙古의 여러 王들의⁴³⁾ 勸進진진行列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른바 勸進이란 바로 그를 皇帝로 登極함을 인정하고 함께 동참 하자는 것이다. 그는 代表團을 거느린 戶部承政호부승정 英俄爾岱(龍骨大)와 馬福塔(馬夫大)를 朝鮮에 파견하여 國書를 내려 보냈다. 代表團과 國書를 전하려는 意圖는 세 가지로서, 하나는 皇太極이 淸朝를 세우고 皇帝라 칭함이 天意에 의하여 尊號를 봉함이 確定 되었음을 通報함이고, 둘째는 朝鮮國王이 속히 世子를 特派하여 함께 勸進할 것을 요구하고, 셋째는 明의 歷史가 끝장나니, 朝鮮의 君民은 明을 등지고 淸과 親交 할 것을 요구하였다.⁴⁴⁾ 要約해 말하면 그 主要 目的은 朝鮮이 明朝와 결별하고, 誠心으로 淸朝에 의탁하며, 皇太極이 皇帝로 칭함을 尊敬하여 받들어 모시라는 뜻이다.

後金의 意圖에 대해 朝鮮은 不服하였다. 朝野上下에서 분개의 목소리가 터졌고, 많은 사람들은 後金이 道理를 어지럽혔다고 분노하고

43) 勸進=선행을 권하여 불도를 믿게 하거나 무슨 일을 권하여 시행하게 함.

44) 『淸太宗實錄』卷 26



雙嶺里가表記된 1725년 『輿地圖 收錄 廣州府圖』

비난하였다. 이어 大臣 金尙憲, 李景奭, 大司憲 鄭蘊, 金盤, 司諫 趙洞, 鄭大和, 平安監司 洪明壽, 獻納 李一相, 正言 兪梈, 洪琢, 校理 尹集, 趙斌, 朴筮, 修撰 吳達濟, 兵曹判書 李聖求 등은 분분히 上疏하여 격앙된 어조로 의견을 말하였다.

上述한 사람들은 斥和派의 代表人物로서 그들의 의견을 歸納하면 주로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중국에는 大明天子가 있을 뿐 皇太極(청태종)이 帝王의 尊號를 僭稱참칭 함은 天理와 人心에 위배함이며, 응당 峻嚴한 言辭로 斥和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皇帝라 僭稱참칭하는 僭逆참역 의 시작을 痛責해야 하고 아울러 天朝에 아뢰어야 한다.

둘째, 9년 전 後金과 朝鮮은 兄弟同盟을 체결하였는데, 오늘은 自稱 帝國이라 하니, 그것은 同盟을 改變하려는 試圖요 兄弟의 盟約을 어기는 일이니, 이로 인해 惹起되는 事端은 그 罪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 있다.

셋째, 朝鮮은 禮儀가 바르기로 天下에 알려져 있고, ‘小中華’라 하였으며, 明朝에 대하여 歷代의 祖上께서 一心으로 事大하였거늘, 오늘 만일 오랑캐에게 服從하여 섬기고 生存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이는 歷代의 祖上께 부끄러운 일이며, 天下 및 後世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넷째, 使臣과 書翰을 거절하면, 武力의 禍가 급히 닥칠 것이니, 朝

廷은 속히 動員令을 내리고 八道の 志士를 召集하는 檄文을 내려, 國家를 위하여 苦難을 같이 하고 戰爭準備를 바로 해야 한다.

國家의 利益과 民族의 尊嚴을 위하여 斥和派는 義憤에 가득 차서 자기의 見解를 開陳함으로써 外部의 侮辱 앞에서 義理와 나라의 主權을 지키려는 드높은 獻身精神을 나타내었다.

물론 나라가 중대한 國際的 위기에 直面하여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그 때 朝鮮王朝 君臣들 중에는 後金의 要求를 받아들이고 和議의 길을 택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 代表的人物인 崔鳴吉의 말과 같이 “慣例에 따라 書翰으로 답하고 事理에 어긋나는 것은 거절하면, 君臣의 義理도 兄弟國의 道理도 양쪽 모두 돌볼 것이요, 臨機應變임기응변으로 화를 뒤로 미루는 대책은 어찌하여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主和派 혹은 和議派라 불리었다. 斥和와 主和 兩派의 實力을 비교하면 당시 斥和派가 朝廷에서 多數를 차지하였고, 또 주로 民意를 代表하였기에 國王 李宗(仁祖)은 斥和派의 의견을 채납하였으나, 書翰을 불사르고 使臣의 목을 자르지는 않았고, 使臣接見을 거절하며 書翰接受를 거절하고 皇太極(정태종)의 <帝王의 尊號를 僭稱>함과 <勸進>을 거절함으로써 後金의 使臣은 怒하여 돌아갔다.

결단코 <세 가지 거절>은 後金의 생각 밖으로서, 여러 베일라(貝勒)들은 <모두 怒하여 大軍을 이끌고 朝鮮을 殲滅섬멸시키자>고 하

였다.⁴⁵⁾ 皇太極(청태종)도大怒하여 즉시 朝鮮國王에게 書翰을 보내 그가 임기응변 할 줄 모르고 <好意를 망쳤다>고 질책하면서 <世子를 人質로 보내라>고 요구 하고,⁴⁶⁾ 그렇지 않으면 出兵하여 征伐하겠다고 하였다. 皇太極의 軍事威脅에 대하여 朝鮮 君臣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敗盟尊明의 질책을 맹렬히 반박하였다. 李侗(仁祖)은 皇太極에게 보낸 書翰에서 “當年에 우리나라와 後金이 兄弟盟約을 체결 할 때 明朝를 배반하지 않음이 第一義理라 하여 後金이 이 점을 동의하였기에 비로소 丁卯和約을 맺었으니, 우리가 明朝를 事大하고 漢人을 尊待함은 당연한 禮儀로서 盟約을 어긴 것이 아니다. 真正 盟約을 어긴 것은 좋은 이웃이라 맹세하고, 매번 꾸짖고 욕하는 貴國이라고 하였다.”⁴⁷⁾ 아울러 李侗(仁祖)은 是是非非를 따진 후 人質을 보내라는 요구를 再次 拒絕하였다. 이것은 당연히 朝鮮과 後金の 矛盾을 加一層 深化시켜 兩國의 싸움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皇太極은 1636년 4월 11일, 瀋陽에서 王位에 오르는 큰 儀式을 갖고, 國號 後金을 ‘清’이라 고치고, 開元을 崇德이라 하면서 大清國 皇帝로 自稱하였다. 登極 후 한 段階의 準備를 거쳐 같은 해 12월 2일에 12만 大軍을 친히 인솔하여 朝鮮 遠征을 敢行하였다.

위에 설명한 事實로 보건대 皇太極이 丙子の 싸움을 일으킨 것은 斥和派의 斥和가 초래한 戰爭惡果이며, 三學士가 清에 대한 抗拒를 主張한 戰爭 災難이다. 바꾸어 말하면 朝廷에서 만일 斥和派의 의견을 채납하지 않고 勸進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南漢山城의 싸움이 일

45) 『清太宗實錄』卷28 天聰十年三月乙丑

46) 『清太宗實錄』卷28 天聰十年4月己丑 壬寅

47) 『仁祖實錄』十四年 六月庚寅

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觀點에 대해 筆者는 동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三尺깊이의 강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것이 아니듯 後金과 朝鮮의 모순은 由來가 있다. 後金이 武力으로 朝鮮을 侵入한 것은 絶對 朝鮮이 一時的으로 <勸進>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其實, 後金の <勸進>여부는 모두 皇太極의 帝王稱號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더욱 武力을 쓸 必要가 없었다. 皇太極의 이같이 특별한 거동은 朝鮮과의 오래 묵은 원한의 폭발이다. 그것은 皇太極이 出征하기 前 「황천후토에 아뢰는 글(告皇天後土文)」, 「太廟에 아뢰는 祭文」 및 「朝鮮國에 보내는 글」등 3편의 文稿에서 아주 명백히 밝혔다.

‘己未年(1619)에 明을 도와 나를 해쳐 軍隊를 出動하여 원한을 맺은 것은 네 나라에서 일어났거늘, 당시 大義를 생각하여 잠시 참고 軍隊를 出動하지 않았다. 나의 版圖인 遼東을 차지한 후, 너희는 또 나의 遼民을 유혹하여 끌어다가 明朝에 바치고, 그 대신 明의 백성을 내 땅에 살게 하고, 糧食을 대주어 함께 나를 謀害하려 하였거늘, 朕이 노하여 軍隊를 出動한 것이 丁卯年(1627)의 싸움이다. 朕은 隣國과의 親善을 생각하여 軍隊를 深入하지 않고, 좋도록 끝내고 돌아왔다. ...10여년 가까이 네 나라 君臣은 내가 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의 物産을 훔쳐갔다. 明의 두 將軍이 歸順 할 때에 너희는 또 武力으로 가로채고, 나의 軍士가 지원하러 가니 너희는 銃砲로 거절하여 싸움은 또 너희 때문에 일어났다.

明이 나를 侵入하려고 너희에게 배를 구하니까 너희는 즉시 구해주

었다. 그러나 짐이 배를 얻어 明을 征伐하려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주지 않았고, 兩國사이에 있으면서 양쪽에 다 주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明에는 주고 나에게 주지 않으니 그것은 明을 도와 나를 해치려는 試圖가 아닌가? 아울러 내나라 使臣을 만나 보지도 않고, 보낸 書翰을 읽지도 않으니 無禮하기 悖惡패악傲慢오만하고 제멋대로 행하였다. 오늘은 또 平安道 洪 觀察使에게 密書를 보내 하는 말이, 모두 朕과의 同盟을 버리고 원망하며 不和를 일으켜 원수를 지으려 하니, 짐은 특별히 義兵을 派兵하여 그 罪를 물으려 한다.⁴⁸⁾

이 文稿로부터 알 수 있는 바, 朝鮮의 後金과의 모순은 1619年(萬曆 47)의 싸열후전역(광배군 패 명의 요침으로 파병한 사건)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이 明을 도와 後金을 공격함으로써 本來 원한이 없던 朝鮮과 後金은 서로 원수가 되었다.⁴⁹⁾ 이어 文稿는 朝鮮이 明을 도와 나를 해하려 試圖한 事實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朝鮮이 <勸進>을 거절하고 同盟을 버리고 원수를 삼는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皇太極(청태종)이 丙子胡亂을 일으킨 것은 朝鮮에 대해 묵은 빚과 새 빚을 한꺼번에 決算하는 것이지, 斥和派와 三學士가 淸을 배척하여 일어난 戰爭災難은 絶對로 아니다.

皇太極이 丙子胡亂을 勃發한 根本 原因은 그 당시 2국(中國과 朝鮮) 3방(後金, 明朝, 朝鮮)의 歷史的 構造(패턴)에서 朝鮮王朝는 尊明事大의 路線을 指向하여 實際的인 鬭爭에서 明을 도와 나(後金)를 해하려 試圖한 朝鮮의 態度는 明을 征伐하여 中華의 統一을 實現하

48) 『清太宗實錄』卷32, 崇德元年十一月丙子

49) 『建州見聞錄』李民寧

려는 後金의 總體的 目標에 극히 不利하였고, 심지어는 威脅이 되었다. 그러므로 皇太極은 오래전부터 다시 朝鮮에 出兵하여 武力으로 根本적으로 뒷걸질을 없애려 하였다. 그의 말대로 朝鮮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罪를 지었는데 심토함이 이치에 맞는다.⁵⁰⁾ 일찍 행동하지 않은 것은 아직 條件이 成熟되지 않았고 時期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皇太極이 帝王에 등극 하였을 때는 東北地域을 完全 統一하였고, 몽골도 이미 臣僕하여 서쪽에서 오는 위협이 이미 해소 되었다. 그리하여 <明을 도와 나를 해하려 시도>하는 東部에 隣接한 朝鮮 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히 議事日程에 올랐다. 그렇지 않으면 三學士의 <斥和>가 있더라도 丙子胡亂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斥和>는 다만 南漢山城 싸움의 導火線일 따름이다. 朝鮮王朝가 봉행한<尊明助明>과 침 태종이 말하는 <수차 나에게 죄를 짓다>가 비로소 後金이 南漢山城의 싸움을 일으킨 根本 原因이다.

때문에 우리는 丙子胡亂 혹은 南漢山城싸움의 原因을<斥和派>혹은 三學士의 머리에 씌울 수 없으며, 그들은 다만 暴發을 일으키는 役割을 했을 뿐이다.

위에서 研究 討論한 것은 戰爭暴發의 原因問題이지 三學士가 淸에 抗拒하고 明을 옹호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問題를 연구 토론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의 拙文「朝鮮 三學士의 '尊明事大'에 관한 考察」⁵¹⁾에서 詳細히 論述하였기에 여기서 구태여 더 논하지 않는다.

50) 『淸太宗實錄』卷2

51) 『朝鮮王朝 三學士 學術研討會論文集』2006年 渤海學院內部出版

三學士의 斥和는 自身の 力量을 가늠하지 못했다는 說을 檢討

丙子胡亂 당시와 그 후로 일부 評論家들은 斥和派와 三學士가 勸進을 거절하고 和議를 반대한 것은 自身の 力量을 가늠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그 뜻인즉 後金의 힘은 強大하고, 朝鮮의 역량은 弱小함에도 자기의 實勢를 고려하지 않고, 後金에 덤벼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보건대 '自身の 力量을 가늠하지 못했다'는 說은 討論 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南漢山城 戰鬪에서 朝鮮王朝가 실패한 根本 原因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전쟁 실패원인을 強·弱論에만 歸結한다면, 복잡한 歷史問題를 지나치게 簡單化하여 戰敗의 原因과 戰爭敎訓을 총화 함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 누구도 否認할 수 없듯이 그 때 後金은 軍事力이나 綜合實力이 모두 朝鮮王朝보다 강했고, 이것은 戰爭勝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強弱은 戰爭勝負를 결정하는 絶對的인 要素는 아니다. 세계 역사 속의 수두룩한 戰爭에서 작은 것이 큰 것을,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事例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強·弱論을 통해 더욱이 深層的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其實, 丙子胡亂 혹은 南漢山城戰鬪 때 여러 가지 면에서 與件은 朝鮮에 十分 有利하였던 바, 만일 충분히 效果的으로 對應하였다면 朝鮮軍隊의 不足한 實力을 크게 挽回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淸軍에게는 克服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을 것이고 최소한 速戰速決이 不可能했을 것이다. 朝鮮에 有利한 要素는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朝鮮臣僚와 백성들은 後金을 極度로 혐오하였다. 朝鮮은 儒學으로 나라를 세운 禮儀之國으로서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明朝만이 中華의 正統이고 後金은 북방의 오랑캐라 하여 思想的으로 後金を 멸시하고 明朝를 尊崇하였다. 특히 丁卯胡亂 이후 後金이 勝者로 자처하면서, 朝鮮에 대해 마구 약탈하여 그 액수가 놀랄 지경이었다. 1632年(天聰 6)부터 朝鮮을 強壓하여 黃金 백 냥, 銀 천 냥, 비단 천 필, 삼베 천 필, 모시 만 필, 표범 가죽 백 장, 수달피 4백장, 그리고 또 물소 뿔, 다목(蘇木), 종이, 용문석, 화문석, 후추, 녹피, 허리칼, 송나차 등⁵²⁾을 받치게 했는데, 盟約에 규정한 것보다 몇 배 훨씬 많았다.

後金은 또 交易을 구실로 每次 천여 명에 달하는 兵丁을 출동하여 헐값으로 朝鮮의 물건을 사들여 市場 朝鮮人들의 強烈한 不滿을 자아냈다. 더욱이 조선백성들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皇太極이 兄弟의 盟誓를 무시하고, 朝鮮으로 하여금 皇帝에 登極함을 인정하고 따르도록 강요하고, 朝鮮이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武力으로 征伐한다고 한 後金의 이와 같은 霸權패권행실은 朝鮮전체의 抵抗의 불길을 가장 쉽게 일으킬 수 있었다. 반드시 지적할 것은 後金에 대한 廣範圍한 朝鮮臣民의 극도의 혐오감은 온 국민이 侵略者를 抵抗 반격 하자는 思想土臺이다. 만일 朝鮮王朝에서 積極 發動하고 全 國民武裝을 세밀하게 組織하였다면 淸軍으로 하여금 人民戰爭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둘째, 복잡한 地理的 환경은 朝鮮軍 作戰에 유리하다. 朝鮮은 산이

52) 『淸太宗實錄』卷12

많은 國家로서 山地와 高原이 國土面積의 3/4을 차지한다. 산이 많고
 들이 적으며, 길이 험악하여 道路는 屈曲이 심하고 혹은 물이 길을
 막아 淸軍의 騎兵作戰에 불리하다. 하물며 淸軍의 장거리 旅程에 따
 른 軍士들의 疲勞는 軍事作戰에서 가장 꺼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淸軍의 將領들도 크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皇太極
 이 出征 전에 소집한 參謀會議에서 각 參謀들의 의견이 朝鮮은 산이
 많고 들이 적고 길이 험악하고 大砲 쏘는 기술도 있어서 우리 兵馬를
 毀損⁵³⁾할 수 있으니 정벌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朝鮮이 익숙한 자기들의 地理的 條件을 잘 이용하였다면 험한
 산에 의탁하여 敏活하게 不意의 襲擊습격을 가하여 상대방의 短點을
 이용했다면, 淸軍은 앞뒤를 돌볼 수 없어 被動的으로 얻어맞기만 하
 면서 끝없는 不規則的인 戰鬪에서 兵力만 잃어 戰鬪力이 크게 쇠약
 해 졌을 것이다. 淸軍 名將 “어루양꾸리”는 <무릇 行軍 중에 술선하
 여 敵을 격파하면 뛰어난 功勳을 세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
 러나 南漢山城부근의 전투에서 朝鮮軍은 유리한 地勢를 이용하여 <
 石窟에 숨어 鳥銃으로 “양꾸리”를 쏘아 부상을 입고 죽었다.>⁵⁴⁾ 이것
 이 바로 명백한 증거이다.

셋째, 堅固한 南漢山城은 朝鮮軍이 陣地를 固守하고 적의 공격을 막
 기에 유리하였다. 朝鮮은 산과 高原이 많아 이에 맞서 築城한 山城도
 많다. 京畿道, 黃海道와 平安 3도만 해도 12개의 城池가 있는바 山城
 마다 매우 堅固하다. 軍事的인 角度로 보면 모두 다 堡壘보루같이 難攻

53) 『燃髮室記述』李貞翔 卷27

54) 『淸太宗實錄』卷33, 崇德二年 正月丁未

不落이다. 遠征에 익숙한 8騎兵의 特徵은 野戰은 잘 하나 要塞戰^{요새전}은 잘 못한다. 사실상 後金軍은 광활한 平野에서 兩軍 對峙시에는 거의 다 승리하였지만, 堅固한 城池를 공격할 때는 兵力損失을 많이 보고 挫折당하였다. 이를테면 누르하치가 大軍을 이끌고 寧遠城을 칠 때, 몇 차례를 공격했어도 死傷者만 남길 뿐이어서 結局은 할 수없이 敗殘兵을 이끌고 돌아갔다. 그는 매우 풀이 죽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朕이 25살부터 征伐에 나선 이래로 줄 곳 勝利하였는데, 유독 寧遠城 싸움에서 실패했다”⁵⁵⁾ 그는 분통이 터져 火病으로 죽었다.

皇太極(청태종)은 登極하자 원수를 갚고 恥辱을 씻을 雄心을 품고, 5만 大軍을 친히 이끌고 寧遠城을 공격하였는데, 결과는 <屍體가 쌓여서> 부득불 돌아서서 錦州를 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친히 戰線에 나아가 督戰하면서 8騎의 모든 사다리와 城池 攻擊武器로 強攻을 命하였으나 결국 大敗하고 말았다. 寧遠에서의 後金의 두 차례 敗北는 8騎軍의 戰鬥力이 明軍만 못해서가 아니라 要塞戰^{요새전}에 약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皇太極도 많은 터득이 있었다. 그는 “平地에서의 싸움에서는 明朝가 절대 안 되지만 城池를 固守함에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였다.⁵⁶⁾ 冷兵器(목약을 쓰지 않는 무기) 時代 戰士들이 재아무리 英勇해도 철옹성 같은 城池는 쉽게 공략하기 힘들었다. 南漢山城이 바로 이와 같은 戰略上 優勢한 城池이다. 城壁이 堅固하여 攻擊하기 어려워 淸軍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 만일 충분히 준비하고 굳게 지킬 결심을 했다면 寧遠城에서 연속 패배당한 後金軍이 쉽

55) 『皇清開國方略』 卷 8

56) 『明清史料』 甲編第一本

사리 攻略할 수 있었을 것인가? 朝鮮軍은 비록 明軍같이 淸軍을 대규모로 殺傷하지는 못할지언정 城을 지키고 싸우지 않더라도 淸軍은 時間의 흐름을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사실상 皇太極은 始初에 몇 차례나 山城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였다. 淸軍이 是認하듯 “이 城이 天惠의 要塞로 그를 破滅하려면 필연코 많은 殺傷을 낼 것이다”라고 하였고, 유감이라면 朝鮮軍은 事前에 戰爭準備가 불충분하여 ‘하늘이 내려준 山城의 利點’을 十分活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넷째, 淸太宗은 뒷걱정이 있었다. 그때 청나라 군은 약 15만, 朝鮮에 침입한 병력은 12만에 달하여 國內에 3만여 軍士만 남겼다. 그 시기에 또 明軍과 엄청나게 대치상태에 있어서 비록 明軍이 빈틈을 타서 北上하여 瀋陽심양과 遼寧요령을 수복할 걱정은 없어도, 朝鮮에 駐屯시간이 길어지면, 明軍에게 숨 돌릴 기회를 주게 되어, 遼西防衛線을 새로이 공고하게 구축하여, 日後에 歸還하여 中原의 帝王을 노리는데 어려움이 加重되었을 것이었다. 이점은 당시 淸軍參謀들의 上奏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參謀 ‘퇴퇴’는 “我軍이 오래 지연되면 敵(병을 가리킴)은 알아차리고 城池를 根本적으로 修築하면, 쳐들어 갈 틈이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베일라 싸하랜’은 “明과 ‘차할성’ 및 朝鮮 3국의 緩急을 논할진대 朝鮮에 대해서는 寬容하고 ‘차할’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하고, 明나라를 全적으로 征伐해야 한다. 明에 대해서는 늦출 수 없다. 만일 我軍이 1년 늦춘다면 그 防備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하였고, ‘양꾸리’는 “군사는 신속성이 첫

째라 머무를 수가 없다. 만약 해를 지나 정벌하지 않으면 적(明朝)은 기회를 타서 戰爭準備를 튼튼히 하게 됨으로, 다시 공격하려면 특별한 준비가 힘들고 天災를 예측할 수 없어 시간도 잃고 일을 망칠 것이다.” 등등.

분명한 것은 皇太極이 丙子胡亂을 勃發함에는 뒷걱정이 있었는데, 그는 반드시 速戰速決의 방법으로 朝鮮을 征服하고, 빨리 군사를 돌려 明을 공격해야만 明에게 城池를 수축하고 방어태세를 공고하게 만들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하루 빨리 明朝를 攻擊戰勝하는 戰略的 目標을 達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主和派의 金瑬가 말하듯이 “저놈들은 明朝와 맞댈 意圖인즉 우리와는 오래 對峙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朝鮮軍이 淸軍의 戰略的 矛盾에 맞서 城池, 兵力, 裝備 및 給養 등 면에서 持久戰할 준비를 갖추고 山城을 固守하고 싸움을 피하면서 力量을 충분히 蓄積하여 敵과 맞섰다면, 南漢山城은 기필코 第二의 寧遠城^{영원성}이 되고 청 태종은 싸움에서 失敗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要約하여 말하면 戰爭의 性格, 地理環境, 山城의 特性 및 淸軍의 뒷걱정 등으로 볼 때, 朝鮮이 자못 유리하였다. 만일 朝鮮軍隊가 자기들의 優勢한 條件을 충분히 利用하고, 短點을 피해 英勇하게 敵에게 抗拒했다면 弱勢로 強勢를 이기는 빛나는 前例는 創造하지 못할망정 그와 같이 처참하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丙子胡亂 南漢山城 防禦戰에서 朝鮮軍隊는 自體의 우세한 점을 전혀 이용해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거의 束

手無策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었는가? 다음 節에서 이 原因을 전적으로 研究檢討 하고자 한다.

賊을 對抗 하여 싸우려는 三學士와 같은 意志가 없음은 南漢山城이 함락된 根本原因이었다.

2월 5일, 皇太極(淸太宗)은 淸宮 崇政殿에서 斥和派의 首領 格인 洪翼漢을 직접 審問하였다. 洪翼漢은 정의롭고 늙음하게 서서 무릎을 꿇지 않아 심문하기가 힘들었다. 皇太極(칭태종)은 조롱하는 말투로 물었다, “너희가 同盟을 斷切하려는 뜻인즉 朕을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어찌하여 짐이 出兵하였을때 분발하여 抵抗하지 않고 도리어 짐의 포로가 되었는고?” 하고 물으니, 洪翼漢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臣僚와 백성들이 모두 나의 의지와 같았더라면, 당신의 나라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洪翼漢의 이 말은 그 얼마나 정의롭고 늙음한가! 그는 南漢山城이 함락된 原因은 朝鮮의 臣民이 한결같이 적에 抵抗하려는 決心과 勇氣의 결핍이라는 것을 토설하였다. “만약 舉國一致 분발하여 적에 대항했다면 失敗당한 것은 淸이지 朝鮮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筆者가 보건대 洪翼漢의 말은 氣勢로 相對方을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戰爭失敗에 대한 解明이기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辨證法은 精神이 萬能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한 나라와 民族이 民族生死 存亡의 위기 앞에서 적을 압도하는 英雄氣勢와 끝까지 抗戰하려는 결심이 없으면 勝利를 爭取하기는 절대 不可能한 일이다.

丙子胡亂과 南漢山城 防禦戰의 全般過程을 고찰하면, 朝鮮軍隊는 每次의 戰鬪에서 敵과의 決死的인 戰鬪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自滅하였다. 根本 原因은 '나의意志', 즉 끝까지 저항하려는 强健한 意志가 결여된 것이다.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가 明白한 證據가 될 것이다.

첫째, 統一된 抗戰思想이 형성되지 않았다. 皇太極(청태종)이 朝鮮에 勸進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淸軍이 南漢山城을 포위하기까지 朝鮮의 君臣은 淸에 대해 戰爭이나 和議이나 하는 두 가지 주장, 즉 斥와 和議 두 가지 태도가 처음부터 있었다. 처음 단계에서는 勸進을 거절하고 顯明抗淸을 명함칭의 斥和의견이 優勢를 차지하였고 和議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君臣이 南漢山城으로 入城한 초기에 朝鮮軍은 험준한 山勢를 이용하여 城을 固守하고, 外援을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主動的으로 出擊하여 일부 적극적인 戰果를 올렸다. 22일까지 전후 100여명의 敵을 죽이고 朝鮮軍의 손실은 크지 않았다. 朝鮮의 피해는 戰死者 5~6명, 화살에 맞은 부상자가 7~8명이었다. 朝鮮軍은 큰 鼓舞고무를 받고 士氣가 올랐다. 이 때에도 斥和派가 여전히 主動이었다. 그러나 23일의 전투에서는 朝鮮軍은 埋伏하고 있던 淸軍에 의해 300여명이 죽어 손실이 慘重함을 증명하였다. 거기다 城中 給養이 점차 고갈되고 外部支援이 없으니, 和議派세력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여 그 대표적 人物인 崔鳴吉이 淸軍의 兵營에 가서 和議를提起하였다.

重大한 戰爭중에 大臣들 중에서 一貫된 主張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一國의 君主와 最高 地位에서 政策을 決定하는 者는 절대 優柔不斷^{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寬厚관후하고 仁慈한 最高 統帥權者인 李宗(仁祖)은 主見도 없고, 膽力담력과 識見도 없이 완전히 主戰과 主和 兩派의 主張을 들어보면서 對策을 결정하는바, 主戰派가 優勢를 차지하면 그는 抗戰을 呼訴하고, 主和派가 優勢를 차지하면 그는 和議를 考慮하라고 했다. 당시 最高 政策 決定層에는 堅貞한 斥和派가 없었다. 그때 洪翼漢은 이미 朝廷에서 밀려나 平壤 庶尹으로 갔다. 國王을 도와 政策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體察使 金瑬^{김류}와 吏曹判書 崔鳴吉이었다.

金瑬는 勢道家에게 빌붙는 人物로서 斥和派가 우세하면 斥和를 외치고, 形勢가 바뀌면 그는 곧 和議에 맛 장구 쳤다. 崔鳴吉은 始終 和議를 획책하였다. 國王을 首班으로 하는 最高 指揮部는 統一된 抵抗 思想이 없었기 때문에 이길 만 하면 싸우고, 이기지 못하겠으면 投降하는 消極的인 태도로 지휘하였다. 이와 같은 策略을 가지고 戰爭을 遂行한다는 것은 失敗가 있을 뿐 勝利란 있을 수 없었다.

둘째, 敵에 抗拒하려는 成熟된 方案이 없었다. 洪翼漢이 일찍이 斥和를 提唱할 때 國王 李宗(仁祖)에게 嚴正하게 勸告하였다.

“지난날을 징계하고 맹세코 捕虜가 되지 않으려면 誠心으로 義를 激勵^{격려}하고 勇氣를 鼓舞^{고무}해야 하오니, 強弱은 상관없고 存亡은 여기에 있소이다. 오로지 殿下에서 哀痛의 가르침으로 檄書^{격서}를 내려 八道志士를 모아야 하옵니다. 몸소 6배를 거느리고 大義를 曉示^{효시}해야 하옵니다”하였다. 이 말은 國王이 전국에 緊急動員令을 내리고 친히 民衆 속에 들어가서 다같이 분발 하여 적에 抗拒 할 것을 呼訴

하라는 뜻이다.

당시 李侗(仁祖)은 8道에 諭旨유지를 내려 嚴密히 경계하고 또 '士大夫는 策略을 세우고' '백성들은 自發적으로 軍隊를 따라 出征하여 艱難난을 함께 헤쳐 나아갈' 것을 백성들에게 呼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王의 姿態자태를 나타내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여 敵의 侵略을 防禦할 精密한 計劃도 세우지 않았고, 實際行動을 취하지도 않았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시간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다. 三學士가 처음으로 斥和를 提唱하고, 戰爭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부터 淸軍이 國境을 넘어 오기까지 10개월이란 時間이 있었다. 筆者가 보건대 萬若 朝鮮軍이 眞正으로 敵의 침입을 抵抗하려 했다면, 敵을 방어할 計略을 세우는 것부터, 軍士를 要所에 배치하는 데 필요한 時間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京畿道부터 各道에 이르기까지 朝鮮軍은 戰爭準備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世界戰爭史上 戰爭準備가 가장 엉망인 典型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事實을 살펴보자.

皇太極(정래종)은 1636년 11월 19일에 朝鮮에 대한 征伐을 宣布하고, 12월 2일에는 軍士를 이끌고 瀋陽을 떠났다. 12일에야 李侗(仁祖)은 義州府尹 林慶業의 보고를 접하고, '敵兵이 가득 차고.....길을 나누어 강을 건너 급히 달려 前進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다시 軍事情報를 접했을 때에는 淸軍은 이미 平壤城下에 들어 왔다. 萬若 事前에 周到綿密한 戰爭準備가 되었다면, 어찌 이같이 情報가 느리고 勝利 할 수 있는 기회에 잘못을 저지르는 狀況이 발생하였겠는가?

淸軍이 王京(서울)에 도착할 때 朝廷은 上下가 慌忙황망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다. 14일 이른 아침 李倧(仁祖)은 급히 사람을 동원하여 宗室嬪宮宗실빈궁을 江華島에 보냈다. 午後에 그는 君臣을 이끌고 都城 南大門을 빠져나와 江華島로 달렸다. 그러나 도중에 갑자기 淸軍의 騎兵이 벌써 弘濟院에 들이닥쳐 이미 江華島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仁祖는 할 수 없이 城内로 되돌아와 南大門 門樓에서 여러 大臣들에게 말하기를, “事情이 급하거늘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물었다. 大臣들은 황망하여 어떻게 對處할지를 몰라 朝廷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면 朝廷 밖은 어떤 事態였던가? 서울의 士大夫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어 통곡소리가 장안에 가득 찼다. 어찌 할 바를 모르는 仁祖는 황망 중에 申景禎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성밖에 나가 淸軍을 反擊하라고 명하였다.

그 결과 申景禎의 군사는 虜賊노적들에게 전멸되고 騎兵 몇이 남았을 뿐이었다. 江華島로 가는 길은 차단되고, 성밖에 出戰한 군사는 全敗하여 仁祖는 臣僚들을 데리고 王京에서 東南으로 40리에 위치한 南漢山城으로 도망쳤다.

그때 당황하여 찢찢매는 상황을 李肯翊이공익이『燃藜室記述』에서 상세히 기록하였다. “東宮(世子)의 말몰이꾼은 어디로 가버렸고, 급히 사람들을 모아世子가 말을 몰아 수구문으로 나가니, 城内의 男女들이 맨발로 분주히 뛰어다니며, 임금이 탄 수레와 섞여 버렸다. 길은 벅적벅적하고, 울음소리는 하늘을 찢었다. 酉時(오후 5~7시)에 信川, 松坡나루를 건너니 강물이 얼어붙었다. 南漢山城 밑에 이르니 날은 어두워지고 간신히 二更에야 山城에 들어섰다” 울다 웃을 일도 있었다.

李宗(仁祖)의 臣下들은 14일 저녁에 山城에 入城한 후 孤城駐驛고성주필은 死守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江都(강화도)로 피난 갈 것을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15일 아침, 王과 臣僚 일행은 南漢山城을 버리고 江華島로 향했다. 때는 大雪이 내린 후인지라 산길은 얼어붙고, 임금의 말(馬)은 넘어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仁祖는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步行하니, 힘들어 넘어지고 玉體가 편치 못해 다시 山城으로 돌아왔다. 이때에 君臣이 驚惶失色경황실색한 모습을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은 當面한 國家의 深刻한 위기 앞에서 朝鮮 君臣은 積極的으로 對處할 준비는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敵과 맞설 方案이 있었다면 淸軍이 侵犯한다는 消息을 접하고, 君臣과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같이 極度로 당황하여 허둥지둥 하였는가? 어찌하여 江華島로 撤退철회하려는 계획마저도 실현되지 못했나?

事前에 周到綿密주도면밀한 군사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급한 時刻에 아무런 主觀도 없이 束手無策이었음이 분명하다. 國家安全의 最高指揮中心인 王京의 防禦가 이러하였으니 餘他地域의 防禦實態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무수한 前例가 가르치듯 戰爭의 勝利를 爭取하려면 준비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더욱이 敵強我弱적강아약의 상황에서 적을 防禦할 方案을 잘 세우지 않고, 到處에서 황급하게 對應하니, 失敗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丙子胡亂의 실패에 대해 羅萬甲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그같이 蒼惶亡兆창황망조하니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朝鮮이 戰敗한 原因에 대한 深刻한 認識이다.

다음으로는 高名한 抗戰 將領들을 重用하지 않았다. 이번 戰爭에서

朝鮮朝廷이 重用한 將領은 過半이 어리석고 우둔한 주정뱅이 같은 자들이었다. 特別히 重用한 두 金氏 즉 金自点과 金慶徵은 軍 作戰上 丙子胡亂을 파멸시킨 代表的인 人物이다.

新任 都元帥 金自点을 보자. 이 사람은 刑罰로 威嚴위엄을 세워 人心을 잃었다. 軍士를 지휘함에 深入하지 않고, 全部 自己 主觀的 想像으로 지휘하였다. 淸軍이 분명 압록강을 건넜다고 邊方의 烽火에서 연속 危急狀況을 알렸건만, 金自点은 놀랍게도 淸軍이 侵入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朝廷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朝廷에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淸軍은 벌써 平壤을 지났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防禦에서 그는 눈먼 지휘를 하였다. 皇太極(청태종)은 出兵전에 國王 仁祖에게 보낸 國書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貴國은 山城을 많이 쌓았으므로 성안에서 지키고 있을 것이나, 나는 大路를 따라 곧바로 서울을 향해 쳐 들어갈 것이니, 당신은 山城에서 나를 守護하라!’ 하지 않았는가? 앞에서 言及 한바와 같이 淸軍은 騎兵을 爲主로 하여 넓은 큰 길에서는 거침없이 前進하지만, 구불구불한 산길에서는 잘 행동하지 못한다. 이것은 皇太極의 말이 策略上 거짓말이 아니라 거만한 말이다. 이에 대해 朝鮮王朝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要衝地에는 重陣을 쳐서 守護하고 防禦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都元帥 金自点是 體察使 金瑬와 한패가 되어, 우선 뒤로 철수 할 것을 논의하여, 義州는 白馬로, 平壤은 慈母로, 黃州는 正方으로, 平山은 長靑으로 옮기라 하였다. 이 같은 새로운 守備地는 가까운 곳이 큰길에서 30~40리, 멀리는 1~2일 路程이 되어, 平安道와 黃海道 一帶의 大路는 모두 無人之境이었다. 이와 같이 防禦陣의 잘못 된 構築은 王京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추호의 거리낌도 없어 敵軍은 승승장구하여 王京

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王京은 신속히 함락되었고, 아울러 仁祖와 君臣들은 江華島로 철수하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都元帥가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 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金慶徵을 보자. 그는 金瑬당시 영의정의 아들이로서 國家가 危急한 時刻에 江都 檢察使로 任命 되었다. 부임 후 자기 댄에는 새도 날아 들어오지 못하는 鐵甕城철옹성이라 여기고, 朝夕으로 잔치를 베풀어 酒色으로 날을 보냈다. 윗사람이 하는 대로 아랫사람이 배워 그 대로 하니, 그의 부하들도 모두 江都는 험악하니 防備할 必要가 없고, 指揮官을 집에 돌려보내고, 城 밖은 偵探하지도 않았다. 淸軍이 바다를 건너 攻擊할 때야 金慶徵은 놀라서, 尹新之는 大靑浦를 수호하고, 全昌君 柳廷亮은 佛院을 지키고, 兪省曾은 長零을 지키고, 李炯은 가리산을 지키게 하고, 自己는 兵士를 이끌고 要津인 甲串을 수호하려 하였는데, 軍卒은 수 백 명에 지나지 않고 모두 도망치고 흩어 졌다. 淸軍이 甲串 부두까지 공격해 올 때, 金慶徵 등 將領들은 모두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고, 적(淸軍)은 片舟로 渡江하여 無人之境에 들어가듯 하였다. 南門에서는 大臣 金尙容, 洪明享, 李時稷, 宋時榮 등이 모두 自決하였다.

尹昉은 宗社의 位牌를 버리고 도망쳤고, 仁祖의 正室과 小室들은 옷을 갈아입고 골목이나 집에 숨어있는 것을 內官들이 찾았다. 韓興一, 呂爾徵 등은 投降해 버렸다. 城中の백성들도 무서워 뛰어다녔다. 淸軍은 22일에 江華島 부두까지 쳐들어와 하루사이인 23일에 全島를 점령하고 섬에 숨어 있던 王室宗親, 仁祖의 正室과 小室 및 官屬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仁祖와 君臣들은 모두 놀라서 出城하여 投降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라의 運命에 관계되는 江都의 함락은 抗戰의 全般的인 失敗를 招來하였다. 어디에서 진 것인가? 이것은 守護의 重責을 짊어진 金慶徵을 筆頭로 한 酒色에 빠진 將帥들의 손에서 졌다.

江華島가 함락된 후 한 老婆는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몇 년이나 江都를 修築하여 백성들이 歸着할 곳이 있다고 믿었는데, 어찌하여 오늘같이 되었는고? 살펴보니 나라의 重任을 맡은 자들이 날마다 술마시기를 일삼아, 뜻밖에도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누구의 罪科인가? 백성들이 다 아는 도리를 어리석은 官吏들 때문에 나라를 망쳤으니 어찌하랴!”하며 탄식하였다.

朝鮮에 대한 後金의 征伐計劃을 事前에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 또한 충분한 戰爭準備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團合하여 抗戰하자는 決然한 意志가 形成되지 않았고, 抗戰方案을 綿密하게 企劃하지도 않았으며, 兵力을 移動시키고 將帥들을 適所에 配置하지 않았으니, 抗戰將領을 重用한다는 것이 황망하게 대처하여 抗戰必敗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仁祖의 君臣들이 堅決히 抗戰하려는 意志와 抗戰必勝의 信念이 없었던 것은 丙子胡亂이 남긴 沈痛한 教訓이라고 할 수 있다.

結語

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 丙子胡亂은 朝鮮 歷史上 그 影響이 매우 큰 事件이다. 이 戰爭의 起因과 結果는 朝鮮王朝의 斥和派의 代表의 人物인 三學士와 일정한 연관이 있다. 朝鮮王朝는 2國3邦의 歷史的 構造에서 尊明事大, 助明抗清의 基本國策을 시행하여 實際的인 투쟁 속에서 “누차 죄를 짓고” “明을 도와 清을 멸망시키려 시도”한 것이 이번 戰爭의 根本的인 原因이고, 三學士가 清을 拒絶하고 斥和 한 것은 南漢山城싸움의 導火線에 불과하다. 丙子胡亂의 交戰雙方 兵力의 強弱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그러나 예로부터 兵力의 強弱은 戰爭의 勝負를 左右하는 결정적인 要素가 아니다. 본래 戰爭의 性格, 地理環境, 山城의 特徵, 作戰方法 및 清軍의 뒷걱정 등에서의 여러 要素를 보면, 清에 不利하고 朝鮮에 有利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朝鮮은 이와 같은 要素를 充分하게 利用하지 못하였다. 그 연유를 따지자면 政策을 決定하는 集團이 三學士와 같이 끝까지 堅決하게 抗戰하고, 戰爭에서 必勝하려는 意志와 信念이 없었다. 思想은 行動의 指針이다. 朝鮮은 積極的으로 戰爭 準備를 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將領과 不足한 兵力으로 束手無策이 되어 죽음을 기다렸다. 이것은 丙子胡亂이 우리에게 남긴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敎訓이며 問題이기도 하다.

韓昌熙⁵⁷⁾ 譯 朴光雲 潤文 校閱

57) 韓昌熙: 中國 沈陽 渤海大學 敎授

筆者紹介:

고규상(顧奎相), 1939년생, 中國 山東省 蓬萊 出身
1965년 遼寧大學歷史學部 卒業. 遼寧大學 前 副總長,
現任 中國遼寧大學歷史學科 教授,
中國遼寧省歷史學會會長,

論三學士 與南漢山城之戰

(中國) 遼寧大學 顧奎相

南漢山城之戰是朝鮮歷史上一次影響甚大的歷史事件。這次戰爭的起因和結束同三學士均有關係，因此，時人和後人對三學士的評議毀譽不一。作為有良知的歷史學人，為正本清源，還歷史以公道，對引發山城之戰的根本原因以及朝鮮失敗原因等應進行公允的論辯。

三學士“斥和”僅是山城之戰的導火索

1636年12月28日(明崇禎九年12月初二日)，清太宗皇太極親統12萬大軍入侵朝鮮，次年1月9日(12月14日)，兵鋒直逼朝鮮國都王京(今首爾)。國王李倧料京城難保，危惶撤入王京東南40里的南漢山城。清軍旋即尾追而至，于1月11日對南漢山城形成合圍之勢。從此時起，朝鮮歷史上有名的南漢山城之戰開始了。在很苦的保衛戰中，朝鮮王朝軍民都

故出了努力，也取得了凡次勝利，但終因備戰不足，外援不至，給養匱乏，守城形勢日趨嚴峻，危在旦夕。又江都失陷，獲得舉朝震驚。李侗爲國家與民族的生存計，又2月24日（二月初二）身着青衣，率文武官員出城，步行5里至漢江東岸三田渡向皇太極三拜九叩，俯首稱臣。朝鮮從此被迫脫離曾有二百餘年友好歷史的明王朝，而成爲清王朝的臣屬，奉清爲正統，改用崇德年號。還要交出世子及王子等入瀋陽爲人質，交出，“首倡斥和者”，即將斥和最力的三學士縛至清營任由清人處置。還要按盟約規定每年向清廷進貢。在城下之盟簽訂的第二天，清軍才班師回瀋陽。曆時45天的山城之戰開端于丙子年，故朝鮮史家稱之爲“丙子胡亂”，中國史家稱之爲“丙子之役”。

南漢山城之戰的發生和結束都同朝鮮王朝的斥和派有關，同斥和派的主要人物，即世稱三學士的司憲府掌令洪翼漢，弘文館校理尹集和修撰吳達濟有關。那麼，關係多大呢？也就是說，斥和派和三學士的拒清言行是引發南漢山城之戰的直接原因呢，還是根本原因？文要從斥和派說起。所謂斥和派，是指忠明拒清的抗戰派。其出現緣起于皇太極建清稱帝一事。清國前身爲“後金”，皇太極爲後金汗。1635年12月，皇太極欲改後金爲清，在籌備建國稱帝的過程中，治書朝鮮要求其斷絕與明朝的友好關係，並加入後金和蒙古諸貝勒大臣的“勸進”行列。所謂“勸進”就是擁戴他登極稱帝。他派戶部承政英俄爾岱和馬福塔率領一個大大的代表團到朝鮮下國書。代表團和國書所要傳達的意圖有三：一是通報皇太極建清稱帝“承天意，奉尊號，事已確定”，二是要朝鮮國王“速遣親近子弟來，同爲“勸進”三是說“明（指明朝）之曆數將終”，要朝鮮君民徹底排明親清。（1）簡單說，主要目的就是要朝鮮與明朝決裂，

誠心投靠後金，尊奉皇太極登極稱帝。對後金的意圖，朝鮮並不買賬，朝鮮上下一片憤慨之聲，很多人怒斥后金悖逆無理。洪翼漢首先上疏國王，接着，大司憲金尚憲，李景奭，大司諫鄭蘊，金盤，司諫趙綱，鄭大和，平安監司洪命耆，獻納李一相，正言俞愷，洪琢，校理尹集，趙斌，朴鑒，修撰吳達濟，兵曹判書李經求等人也紛紛上疏，慷慨陳詞。以上這些人是斥和派的代表人物，綜合他們的意見，主要是四點：

第一，中國“只有大明天子”，皇太極“僭號稱帝”，違背天理人心。應當“嚴辭峻語，顯示斥絕之意，痛切僭逆之端”同時要“秦聞天朝（即明朝）”

第二，9年前，后金與朝鮮簽約締結“兄弟之盟”，而今“自帝其國”，是“渝盟開釁”，“違背兄弟之約”由此引起的事端，罪責在彼而不在我。

第三，朝鮮“素以禮儀聞天下，稱之以小中華”對明朝“列朝相承，事大一心”，今日若“服事胡虜，偷安僅存”，既愧對列祖列宗，也愧對天下及後世。

第四，拒絕來使和來書，“兵革之禍，迫在朝夕”，朝廷應速發動員令，“檄召八方之士，共濟艱難”做好戰爭準備。(2) 爲了國家利益和民族尊嚴，斥和派義憤填膺，各抒己見，在外侮面前，表現出高度的捍衛義理和國家主權的獻身精神！

當然，一個國家遭逢重大國際事務時，衆人不可能是一個聲音。當時，朝鮮王朝群臣中也有主張接受後金要求，走“義和”之路的。即如代表人物崔鳴吉所言：“答其循例之書，而拒其悖理之言，君臣之義，隣國之道，得以兩全。權宜緩禍之策，亦何可全然不思乎？”(3) 這些人被稱之爲“主和派”（或稱義和派）。斥和與義和兩派力量相較，當時斥和派在朝

中占多數，又代表主流民意，國王李倧便採納了斥和派的意見，雖沒採取“焚其書，斬其使”的偏激做法，但也拒不見來使，拒不受來書，拒不“勸進”皇太極“僭號稱帝”，使後金使團激怒而返。

斷然“三拒”出乎後金意料之外，諸貝勒大臣“皆怒，欲興大軍殲滅朝鮮”（4）。皇太極也大發雷霆，隨即又給朝鮮國王一書，斥責其不通達權變，“敗和好之誼”，並要求其“送子弟為質”（5），不然，就要出兵征伐。對皇太極的軍事威脅，朝鮮君臣仍不以為然，針對“敗盟尊明”的指責給予堅決駁斥。李倧在給皇太極的信中說，當年我國與後金締結兄弟盟約時，是以“不背中朝（明朝）為第一義”，後金同意這一點以後俄們才“定交隣之契”，所以，“臣事中朝，敬待漢人”是“禮之當然”，不是違約敗盟。真正敗盟是“貴國約為隣好，而每加以卑侮詆罵”（6）並且，李倧在辨明誰是誰非之後，再次拒絕送交“人質”的要求。這自然使朝鮮與後金的矛盾又加劇了一層。兩國兵戎相見已不可避免。

皇太極於四月十一日在瀋陽舉行稱帝大典，將國號金改為清，開元崇德，自稱大清國皇帝。登極後，經過一段準備，於同年十二月二日親統12萬大軍往懲朝鮮。從以上所敘述的事情經過看，皇太極發動丙子之役，是斥和派“斥和”所造成的戰爭惡果，是三學士力主抗清所招惹的戰爭災難。換句話說，若不是朝廷採納斥和派的意見，拒絕“勸進”，就不會發生山城之戰。對此觀點，筆者不敢苟同。因為，後金同朝鮮的矛盾是冰凍三尺非一日之寒，後金這次興兵入朝，絕非就因為朝鮮一時拒絕“勸進”。其實，後金“勸進”與否，都不影響皇太極稱帝，僅為此更不必大動干戈。而皇太極如此異乎尋常之舉，是同朝鮮多年“積怨”的總爆發。這一點，皇太極在出師前頒發的《告皇天後土文》、《祭告太廟文》、《諭朝鮮國文》等三篇文告中講的很明白。三篇文告的內容基本相

似，謹摘錄最後一篇以明之……

己未歲(1619年) 助明害我，興兵構怨，其端自爾國發之，當時猶念大義，姑爲容隱，未舉加兵，及旣得遼東之後，屬我版圖，爾國又招誘我遼民而獻之明國，復容匿明人居于爾地，給以糧餉，協謀圖我，朕是以怒而興師。有丁卯(1627)年之役也。朕猶念隣國之義，兵不深入，結好而歸……以來十年之間，爾國君臣，納我叛亡，盜我物產，明之孔(有德)，耿(仲明) 二將來歸，爾又興兵截戰，我兵往援，爾以槍砲拒敵，戰爭又自爾啓之。又明欲侵我，索船于爾，爾卽與之。又朕取船征明，爾輒不敢發。爾居兩國之間，若皆不與，猶可也，乃與明而不與我，豈非助明而圖我乎？且我國使臣不令接見，所遣之書又不開視，悖慢無禮，又自爾行之。今爾主又與平安道洪觀察使密書，其言皆欲與朕棄盟修怨，啓畔尋仇，朕因是特啓義兵，聲罪致討。(7)

從這篇文告看，朝鮮同後金的矛盾始自1619年(明萬曆四十七年)的薩爾許之戰，因朝鮮助明抗擊後金，使朝鮮與後金由“本無仇怨”(8) 轉而構怨結仇 文告接着列舉了朝鮮“助明而圖我”的事實，最後之責朝鮮拒絕“勸進”，“棄盟修怨”。這說明皇太極發動丙子之役是對朝鮮“老賬”和“新賬”一起算，絕不僅僅是因為斥和派三學士一時拒清而帶來的戰爭災難。

皇太極發動丙子之役的根本原因是，在當時二國(中國和朝鮮) 三方(後金,明朝,朝鮮)的歷史格局中，朝鮮王朝奉行的是“尊明事大”路線，在實際鬭爭中朝鮮的表現是“助明而圖我(清)”，這對後金實現伐明而統一中華的總目標極爲不利，乃至構成威脅。所以，許久以來皇太極就想再次出兵朝鮮，用武力從根本上解除後顧之憂。正如他所說：“朝鮮屢世獲罪我國，理宜聲討”(9)。而早沒有採取行動是因為條件尚不具

備，時機未到。到他登極稱帝之時，已基本將東北地區統一，漠南蒙古也已臣服，來自西邊的威脅已經解除，這樣，解決東隣朝鮮“助明而圖我”的問題自然排上日程了。如不然，即使有三學士“斥和”，也未必就有丙子之役。所以說，“斥和”只是山城之戰的導火索。朝鮮王朝所奉行的“尊明助明”“屢世獲罪于我”才是後金發動山城之戰的根本原因。正因為如此，我們不應將丙子之役或南漢山城之戰的原因都算到“斥和派”或三學士頭上，他們只是起到引暴發作用。以上探討的是戰爭暴發原因問題，不是探討三學士拒清擁明對與不對的問題。對這介問題，我在拙文《朝鮮三學士“尊明事大”觀考辨》(10)中已詳細闡述，茲不敷言。

“三學士斥和是自不量力”說值得商榷

在丙子之役當時及以後，有些評論者批評斥和派或三學士拒絕“勸進”，反對議和是自不量力。意思是後金力量強大，朝鮮力量弱小，不該不考慮自己的弱勢而同後金叫板。在我看來，“自不量力”說值得商榷，這關係到在山城之戰中，朝鮮王朝失敗的根本原因問題。如果把戰敗原因只歸結為強弱論，未免把復雜的歷史問題太簡單化了。無助於總結真正的歷史教訓和戰爭教訓。是的，誰都不能不論，當時後金無論軍事力量還是綜合實力都強于朝鮮王朝，這對戰爭勝負是有重要影響的。但是，強弱不是決定戰爭勝負的絕對因素。世界上諸多戰史中以小克大，以弱勝強的戰例並不鮮見。所以，我們應該透過強弱論進行更為深層的思考。其實，在丙子之役或南漢山城之戰時，有許多方面因素對朝鮮來

說是十分有利的，如果能充分有效地加以運用，會大大補朝鮮軍隊實力上的不足，同時會給清軍造成難以克服的麻煩，至少速勝是不可能的。朝鮮的有利因素約有如下四點：

第一，朝鮮臣民對後金(清)深惡痛絕。朝鮮是以儒學立國的禮儀之邦，在他們的眼中只有明廷是中華正統，而後金(清)是“夷狄丑虜”，所以，他們從思想上鄙視後金(清)而尊崇明朝。特別是在丁卯之役後，後金以勝利者自居，對朝鮮進行大肆勒索，其歲幣額多得驚人，自1632年(天聰六年)後，向朝鮮強征黃金百兩，銀千兩，綿紬千匹，麻布千匹，細布萬匹，豹皮百張，水獺皮四百張，還有水牛角，蘇木，大紙，次紙，龍紋細席，花席，胡椒，綠皮，腰刀，順刀，松夢茶等，⁽¹¹⁾比盟約規定額多出數倍。後金還借口互市，每次出動兵丁多達千人，以低價強購朝鮮貨物，激起通市朝鮮人的強烈不滿，尤使朝鮮臣民不解的是，皇太極無視“兄弟之盟”，要朝鮮“勸進”稱帝，當朝鮮拒不聽從的時候，他使興兵征伐，如此霸權行徑，最容易點燃朝鮮舉國上下奮起抵抗的烈火。應當說，朝鮮廣大臣民對後金(清)的深惡痛絕，是全民抗擊入侵者的思想基礎。如果朝鮮王廷能積極發動，精心組織，全民武裝，就會使清軍陷入人民戰爭的泥潭中而難以自拔。

第二，複雜的地理環境利于朝軍作戰。朝鮮是個多山的國家，山地和高原占朝鮮全境的四分之三，山多野小，道路崎嶇“屈曲盤旋”，“時或沮水”，不利于清軍的騎兵作戰，何況清軍長途跋涉，以勞赴逸，為兵家之大忌。對此，清軍將領也頗為顧忌，皇太極出師前，召開諸貝勒會議時，大貝勒代善就提出“朝鮮……山多野小，道路甚險，且有砲技，或恐

損我兵馬，不如不伐”(12) 如果朝鮮軍能很好利用自己熟蕃的地形地勢，依山憑險，機動靈活，出其不意，以長擊短，勢必使清軍騎兵首尾難顧，被動搥打，在不斷的不規則戰鬥中損兵折將，戰鬥力嚴重削弱。清軍名將額駙楊古利“凡在行間，率先破敵，克建寄勳”但在南漢山城附近山頂上戰鬥中，朝鮮軍利用有利地形，“伏于石窟，暗以鳥銃擊中楊古利，創中而卒。”(13) 此例便是明證。

第三，堅固山城利于朝鮮軍固守拒敵。因為朝鮮山多高原多，當然相應修建的山城也多，僅京畿，黃海和平安三道就有12座城池。而每座山城修築的都十分堅固，從軍事角度考量，猶如一座座堡壘，易守難攻。而能征慣戰的八旗兵之特点就是長于野戰，不善攻堅。事實上，後金(清)兵在寬闊的平原上兩軍對壘時，兒乎無往而不勝，而在攻打堅固的城池時損兵受挫。如努爾哈赤統大軍攻打寧遠城，久攻不下，死傷慘重，最後不得不帶領殘兵敗將無功而返。他十分沮喪地對部下說，“朕自二十五歲征伐以來，戰無不勝，攻無不克，獨寧遠城不能下邪！”(14) 而此，最終因此欽恨而亡。皇太極一即位，就抱着復仇雪恥的雄心，親統五萬大軍強攻寧遠，結果“尸橫滿地”，不得已轉攻錦州。他親臨戰線督戰，命列八旗梯牌及所有攻城器具，決死強攻，也落得個大敗而歸的下場。後金兩次兵敗寧遠，不是八旗軍戰鬥力不及明軍，而是其不善打攻堅戰所致。皇太極對此也有深刻認識，他說：“野地浪戰，南朝(明朝)萬萬不能，堅城固守，我國每每不下。(15) 在冷兵器時代，不管戰士多英勇，對固若金湯的城池，也往往強攻不下。南漢山城正具有這樣的優勢，城體堅實，易守難攻，是清軍的克星。如能充分備戰，矢志堅守，連敗于寧遠城的後金(清)軍能輕易攻取它嗎？朝鮮軍即使不能像明軍那樣大規模死傷清軍，但僅靠守城不戰，清軍能多經得起時間考驗嗎？事實

上，皇太極開始對山城也是久攻不下，清軍不得不承認：此城之險，實上天所設，約欲破滅，必致死傷之多。”(16)遺憾的是，朝軍事先設有充分備戰，使“實天所設”的山城在關鍵時刻沒能派上用場。

第四，皇太極有后顧之憂。當時清軍約有15萬人，入朝兵力達12萬，國內只留下3萬左右。而此時又正與明軍嚴重對峙，突然皇太極不擔心明軍乘虛北上，收復遼瀋，但也深迫入朝久了，給明軍以喘息恢復之機，得以加固遼西防線，為他日後揮師入關，問鼎中原加重困難。這從當時貝勒們的奏言中可以看出。比如貝勒多輕說：“我兵若耽延日久，側敵人(指明朝)漸知豫備，因其城池，而根本修治，下隙可乘？”貝勒薩哈廉說：“明與察哈爾，朝鮮三國，若論其緩急，當寬朝鮮，拒察哈爾，而專征明國。……至于明國，實不可緩。若我兵稍緩一年，被之守御益固。”固山額盡楊古利說：“兵貴神速，不可逗效，若愈年不往，則敵人(明朝)乘機守備，欲圖再舉，不特人事難齊，抑且天災不測，廢時失事。”(17)等等。很明顯，皇太極發動丙子之役是有後顧之憂的，他必須以速戰速決的辦法征服朝鮮，以便盡快回師對付明朝，不給明朝以“根本修治”，“守御益固”之機，只有這樣，才能保證清國早日戰勝明朝的戰略目標之實現。這一點也是盡人皆知的，就連主和派的金瑬都說：“且伊賊意在上國(指明朝)，必不與我久相持矣。”(18)如果朝軍能針對清軍的戰略部署，從城池，兵力，裝備，給養等方面做打持久戰的防禦準備，堅守山城，避而不戰，以逸待勞，南漢山城勢必成為第二個寧遠城，使皇太極兵敗而返！總之，從戰爭性質，地理環境，山城特點及清軍的後顧之憂等這些因素來看，對朝鮮來說都是有利的，如果朝鮮軍隊能充分發揮自己的優勢，揚長避短，英勇抗敵，即使不能創造以弱勝強敵光輝戰例，但也不

會輸得那麼慘。然而，在整個丙子之役中，在南漢山城保衛戰中，朝鮮軍隊對自身的優勢几乎是視而不見，基本放棄，差不多就等于束手被擒。何以至此呢？下一節就專門探討一下這個原因。

無三學士抗敵之志 是南漢山城失守的 根本原因

3월 30일 (3월 초 오일) 皇太極在清宮崇政殿親自審訊斥和派領袖洪翼漢。翼漢大義凜然，拒不下跪，弄得審訊都難以進行。皇太極便以嘲弄的口吻問道：“汝既絕盟 其志必慾滅朕，朕出兵何不奮擊而反爲朕虜乎？”翼漢毫不猶豫地說：“使吾國臣民皆如吾志，則爾國之亡必無日矣！”(19) 翼漢話語不多，但說得何等堅鏘，何等毫邊！他一語道出了山城失守的原因是朝鮮臣民缺乏一致抗敵的決心和勇氣，如果舉國一致，奮起抗敵，失敗的必非朝鮮，而是清國。我論爲，翼漢此言絕不僅僅是想從氣勢上壓倒對手，而是發自內心的對戰爭失敗症結的剖白，是值得深思的。

辯證法認爲，精神不是萬能的，但一介國家和民族在民族危亡面前，沒有壓倒敵人的英雄氣概和抗戰到底的決心，要想取得勝利也是萬萬不可能的。仔細考察丙子之役和南漢山城保衛戰的全過程，不難發現朝鮮軍隊在各次戰鬪中，不是同敵人經過拚死戰鬪而失敗，而是不戰自敗。關鍵就是缺乏“吾志”，即缺乏抗戰到底的堅強意志。下面諸點就是明證。

首先，沒有形成統一的抗戰思想 從皇太極要朝鮮“勸進”開始，到清軍圍困南漢山城，朝鮮君臣對清是戰是和始終有兩種主張，即存在“斥和”與“議和”兩種態度。開始階段，拒絕“勸進”，用明抗清的“斥和”意見占上風，“議和”之聲叫不响。君臣退入山城之初，朝軍依恃山城險峻，堅守待援，同時還多次主動出擊，並取得了些積極的戰果。到17日(22日)，前後攻殺敵百餘人，而朝鮮軍損失于不大，“死者不達五，六人，中矢被傷者七，八人。”(30) 朝鮮軍倍受鼓舞，士氣高漲，這時，“斥和派”

仍占有主動。但23日(28日)一戰，朝軍中了埋伏損失慘重，死300餘人。加之，城中給養日漸緊張，外援不力，“議和派”勢力開始擡頭，代表人物崔鳴吉密赴清營商討議和。

在一場重大的戰爭面前，大臣中有不同意見還情有可原，但一國之君和最高決策層絕不可三心二意。而那位寬厚仁慈的最高統帥李侗却既無主見，又無膽積，完全看兩派的風標決策，若主戰派占上風，他就招呼抗戰，主和派占上風，他就琢磨議和。在最高決策層中沒有堅定的斥和派。此時，洪翼漢已被排擠出朝，外任平壤庶尹。協助國王決策的主要是體察使金瑬和吏曹判書崔鳴吉兩人。金瑬是個趨炎附勢之徒，在斥和派得勢時，他高喊斥和，“論議深峻”形勢逆轉後，他即“附會和議”(21)而崔鳴吉自始至終都在策劃議和。由於以國王為首的最高決策層沒有堅定統一的抗敵思想，便以打得贏就打，打不贏就投降的消極態度進行指揮，這樣對待戰爭是不會打贏的，只能以失敗告終。其次，沒有制定成熟的禦敵方案。早在洪翼漢首倡“斥和”時，就嚴正勸戒國王李侗：“懲創往目，誓不與此虜俱生，是激檄義鼓勇之秋也。強弱在于斯，在亡在于斯”惟殿下速下哀痛之教，檄召八方志士，躬御六旨，面諭大義。”(22)這番話就是要國王向全國發出緊急動員令，並親身到民衆中去，號召全國奮起抵敵。當時李侗雖接受了這一建議，下諭八道，嚴加戒備，還動員人民“各效策略”，“自願從征 共濟艱難”(23)但這不達是書面文章，做一下姿態而已，並沒有採取實際行動，也沒有精心制定成熟的禦敵方案。何以如此呢？是時間來不及嗎？不是，從三學士首倡“斥和”斷定戰爭已不可避免，到清軍迫境，這中間長達10個月。如果真想禦敵，從制定禦敵方案到完成軍事部署，我認為時間上是沒有問題的。然而，從京畿道各道，朝軍都沒有落實戰備，加以說，這簡直是世界

戰爭史上最糟的備戰典型，請看事實：

皇太極是1635年11月19日宣布伐朝，12月2日統兵從瀋陽出發。直到12日，國王李侗才接到義州府尹林慶業的稟報，得知“敵兵彊漫……分路渡江，倍道亟進”次日再得軍報時，清軍已迫臨平壤城下。如果事先有周密的戰備部署，怎會有這樣信息不靈 殆誤軍機的情況發生？清軍迫向王京時，朝中“上下慌忙，莫知所措。”14日清晨，

李侗急忙派人把宗室嬪宮送往江華島。午後，他率群臣出王京南門奔往江華島。忽聞清軍鐵騎已迫至弘濟院，“以截江都(江華島)之路”(24)李侗無奈退回城內，在南門城樓上問計于諸臣，“事急矣，將奈何？”大臣們“慌忙罔措，不知所待。”(23) 朝中亂作一團，那麼，朝外又是什麼情形呢？”都城士大夫扶老携幼，哭聲載路。“(26) 不知所措的李侗慌忙命申景稷領兵出城狙擊清軍，結果”為賊盡沒，只餘數騎(27)

去江華島路被截，出城兵又戰敗，李侗便率眾逃往距王京40里的南漢山城。這一路更是狼狽，李肯翺對當時情形有詳細記錄：“東宮執鞭者亡走不見，急募人以從，東宮手執策鞭之，由銅峴路出水口門，城中士女跣足奔走，與大駕相雜而行，顛仆道路，哭聲震天。酉時到新川，松坡兩津，江水初合。至山底，日已曛墨，二更是入南漢”(28)

還有令人揶揄皆非的一幕，即李侗君臣14日晚入山城後，認為“孤城駐蹕”難以死守，便又計議再移避江都。于是，15日晨，一行出山城而奔江都，當時值“大雪之後，山阪冰凍，御乘跌之”李侗只得下馬步行，屢次顛覆，玉體不寧”(29) 又退回山城，君臣驚惶失措之狀顯路無遺！

以上事實說明，在這場保家衛國的大戰面前，朝鮮君臣不曾有一點積極應戰的實際準備。設想，如果有禦敵方案，怎麼會聞報清軍來犯，君臣、百姓就慌作一團？撤至江都的計劃都來不及實現？顯然事先沒有

周密的軍事部署，危急時刻才一無主張，束手無策，作為國家安全的最高指揮中心王京的防禦情形都是如此，其餘各地的防禦準備情況想而知。

無數戰例告訴人們，要想奪取戰爭的勝利，首要原則是不打無準備之仗，尤其在敵強我弱的情況下，再不精心準備禦敵方案，而處處創惶應待，豈有不失敗之理！對丙子之役的失敗，羅萬甲深為歎息說：“創慌舉措如此，何能有為乎？”（30）這禍時對朝鮮戰敗原因的深刻認識。再次，沒有重用高名的抗戰將領，在這次戰爭中，朝鮮王廷題拔重用的將領多半是昏庸的酒肉之徒，特別是重用“二金”，即金自點和金慶徵，此二人是在軍事上葬送丙子之役的關鍵人物。先說新任都元帥金自點，此人以刑立威，不得人心，治軍不深入，全憑主觀想象進行指揮，清軍明明已渡達鴨綠江，邊方烽火連續報警，金自點竟然主觀斷定不是清軍入浸，而不向朝廷報告，致使朝廷問訊時，清軍已達平壤了。更嚴重的是在防禦戰術上的瞎指揮，皇太極在出師前給國王李侗的國書中明言：“貴國多築山城，我當從大路，直向京城，其可以山城扞我邪！（31）前面誰到，清軍以騎兵為主，不善于在崎嶇山路上行動，而將于在廣闊大路上推進，說明皇太極所言不是策略上的荒話，而是在倨傲之說實話。對此，朝鮮王廷也確信不義，所以，有針對性地在“要衝之地列置重鎮，以便捍禦”。而庸帥金自點夥同體察使金瑬“首建毀撤之議，使義州移白馬，平壤移慈母，黃州移正方，平山移長青”而這些新的防地“近者巨大路三，四十里，遠者之一，二日程”致使“兩西一帶大鎮，盡為無人地域”。（32）如此錯誤撤防，使王京豪無屏蔽，清軍得以長驅直入，直就王京，這樣，不僅王京迅速陷落，而此，李侗君臣連撤往江都沒來得給。這樣的都元帥，怎麼能打勝仗？再說金慶徵，他是金瑬之子，在國家危

亡之時受命爲江都檢察使。到任後，“自以江都爲金湯，賊不能飛渡，朝夕宴樂，日以杯酒爲事。上行下教，于是，他的部屬們”皆以江都之險，無意防備，放送哨官，盡還其家，一島之外，不爲偵探”。直到清軍渡海攻島時，慶徵始爲驚動，以海崇尉尹新之守大青浦，全昌君柳廷亮守佛院，兪省曾守長零，李炯守加山里”他自己領兵守要津甲串，但“軍卒不滿數百”，“人皆逃散”(33) 當清軍攻之甲串渡時，金慶徵等將領們“皆不戰而潰，賊以(指清軍)扁舟渡江，如入無人之境。至南門，大臣金尙容及洪命亨，沈倪，李時稷，宋時榮等，皆自決死之。尹昉棄宗社，妃嬪俱奔走。(34) 清軍是二十二日攻之江華島渡口，僅用一天時間，又二十三日就占領了全島，避居島中的王室宗親，嬪宮及官屬皆被俘，李棕君臣聞訊，滿朝震駭，遂決定出城投降。國家命運攸關的江都失陷，導治抗戰全般皆輸。輸在那里？就輸在那些肩負守禦重責的酒肉之徒的手里。江都失守後，一老婆痛哭失聲，道：“積年修築江都，以爲士民依歸之所，何使今日之于此乎？檢察之下，受國重任，日而杯酒爲事，竟事生民盡死，是誰之罪也？(35) 百姓都明白的道理，庸官却誤國之此，奈何！

明明之都後金(清)對朝鮮用兵不可避免，并且有足苟的時間進行備戰，然而，各沒有形成團結一致的抗戰思想，沒有正心規劃抗戰方案，沒有認真調兵遣將，重用抗戰將領，一切“慌忙罔對”，抗戰必敗無疑！李棕君臣沒有堅決抗戰的意志和抗戰必勝的信心是丙子之役留下的沈痛教訓。

結束語

以南漢山城爲標識的丙子之役，是朝鮮歷史上一次影響頗對敵事件，這此戰爭的緣起和結束同朝鮮王朝中的 斥和派之代表三學士有一定關係。朝鮮王朝在二國三方的歷史格國中奉行“尊明事大”，助明抗清的基本國策，在實際鬭爭中“屢世菽罪”，“助明圖我（指清國），這是戰爭的根本起因，三學士拒清斥和僅是南漢山城之戰的導火索。丙子之役交戰雙方兵力強弱懸殊，但從來強弱都不是決定戰爭勝負的絕對因素。本來 從戰爭性質，地理環境，山城特點及清軍的後顧之憂多方面因素間，都利于朝而不利於清，可惜朝鮮沒能充分利用這些有利因素。究其根由，是決策集團沒有形如三學士那樣堅決的抗戰到底，抗戰必勝的意志和信念，思想是行動的指針，所以，朝鮮沒有積極備戰，將庸兵募，束手待斃。這當是丙子之役留給人們的 深層思考題。

參考文獻

- (1) 上引『清太宗實錄』卷26,
- (2) 以上未注之引文見『李朝實錄』仁祖14年2月
- (3)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卷9
- (4) 『清太宗實錄』卷28
- (5) 『清太宗實錄』卷28
- (6) 『李朝實錄』仁祖14年6月
- (7) 『清太宗實錄』卷32
- (8) 李民實,『建州聞見錄』
- (9) 『清太宗實錄』卷2
- (10) 『朝鮮王朝三學士學術研討會論文集』2006 渤海學院內出版
- (11) 『清太宗實錄』卷12
- (12) (16)(24)(25)(28) 朝鮮李肯翊:『燃黎室記述』27, 丙子虜亂
- (13) 『清太宗實錄』卷33
- (14) 『皇清開國方略』卷8
- (15) 『明清史料』甲編 第一本
- (18) 『李朝實錄』卷9
- (19) 朝鮮黃景源『明陪臣錄』卷2
- (20) (26)(27)(29)(35) 朝鮮羅萬甲:『丙子錄』
- (21) 朝鮮羅萬甲:『丙子錄』雜記亂後史
- (22) 『李朝實錄』仁祖14年
- (23) 『李朝實錄』仁祖14年
- (30) (33) 朝鮮羅萬甲『丙子錄』記江都史
- (31) (32) 朝鮮羅萬甲『丙子錄』記初闔委折
- (34) 朝鮮趙慶男:『亂中雜錄』『續雜錄』

顧奎相: 1939年生, 祖籍山東蓬萊, 1965年遼寧大學史學科 卒業, 遼寧大學原副校長, 現任 遼寧大學歷史學科 教授, 遼寧省歷史學會會長, 中國史學會理事

附錄

『三學士傳』·『吳學士傳』·『吳學士遺事』



三學士傳

尤菴 宋時烈 撰

掌令 洪翼漢

洪翼漢。南陽人。字伯升。自少聰明秀發。孝友忠信。每讀史見死節義者。則必色動而心慕焉。光海辛酉。中謁聖科。時非權勢家子弟。則不得與選。主試者竟拔去。公亦夷然也。仁廟甲子。上幸公州。設庭試。公爲壯元。例受典籍。以監察。充奏請使書狀。請當宁誥命冕服。主事者沮遏。事幾不諧。竟得準請而歸。實公周旋之力也。臺諫以微事論。削一行人官職。上以其涉海竣事。悉命還敘。公由是由侍從出爲高靈縣監。丁卯。姜弘立導虜犯境。公領縣兵。晨夜赴亂。則朝廷已與虜講和。虜撤歸。因留弘立于我矣。公爲正言。請治弘立降虜反噬之罪。丙子春。拜掌令。時虜遣使來議僭號事。公上疏其略曰。臣日接義州府尹李浚狀啓。卽金汗稱帝事也。浚能以天無二日等語攘却之。臣不覺曲踊距踊者三百。而益知我朝禮義名分炳炳不昧。猶使操弓武夫能知自守。而抗勵不撓。若是凜凜。沉於聖上廟堂諸臣。豈下於一武弁哉。臣自墮地之初。只聞有大明天子耳。今此虜言。奚爲而至哉。向者賊臣引寇猝至。乘輿播越。乞和爲好。雖出於不得已。而苟於其時先梟弘立之首。使我堂堂大義。昭揭如日星。則戎狄雖豺狼。豈無感聳欽艷我禮義之爲美乎。計不出此。惟以得弘立爲幸。而倚以爲安危之機。彼其欲左

枉我臣妾我者。實由是耳。臣自聞僭帝之說。膽欲裂而氣欲短。寧爲魯連之死而不忍使其言污耳也。我國雖僻在海隅。素以禮義聞於天下。天下稱之以小中華。而列聖相承。世修藩職。事大一心。恪且勤矣。今以奉虜儉安。縱得晷刻之淹。其於祖宗何。天下後世何。且聞胡差所帶者。半是新附之西獫。夫西獫之於我。旣無交聘之禮。則奚有饋接之道。拒而不受可也。而入境有日。訖無廟堂之一言。臣未知其處廟堂者何人也。旣已恬嬉於平昔。而今此朝夕禍迫之日。猶且晏然不動。其視君父之受侮。不翅吳越人之尋常。然則虜人之侮我。實是廟堂之所召也。嗚呼。事已急矣。凡有血氣者。莫不扼腕顫膽。而元戎閒坐於山陵。聖明淵默而深居。寂無一事之規畫。臣不識其所以然也。臣竊觀虜人之意。不過矜張誇耀。迫脅強驅耳。渠苟欲稱天子蒞大位。惟當自帝其國。號令其俗。何必稟問於我哉。所以渝盟開釁。嚇藉我口者。將以稱於天下曰。朝鮮尊我爲天子矣。殿下何面目立於天下乎。臣請亟執其使。責其背約僭號而戮之。以明示禮義之大。隣國之道。然後函其首竝其書。奏聞于皇朝。則義益伸而氣益張矣。如其不然。以臣言爲妄。則請先斬臣頭。以謝虜人焉。臣忍使君父受辱而苟生哉。噫。臣雖孱弱。猶思乘一障而隕身於虜鋒矣。環東土數千里。寧無一人義士哉。卽今兩西人民。懲創往日。而切齒腐心。矢不與此賊俱生。是誠激義鼓勇因風吹火之秋也。可強可弱者在於斯。其存其亡者在於斯。惟殿下速下哀痛之教。檄召八方之士。躬御六轡。面諭大義。其爲殿下之臣子者。孰不踴躍後先爭效死綏之忠哉。上批曰。深嘉爾爲國之誠。斬使事似爲太早。徐觀所爲而處之未晚也。時大學生亦上疏請斬虜使。虜使懼而遁去。中外洶洶。崔完城鳴吉力主和議。議遣小譯以探虜情。其實欲更通和也。公又以大義面斥鳴吉。鳴吉深銜之。一本。無鳴吉深銜之五字。十二月

十三日。虜警猝至。時平壤缺庶尹。鳴吉謂體察使金瑬曰。斥和以致虜者洪翼漢也。今西路之任。捨此其誰。遂除授促行。人多來弔。而公略無幾微色曰。殉國死敵。素心也。聞者嗟嘆。十四日。肅謝促發。則虜騎已迫西郊矣。遂奉母夫人。安泊于江華之摩尼山。由喬桐西走任所。穿過賊屯。二十餘日。始達平壤之寶山城。則城中聞元帥金自點敗。人心洶洶。一時潰散。公遂發文招集曰。日於寇深之初。本府以空官。衆無所統。偏被兵火。至於將官衙兵同時離散。實非背公。形勢固然矣。予遺殘氓。顛沛何處。撫念至此。愍惻何極。今則當職來莅本府。其各率父母妻子。剴即來赴。務相完聚。且聞帥府軍兵。逃散還家云。身既犯律。決難容貸。惟改心易慮。以圖自新。或覘賊形勢。或躡後追擊。或乘夜斫營。或折馘執俘。期樹將來之績。永贖已往之罪。我言不誣。其各勉旃。於是人心稍振。士氣思奮。爭相還集。公悉心籌策。夜以繼日。守備之具略備。卒得保其城。賊初。上將幸江都。自南門回駕入南漢。山城圍急。賊要斥和臣以甘心。鳴吉遂與一本無鳴吉遂與四字廟堂議。以公及尹公集。吳公達濟應副。語在尹。吳二公傳。丁丑二月十二日夜。平安都事田闢。以有旨指揮。令甑山縣令邊大中。執公于平壤豆里島。縛送賊酋營。時公未及食。乞解縛食。而大中不許。殷山縣監李舜民。來見慰之。公謂曰。國事至此。螻蟻孱命不足論也。但我豈是畏死者。況君命其敢逃乎。而束縛至此乎。舜民勉諭大中。暫緩其縛而進食。夜二更。渡江而西。晨夜疾行。五日到義州。府尹林慶業迎公入坐。或云出逆公於一舍外。曰。明公此行。真男子事也。生既能扶大義。死可以光竹帛。復何所恨。公曰。由我一疏。禍敗此極。死不足贖。尚論其餘。但願亟往。無使君命稽滯也。慶業問公行資有無。辦治甚具。或云。且解其裘以衣之。遂使彌串僉使張超押送之。至通遠堡。有胡四人

來問繫來之由。具道其故。胡曰。我是汗之家人也。仍解囊出食物以饋之曰。遠來想必飢乏。公有何罪。到瀋陽。汗必放還矣。二十五日。始到瀋陽。公於道上。目擊我人俘虜繹屬。不勝悲憤。及見囊駝背上載我國御寶。不覺痛泣焉。既至。華人之胡服者。爭來堵立。莫不嗟歎曰。真忠臣也。若使大明皇帝知之。寧不聳動。男兒至此。死亦有光。迭相來慰。二十八日。汗使囚公于別館。令其博士官來設宴。廚人亦盛設朝夕之具以進曰。皇帝所賜。不可不食。公曰。吾只有一死而已。此豈可食乎。皆終始不受。胡將龍骨打至所館。使舌人傳言曰。汝何故入來。公曰。吾以斥和首倡。被執而來。龍胡曰。汝國朝官甚多。斥和者豈獨汝一人乎。公笑曰。吾豈畏死而諉他人者哉。龍胡再三詰之曰。汝外必有他人。勿諱直告也。公曰。去年春汝之使我國也。請斬汝頭者。獨吾一人。龍胡亦笑而去。三月初五日。公聞汗盛陳兵威。將引以入。公方食。顏色自若。盡食如常。顧謂從行蒼頭曰。汗必將屈辱我。我則不屈。今日我必死矣。俄而列卒傳呼甚急焉。至門外。則繫公兩手而督迫之。公步履愈益安舒。蒼頭恐其激怒。亦從傍促之。公笑曰。男兒到此。當從容就死。豈可蒼黃失措乎。及至庭下。屹然特立。群胡皆起立聳觀。汗使解其縛。謂曰。汝何不跪而倨傲若是。公曰。此膝豈可屈於汝乎。汗曰。汝何先背盟約而斥和。使兩國成讐乎。公曰。汝與我國既約爲兄弟。而反欲稱帝臣我。背約之失。其在汝乎。其在我乎。汗辭塞良久曰。汝既首斥和約。則其志必欲殲滅我類矣。大軍之出。何不迎擊。反爲我所擒乎。公曰。我之所執者。只大義而已。成敗存亡。不須論也。若使我國臣民一如我志。則爾國之亡。已無日矣。卽解衣投地。裸裎而言曰。聞爾國刑殺。必以鬻鬻云。何不速行鬻鬻乎。仍索筆書紙曰。大明朝鮮國縲臣洪翼漢斥和事意。歷歷可陳。而語音不相慣曉。當

以文墨控白焉。夫四海之內皆可爲兄弟。而天下無兩父之子矣。朝鮮本以禮義相尚。諫臣惟以直截爲風。故上年春。適受言責之任。聞爾國將渝盟稱帝。心以爲若果渝盟。則是悖兄弟也。若果稱帝。則是二天子也。門庭之內寧。有悖兄弟哉。覆載之間。寧有二天子哉。況爾國之於朝鮮。新有交隣之約而先背之。大明之於朝鮮。舊有字小之恩而深結之。則忘深結之大恩。守先背之空約。於理甚不近。於事甚不當。故首建此議。欲守禮義者。是臣職耳。豈有他哉。但臣子分義。當盡忠孝而已。上有君親。俱不得扶護而安全之。今王世子大君皆爲俘。老母存沒亦不知。良由一疏之浪陳。以致家國之禍敗。揆諸忠孝之道。掃地蔑蔑矣。自究乃罪。可殺罔赦。雖萬被誅戮。實所甘心。血一罍鼓。魂去飛天。歸遊故國。快哉快哉。此外更無所言。惟願速死速死。汗使漢人譯而聽之。顧謂左右曰。難矣哉此人也。仍出公斥和疏以示曰。吾豈不可爲皇帝耶。公曰汝乃天朝叛賊。寧可爲皇帝也。汗大怒。遂令二胡挾執兩腋而去。二胡乃其國刑殺人者。執公蒼頭。拘之別所。其後只以鞍馬衣衾之物。付譯人金汝亮。竝其蒼頭還之。蓋公抗虜之書。卽張超所傳而來者。公之蒼頭被拘以前。終始隨公。目擊而歸言之。亦以公日記而來。華人之慕公義者。多爲我人說其事如此云。初江都之敗。公長子晬元。奉公大夫人及公繼室許氏。自摩尼山轉向喬桐。纔到浦口。虜騎猝迫。許氏被執。拒賊不辱。鋒刃亂下。晬元輒以身翼蔽之。晬元旣死而許氏自投水。晬元妻李氏。亦自刎於晬元傍。實丁丑正月二十五日也。前一日。公次子晬寅。已遇賊死於摩尼山矣。惟大夫人與公二女。以老稚得免焉。然公皆不及知。行到宣川。寄二子書。眷眷於家屬之存沒。又戒之曰。汝等勿以我爲念。惟侍老親與汝母。終自保護。無絕先祀。朝廷月給大夫人廩料終其身。竝及其二女。孝考初。特命錄用其子孫。

復贈公承旨。始公之死。昭顯世子。命以尺帛招魂而送之。公竟無子。繼後子應元。以公衣履葬于平澤縣西鯨井里先兆。許氏祔焉。傍近章甫。建祠墓下而俎豆之。公性至孝。喪考。血泣三年。事母務悅其心。飲酒能多。而以母之不悅也。在親側未嘗酩酊焉。公爲文。清健警敏。氣格奇逸。其一言一句。罔非忠義之所發也。平生著述甚多。而盡失於江都之變。繫瀋陽。適值三月三日。有詩曰。陽坡細草拆新胎。孤鳥樊籠意轉哀。荊俗踏青心外事。錦城浮白夢中來。風飈夜石陰山動。雪入春澌月窟開。飢渴僅能聊縷命。百年今日淚盈顙。士林皆傳誦流涕。公生于萬曆丙戌十一月二十二日。死時年五十二。

校理 尹集, 修撰 吳達濟

尹集南原人。字成伯。生於萬曆丙午生 十三歲。其考衡甲沒。伯兄榮。教以文行。篤至不懈。天啓丁卯。中生員。辛未。擢文科。隸槐院。移侍講院爲說書。又有史局薦。未入而陞司書。憂吉。拜司諫院正言。榮時爲天曹郎。兄弟相戒曰。吾等無以逾人。而俱玷清班。此甚可懼者也。尋爲弘文館修撰, 校理。歷獻納, 吏曹郎。以成均直講。試士于嶺南。時丙子九月也。未及復命。路拜獻納。冬復爲校理。時和議復行。崔鳴吉實主其事。惡正人齟齬其間。不欲其謀議宣洩。奏事時請去承旨, 史官。公聞之憤惋。上疏其略曰。近有一種邪佞怪慝之言。上蔽天聰。下絕人望。將使天地晦塞。義理斃絕。國不得爲國。人不得爲人。夫和議之亡人國家。覆人宗祏。匪今斯今。而未有如今日之甚者也。天朝之於我國。乃父母也。奴賊之於我國。卽父母之仇讎也。爲人

臣子者。其可與父母之仇讎。約爲兄弟。而置父母於相忘之域。恬然不以爲恥乎。而況壬辰之事。秋毫皆帝力。其在我國。食息難忘。而頃者虜逼京師。震汚皇陵。驚心痛骨。慘不忍聞。寧以國斃。義不可苟全。而顧兵弱力微。雖未能悉賦從征。亦何忍更以和議。倡之於此時乎。往日聖明。赫然奮發。據義斥絕。布告中外。轉奏天朝。環東土數千里。庶免其被髮左衽矣。不圖茲者獎勅纔降。邪議旋發。人心之憤。當復如何。又況承旨侍臣。亦可屏去云者。嘻噫亦太甚矣。謀國非附耳之言。君臣無密語之義。所言所答。如其義也。雖使千萬人參聽。亦何傷乎。如非義也。屋漏猶愧。天可欺乎。今內而朝廷。外而民庶。皆欲食其肉。殿下深居九重。獨未之知耳。吳達濟之疏。實出於公論。而旋被嚴譴。雷霆之下。莫不摧折。至如李敏求。以秩高諫長。不恤公論。朦朧引避。遽停前啓。其他新進後輩。依阿洶恣。無足怪也。鳴吉筭子。許多張皇。熒惑天聽。遂舉朱、胡兩賢及我國多少名賢。指爲主和。以資口實。且以頃日之斥絕。指爲聖上之過。至以勿憚改爲言。繼之曰。生靈塗炭。宗社不血食。言辭變幻。震搖聖心。夫外挾強寇之勢。以內劫其主。是可忍耶。且臺論雖發。一邊送書。未爲不可云者。何其不有朝廷。不有臺閣。至於此極也。是言亦足以亡殿下之國。而殿下非惟不能正其罪。乃反用其言。合啓方張。而國書已渡江。嗚呼。國家之置臺諫。亦奚用哉。榮見謂曰。此言實太過。可行刪削。公不肯曰。國將亡矣。何可言遜。職分所在。身謀可捐。疏上。上竟留中不下。十二月。扈駕入南漢城。上亟定城守計。公在行闕下。慷慨倡言曰。天意奮發。國事庶有望乎。遂退與同志。條上急務。首言自古戰守之計所以掣肘而沮敗者。和議爲之崇也。今幸聖志堅定。或有更起和議者。請臬示軍中。以一衆志。其餘皆申嚴師律。激勸軍情。收拾糧餉。整頓器械等

事也。二十日。公面對曰。臣督戰北城。北城士卒。皆願出戰。而論議矛盾。臣言於體府而亦不見聽。此只在聖斷而已。再昨之戰。臣詳知士氣百倍。萬無不勝之理。賊騎雖突出如飛。而一聞砲聲則回走不暇矣。公聞群議欲以儲君送虜陣。自城上趨詣闕下。要鄭公蘊。欲同入對極言之。辭氣慷慨。涕泗交下。時輿情齊憤。其議挫縮。故遂不求對。然公意猶憤憤不已。以爲凡事不絕根柢。則必至滋蔓而不可爲也。今鳴吉尚在廊廟。終必復起邪議。至於亡國而後已。遂邀三司多官。齊會闕下。公曰。今日之義。必先斥去主和之人。諸人皆相顧默然。大司諫朴潢曰。彼正如孤雛腐鼠。彈論不難。然此非今日之急務。追後論之未晚也。於是諸人靡然從之。公力爭不能得。乃指斥三司頗深切。流輩亦多不悅者。公又上疏曰。當此孤城危迫之日。非以講和退敵爲不可。蓋自我乞哀則虜益輕我。和終不可成也。惟一意戰守。示我可以有爲。然後和可議也。丁丑元日。又議送牛酒于虜。公又上疏曰。廟議。欲送一使。名之以歲饋。假之以偵探。上欺聖聰。下瞞群情。城下之盟。北轅之羞。僅一間爾。言之至此。痛哭痛哭。今聞勤王之師。齊到近地。中外合勢。決一死戰。則三軍氣必倍矣。願一意戰守焉。廟堂竟送牛酒。虜不受。且言汗率大軍出來。廟議因欲遣使問其行到何處。仍以起居安否。公又上疏極言其不可。不報。時城圍已急。國書將用某字。公遂獨對。力攻主和之臣。請加重律。且言三司忘君負國循默依違之罪。自是人皆側目。指爲浮薄好名之人。必欲危中之。及虜書來。辭極悖慢。公又入對曰。今致凶書。皆鳴吉之罪也。而昨見其答書。則非和也。乃降也。爲臣子而忍製此書乎。因悉暴其奸狀。初七日。聞南陽府陷敗之報。其府使卽公兄榮也。公乞遞職。上許之。已而遂與吳公達濟被執。同死於瀋陽。公稟質清介。性氣直截。聰明絕人。過眼輒記。自少居

家。必以孝友爲先。親有疾病。色憂以處。居憂三年。誠禮備盡。兄弟三人。同居一室。勉以學業。不事生產。雖衣弊食糲。而不以爲恥。三登臺閣。言責自任。四入經幄。至誠匡順。其所養甚正而所守甚確。卒能成就大節。可謂不世出之君子矣。其臨死。與虜辨析者。最明白抗厲。而質館宰臣。素與公平日不相能。故其所傳說。多不以實。其後宰臣。歸語所親曰。吾與虜交歡。豈本心哉。欲爲公家彌縫凡百。而尹某不識吾心。見而責之曰。今日事雖出於不得已。已甚羞恥矣。又何忍深結至此哉。仍加我以不忍聞之說。此因宿嫌而然爾。然彼人稠廣中。恥我以無益之說。自觸其怒。可謂不思之甚者。公有遺書及記行一冊。在衣帶間。臨死被虜人搜去。故不得傳。公配金氏。清陰先生從女也。生子以宣。以徵。朝廷錄用而月廩焉。後金氏喪。特命庀葬。異數也。

吳達濟字季輝。海州人。年十九。中丁卯司馬。二十六。文科壯元。由成均典籍。歷兵曹佐郎。侍講院司書。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弘文館修撰。校理。丙子五月。爲副校理。時金虜僭號。朝廷斥責。而復欲通使。語在洪學士傳。公上疏曰。臺閣者。公論之所在也。公論一發則雖以人主之尊。不能脅持。大臣之重。不能沮遏。況以執拗逢君之一儉臣。而敢與公論相爭乎。頃者崔鳴吉。以送使通虜之意。發於朝廷絕和之後。其議論之邪遁。固已可惡。而第以財擇取舍之柄在於君上。故朝廷置而不論矣。厥後臺諫以廟謨爲非。爭相引避。議論甚峻。玉堂亦據義論辨。是三司之公論旣已發矣。而鳴吉恃上意之所在。不念國家之事勢。乃於登對之日。敢陳誑嚇之說。上以惑亂天聽。下以威制公議。至以臺論雖發。一邊送使爲言。自古安有以不恤臺論。率意直行之術。導其君上者乎。及至玉堂面斥。群議爭辨。則所當縮伏愧懼。以俟

物議之所定。而猶且偃然陳筭。惟恐和事之不成。其縱恣無忌之罪。不可不正。時虜勢已啓。而朝廷舉措。無可以慰人心者。公復上疏。論時務八條。其要則以勉進聖學爲本矣。是冬。公罷官家居。及聞虜變。徒步扈駕。入南漢山城。事急。主議一本議作事者以公及尹集。縛詣虜營。洪翼漢則自西路任所。直送虜穴。蓋自行朝受圍以後。外則諸路勤王之師所在奔潰。內則糧儲器械皆已匱竭。朝廷只以江都是廟社元孫所在。而爲國家本根之地。一日忽報陷沒。朝議更無所恃。而虜請上出城甚急。衆議且將從之。尹公將入上前碎首爭之。公曰。吾等不能批患折難。今到萬分地頭。而主事者以爲如此。然後上躬可全。雖明知其不然。更何忍沮止哉。吾儕要當自靖。無愧于心而已。尹公歎息而止。朝廷既與虜定約。虜曰。今日兩國之釁。皆由於春初斥和之臣。須先執送軍前。時崔鳴吉主其事。一本。無崔鳴吉主其事六字。用諸議以爲若只送一二人。則恐不能免死。須併取數十人一時出往。名曰謝過則彼必解怒。於是不復白上。而直令兩銓分付各司。籍名以告。且令自首。蓋於初受圍時。虜人責送王世子爲媿。任事諸臣請於上。將許之。持議之人爭相憤罵。乞斬任事者。由是其議遂止。而任事者懼事定後罪及其身。故欲乘此時悉去所忌之人。而惟慮上心之終不忍也。遂出入內外。鼓動衆心。且令大將申景禎等懲慝士卒。囑唖闕門。露刃以脅之。朝紳爲之喪氣流涕而已。二公遂踵清陰金公尙憲。桐溪鄭公蘊。自首於籌司。大司諫朴漢言曰。斥和諸人。不須多送。尹、吳二人。今既自首。曷若止此二人而已乎。於是議遂決。二公之將自首也。吳公兄承旨達升。執手流涕曰。虜之所索者。春初首議之人也。汝非其人。奈何如是。公曰。雖非首議。既攻主和之人。且主辱臣死。分所甘心。今日忍圖苟免乎。達升不能止。丁丑正月二十八日。拜辭於行宮。上引見曰。古今天下。

安有此事。當初爾等。欲使予守正而已。今日之事。予安得自由耶。爾等以予爲君。事至於此。予何以爲懷。因泣下嗚咽。二公對曰。主辱至此。臣等常以不死爲恨。今得死所矣。有何憾焉。上問爾等有老親乎。嗣續幾何。達濟對曰。臣有七十歲偏母。嗣續則臣妻纔有孕矣。集對曰。臣只有祖母。與三子俱就臣兄榮任所。今聞陷敗。不知其生死也。上曰。慘矣。集曰。殿下出城之日。城中軍民不無乘時叛亂之患。願留王世子鎮撫焉。上曰。爾方就死地。而猶念及國事。爾之忠誠。極可嘉也。上命賜酒曰。國家倘或復延。爾等之家。予當顧恤。爾等勿以爲念也。二公亦涕泣拜謝而出。達升泣言於籌司曰。吾弟從駕之日。徒步而來。願得一馬。免踏昔跡也。聞者酸鼻。會日暮。未及出城。吳公夜就館。具豆屑湯水沐浴。達升終夜相持以泣曰。兄弟永訣。只隔今宵。明日何以相別。又何以歸見老親與新嫂乎。汝須趁此未明。處置後事。公曰。男兒一死。貴得其所。若後事則處置在兄。願兄勿以爲悲。因削木爲小牌以佩曰。我到虜陣。卽必見殺。收屍之際。以此爲驗也。因就寢而睡。二十九日。鳴吉一本。鳴吉作李英達。押出西門。諸親友皆往送于門。痛哭而別。滿城觀者莫不流涕。而二公神色自若。少無悲慙之容。人皆嗟歎焉。初本。此下有行至一陽坡少憩。鳴吉謂曰。公等自有可免之道。到彼彼若詰問。公等宜對以此非獨吾等爲之。因悉舉其時臺閣之人。則勢不可盡殺。此豈非良謀乎。二公不答。卽起去相謂曰。彼欲借我盡殺一時名流。大奸之計。尤甚巧慘矣八十七字。旣至。賊將龍骨打出迎之。鳴吉以二公去其中帶而反接之。然後龍胡還入。已而復出以汗言詰問曰。汝等若以我爲不足畏。則大軍之來。何不出戰而反窮蹙若是乎。二公曰。我國服事大明。今已三百年矣。一國臣民。知有大明而已。爾國旣僭大號。則義所當絕。故我國於春初。旣已據義斥絕。而

曾未幾時。復通信使。甚不可也。是以我等果爭之。我等所爭者。惟大義而已。勝敗存亡。不須論也。龍胡默然。使解其縛。拘置陣中。謂鳴吉曰。此輩乃我之讎。而今茲縛來。無非公盡心明厥之致。因饋酒食。賞以貂裘。鳴吉歸言曰。吳尹若如我指導則可保無事。而及至陣前。所答相左。必是畏怯而然。聞者唾嚔焉。一本無。自鳴吉歸言至聞者唾嚔焉三十七字。詰問曰。汝等之名。非吾前日所聞者。似非首倡人矣。且首倡者。非但洪翼漢一人而已。今若悉以實告。則汝等可免矣。答曰。我國既查送我等。更有何人。我等只知有一死而已。豈可畏死而誣引他人乎。龍胡復再三誘脅曰。今不熟計。後雖欲悔之。其可得乎。二公曰。死非吾所畏也。吾戴吾頭來。當斷即斷。更勿復言。虜撤歸時。使其二將。主二公在陣後北去。主者服公等節義。常加尊敬。其寢食之具。必自看檢。終始不解。因慰解曰。到瀋陽。必得生還矣。初至楊花渡。尹公寄其弟柔剛伯書曰。二月初三日。始聞伯氏舍生之報。痛哭呼天。氣絕僅甦。寧欲即死。而爲國家強食而生耳。此行寧有歸期。上奉老親。下率諸子。俾免飢死。皆在於君。余何憂焉。葬兄時切勿妄生厚卮之計。稍存餘力。以救百口之命可也。一家得保。則後豈無改葬之路耶。若力盡於葬埋。而老親及百口凍餒而死。則亡兄之靈。亦必痛恨於冥冥矣。吾行蓋緣清國固求去春首謀斥和之人。廟堂以洪翼漢爲對。而又求在城之人。城中適無其人。吾與吳達濟陳疏自當。此乃身自爲之。少無尤人之事矣。男兒墮地。捐身救國家之急。斯亦幸矣。更何言哉。只以老親臨年。竟不得更拜。仰天泣血而已。尹公謂吳公曰。我備嘗窘辱而死於虜地。曷若死於我境耶。吳公曰。不可。人生斯世。固有一死。死得其所。明我節義。豈非樂事。何必效匹夫之諒乎。到信川。虜留十餘日。吳公載家書。藏諸懷袖。行至大同江邊。宿一村家。遂潛

以付家主老翁。又書絕句於壁上。虜人邀漢人來見。謂無他語遂去。其老翁待虜去。以其書封呈于平安監司。監司送于政院。以傳于家。有一簡二首詩。乃上母夫人者也。又有簡與詩各二。寄兄及妻者也。其壁上詩則竟不傳。其上母夫人詩曰。風塵南北各浮萍。誰謂相分有此行。別日兩兒同拜母。來時一子獨趨庭。絕裾已負三遷教。泣線空悲寸草情。關塞道脩西景暮。此生何路更歸寧。孤臣義正心無忤。聖主恩深死亦輕。最是此生無限痛。北堂虛負倚門情。其寄兄與妻曰。南漢當年就死身。楚囚猶作未歸臣。西來幾灑思兄淚。東望遙憐憶弟人。魂逐塞鴻悲隻影。夢驚池草惜殘春。想當綵服趨庭日。忍作何辭慰老親。琴瑟恩情重。相逢未二朞。今成萬里別。虛負百年期。地闊書難寄。山長夢亦遲。吾生未可卜。須護腹中兒。聞者莫不流涕。四月十五日到瀋陽。虜置二公於其所謂禮部衙門一小屋。鎖直甚嚴。十九日早朝。龍胡坐于其所謂戶部。招二公去。龍胡傳汗語曰。汝等雖曰斥和。似非首倡。不須殺汝等。汝等率妻子來居此地。答曰。此決不可從。須速殺我。龍胡反覆開說。且劫勒之。終不屈。龍胡起入。二公出語所帶奴曰。今日虜必殺我矣。奴驚泣曰。何不姑從其言。遽挑其怒。自速大禍乎。二公笑曰。屈身之辱。反甚於死。此非汝等所知也。尹公且謂其奴曰。虜問及吾家屬者。無乃欲禍及百口耶。吾已答以亂後不知死生。虜若更以問汝等。汝等亦若吾所對也。二公遂相與言笑自若。其食時進食如常。且相謂吾等若從彼言。則終爲左衽之人。是可忍乎。有頃。龍胡復出。引入二公。而又執從行奴三人拘置牆頭。時我國宰臣及侍講院官。被龍胡招與參坐。龍胡復厲聲迫脅。二公亦抗言拒斥者五六次。宰臣等亦再三勸諭。而終不聽。龍胡知其終不降。遂使從胡。綆縛甚急而引出。二公猶回顧奮罵。遂驅去城西門外。卽虜人刑殺處也。宰臣等旣出。相顧言

曰。眞萬牛難回之人也。五月二十四日。質館宰臣南以雄、朴、朴潢等成貼書狀曰。去四月十九日。龍將等招臣等三人及兼輔德臣李命雄坐定。引出尹集、吳達濟於前。傳言曰。此人等罪宜死。而特以人命之重。欲爲全活。許令率妻孥入來。仍居此處。則尹集以爲妻子亂後不知存沒。吳達濟則以爲至今忍死到此者。萬一生還復見吾君與老母。若果如此。則生不如死。渠等不念全活之恩。抗言如是。今不可復貸矣。臣等答以此人等俱以年少。只切君親之念。妄發如此。若終始曲全。則豈非千載美事。再三懇諭而終不得免。六月六日。其書狀至。上教于政院曰。二臣事極爲慘惻。宜月廩其家。二公死時。鄭弼善、雷卿在質館。使舌人懇乞收屍。虜竟不許。吳公寬厚忠信。端方正直。平居恂恂似不能言。及論國家利病。政令得失。辭氣激昂。無所回避。聞者縮頸。性至孝。友愛彌篤。平生言行。無一不本於此。故對之者。不覺其孝悌之心油然而生也。嘗贅在南氏家。日往省大夫人。南氏家或闕騎率。則徒步穿過市里。雖風雨不廢。常謂其婦兄南一星曰。凡人死生之際。多喪其所守者。利害劫之也。然以余觀於古今。擇利者不必生。處害者不必死。昔唐武曌之立也。褚遂良直言曌經事先帝。其勢難免於簾下之撲殺。而猶以愛州刺史終。長孫無忌頗有依違之意。且有元舅之親。定策之勳。而終不免赤族之禍。以此言之。人當爲其所當爲而已。又可較其利害。而有所前却哉。此聖人所以有從吾所好之訓也。其伯父楸灘相公允謙。受業於栗谷、牛溪兩先生之門。公又學於楸灘。其淵源之深遠有如此者。故其所樹立如此。雖其氣質之異。而學問之力。亦不可誣也。始娶某氏無子。再娶縣令南斌女。僅踰一年而遭亂北去。人猶幸其有遺腹矣。及期生女而又夭。人皆以爲天道無知也。孝考朝。筵臣金始振啓曰。洪翼漢、尹集、吳達濟三人節義。宜有褒贈。以樹風聲。而當初則迫於疑懼

矣。今歲月浸久。保無他虞矣。上卽命施行。於是贈洪翼漢都承旨。尹集副提學。吳達濟左承旨上又嘗曰。尹集與其祖及兄兩世三人。俱死於節。豈不貴乎。集弟進士柔。亦以孝行著於世。丁丑後遂廢舉業。飭身力學。不幸早死。士友咸惜之。或言庚辰。朝家以計密通皇朝。虜人覺之。執崔鳴吉以去。鳴吉有詩曰。我雖不殺三學士。中夜思之心自驚。天道由來好回換。白頭今日又西行於此時見殺。則庶可少贖其罪。而竟至無恙。豈天意於彼此之間。要有所抑揚者耶。

謹按春秋之義。列國之臣。尊向京師。自稱陪臣。蓋分定也。天經地義。民彝之大者。有違則禽獸也。我太祖立國。高皇帝命爲朝鮮。以爲東藩。本朝世守侯度。誠心恪謹。太宗朝。皇帝嘗曰。朝鮮國王愛我哉。及至壬辰倭變。宗社爲墟。神宗皇帝舉天下兵力以存之。則凡此東偏草木昆蟲。無非帝德攸洎也。丁丑事。迫於不得已。然萬折必東之心。則未嘗已也。而至我孝宗大王。則聖志尤卓然。如日月之皎然矣。彼三臣者能以死明其心。天經地義民彝。賴而不墜。而孝考崇報之典。更無遺憾。豈不盛哉。或者謂今日無地可讀春秋。蓋不知有三學士也。今上戊申。嘗御熙政堂。問三臣事於筵臣。吏曹參判閔鼎重。具本末以對。左議政許積以爲喜事釣名之人。鼎重曰。其時虜人。敢讎天朝。始建僞號。則彼三臣者。安得不痛斥乎。上曰事係天朝。大義當如是。況終能殺身踐言。不可謂釣名也。大哉此真聖人之言也。上又曰。其時洪太始謂三臣如何。建祠以祀則何如。領議政鄭太和曰。恐煩聽聞也。鼎重曰。若建自士林則不可禁也。上然之。又有進士李重明者。上疏乞立神宗皇帝廟。上下其事。朝議不一。故卒不行。然上意則以爲是。故卽官其人。愚嘗謂此議早晚有成。我孝考當配侑。而彼三臣者。亦宜從享廟庭也。又按尹學士祖父龍陽公暹。其兄府使公榮。俱殉節死。洪學士

婦與二子及子婦俱遇虜不辱。潔己而死。尹之義有所受。而洪之義有所授。豈非我列聖及皇上培養之致哉。同時如金清陰鄭桐溪諸公。亦同有春秋大義哉。黃參知一皓亦見殺於虜。其子璉年甚少。常血泣號天。嘗以洪公遺跡示余。請爲序。蓋以其父之禍大略相類也。未幾。黃生奄忽而逝。余哽愴之心愈久而不能已也。今清州牧使南公九萬來謂余曰。吳學士乃吾姑夫也。吾先君嘗裒集其事實爲一通。欲請於作者以立傳。今吾姑惻然含恤。祈見此事之成。故竝以三公事爲託。旋聞南公姑下世。余前後孤人之意深矣。是將爲沒身之恨矣。亟取筆書之。而名曰三學士傳。死者有知。將不恨其早晚之有間也。嗚呼。讀此而無涕者。真所謂無人心者也。然春秋之義。爲今所諱言者久矣。南公兩世。非今世之士矣。可尚也哉。

又竊念我東禮義素明。當時立愷之人甚多。如江都則自仙源金相國以下十許人。其他所在委命表著者不可勝數。且如潔身不污。以守其志者。如尹公宣舉諸賢。事雖不同。而同歸於一致。皆不可遺也。此不須別立傳記。只收其行狀碑誌。以附於此編之後。則其義該矣。余老且病。未暇於此。有志之士尚有以成之也。

崇禎辛亥(1671)七月 日。恩津 宋時烈。書。

傳內始有陽坡一款矣。其後據政院日記及李箕男書札。知其實狀有不然者。又今兵曹判書南九萬。吏曹判書李敏敍二公。力言其爽實。蓋此傳始據三家之狀成之。而此一款實出於南公先人所撰吳學士狀。而今南公之言如此。蓋當時事三家子弟無有目覩者。意其出於傳聞。則其可信。似不若政院日記及李箕男目見之書札及南、李二公之說。故刪去

之。而其昔有今無之實狀。不可全沒以來後人之疑。故略記之如此云。

崇禎癸亥(1683) 四月 十三日。時烈 追書。

삼학사전 국역

본 國譯文은 1671년(顯宗 12) 尤菴 宋時烈이 편찬한 『三學士傳』 漢文 原本을 民族文化推進會에서 國譯한 것을 廣州鄉土文化研究所에서 現代人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하고 畵문하였다.

掌令 洪翼漢

洪翼漢은 南陽人으로 字는 伯升이다. 젊어서부터 총명하고 품체가 빼어나며, 孝友하고 忠信하였다. 매양 史書를 읽을 때마다 節義에 죽은 사람을 보면 반드시 歔歔를 고치고 마음으로 思慕하였다. 光海君 辛酉年(1621) 謁聖^{알성}文科에 及第하였으나, 이때는 權勢 있는 집 子弟가 아니면 選任되지 못하던 터라, 試驗을 주관한 자가 끝내 公을 빼 버렸지만 公은 태연하였다.

仁祖 甲子年(1624)에 上이 李适^{이팔}의 난으로 公州로 播遷^{파천}해 있으면서 庭試文科를 열었는데 公이 여기에서 壯元하여 前例대로 成均館 典籍에 除授되었다.

司憲府 監察로 奏請使의 書狀官이 되어 明 나라에 가서는 仁祖임

금에게 誥命^{고명}과 冕服^{면복}을 내려 줄 것을 주청하였는데, 일을 주관하는 자가 이를 저지시켜 일이 거의 成就되지 못 할뻔 하였으나, 끝내 所請을 達成하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실로 公이 周旋한 힘이 컸다. 臺諫^{대간}이 하찮은 일로 使臣 일행의 官職 削除를 舉論하였으나, 上이 멀리 航海해서 使命을 完遂했다 하여, 모두 敍用할 것을 명하였다. 公은 이로부터 侍從을 거쳐 高靈縣監^{고령현감}으로 나갔다. 丁卯年(1627, 仁祖 5)에 姜弘立이 後金의 先導가 되어 우리 國境을 침범하자, 公이 縣兵을 거느리고 적을 토벌하기 위해 不撤晝夜^{불철주야} 달려갔으나, 朝廷이 벌써 오랑캐와 講和하여 오랑캐는 철수해서 돌아갔고, 姜弘立은 그대로 우리 朝廷에 유치되었다.

公은 이때 正言이 되어, 오랑캐에게 항복해서 故國을 배반하여 해친 姜弘立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丙子年(1636, 仁祖 14) 봄, 掌令에 除授되었는데, 이때 오랑캐가 使臣을 보내와서 後金의 汗(칸)을 皇帝라고 칭하라는 일을 논의하자, 公이 疏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臣이 일전에 義州府尹 李浚의 狀啓를 보니, 바로 後金의 汗(곧 淸太宗)이 皇帝라 自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李浚이 하늘에는 두 개의 太陽이 없다는 등의 말로 그들을 물리쳤으므로, 臣은 자신도 모르게 기뻐서 한없이 펄펄 뛰면서, 우리 朝廷의 禮義와 名分이 너무도 빛남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활을 가진 하찮은 武夫도 오히려 스스로 지킬 줄을 알아 이처럼 능름하게 굴하지 않고 항거하였는데, 하물며 聖上의 廟堂에 있는 諸臣들이야 어찌 한 武夫만 못하겠습니까?

臣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부터 大明天子가 있다고만 들었을 뿐입

니다. 지금 이 오랑캐의 말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전에 賊臣적신 姜弘立이 오랑캐를 이끌고 갑자기 들이닥치므로, 大駕가 播遷^{파천}하여 그들과 講和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만일 그때에 姜弘立의 머리를 먼저 梟示^{효시}하여 우리의 당당한 大義를 日星처럼 밝게 내세웠더라면, 西北쪽의 오랑캐들이 아무리 이리 같은 惡毒한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우리 조정의 아름다운 禮儀에 감동하여 欽慕^{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計策은 내지 못하고 오직 姜弘立을 얻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겨 그를 의지하여 安危의 기틀로 삼았으니, 저들이 우리를 오랑캐로 만들고 臣妾으로 만들려는 것이 실로 이 때문입니다.

臣은 僭帝⁵⁸⁾참제⁵⁸⁾의 說을 듣고부터 膽담이 찢어질 듯하고, 氣가 꺾인 듯하여, 차라리 魯仲連처럼 죽어서 차마 그 말이 내 귀를 더럽히도록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궁벽한 바닷가에 있지만, 본디부터 禮義의 나라로 天下에 알려져서 天下가 <小中華>라 일컬었고, 歷代 제왕들이 서로 이어서 대대로 藩職^{번직}을 닦아, 事大하는 一片丹心이 정성스럽고도 근심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오랑캐를 받들어 구차하게 눈앞의 安逸만 도모한다면, 비록 시간은 조금 연장된다 할지라도, 祖宗에게는 어찌하며 天下後世에는 어찌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胡差^[청나라의 사신]가 帶同한 무리는 절반이나 새로 歸附^{귀부}한 西韃^{서달}⁵⁹⁾이었다고 하니, 대저 西韃는 우리에게 진작 交聘^{교빙}의 禮도 없었는데 어찌 僨接^{빈접}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거절하고 받

58) 僭帝: 제멋대로 황제라고 칭함.

59) 西韃: 서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몽고족을 말함.

아들이지 않았어야 옳은데도, 그들이 境內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되었지만 廟堂에서 전혀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臣은 그 廟堂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평상시부터 이미 직무를 게을리 해오다가 災殃^{재앙}이 눈앞에 닥친 오늘날에도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君父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감정이 못나라 사람과 越^월나라 사람이 서로 敵對^{적대}視^시한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다면 오랑캐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은 실로 우리 廟堂에서 招來^{초래}한 것입니다. 아, 事態가 이미 급박하게 되어, 무릇 血氣가 있는 자는 모두 분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간이 떨리는 지경인데도, 元帥는 山陵에 한가로이 앉아 있고, 聖上께서는 묵묵히 주종궁궐에 거처하시어 한 가지 일도 기획하신 것이 없으니, 臣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臣은 그옥이 살펴보건대, 오랑캐의 뜻은 지나치게 떠벌리고 과시하여, 우리를 협박해서 억지로 몰아붙이는 데 불과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天子를 自稱하여 皇帝의 자리에 임하려 한다면, 의당 스스로 제 나라에서 皇帝 노릇을 하고, 제 나라 풍속을 號令할 것이지, 왜 꼭 우리에게 묻겠습니까? 그들이 盟約을 어기고 생트집을 잡아서 으르렁대어 우리의 입을 이용하여 장차 온 천하에 '朝鮮이 우리를 天子로 높였다'고 칭하려는 것입니다.

殿下께서는 무슨 面目으로 이 하늘 아래 서시겠습니까? 臣은 청컨대, 빨리 그들 使臣을 잡아, 盟約을 위배하고 건방지게 呼稱^{호칭}한 죄를 책망하여 죽여서, 禮義의 거대함과 이웃나라의 道理를 밝게 보여준 후에, 그의 首級을 緘封^{함봉}하고 그들의 文書까지 함께 봉하여 明에 奏聞^{수문}하면 義氣가 더욱 伸張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臣의 말을 망령되게 여기신다면, 먼저 臣의 머리를 베어 오랑캐에게 사

과하소서. 臣이 어찌 차마 君父로 하여금 모욕을 받게 하고서 구차히 살겠습니까? 아, 臣이 아무리 나약하다 해도, 오히려 한 장벽을 타고 넘어서, 오랑캐의 칼날에 몸을 바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東邦의 수 천리안에 어찌 義士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現在 黃海道와 平安道の 백성들은 지난날을 징계하고, 痛憤^{통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이면서 맹세코 이 오랑캐들과는 한 세상에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니, 이는 진실로 바람을 타서 불을 붙이듯이 의로운 勇氣를 鼓吹시킬 기회입니다.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기회에 있고, 保存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있습니다. 오직 殿下께서는 哀痛해 하는 教旨를 빨리 내리시어, 八道の 선비들에게 檄文을 보내시고 召集하여 몸소 駟馬의 수레를 타고 그들에게 나아가 직접 對面하여 大義를 諭示^{유시}하신다면, 殿下의 臣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그 누군들 분발하여 앞서고 뒤서서 서로 다투어 죽기로써 忠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上이 批答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그대의 정성은 매우 가상히 여기나, 오랑캐의 使臣을 斬首^{참수}하는 일은 너무 이른 듯하니, 천천히 그들의 행위를 살펴서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때 成均館 儒生들도 疏를 올려 오랑캐의 使臣을 베어 죽이기를 청하자, 그들이 두려워하여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中外가 흠뻑하므로 完城君 崔鳴吉이 극력 和議를 주장함으로 의논하여 譯官을 보내서 오랑캐의 실정을 탐지하였으니, 실상은 다시 和親을 꾀하자는 뜻

이었다. 그러자 公은 또 大義를 내세워 崔鳴吉을 面斥하니, 최명길도
깊이 원망을 품었다. 다른 本에는 '최명길도 깊이 원망을 품었다[鳴
吉深銜之]'는 다섯 글자가 없다.

12월 13일에 오랑캐에 대한 警報가 갑자기 이르렀는데, 이때 平壤
府 庶尹이 결원되었으므로 崔鳴吉이 體察使 金瑬^{김류}에게 말하기를,

“和議를 배척하여 오랑캐의 침범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洪翼漢이
다. 지금 흥익한을 두고 누구에게 西路의 職任을 맡길 것인가.” 하고
는, 드디어 平壤府 庶尹을 除授하여 빨리 부임하기를 재촉하였다. 많
은 사람이 와서 공을 위문하였으나 公은 조금도 언짢은 기색이 없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내 평소의 마음이다.” 하자, 듣는 자
가 감탄하였다.

14일에 謝恩肅拜^{사은숙배}하고 출발을 재촉하던 차에 오랑캐의 騎兵
이 벌써 西郊에 닥쳐왔다. 드디어 母親을 모시고 江華의 마니산에 가
서 머물게 한 후, 교동을 거쳐 서쪽으로 任所를 향해 달려, 오랑캐의
屯營을 뚫고 20여 일 만에 비로소 평양의 寶山城에 득달하였다. 이때
城中에서는 元帥 金自點의 패배 소식을 듣고 인심이 흉흉하여, 일시
에 軍隊가 흩어졌으므로 公이 드디어 檄文^{격문}을 내어 軍兵을 招集하
였는데, 그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전 오랑캐가 깊이 쳐들어오던 처음에 本府에 官長이 없어서 民
衆이 통솔되지 못하여 兵火를 유독 많이 입었는데, 將官이나 牙兵까
지도 동시에 이산되었으니, 이는 실로 公務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형
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혈혈단신으로 흩어진 백성들은 과연 어

느 곳에서 곤욕을 당하는지,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측은한 마음을 어이 다하랴. 지금은 本官이 本府에 부임하였으니, 각기 父母와 妻子를 거느리고 즉시 돌아와 힘써 城郭을 고치고 모이라. 또 元帥府의 軍兵이 도망하여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미 軍律을 범했으면 결코 용서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오직 마음을 고쳐서 스스로 일신할 것을 도모하여, 적의 形勢를 정탐하거나, 적의 뒤를 追擊하거나, 밤을 이용해서 적의 陣營을 공격하거나,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로 붙잡아 온다면, 장래의 戰績을 수립할 것을 기약하여, 지난날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것이다. 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 각기 힘써 하라” 하였다.

그러자 인심이 조금 진작되고, 士氣가 분발하여 다투어 서로 돌아와 모였다. 공은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 책략을 세워 守備할 武器가 대략 갖추어 저서 마침내 그 城을 보전하게 되었다.

적이 침구해온 처음에 上이 江華島로 가려다가 南大門에서 大駕대가를 돌려 南漢山城으로 들어갔는데 포위가 급박해졌다. 적이 斥和臣을 요구하여 분풀이를 하려 하자, 崔鳴吉이 드디어 廟堂과 의논하여, 公 및 尹公 集·吳公 達濟를 보내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尹集·吳達濟 두 분의 傳에 나타나 있다.

丁丑年(1637, 仁祖15) 2월 12일 밤에 平安道 都事 田關^{전벽}이 洪公의 押送을 지휘하라는 勅旨^{칙지}를 받고, 甑山縣令^{증산현령} 邊大中을 시켜 평양 豆里島에서 공을 체포, 오랑캐 두목의 陣營으로 결박하여 보냈는데, 이때 공이 미처 밥을 먹지 못하였으므로 결박을 풀어 밥을 먹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邊大中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殷山縣

監은산현감 李舜民이 와서 보고 위로하자, 公이,

“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개미 같은 잔악한 이 목숨이야 논할 것도 없지만,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인가? 더구나 임금의 命을 어찌 감히 도피하리라고 이렇게까지 속박하는가?” 하였다. 이순민이 이 말을 듣고 邊大中을 애써 타일러, 잠시 그 결박을 풀어서 밥을 먹였다. 밤 二更에 강을 건너서 서쪽을 향해 밤낮으로 달려, 5일 만에 義州에 도착하니, 府尹 林慶業이 公을 맞아들여 앉혀 놓고, “洪公의 이 행차는 참으로 대장부의 일입니다. 살아서는 이미 大義를 붙들었고, 죽어서는 史冊에 빛날 것이니 다시 무엇이 한이 되겠습니까.”하자, 公이,

“나의 上疏 한 장 때문에 禍敗^{화패}가 이토록 극심하니, 죽어도 속죄를 다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기타의 일을 논하겠습니까? 다만 빨리 가서 君命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林慶業은 公의 行資의 有無를 물어보고 잘 갖추어 주선했다.

드디어 彌串僉使^{미관첨사} 張超를 시켜 押送하였다. 그리하여 通遠堡^{통원보}에 이르자, 胡人 네 사람이 와서 결박해 가는 이유를 물으므로, 그 이유를 갖추어 알려 주니, 胡人이, “나는 바로 칸[汗]의 家人이오.” 하고는 이어 전대를 풀어 음식물을 꺼내어 주면서 말하였다.

“먼 길을 오느라고 아마도 배가 몹시 고프겠이오. 公이야 무슨 죄가 있겠소. 瀋陽에 이르면 칸[汗](註 칭태종)이 반드시 放免하여 歸還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25일에 비로소 瀋陽에 도착하였는데, 公이 가는 길에 우리나라 사람이 줄을 이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悲憤^{비분}을 금치 못하였고, 또 낙타 위에 우리나라 御寶^{어보}가 실려 있음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였다. 이미 그곳에 당도

하자, 胡服을 입은 華人들이 다투어 와 둘러서서 모두 감탄하면서 번갈아 가며 위로하였다.

“참으로 忠臣이다. 만일 大明皇帝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어찌 놀라지 않으시랴. 男兒가 이 정도면 죽어도 빛이 있으리라.” 하였다.

28일에 칸[汗]이 공을 別館에 가두도록 하고, 博士官을 시켜 잔치를 베풀도록 하였는데, 주방 사람이 또한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훌륭하게 차려 와서 하는 말이,

“이는 皇帝가 下賜한 것이니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자, 공이,

“나는 다만 한 번 죽는 일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어찌 먹겠느냐.” 하고, 모두 끝내 받아먹지 않았다. 胡將 龍骨大가 館所에 와서 通譯人을 시켜 전하기를,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하자, 공이,

“나는 斥和를 으뜸으로 제창한 것 때문에 잡혀왔다” 하니, 용골대가,

“너희 나라 朝官 가운데 斥和를 提唱한 자가 매우 많을 것인데, 어찌 너 한 사람 뿐이냐?” 하므로, 공이 웃으면서,

“내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겠느냐.” 하였다.

龍骨大는 再次 三次 힐문하기를,

“너 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니 숨기지 말고 바르게 고하라” 하자, 공이,

“지난봄에 네가 우리나라에 使臣으로 왔을 때, 네 머리를 베라고 청했던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뿐이었다” 하니, 용골대도 웃으면서

가 버렸다.

3월 5일에 칸[汗]이 군사의 위세를 도열 시켜 놓고, 장차 불러들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공이 막 밥을 먹는 중이었으나 태연한 낯빛으로 평상시처럼 다 먹고는 공을 수행했던 하인 蒼頭^{창두}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汗^{칸(청태종)}이 반드시 나를 굴복 시켜 辱을 보이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니, 오늘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이윽고 졸개들이 매우 급하게 부르므로, 문밖에 이르자마자 공의 두 손을 묶어가지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공은 걸음걸이가 더욱 편안하였다. 下人은 공이 혹 격노할까 염려하여 곁에서 재촉하자, 공이 웃으면서,

“男兒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의당 조용히 죽음에 임해야 할 것인데, 어찌 허둥지둥하여 말이나 행동이 品位를 잃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뜰아래에 이르러서는 우뚝 외따로 서자, 여러 胡人들이 모두 일어서서 공을 관찰하였다. 칸[汗]이 공의 결박을 풀게 하고는 공에게,

“네가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이같이 거만하게 서 있느냐?” 하자, 공이,

“내 무릎을 어찌 너에게 꿇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칸이,

“너는 왜 먼저 盟約을 위배하고 和議를 배척하여, 우리 두 나라가 틈이 벌어지게 하였느냐?” 하자, 공이,

“너는 우리나라와 兄弟가 되기로 약속을 해 놓고, 도리어 皇帝를

自稱하여 우리를 臣下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盟約을 위배한 실수가 과연 너에게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하니, 칸이 말이 막혀 한참 동안 있다가,

"네가 이미 으뜸으로 和約을 排斥하였으니, 그 뜻은 반드시 우리 무리를 섬멸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大軍이 나갔을 때에 어찌서 맞아 싸우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사로잡혀 왔느냐?"하므로, 公이,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다만 大義 뿐이다. 成敗와 存亡은 論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나라 臣民들이 한결 같이 나의 뜻과 같았다면 너희 나라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하고는 곧 옷을 벗어 땅에 던지고 별거벗은 채로 말하기를,

"듣건대, 너의 나라는 刑殺할 때에 반드시 마디마디 저며서 죽인다고 하던데, 왜 빨리 이 刑罰을 시행하지 않느냐?" 하였다. 그러고는 公이 붓을 찾아 종이에다 쓰기를,

"大明朝鮮國의 縲臣^{유신} 옥(獄)에 갇힌 臣下 洪翼漢은 斥和한 사실의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으나, 言語가 서로 익숙하지 못하니 文字로 써서 告하겠다.

대저 四海 안의 모든 나라가 兄弟가 될 수는 있으나, 天下에 두 아비를 가진 자식은 없는 것이다. 朝鮮은 본디 禮義를 숭상하였고, 諫官^{찬관}은 오직 곧게 판단하는 것을 風度로 삼기 때문에 지난해 봄에 마침 言官의 職任을 받고 나서, 너의 나라가 장차 盟約을 어기고 稱

帝稱제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盟約을 어진다면 이는 형제의 義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요, 만일 稱帝를 한다면 이는 天子가 들어 되는 셈이다.

한 집안에 어찌 兄弟의 義를 어그러뜨릴 수 있으며, 天地 사이에 어찌 두 天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너의 나라는 朝鮮에 대해 새로 交隣의 盟約이 있었으나, 너의 나라가 먼저 배신하였고, 大明은 朝鮮에 대해 옛날부터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돌보아 준 恩澤이 있어 더욱 깊이 결탁되었는데, 깊이 결탁된 큰 은택을 잊어버리고 먼저 배신한 공약을 지킨다면 理致에 매우 어긋나고 事理에 매우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의논을 으뜸으로 건의하여 禮義를 지키려 한 것은 바로 臣下의 직책이다. 어찌 다른 의도가 있겠느냐. 다만 臣子の 분수에 맞는 道理라는 것은 의당 忠孝를 극진히 할 뿐인데, 위로 君親이 있지만 모두 扶護하여 安全하게 해 드리지 못하여, 지금 王世子와 大君이 모두 포로가 되어 있고, 老母의 存沒마저도 모르는 실정이다. 진실로 함부로 진술한 疏文 한 장으로 말미암아 家庭과 나라가 이처럼 禍敗^{화패}를 당하였으니, 忠孝의 道가 전혀 없어진 셈이 되었다. 스스로 나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야지 용서받을 수 없는 몸이니, 비록 만 번 誅戮^{주륙}을 당할지라도 실로 달게 생각하는 바이다.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넓은 하늘을 날아 故國으로 돌아가 노닐다면 이보다 상쾌할 일이 또 있겠느냐. 이 밖에는 다시 할 말이 없으니, 오직 어서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니, 칸[汗]이 漢人을 시켜 通譯하여 들어 보고는 左右를 돌아보고,

“이 사람은 어렵겠군.” 하고는, 인하여 公의 斥和疏를 내보이면서, “내가 어찌 皇帝가 될 수 없단 말이나?” 하므로, 公이, “너는 바로 天朝의 叛賊^{반적}인데 어찌 皇帝가 될 수 있단 말이나.” 하자, 汗이 크게 노하여, 마침내 두 胡人을 시켜 公의 양쪽에서 저드랑이를 끼어 붙들고 나가게 하였으니, 이 두 胡人은 바로 그 나라에서 사람을 刑殺하는 자들이었다.

公의 下人은 잡아서 別所에 가두었는데, 그 후에 公의 鞍馬와 옷과 이불 등의 물품만 譯人 金汝亮에 의해 부쳐왔고, 公의 下人까지도 돌아왔다. 대체로 公의 抗虜書는 곧 張超가 전해 온 것인데, 公의 下人이 拘留되기 전에는 始終 공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다가 돌아와서 말하였고, 또한 公의 日記를 가지고 왔다. 公의 義를 사모한 華人은 다들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하였다.

처음 江華島가 함락되었을 때 公의 長子 晬元이 公의 大夫人과 公의 繼室(後妻) 許氏를 모시고 마니산에서 다시 교동으로 향하여 가다가 저우 浦口에 이르렀을 적에, 오랑캐의 騎兵이 갑자기 접근하여 許氏가 적에게 잡혔다. 許氏가 辱을 당하지 않으려고 적에게 항거하자 칼날이 빗발치듯하므로 晬元이 문득 자기 몸으로 가리어서 칼날을 모면하게 하였다. 그러나 晬元이 오랑캐 칼에 맞아 죽자 許氏는 스스로 물에 빠져 자결하였고, 晬元의 아내 李氏도 晬元의 곁에서 스스로 목 찢어 죽었으니, 丁丑年(1637, 인조15) 正月 25日이었다.

하루 앞서 公의 次子 晬寅은 벌써 적을 만나 마니산에서 죽었던 것이다. 오직 大夫人과 公의 두 딸만이 늙고 어린 까닭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그러나 公은 이 사실을 미처 몰랐다. 公이 심양으로 잡혀가

는 길에 宣川에 당도하여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家屬의 存沒을 매우 염려하였고 또 경계하였다. 그 편지에는,

“너희들은 나를 생각지 말고 오직 너의 할머니를 잘 侍奉하고, 끝까지 몸을 잘 보호하여 祖上의 祭祀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朝廷에서는 公의 大夫人에게 종신토록 매월 廩料^{음료}를 지급하였고, 아울러 公의 두 딸에게도 음료를 지급하였다.

孝宗 初期에 特命으로 그 子孫을 錄用하였고, 다시 公에게 承旨를 贈職하였다. 公이 막 죽었을 때 昭顯世子가 명을 내려 尺帛에다 招魂해서 본국으로 보내었다. 公은 끝내 아들이 없었으므로, 養子인 應元이 公의 옷과 신을 平澤縣 서쪽 鯨井里의 先塋에 매장하고 夫人 許氏를 合葬하였다. 그 부근의 儒生들은 그 墓 밑에 사당을 짓고 享祀를 하고 있다.

公은 性品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의 喪을 당해서는 3년 동안을 몹시 애통해 하였고, 어머니를 섬기는 데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써, 술을 많이 마실 수는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싫어한 때문에 어머니 곁에서는 한 번도 얼굴이 발개지도록 마셔 본 적이 없었다. 公의 文章은 淸健하고 警敏하며 氣格이 奇逸하여, 그 한마디 한 구절도 모두가 忠義에서 나온 것이었다. 평생 著述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모조리 江都의 변란으로 유실되었다. 심양에 체류되어 있을 때 마침 3월 삼짇날을 당하여 지은 시(詩)에,

陽坡細草拆新胎	양지바른 언덕에 새싹이 돋아나니
孤鳥樊籠意轉哀	새장 속의 외로운 새 마음 더욱 슬프구나
荊俗踏青心外事	옥중 죄인踏青놀이 생각이나 할쏘냐
錦城浮白夢中來	금성에서 들던 술잔 꿈속에 떠오르네
風飜夜石陰山動	밤바람 돌을 날려 陰山이 진동하고
雪入春澌月窟開	봄물엔 눈이 섞여 서쪽 땅이 열리누나
飢渴僅能聊縷命	飢渴기갈 속에 실 날 같은 목숨 겨우 이어 가노니
百年今日淚盈腮	인생 백년 오늘에 눈물이 뺨 적시네.

하였는데, 士林들이 모두 傳誦^{전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公은 萬曆 丙戌年(1586, 宣祖19)에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나이 52세였다.

校理 尹集과 修撰 吳達濟

尹集은 南原人으로 字는 成伯, 號는 林溪인데, 1606년(宣祖 39)에 태어났다. 13세 되던 해에 아버지 衡甲이 별세하자, 伯兄인 榮가 文行을 가르쳐서 독실하고 지극하여 게으르지 않았다. 丁卯年(1627, 仁祖5)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1631년(仁祖 9) 文科에 급제하여 槐院^{개원}(承文院)에 예속되고 이어 侍講院에 옮겨져서 說書가 되었다. 또 史局의 천거가 있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司書에 승진되었다. 喪을 마치고는 司諫院 正言이 되었는데, 尹榮는 이때 吏曹의 郎官이 되어 형제가 서로 경계하기를,

“우리들이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데도 함께 淸班에 들었으니, 이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이다.” 하였다. 이윽고 弘文館의 修撰·校理가 되고, 獻納·吏曹의 郎官을 거쳐 成均館 直이 되어 嶺南에서 試士하였으니, 이때가 丙子年 9월이었다. 미처 復命하기도 전에 道中에서 獻納에 제수되었고, 겨울에 다시 校理가 되었다. 이때 和議가 다시 행해졌는데, 崔鳴吉이 실상 그 일을 주관하면서 正人들이 그 사이에 反論을 제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謀議가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을 주달할 때에는 承旨와 史官을 물리칠 것을 청하였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 一種의 사특하고 해괴망측한 말이 있어 위로 天聰^{천충}을 가리고, 아래로 人望을 끊어 버리니, 장차 天地가 캄캄해지고 義理가 단절되어 나라가 나라 꼴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 꼴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和議가 國家를 망치고 宗祀를 단절시킨 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일은 아니나, 이제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天朝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 바로 父母이고, 奴賊^{노적}은 우리나라에 대해 바로 父母의 원수입니다. 臣子가 된 사람으로서 父母의 원수와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고, 부모는 돌아본 채도 하지 않고 태연하여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壬辰倭亂 때의 일로 말하면, 아무리 미세한 일까지도 모두 皇帝의 힘이었으니, 우리나라로서는 잠시도 그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가 京都를 침범하여 皇陵을 더럽혀, 놀란 마음 밖에 사무치고 비참한 소식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라와 함께 쓰러질지언정 의리를 구차하게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군대가 약하고 힘이 미약하여 비록 다 從征하지는 못하지만, 어찌 차

마 이런 때에 和議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聖上께서 혁연히 분발하시어 義를 들어, 그들을 斥絶하여 中外에 布告하고 天朝에 上奏하시니, 우리 東土 수천 리가 거의 오랑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 요즈음 권면하는 칙서가 내리자마자, 사악한 논의가 끝이어서 일어나니, 人心의 분개함을 다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承旨와 侍臣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은 아, 너무 심합니다. 나랏일을 꾀하는 말은 귀엣말이 아니고, 君臣間에는 密語를 할 의리가 없는 것이니,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이 진정 義에 입각한 것이라면 비록 천만 명이 듣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義가 아니라면 깊은 방구석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니 하늘이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안으로는 朝廷과 밖으로는 백성들이 모두 崔鳴吉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 판인데, 殿下께서는 九重宮闕에 깊숙이 계시어 혼자만 모르십니다. 吳達濟의 소는 실로 公論에서 나온 것인데, 곧바로 엄한 꾸지람을 받았으니, 雷霆처럼 같은 殿下의 노여움 아래 꺾이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李敏求는 諫長(大司諫)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公論을 구제하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引避하여 前啓를 감자기 정지하였으니, 기타 신진 후배들이 더러운 習俗에 불쫓은 것은 꾀이할 것도 없습니다. 최명길의 筭子차자는 매우 장황하여 天聽을 현혹시키되, 드디어 朱子와 같은 賢人 및 우리나라 다소의 名賢을 들어 그들과 和議를 주장했다고 지적하여 구실을 삼았습니다. 또 지난날 오랑캐를 斥絶했던 것은 聖上の 허물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는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하였으며, 또 이어서 '生靈이 도란에 빠지면 宗社에도 祭祀를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 것 잡을 수없이 변하는 言辭가 聖上의 마음을 요동시켰습니다. 대저 밖으로 강한 寇賊^{구적}의 형세를 끼고서 안으로 자기 임금을 협박하는 일을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臺論대론이 비록 일어났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청나라에 글을 보내는 것도 불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朝廷을 朝廷으로 보지 않고, 臺閣^{대각}대각을 臺閣으로 보지 않은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 말은 殿下의 나라를 망치고도 남음이 있는 말인데도, 殿下께서는 그의 罪를 바로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말을 들어 줌으로써 睿啓가 한창 치성하였지만 國書가 이미 江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아, 국가에서 臺諫^{대간}대간을 설치하였으나 또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尹榮가 이 疏를 보고, “이런 말은 실로 너무 지나치니, 골라서 삭제해야겠네.” 하였으나, 公은 수긍하지 않고, “나라가 곧 망해 가는 지경인데, 어찌 말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職分이 있는 곳에 몸과 마음을 바칠 뿐입니다” 하였다. 그 上疏가 올라가자, 上이 마침내 宮中에 머물러 두고 내려 보내지 않았다.

12월에 大駕를 호종하여 南漢山城에 들어갔는데, 上이 城守의 計策을 급히 정하자, 公이 行闕 아래에서 강개하여 倡言하기를, “天意가 분발하시니, 나랏일이 거의 가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드디어 물러 나와 同志들과 함께 急務를 조목조목 써서 올렸는데, 맨 첫 머리에, “예로부터 戰守의 계책을 저지시켜 실패하게 한 것은 和議가 바로 그 빌미입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聖志가 굳게 정해지셨으니, 혹 다시 화의를 거론하는 자가 있으면 軍中에 효시하여 衆志를 단합시키시기 바랍니다.” 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師律을 거듭 엄중히 다스려서 軍情을 격려 권장하고, 軍糧을 수습하고 武器를 정돈하는 등

의 일이었다.

20일에 公이 面對하여,

“臣이 北城을 督戰하매 北城의 士卒이 모두 出戰을 원하고 있었으나, 論議가 모순이 많으므로 臣이 體察府에 말하였지만 또한 들어주지 않았으니, 이는 다만 聖上의 결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엇그제의 싸움에서 士氣가 백배나 분발되어, 만에 하나라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음을 臣은 자세히 알았습니다. 賊騎가 아무리 突出하였다가도 砲聲을 한번 듣기만 하면 되돌아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였다. 公은 群議가 世子를 오랑캐 진영에 보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城上으로부터 闕下에 내려와서 鄭公 蘊을 요청하여 함께 入對해서 極言하려 하였는데, 辭氣가 강개하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때에 여론이 모두 분개하게 여김으로써 그 의논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入對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公의 뜻은 오히려 끝없이 분개하여,

“무슨 일이든지 뿌리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무성하게 퍼져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지금 崔鳴吉이 아직도 廟堂에 있으니, 끝내 반드시 邪意사의를 다시 일으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三司의 官員들을 맞아 일제히 闕下에 모이게 해 놓고, 公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義는 반드시 和議를 주장한 사람을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모두 서로 돌아보며 말 한마디 없자, 大司諫 朴潢이,

“저들은 바로 孤雛腐鼠⁶⁰⁾ [사람을 천히 여겨 이르는 말]와 같으니 彈論

60) 孤雛腐鼠: 외로운 병아리와 썩은 쥐.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는 오늘날의 急務가 아니므로 추후에 논하여도 늦지 않다.” 하니, 여러 사람이 바람에 쏠리듯이 그를 따르므로, 公이 力爭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公은 매우 통절하게 三司를 지척하니, 公을 좋아하지 않는 流輩가 많았다. 公은 또 上疏를 올렸다.

“외로운 城이 危迫해진 오늘날을 당하여 講和로 敵을 퇴각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먼저 講和하기를 청하면 오랑캐가 더욱 우리를 가벼이 봄으로써 和議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戰守하여, 저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보인 다음이라야 講和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1637년(仁祖 15) 정월 초하룻날에 또 쇠고기와 술을 오랑캐에게 보낼 것을 논의하자 公이 또 소를 올렸다.

“廟堂의 議論이, 한 使臣을 보내어 歲饋使^{세게사}라고 명칭해서 속로는 偵探을 하려 한다고 하여, 위로는 聖聰을 속이고, 아래로는 群情을 欺瞞하여 城下의 맹세로 북쪽의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러 (尹集은) 서럽게 통곡하였다.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勤王軍이 일제히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하니 안팎이 合勢하여 죽기로 한 번 싸우고자 한다면 三軍의 士氣도 반드시 倍加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 번 싸워 지키자는 뜻을 보이소서.”

廟堂에서는 끝내 쇠고기와 술을 보냈으나, 오랑캐가 받지 않고, 또 ‘칸[汗]이 직접 大軍을 거느리고 나온다.’ 하였다. 그러자 朝廷의 의논이, 使臣을 보내어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를 묻고, 이어서 起

居의 안부를 물어 오도록 하려 하므로, 公이 또 疏를 올려 그 옳지 못함을 극력 말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이때에 城의 포위가 급해지자, 國書에다 某字(臣)를 쓰려 하므로 公이 드디어 獨對하여 和議를 주장한 臣下들을 극력 공척하여 重律로 다스리기를 청하고, 또 임금을 잇고 나라를 저버린 채 결단성 없이 묵묵하게 大勢에 따른 三司의 죄를 말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公을 절절히 하면서 輕薄하여 명예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적하여, 반드시 公을 위태롭게 하려 하였다. 이윽고 오랑캐의 書字가 왔는데, 말이 매우 悖慢^{배만}해서 으므로, 公이 또 入對하여,

“이제 凶書가 오게 된 것은 모두 崔鳴吉의 죄입니다. 어제 그 答書를 보니 이는 講和가 아니고 降伏이었습시다. 臣子의 입장으로 차마 이런 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그 간악한 정상을 모두 폭로하였다.

7일에 南陽府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南陽府使는 바로 公의 兄인 榮^영이었다. 公이 遞職^{배직}할 것을 청하자 上이 允許하였다.

이윽고 마침내 吳公 達濟와 함께 瀋陽으로 잡혀가 같이 죽었다.

公은 稟質이 淸介하고 性氣가 直截^{직절}하며 총명이 뛰어나서 한번 눈에 스친 것은 모두 기억하였다. 젊어서 집에 있을 때부터 반드시 孝友를 우선으로 삼았는데, 아버지가 疾病이 있을 때는 항상 근심스러운 낮빛으로 지냈고, 三年喪을 치르면서는 誠禮가 갖추어져 극진하였다. 兄弟 3인이 한 방에 거처하면서 學業에 힘쓰고 生業을 일삼지 않았으며, 해진 옷에 거친 밥을 먹고 살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세 차례나 臺閣에 들어가 言責을 스스로 擔任하였고,

네 차례나 經筵에 들어가 지성으로 옳은 일은 순종하고 나쁜 일은 바로잡았다. 그는 修養한 바가 매우 바르고 지키는 바가 매우 확고하여 끝내, 大節을 성취하였으니 不世出의 君子라 이를 만하다. 그가 죽은 무렵에 虜와 辨析한 것이 가장 명백하게 反抗한 것이었는데도, 質館의 宰臣이 평소부터 公과 서로 좋지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宰臣] 전한 말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그 후에 宰臣이 돌아와서 친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虜와 함께 서로 좋아한 것이 어찌 本心에서 나왔겠는가. 다만 王室을 위하여 諸般事를 彌縫^{이봉}하려고 한 것인데, 尹某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나를 보고 꾸짖기를 ‘오늘날의 일은 비록 不得已한 形便에서 나왔지만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런데 또 어찌 차마 이토록 깊이 결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에게 차마 듣지 못할 말들을 하였으니, 이는 목은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일세. 그러나 저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말로 나를 모욕하여 스스로 虜의 노여움을 범하였으니, 너무도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 하겠다.”

公에게 遺書 및 記行 1冊이 衣帶 속에 들어 있었으니, 죽을 무렵에 虜人에게 搜去 되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였다.

公의 配位 金氏는 淸陰 金尙憲의 從女이다. 以宣과 以徵 두 아들을 두었는데, 조정에서 그들을 錄用하고 매달 廩料를 지급하였다. 뒤에 金氏의 초상 때는 特命으로 葬事를 도와주었으니 이는 특별한 恩數이다.

吳達濟의 字는 季輝이고 海州人이다. 19세 때인 丁卯年(1627, 仁祖 5)의 司馬試에 합격하였고, 26세 때 文科에 壯元하여, 成均館 典籍으로부터 兵曹佐郎·侍講院司書·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 弘文館의 修撰을 역임하고, 丙子年(1636, 仁祖14) 5월에 副校理가 되었다. 이 때에 後金의 오랑캐가 帝號를 僭稱하였으나, 朝廷에서는 斥責을 하고서 다시 通使를 하려 하였으니, 여기에 대한 말은 洪學士傳에 있다. 公이 疏를 올리기를,

“臺閣이란 公論이 있는 곳입니다. 公論이 한번 나오면 비록 임금의 至尊으로도 위협하지 못하며, 大臣의 중한 위치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집요하게 임금의 뜻을 迎合하는 일개 憊臣^{헐신}으로 감히 公論과 서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조정에서 이미 和議를 斥絶한 뒤에 崔鳴吉이 사신을 虜에 보내자는 뜻을 내었으니, 그의 간사하고 기만적인 의논은 진실로 가증스러운 것인데, 다만 財擇하여 取捨하는 권한이 君上에게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차치하고 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臺諫^{대간}대간이 廟堂의 謀策을 그르다고 여겨 다투어 서로 引避하고 의논이 매우 격렬해 지자, 玉堂에서도 義를 빙거하여 論辨하였으니, 이야말로 三司의 公論이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鳴吉은 上意의 所在만 믿고 국가의 事勢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登對하던 날에 감히 기만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진술하여, 위로는 天聽을 惑亂^{혹난}시키고 아래로는 公議를 위협으로 제재하였으며, 심지어 ‘臺論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한쪽으로는 使臣을 보내야 합니다.’고까지 하였으니, 예부터 臺論을 돌아보지 않고 제 뜻대로 直行하는 술책으로 그 君上을 인도한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윽고 玉堂으로부터 面斥을 당하고 群議가 다투어 변론하기에 이

르러서는, 의당 위촉하여 두렵고 부끄러운 태도를 갖고서 物議가 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또 거만하게 筭子차자를 올려 오직 和議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하였으니, 그 방자하여 꺼림이 없는 죄는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虜와 不和의 단서가 이미 열려 조정에서 人心을 위로할 수 없게 되자, 公이 다시 疏를 올려 時務 8條를 논했는데, 그 요점은 聖學을 권면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이해 저울에 공이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虜變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徒步로 大駕를 호종하여 南漢山城에 들어갔다. 일이 급해지자, 公과 尹集을 결박하여 虜營으로 송치하였고, 洪翼漢은 西路의 任所로부터 虜의 소굴에 곧바로 송치되었다.

대체로 行朝가 포위를 당한 후 밖으로는 諸路의 勤王하는 군사들이 곳곳에서 敗走하고, 안으로는 軍糧과 器械가 이미 모두 다하였다. 朝廷에서는 다만 廟社와 元孫이 있는 江都를 국가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삼았는데, 하루는 갑자기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조정에서는 다시 믿을 곳이 없게 되었다. 虜가 매우 급히 上에게 出城할 것을 청하자 衆議가 또 다르려 하므로, 尹公이 상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부수어 諫爭하려 하니 公이,

“우리들이 患難환난을 잘 막지 못하여 이제 아주 위태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을 주관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만 社稷을 보전할 수 있다.’ 하니, 비록 그 옳지 못한 줄은 분명히 알지만 다시 어찌 차마 저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의당 自靖하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 뿐이요.” 하자, 尹公이 탄식하고 諫爭을 그만두었다. 조정에서 이미 虜와 和約을 체결하자, 虜가 이르기를,

“오늘날 兩國의 不和는 모두 초봄에 斥和하던 신하들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반드시 먼저 그들을 軍前에 押送하라”하니, 이때에 崔鳴吉이 그 일을 주관하여 諸議를 참작해서, “만일 한두 사람만 보낸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듯하다. 모름지기 수십 인을 함께 취하여, 일시에 나가서 사과한다고 명칭을 붙이면, 저들이 반드시 노여움을 풀 것이다.” 하고, 이에 다시 上께 아뢰지도 않고 곧바로 吏曹·兵曹를 시켜各司에 분부하여 名單을 적어서 보고하도록 하고 또 自首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맨 처음 포위를 당했을 때에 虜人이 和親의 條件으로 王世子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任事한 諸臣들이 上께 요청하여 上이 그를 允許하려 하므로 斥和를 주장한 사람이 다투어 서로 任事者를 욕하면서 배어죽이기를 요청하였는데, 이 和約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논이 중지되었다.

그러자 任事者가 일이 정해진 뒤에 자기에게 죄가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서 자기가 꺼리는 사람들을 모조리 물리치려 하였으나, 다만 上의 마음이 끝내 차마하지 못함을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内外를 출입하면서 群衆의 마음을 鼓動고동시키고, 또 大將 申景禎 등을 시켜 士卒들을 증용하여 闕門이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칼날을 드러내어 위협하니, 朝臣들은 의기를 잃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尹集과 吳達濟가 드디어 淸陰 金公尙憲과 桐溪 鄭公蘊의 뒤를 이어 備邊司에 自首하자, 大司諫 朴演이,

“斥和한 여러 사람을 반드시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윤집·오달재 두 사람이 이미 自首하였는데, 自首한 사람이 앞으로 어찌 이 두 사람에게 그치겠는가.” 하여, 의논이 드디어 결정되었다. 二公이 자수하

려 할 적에 吳公의 兄인 承旨 達升이 吳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虜가 찾는 사람은 지난 초봄에 으뜸으로 斥和를 논의한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러느냐?” 하자, 公이,

“비록 으뜸으로 論議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미 主和한 사람을 攻斥하였고, 또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臣下는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기는 바인데, 오늘날 어찌 구차히 살기를 꾀하겠습니까?” 하므로, 達升이 저지하지 못하였다.

丁丑年(1637, 仁祖 15) 1월 28일에 行宮에 가서 拜辭하자, 上이 引見하고,

“古今 天下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나. 당초에 그대들은 나로 하여금 正道를 지키도록 했을 뿐이었지만, 오늘날의 일을 내가 어찌 자유로 할 수 있겠느냐. 그대들이 나 같은 임금을 섬기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이 심정을 어떻게 하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었다. 그러자 二公이 아뢰기를,

“主上의 굴욕이 이 지경에 이르매 臣들은 항상 죽지 못한 것을 한하였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물기를,

“그대들은 老親이 있는가? 또 자식들은 몇이나 되는가?” 하자, 達濟가 아뢰기를,

“臣은 70세 된 偏母가 계시고, 자식으로 말하면 아내가 이제 겨우 妊娠을 했을 뿐입니다.” 하였고, 集은,

“臣은 다만 祖母와 세 자식이 있어 모두 臣의 兄 榮의 任所로 가 있는데, 이제 듣건대 그곳이 滴에게 함락되었다 하니 生死를 모르겠습

니다.” 하니, 上이,

“참혹하구나.” 하였다. 集이 아뢰기를,

“殿下께서 出城하신 날에 城中의 軍民이 때를 타서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지 않으니, 바라건대 왕세자를 留置시켜 진무하도록 하소서.” 하니, 上이,

“그대는 이제 죽을 땅으로 가면서도 國事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대의 忠誠이 매우 가상하도다.” 하였다. 上이 술을 내려 주라고 명하고,

“우리 國家의 운명이 혹시라도 다시 연장된다면, 그대들의 집은 내가 의당 돌보아 줄 것이니 家庭을 염려하지 말라.” 하므로, 二公은 눈물을 흘리면서 拜謝하고 나왔다. 達升이 울면서 備邊司에 말하기를,

“내 아우가 大駕를 호종하던 날에 도보로 왔으니, 말 한 필을 주어 부르튼 발로 다시 견지 않도록 해 주시오.” 하니, 듣는 이가 매우 비참하게 여겼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미처 出城하지 못하여, 吳公이 밤에 官舍로 나아가서 豆屑두발을 끓인 물로 목욕을 하였다.

達升은 밤새도록 아우를 붙들고 울면서, “兄弟의 永訣이 오늘 밤을 남겨 두고 있을 뿐이니, 내일은 어떻게 서로 이별을 한단 말이나. 또 어떻게 집에 가서 老親과 새 弟嫂를 본단 말이나. 너는 이 밤이 다 새기 전에 뒷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자, 公이,

“男兒가 한번 죽는 데 있어 꼭 죽어야 할 곳을 얻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뒷일을 처리하는 것은 형님에게 있으니, 형님은 너무 슬피 여기지 마십시오”하고, 인하여 나무를 꺾어 조그마한 패를 만들어 차

면서, “내가 虜陣에 이르면 기필코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屍體를 수습할 때에 이것으로 信標를 삼으십시오.” 하고는 잠자리에 들어갔다.

29일에 鳴吉이 西門으로 압송해 나가니, 여러 親友들이 모두 문밖에서 전송하면서 통곡으로 작별하자, 城에 가득 모여 구경하는 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으나, 二公은 신색이 태연한 채 조금도 비척해하는 표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슬피 여기며 감탄하였다.

初本에는 이 아래에 “한 양지바른 언덕에 이르러 잠깐 쉬는데, 鳴吉이 ‘公等이 스스로 죽기를 면하는 방도가 있소. 저들에게 가서 저들이 만일 힐문하면 공들은 마땅히 이 척화를 공들만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인하여 그때의 臺閣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열거한다면, 形勢上 다 죽이지는 못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좋은 꾀가 아니겠소.’ 하였으나, 二公은 대답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길을 가면서 서로 이르기를 ‘저 사람이 우리를 빙자해서 一時의 名流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니, 大奸의 꾀는 더욱 잔교하고 참혹하다고 했다.’[行至一陽坡少憩 鳴吉謂曰 公等自有可免之道 到彼 彼若詰問 公等宜對以此 非獨吾等爲之 因悉舉其時臺閣之人 則勢不可盡殺 此豈非良謀乎 二公不答 卽起去 相謂曰 彼欲借我 盡殺一時名流 大奸之計 尤甚巧慘矣]”라는 87자가 있었다.

虜가 있는 곳에 이르자, 적장 龍骨大가 나와서 맞이하므로 鳴吉이 二公에게서 巾帶를 벗기고 몸소 영접한 다음, 龍骨大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용골대가 다시 나와서 칸[汗]의 말로 힐문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우리를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겼다면, 大軍이 나갔을 때 왜 나와서 싸우지 않고 도리어 이토록 궁박하게 되었느냐?” 하자, 二公이,

“우리나라는 大明을 섬겨온 지 벌써 3백 년이나 되었으므로 온 나라의 臣民이 모두 大明이 있는 줄만 알 뿐이다. 너희 나라가 이미 帝號를 僭稱하였으니, 의리상 끊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봄에 이미 義理를 들어 너희 나라를 斥絶하였던 것인데, 얼마 안 되어 다시 信使를 통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과감히 쟁론하였으니, 우리들이 쟁론한 것은 오직 大義일 뿐이요, 勝敗와 存亡은 꼭 논하지 않는다.”하니, 용골대가 묵묵히 있다가 결박을 풀어서 陣中에 拘置하도록 하고는 鳴吉에게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바로 나의 원수인데 이제 이렇게 결박해 왔으니, 모두가 공께서 마음을 다하여 밝게 실상을 확실히 조사해 낸 소치입니다.”하고, 인하여 酒食을 제공하고 貂裘초구를 賞으로 주었다. 鳴吉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룻와 尹이 만일 내가 시킨 대로만 하였다면 거의 무사할 수 있었는데, 陣前에 이르러 대답한 말이 서로 어긋났으니 반드시 이는 두려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므로, 듣는 자가 침을 뱉고 비웃었다.

다른 本에는 ‘鳴吉이 돌아와서 말하기를[鳴吉歸言]’로부터 ‘듣는 자가 침을 뱉고 비웃었다.[聞者唾嚔焉]’까지의 37자가 없다. 용골대가 다시 와서 힐문하기를,

“너희들의 이름은 지난날에 내가 들었던 이름이 아니니, 斥和를 으뜸으로 제창한 사람이 아닌 듯하다. 또 으뜸으로 제창한 사람이 洪翼漢 한 사람 뿐만은 아닐 것이니, 이제 만일 모조리 사실대로 고하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하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이미 우리들을 조사하여 밝혀내어 보냈으니, 어떤 사람이 또 있겠느냐. 우리들은 다만 한번 죽음이 있음을 알 뿐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誣告하여 끌어들이겠느냐?”하니, 용골대가 두세 번 되풀이하여 유혹 협박하기를,

“지금 잘 생각하지 않으면 뒤에는 비록 뉘우치려 한들 되겠느냐.” 하므로, 二公이, “죽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내 머리를 이고 왔으니 잘라야 할 것이면 즉시 자를 일ियो, 더 이상 다른 말을 말라.” 하였다. 虜가 철수하여 돌아갈 때에 두 將帥로 하여금 陣後에서 二公을 말아 북녘으로 가게 하였는데, 二公을 말은 자가 公等의 節義에 감복하여 항상 존경하였고, 그 寢食의 道具도 반드시 스스로 간검하여 끝내 해이함이 없이 하였다. 그는 인하여 公等を 위로하기를,

“瀋陽에 이르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요.” 하였다. 막 楊花渡에 이르렀을 때 尹公이 그의 아우 尹柔에게 보낸 편지에,

“2월 3일에야 伯氏 尹榮가 死節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에 부르짖어 통곡하매 氣가 끊겼다가 겨우 소생하였다. 차라리 즉시 죽고 싶었지만 국가를 위하여 억지로 밥을 먹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길이 어찌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겠느냐. 위로는 老親을 잘 모시고 아래로는 여러 자식들을 잘 보살피 굶어 죽지 않도록 할일은 모두 아우에게 있으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형님을 장사 지낼 때는 절대로 망령되이 장사를 후히 지낼 계책을 내지 말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두어서 여러 식구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다. 온 집안이 보전되면 뒤에 어찌 改葬할 길이 없겠느냐. 만일 장사 지내는 데에

財力을 다 쏟아 버리고 老親과 여러 식구가 먹고 굶주려 죽는다면, 죽은 형의 영혼도 반드시 地下에서 몹시 한탄할 것이다.

나의 이번 길을 대체로 淸國이 지난봄에 斥和를 으뜸으로 의논한 사람을 굳이 잡아 오라는 데에 인연한 것인데, 朝廷에서 洪翼漢이라고 알려 주었다. 또 성안에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城中에는 마침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나와 吳達濟가 疏를 올려 自進하여 나선 것이다. 이는 곧 내가 스스로 한 일이니 조금도 남을 원망할 것은 없다. 男兒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몸을 바쳐 國家의 급한 때를 구한다면 이 또한 다행한 것인데,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다만 老親께서 餘生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내 다시 뵈 수 없게 되어 하늘을 쳐다보고 피눈물을 흘릴 뿐이다.” 하였다.

尹公이 吳公에게,

“우리가 갖은 窘辱_{궁辱}을 다 맛보고 虜地에서 죽는 것이 어찌 우리나라에서 죽어 버리는 것만 하겠는가?” 하자, 吳公이,

“옳지 않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기 마련인 것이니, 죽을 곳에서 죽어 자신의 節義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소. 왜 꼭 匹夫의 작은 節操를 본받으려 하오?” 하였다.

信川에 이르러 虜가 10여 일을 머무르므로, 吳公이 家書를 작성하여 품 안에 간직하였다. 大同江 가에 이르렀는데 한 村家에 유숙하면서 몰래 집 주인 노인에게 家書를 전해 달라고 부치고, 또 벽에다 絶句 한 수를 써 놓았는데, 虜人이 漢人을 데리고 와서 보고는 별다른 말이 없다며 가 버렸다. 그 집 주인 노인은 虜가 떠나기를 기다려서

그 書翰을 平安監司에게 奉呈하자, 監司가 政院에 보냄으로써 吳公의 집에까지 전해졌다. 거기에는 편지 한 장과 詩 두 수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母夫人에게 올린 것이고, 또 편지 두 장과 시 두 수가 있었으니 이는 兄과 아내에게 부친 것이었다. 그 촌 집 벽에 써 놓은 시는 끝내 전하지 않는다. 그 母夫人에게 올린 詩에,

난리 속에 남북으로 부평처럼 흩어졌으니	風塵南北各浮萍
이렇게 아주 잘 줄 뉘 알았겠습니까.	誰謂相分有此行
이별할 땐 두 아들이 어머니께 절했는데	別日兩兒同拜母
올 때에는 한 아들이 홀로 뜰에 나아가리	來時一子獨趨庭
옷깃 끌고 나왔으니 삼천지교 저버렸고	絕裾已負三遷教
읍선하며 공연히 어머니를 그립니다.	泣線空悲寸草情
關塞에 길은 멀고 저녁 해 저무는데	關塞道脩西景暮
이승에서 어느 길로 다시 문안드리오리까.	此生何路更歸寧
외로운 신하 의리 발라 부끄러운 마음없고	孤臣義正心無忤
聖主의 은혜 깊어 죽음 또한 가벼워라	聖主恩深死亦輕
가장 이 이승에서 한없이 슬픈 것은	最是此生無限痛
洞口에서 기다리실 어머니 정 버림이라오.	北堂虛負倚門情
하였고, 그 兄에게 부친 詩에는,	

南漢山城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南漢當年就死身
역경에 빠진 몸 되어 아직도 못 돌아간 臣下라오	楚囚猶作未臣
서쪽으로 오며 형 생각에 몇 번이나 눈물뿌렸던고	西來幾灑思淚
동녘을 바라보니 아우 그릴 형이 가련하네.	東望遙憐憶弟人

넋은 기러기 따르는데 외 그림자 서러워라	魂逐塞鴻悲隻影
춘초몽(春草夢) 놀라 깨니 가는 봄이 애석하네	夢驚池草惜殘春
우리 형 색옷[綵服] 입고 어머니께 나아가	想當綵服趨庭日
늪으신 어머니를 무슨 말로 위로할까	忍作何辭慰老親

그의 부인 南氏에게 부친 詩에는	
부부의 깊은 정 중하기도 하건만	琴瑟恩情重
서로 만난 지 두 돌이 못 되었소	相逢未二朞
이제는 만리 밖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今成萬里別
백년간약도 헛되어 졌소	虛負百年期
땅 넓고 길이 멀어 편지조차 부치기 어렵고	地闊書難寄
산은 첩첩하여 꿈조차 더디구려	山長夢亦遲
내 살길은 점칠 수 없으니	吾生未可卜
모름지기 뱃속의 아이나 잘 보호해 주오	須護腹中兒

하여, 듣는 자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

4월 15일 심양에 이르자, 虜가 이른바 禮部衙門에 부아문이라는 한 小屋에 二公을 넣어 두고 엄격히 監禁시켰다.

19일 이른 아침에 龍骨大가 이른바 戶部に 앉아서 二公을 불러갔다. 용골대가 칸[汗]의 말을 전하여,

“너희들이 비록 斥和를 하였다 할지라도 首倡자는 아닌 듯하니, 꼭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너희들은 妻子를 거느리고 이곳에 와서 살라.” 하자, 대답하기를,

“이는 결코 따를 수 없다. 빨리 우리를 죽여 달라.” 하니, 용골대가 반복하여 설명하고 또 위협하고 억박질렸으나 끝내 굴하지 않자, 용골대가 일어나서 들어가 버렸다. 二公은 나와서 데리고 갔던 下人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虜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하자, 下人이 놀라 울면서,

“왜 그의 말을 짐짓 따라 주지 않고 그의 노여움을 돋우어 스스로 큰 禍를 재촉하십니까?” 하니, 二公이 웃으면서,

“몸을 굽히는 치욕이 도리어 죽음보다 심한 것이니, 이는 너희들이 알바가 아니다.” 하였다. 尹公은 또 그의 下人에게 말하기를,

“오랑캐가 우리의 家屬까지 물었으니, 이는 바로 우리 여러 식구들에게까지 禍害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미 난리 뒤에 生死를 모르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으니, 오랑캐가 만일 다시 그 일을 너희들에게 묻거든 너희들도 내가 대답한 대로 말하라.” 하였다.

二公은 드디어 태연하게 서로 웃고 말하였으며, 밥 먹을 때도 평소처럼 잘 먹었다. 二公은 또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만일 저들의 말을 따른다면 끝내는 오랑캐가 되고 말 것이니, 차마 따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윽고 용골대가 다시 나와 二公을 끌고 들어가고, 또 二公을 따라갔던 하인 3인을 잡아다가 담장 모퉁이에 拘置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宰臣과 侍講院官員은 용골대의 초청을 받아 용골대와 한 좌석에 참여하였다.

용골대가 다시 소리를 질러 협박하자, 二公은 또한 5~6차를 抗言으로 거절하였고, 宰臣 등도 두세 번이나 二公을 권유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용골대는 그들이 끝내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침내 從胡를 시켜 二公을 매우 단단히 결박하여 끌어 내갔다. 그런데 二公은 오히려 되돌아보고 용골대를 욕하였다. 二公을 마침내 城西門 밖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가 바로 虜人이 刑殺하는 곳이었다. 宰臣들은 나와서 서로 돌아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만 마리의 소를 가지고도 끌어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5월 24일에 質館의 宰臣 南以雄·朴魯·朴漢 등이 書狀을 작성하였는데, 그 서장은 다음과 같다.

“지난 4월 19일에 龍將이 臣等 6인과 兼輔德 臣 李命雄을 초대하여 함께 坐定한 자리에서 尹集·吳達濟를 그 앞에 끌어내놓고 말을 전하기를, “이 사람들의 죄는 의당 죽어야 하나, 특별히 人命의 귀중함을 생각하여 온전히 살려서 妻子를 데리고 들어와 이곳에서 살도록 허락하려 하였지만, 尹集은 「난리 뒤에 妻子들의 生死도 모르겠다.」 하고, 吳達濟는 「이제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에 온 내가 만일에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임금과 늙은 어머니를 다시 뵈게 될 것이니, 만일 이렇게 된다면 사는 것이 도리어 죽는 것만 못하다.」 하여, 그들이 온전하게 살리려는 恩惠를 생각지 않고 이렇게 반항하니,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臣等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年少한 사람들로써 君親에 대한 생각만 간절하여 이처럼 妄發하였지만, 만일 끝내 온전히 살려 준다면 어찌 千載의 美事가 아니겠소.” 하면서 두세 번이나 간청하였으나 끝내 尹集·吳達濟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6월 6일에 그 書狀이 이르자, 上이 政院에 전교하기를,
 “두 臣下의 일은 매우 참측하니, 그들의 집에 月廩월복을 주어야 한다.” 하였다.

二公이 죽을 때에 弼善 鄭雷卿^{정비경이} 質館에 있으면서 譯人을 시켜 屍身을 收拾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오랑캐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吳公은 寬厚하고 忠信하며 단정하고 방직하였다. 평상시에는 溫恭하여 말을 잘 못하는 듯하지만, 國家의 利害와 政令의 得失을 논할 때에는 辭氣가 격앙하여 回避하는 바가 없으므로 듣는 자가 위축되었다. 性品이 매우 孝誠스럽고 友愛가 더욱 돈독하였으며, 平素의 言行이 모두가 여기에서 根本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孝悌의 마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곤 하였다.

일찍이 南氏집에 장가가서 머물 때 날마다 大夫人을 가서 보살펴드렸는데, 南氏 집에서 혹 말과 侍從을 제공하지 못하면, 徒步로 市里를 지나다니곤 하였으되,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라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일찍이 婦兄인 南一星에게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死生の 즈음에서 흔히 평소 지킨 바를 상실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그를 위협한 때문일세. 그러나 내가 古今을 통해 관찰해 보건대, 利를 추구한 자라서 꼭 살지만은 않았고, 해로운 데 처한 자라서 꼭 죽지만은 않았네. 옛날 唐나라 武曌^{무조}가 즉위하였을 때, 褚遂良^{서수량}은 무조가 先帝를 經事하였다고 直言하였으니, 그 形勢야 말로 簾下의 撲殺을 면치 못했을 터인데도 오히려 愛州刺史로 左遷해 있다가 좋게 죽었고, 長孫無忌는 자못 이럴까 저럴까하여 마음이

확정되지 못한 뜻이 있었고, 또 元舅원구의 친분과 定策의 공훈이 있었지만 끝내 滅族의 禍를 면치 못하였으니, 이것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인데, 또 利害를 따져서 進退하는 바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聖人이 이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좇아서 하리라.’ 고 한 訓戒가 있었던 것일세.”

그의 伯父인 楸灘^{추탄} 相公 吳允謙은 栗谷·牛溪 두 선생의 門下에서 수업하였고, 公은 또 楸灘에게서 배웠다. 그 淵源의 深遠함이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립한 節義가 이와 같았으니, 아무리 뛰어난 氣質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學問의 힘을 또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처음 申氏에게 장가들었으나 자녀가 없었고, 縣令 南弼의 딸에게 再娶한지 겨우 1년을 넘었는데, 亂을 만나 北으로 잡혀가니, 사람들은 그 遺腹兒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윽고 열 달이 되어 女兒를 낳았으나 또 夭折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天道도 無心하다고 哀惜해 했다. 孝宗 때에 筵臣 金始振이 아뢰기를,

“洪翼漢·尹集·吳達濟 세 사람의 節義는 의당 褒贈^{포증}하여 風聲[聲望]을 전해지게 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疑懼^{의구}의구한 마음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이기에, 그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다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上이 즉시 施行할 것을 命하여, 洪翼漢에게는 都承旨를, 尹集에게는 副提學을, 吳達濟에게는 左承旨를 각각 追贈하였다. 上은 또 일찍이,

“尹集은 그의 할아버지 暹^선 및 兄과 함께 兩世에 걸쳐 세 사람이 모두 殉節하였으니, 어찌 귀하지 않은가?” 하였다. 尹集의 아우인 進士 柔도 孝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丁丑年(1637, 인조15) 이후에는 科擧 공부를 폐하고 몸을 닦고 學問에 힘쓰다가 불행히도 일찍 죽으므로 士友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庚辰年(1640, 인조18)에 朝家에서 제책을 써 皇朝와 密通하자, 虜人이 이를 알아차리고 崔鳴吉을 잡아가니 그가 시(詩)를 지어,

내 비록 三學士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我雖不殺三學士
조용히 생각하면 마음 질로 놀라네. 中夜思之心自驚
天道란 원래부터 순환하기 좋아하여 天道由來好回換
늘그막 오늘날에 또 서녘을 가는구나. 白頭今日又西行

하였다. 崔鳴吉이 만일 이때에 죽임을 당했다라면 조금이나마 贖罪할 수 있었을 것인데 끝내 無事하였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彼此의 사이에 抑揚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뒤에 덧붙여 씀

삼가 『春秋』의 義를 상고하건대, 列國의 臣下가 京師를 우러러 陪臣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대개 分限이 일정한 것이다. 天經地義 정당하여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도리는 民彝민이(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의 큰 것이니 이를 어기면 禽獸禽수이다.

우리 太祖가 나라를 創建하였을 때, 高皇帝(明太祖를 말 함)가 朝鮮이라 명명하여 東藩동편으로 삼자, 本朝에서는 대대로 諸侯의 法度を 지키어 精誠을 다해서 謹慎하게 섬겨왔다. 太宗 때에 皇帝가 일찍이,

“朝鮮國王이 나를 欽愛하는구려.”하였다. 壬辰倭亂 때에 이르러 宗社가 廢墟^{페허}에 지경에 놓이자, 神宗皇帝가 天下의 兵力을 일으켜 宗社를 保存시켰으니, 무릇 이 東偏朝鮮을 가리킴에는 草木이나 昆蟲^{곤충}까지도 모두 皇帝의 德이 미쳤던 것이다.

丁丑年(1637, 仁祖15)의 일은 어쩔 수 없는 事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만 번 꺾여도 반드시 東으로 향해 흐르는 물과 같은 마음은 일찍이 변함이 없었다. 우리 孝宗大王의 경우는 聖志가 더욱 뛰어나서 마치 저 밝은 日月과 같았다. 저 세 신하 洪翼漢·尹集·吳達濟는 죽음으로써 그 마음을 표명하였으니, 天敬之義와 民彝^{민익}이 이를 힘입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孝宗의 崇報한 恩典도 더 이상 유감이 없게 되었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어떤 이는, “오늘날에는『春秋』를 읽을 곳이 없다.” 하였으니, 대체로 三學士가 있는 줄을 몰라서 한 말이다.

今上 顯宗께서 戊申年(1668)에 일찍이 熙政堂에 남시어 三臣에 관한 일을 筵臣에게 묻자, 吏曹參判 閔鼎重^{민정중}이 本末을 갖추어 대답하였는데, 左議政 許積이 “일을 좋아하여 名譽를 누른 사람이다.”하므로 民정중이,

“그때에 虜人이 감히 天朝를 적수로 여겨 막 僞號^{위호}를 僭稱^{참칭}하던 판이었으니, 저 三臣이 어찌 痛斥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上이,

“섬기는 것은 天朝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大義가 의당 그러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끝내 몸을 죽여서 말을 實踐하였으니, 名譽를 누았다

고 말할 수는 없다.” 하였다. 홀륭하다. 이는 참으로 聖人의 말이다. 上은 또,

“그때에 洪太始^{형대종}가 三臣을 어떻게 말하였는가. 祠宇를 세워서 享祀하면 어떻겠는가?” 하자, 領議政 鄭太和는,

“淸聞이 번거로울까 염려됩니다.” 하였고, 閔鼎重은,

“만일 士林들이 세운다면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上이 그렇게 여겼다. 또 進士 李重明이 疏를 올려 神宗皇帝의 祠堂 세우기를 要請하였으므로, 上이 그 일을 朝廷에 下議하였으나, 朝廷의 의논이 한결갈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上의 뜻은 이를 옳게 여겼기 때문에 즉시 그 사람을 官職에 登用하였다.

나는 일찍이, 이 議論이 早晚間에 이루어지면, 우리 孝考는 의당 配享될 것이고 저 三臣도 廟廷에 從享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詳考하건대 尹學士는 祖父인 龍陽公 暹^시와 兄인 府使公 榮제가 모두 殉節하여 죽었고, 洪學士는 夫人과 두 아들 및 子婦가 모두 虜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고, 몸을 潔白하게 하여 죽었다. 그래서 尹學士의 節義는 받은 바가 있었고, 洪學士의 節義는 준 바가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 列聖 및 皇上에게 培養하신 所致가 아니겠는가. 그와 동시에 金尙憲·鄭蘊 등 諸公도 함께 《春秋》의 大義가 있었다.

參知 黃一皓도 虜에게 살해되었는데, 그의 아들 璉은 나이가 매우 어려 항상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통곡하였다.

그가 일찍이 洪公의 遺蹟을 나에게 보이고 序를 요청하였는데, 대체로 그 아버지의 被禍가 洪公과 대략이 서로 같기 때문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黃璉이 갑자기 세상을 떠므로 슬픈 마음이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의 淸州牧使 南公九萬이 와서 나에게,

“吳學士는 바로 우리 姑夫(고모부)입니다. 우리 先君께서 일찍이 그분의 事實을 모아 1通을 작성하여 作者에게 부탁해서 傳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姑母가 외로운 신세로 원통하고 서러움을 품은 채 이 일이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三學士의 일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이윽고 들으니, 南公의 姑母가 또 별세하였다고 한다. 내가 전후에 걸쳐 남의 뜻을 저버림이 매우 많았으니, 이는 곧 終身토록 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붓을 가져다가 글을 지어 『三學士傳』이라 命名하였으니, 죽은 이가 앓이 있다면, 早晚의 간격을 가지고 恨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이 글을 읽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참으로 이른바 人心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春秋》의 대의가 이제 忌諱된 지가 오래고 보면, 南公의 兩世父子之間은 現世의 선비가 아니니, 嘉賞하기 그지없다.

또 그옥이 생각전대, 우리나라는 禮義가 본디 밝아서 당시에 勇氣를 드러낸 사람이 매우 많았다. 江都로 말하면 金尙容이하 10餘人과 기타 자기가 처한 곳에서 목숨을 바쳐 드러나게 된 이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조출하게 하여 意志를 지킨 자로 말하면 尹宣舉 등 諸賢이 있는데, 일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大義는 一致하니, 모두 빠뜨릴 수가 없다. 이들은 꼭 별도로 傳記를 만들 것은 없고, 다만 그들의 行狀과 碑誌를 收合하여 이 編의 맨 뒤에 붙인다면 그 의의가 갖추어질 것이다. 나는 늙고 병들어 이런 일을 할 겨를이 없으니, 뜻있는 선비가 있어 뒤에 완성하기 바란다.

승정(崇禎) 辛亥年(1671, 현종12) 7월일에 恩津 宋時烈은 쓰다.

傳 안에 맨 처음에는 陽坡의 한 항목이 있었다. 그 후 《政院日記》와 李箕男(李恒福의 아들임)의 書札에 의거하여 그 實狀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알았는데, 또 이제 兵曹判書 南九萬, 吏曹判書 李敏鉞도 그 실상과 어긋난 점을 강력히 말하였다. 대체로 이 傳은 맨 처음 三學士의 집안의 行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는데, 이 한 항목은 실로 南公의 先人(九萬의 아버지인 南一星)이 撰해 놓은 吳學士의 行狀에서 나온 것인데도 지금 南公의 말이 이러하다. 대체로 당시의 일을 三家의 子弟로서 직접 목도한 자는 없었고, 아마도 전해들은 데서 나온 것이 고 보면, 《政院日記》와 李箕男이 직접 목격하고 쓴 書札과 南·李 두 분의 말이 제일 믿을 만하기 때문에 陽坡의 한 항목을 빼 버렸다. 그러나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실상을 아주 없애서 後人에게 의문점을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

崇禎 癸亥年(1683, 숙종9) 4월 13일에 時烈은 追書하다.

吳學士傳

吳達濟字季輝海州人年十九中丁卯司馬二十六文科狀原由成均官典籍歷兵曹左郎侍講院司書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弘文館修撰校理丙子五月爲副校理時金虜僭號朝政斥責而復欲通使語在洪學士傳公上疏曰大聞者公論之所在也公論一發則難以主人主之尊不能脅持大臣之重不能沮遏況以執拗逢君之一憊臣而敢與公論相爭乎頃者崔鳴吉送使通虜之意發於朝廷絕和之後其議論之邪遁固已可惡而第以財取擇取舍之柄在於君上故朝廷置而不論矣

厥後臺諫以廟謨爲非 爭相引避 議論甚峻 玉堂亦據議論辨 是三司之公論 旣已發矣 而鳴吉恃上意之所在 不念國家之事勢 乃於登對之日 敢陳誑嚇之說 上以

惑亂天聽 下以威制公議 至以臺論雖發 邊送使爲言 自古安有以不恤臺論率意直行之術導其君上者乎及至玉堂面斥 群議爭辯 則所當 縮伏愧懼 以俟物議之所定 而猶且偃然陳筭 猶恐和事之不成 其縱恣無忌之罪 不可不正 時虜讐已啓 而朝廷舉措 無可慰爲人心者 公復上疏 論時務八條 其要則 以勉進 聖學爲本矣

是冬公罷官家居及聞虜變徒步扈駕入南漢山城事急主議者以公及尹集縛詣虜營洪翼漢則自西路任所直送虜穴蓋自行朝受圍以後外則諸路勤王之師所在奔潰內則糧儲器械皆已匱竭朝廷只以江都是廟社元孫所在而爲國家本根之地一日忽報陷沒廟議更無所恃而虜請上出城甚急衆議且將從之 尹公將入上前碎首爭之公曰吾等不能排患析難今到萬分地頭而主事者以爲如此然後躬可全雖明知其不然更何忍沮止哉吾儕要當

自靖無愧于心而已尹公歎息而止。

朝廷既與虜定約虜曰今日兩國之釁皆由於春初斥和之臣須先執送

軍前時崔鳴吉主其事用諸議以爲若只送一二人則恐不能免死須並取數十人一時出往名曰謝過則彼必解怒於是不復白上而直令兩銓分付各司籍名以告且令自首蓋於初受圍時虜人責送王世子爲媾任事際臣請於上將許之持議之人爭相憤罵乞斬任事者由是其議遂止而任事者懼事定後罪及其身故欲乘此時悉去所忌之人而惟慮上心之終不忍也遂出入內外鼓動衆心且令大將申景禎等慫恿士卒謹呶闕門露刃以憎之朝紳爲之喪氣流涕而已

二公遂踵清陰金公尙憲桐溪鄭公蘊自首於籌司大司諫朴漢言曰斥和諸人不須多送尹吳二人今既自首曷若止此二人而已乎於是議遂決二公之將自首也吳公兄達升執手流涕曰虜之所索者春初首議之人也汝非其人奈何如是公曰雖非首議既攻主和之人且主辱臣死分所甘心今日忍圖苟免乎達升不能止丁丑正月二十八日拜辭於行宮上引見曰古今天下安有此事當初爾等欲使予守正而已今日之事予安得自由耶。

爾等以予爲君事至於此予何以爲懷因泣下嗚咽二公對曰主辱至此

臣等常以不死爲恨今得死所矣有何憾焉上問爾等有老親乎嗣屬幾何達濟對曰臣有七十歲偏母嗣屬則臣妻纔有孕矣集對曰臣只有祖母與三子俱就臣兄榮任所今聞陷敗不知其生死也上曰慘哉集曰殿下出城之日城中軍民不無乘時叛亂之患願留王世子鎮撫焉上曰爾方就死地而猶念及國事爾之忠城極佳嘉也上命賜酒曰國家倘或復延爾等之家予當顧恤爾等勿以爲念也

二公亦流涕拜謝而出達升泣言於籌司曰吾弟從駕之日徒步而來願得一馬免踏昔跡也聞者酸鼻會日暮未及出城吳公夜就館具豆屑湯水沐浴

達升終夜相持以泣曰兄弟永訣只隔今宵明日何以相別又何忍歸見老親與新嫂乎汝須趁此未明處置後事公曰男兒一死貴得其所若後事則處置在兄願兄勿以爲悲因削木爲小牌以佩曰我到虜陣卽必見殺收屍之際以此爲驗也因就寢而睡

二十九日鳴吉押出西門諸親友皆往送于門痛哭而別滿城觀者莫不流涕而二公神色自若少無悲感之容人皆嗟歎焉行至一陽坡小憩鳴吉謂曰公等自由可免之道到彼彼若詰問公等宜對以此非獨吾等爲之因悉舉其特臺閣之人則勢不得盡殺此豈非良謀乎二公不答卽起去相謂曰彼欲借我盡殺一時名流大奸之計尤甚巧慘矣旣至賊將龍骨大出迎之鳴吉以二公去其中帶而反接之然後龍胡還入而已復出以汗言詰問曰汝等若以我爲不足畏則大軍之來何不出戰以反窮蹙若是乎二公曰我國服事大明今以三百年矣

一國臣民知有大明而已爾國旣僭大號則義所當絕故我國於春初旣已舉義斥絕而曾未幾時復通信使甚不可也是以我等果爭之我等所爭者惟大義而已勝敗存亡不須論也龍胡默然使解其縛拘置陣中謂鳴吉曰吳尹此輩乃我之讎而今自縛來無非公盡心明覈之致因饋酒食賞以貂裘鳴吉歸言曰吳尹若如我指導則可保無事而及至陣前所

答相左是必畏怯而然聞者唾罵焉是夕龍胡復來詰問曰汝等之名非吾前日所聞者似非首倡人矣且首倡者非但洪益漢一人而已今若悉以實告則汝等可免矣答曰我國旣查送我等更有何人

我國旣查送我等更有何人我等只知有一死而已豈可畏死而誣引他人乎龍胡復再三諭脅曰今不熟計後雖欲悔之其可得乎二公曰死非吾所畏也吾戴吾頭來斷當卽斷更勿復言虜酋歸時使其一將主二公在陣後北去主者服公等節義常加尊敬其寢食之具必自感看檢終時不懈因慰解曰到

瀋陽必得生還矣初至陽化道尹公寄其弟柔剛伯書曰二月初三日始聞伯氏舍生之報痛哭號天氣絕寧欲即死而爲國家強食而生耳此行寧有期歸上奉老親下率諸子俾免飢死皆在於君子何憂焉葬兄時切勿妄生厚庇之計稍前餘力求百口之命可也一家得保則後豈無改葬之路耶若力盡於葬埋而老親及百口冬餒而死則亡兄之靈亦必痛恨於冥冥矣吾行蓋緣清國固求去春首謀斥化知人廟當以洪翼漢爲對而又求在城之人城中適無其人吾與吳達濟陳疎自當此乃身自爲之少無尤人之事矣。

男兒墜地捐身救國家之急斯亦幸矣更何言哉只以老親臨年竟不得更拜仰天泣血而已尹公謂吳公曰我備嘗窘辱而死於虜地葛若死於我境耶吳公曰不可人生斯世固有一死死得其所明我節義豈非樂事何必效匹夫之諒乎到信川虜留十餘日吳公裁家書藏諸懷袖行至大同江邊宿一村家遂潛以付家主老翁又書絕句於壁上虜人邀漢人來見謂無他語遂去其老翁待虜去以其書封呈于平安監司監司送于政院以傳于家

四月十五日到瀋陽虜置二公於其所謂禮部衙門一小屋鎖直甚嚴十九日早朝龍胡坐于其所謂戶部招二公去龍胡傳汗語曰汝等雖曰斥和似非首倡不須殺汝等率妻子來居此地答曰此決不可從須速殺我龍胡反覆開說且劫勒之終不屈龍胡起入二公出語所帶奴曰今日虜必殺我矣奴驚泣曰何不姑從其言據挑其怒自速大禍乎二公笑曰屈身之辱反甚於死此非汝等所知也尹公且謂其曰虜問及吾家屬者無乃欲禍及百口耶吾已答以亂後不知死生虜若更以問汝等汝等亦若吾所對也二公遂相與言笑自若其食時進食如常且相謂吾等若從彼言則從爲左衽之人是可忍乎有頃龍胡復出引入二公而又執從行奴三人拘置牆頭時我國宰臣及侍講院官被龍胡招與參坐龍胡復罵聲迫脅二公亦抗言拒斥者五六次宰臣等亦再三勸諭而終不聽龍胡知其終不降遂使從胡纏縛甚急而引出

二公猶回顧奮罵遂驅去城西門外卽虜人刑殺處也宰臣等旣出相顧

言曰眞萬牛難回之人也五月二十四日質館宰臣南以雄朴魯朴潢等成貼書狀曰去四月十九日龍將等招臣等三人及兼輔德臣李命雄坐定引出尹集吳達濟於前傳言曰此人等罪宜死而特以人命之重欲爲全活許令率妻孥入來仍居此處則尹集以爲妻子亂後不知存沒吳達濟則以爲至今忍死到此者萬一生還復見吾君與老母若果如此則生不如死渠等不念全活之恩抗言如是今不可復貸矣臣等答以此人等俱以年少只切君親之念妄發如此若終始曲全則豈非千載美事再三懇諭而終不得免六月六日其書狀至上教字政院曰二臣事極爲慘惻宜月稟其家二公死時鄭弼善雷卿在質館使舌人懇乞收屍虜竟不許

吳公寬厚忠信端方正直平居恂恂似不能言及論國家利病政令得失辭氣激昂無所回避聞者縮頸性至孝友愛彌篤平生言語無一不本於此故對之者不覺其孝悌之心油然而生也嘗贊在南氏家日往省大夫人南氏家或闕騎率則徒步穿過市里雖風雨不廢常謂其婦兄南一星曰凡人死生之際多喪其所守者利害劫之也然以余觀於古今擇利者不必生處害者不必死昔唐武曌之立也褚遂良直言墨經事先帝其勢難免於簾下之撲殺而猶以愛州刺史終長孫無忌頗有依違之意且有元舅地親定策之勳而終不免赤族之禍以此言之人當爲其所當爲而已又可輟其利害而有所前却哉此聖人所以有從吾所好之訓也其伯父楸灘相公允謙受業於栗谷牛溪兩先生之門公又學於楸灘其淵源之深遠有如此者故其所樹立如此雖其氣質之異而學問之力亦不可誣也

始娶申氏無子再娶縣監南斌女僅踰一年而遭亂北去人猶幸其有腹矣及暮生女而又天人皆以爲天道無知也孝考朝筵臣金始振啓曰洪翼漢尹集吳達濟三人節義宜有褒贈以樹風聲而當初則迫於疑懼矣今歲月浸久

保無他憂矣上卽命施行於是贈公副提學庚辰朝家以計密通皇朝虜人覺之執崔鳴吉以去鳴吉有詩曰我雖不殺三學士中夜思之心自驚天道由來好回換白頭今日又西行崔若於此時見殺則庶可少贖其罪而竟至無蜚豈天意於彼此之間要有所抑揚者耶

附後識 부후지

謹安春秋之義列國之臣尊尚京師自稱陪臣蓋分定也天經地義民彝之大者有違則禽獸也我太祖立國高皇帝命爲朝鮮以爲東藩本朝世守侯度誠心恪謹太宗嘗曰朝鮮國王愛我哉及至壬辰倭變宗社危墟神宗皇帝擧天下兵力以存之則凡此東偏草木昆蟲無非帝德攸攸也丁丑事迫於不得已筵萬折必東之心則未嘗已也而至我孝宗大王則聖旨尤卓然如日月之皎然矣彼三臣者能以死明其心天經地義民彝賴而不墜而孝考崇報之典更無遺憾豈不盛哉或者謂今日無地可讀春秋蓋不知有三學士也今上戊申嘗御熙政堂問三臣事於筵臣吏曹參判閔鼎重具本末以對左議政許積以爲喜事釣名之人鼎重曰其時虜人敢讎天朝始建僞號則彼三臣者安得不通斥乎上曰事係天朝大義當如是況終能殺神踐言不可謂釣名也大哉此真聖人之言也上又曰其時洪太始謂三臣如何建祠以祀則何如領議政鄭太和曰恐煩聽聞也鼎重曰若建自士林則不可禁也上然之又有進士李重明者上疏乞立神宗皇帝廟上下其事朝議不一故卒不行

然上意則以爲是故卽官其人愚嘗謂此議早晚有成我孝考當配侑而彼三臣者亦宜從享廟庭也又按尹學士祖父龍陽公暹其兄府使工榮具恂節死洪學士與二子及子婦具遇虜不辱潔其而死尹之義有所受而洪之義有

所受豈非我列聖及皇上培養之致哉同時如金清陰鄭桐溪諸公亦同有春秋大義哉黃參知一皓亦見殺於虜其子璵年甚少常泣血號天嘗以洪公遺跡示余請爲序蓋以其父之禍大略相類也未幾黃生奄忽而逝余習愴之愈久而不能已也

今清州牧使南公九萬來謂余曰吳學士乃吾姑夫也吾先君相哀集其實爲一通欲請於作者以立傳今吾姑恂然含恤祈見此事之成故並以三公事爲托旋聞南公姑下世余前後孤人之意深矣是將爲沒身之恨矣函取筆書之而名曰三學士傳死者有知將不恨其早晚之有間也嗚呼讀此以無涕者眞所爲無人心者也然春秋之義爲今所諱言者久矣

崇禎辛亥 七月 日 恩津 宋時烈 撰

吳學士傳 譯文

吳達濟의 字는 季輝^{계희}이고 本貫은 海州이다. 열아홉 살 丁卯年(1627 仁祖 5)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26세 때에 文科에 壯元及第 하였다. 이로부터 成均館 典籍, 兵曹佐郎, 侍講院司書, 司諫院正言, 司憲府持平, 弘文館修撰을 역임하고, 丙子年(1636 仁祖 14) 5월에 副校理가 되었다. 이때에 金의 오랑캐는 분수에 맞지 않는 國號를 사용하였고, 朝廷에서는 꾸짖고 물리쳐 使臣을 돌려보내자고 하였다. 이 내용은 洪學士傳에 있는 내용이다. 公이 上疏를 올려 말하되, “臺閣은 公論이 있는 곳이고 公論이 한번 決定되면 비록 임금님의 至尊으로도 위협하지 못하며, 重任의 大臣이라도 沮止를 못하는데, 하물며 儉臣^{검신}으로서 집요하게 公論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지난번 朝廷에서 이미 오랑캐와의 和議를 斥絶한 뒤에 崔鳴吉이 使臣을 오랑캐에게 보내자는 뜻을 말했으니, 그의 간사하고 기만적인 의논은 진실로 可憎 可惡한 것인데, 다만 取捨選擇^{취사선택}의 權限은 임금님에게 있사오매 朝廷에서는 이를 차치하고 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臺諫^{대간}들은 廟堂에서 세운 事案들이 그르다고 함으로 다투어 서로 책임을 지고 引避하여 의논이 심히 격렬해지자, 玉堂 역시 義를 내세워 論辨하였으니, 이야말로 三司의 公論이 이미 발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의 事勢는 생각하지도 않고, 登待하던 날에 감히 기만적이고, 위협적인 말로 위로는 天聽을 미혹하여 어지럽게 하고, 아래로는 公義를 위협으로 제재하였으며, 심지어는 臺論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한쪽으로는 使臣을 보내야한다고 하였으니, 自古로 臺論을 돌아보지 않고 제 뜻대로 直行하는 술책으로 君上

을 인도하는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윽고 玉堂으로부터 面斥을 당하고 朝廷이 아우성이므로 위축되고 부끄럽고 두려워 얹드려 物議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하거늘 오히려 擴大 시켰으니, 和親하는 事案이 成功을 거두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죄는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에 오랑캐는 이미 朝廷의 前後 사실들을 狀啓 한 상태인데, 朝廷의 행동거지는 人心을 慰勞하고 수습하려함이 없었다. 공이 다시 上疏를 올렸으니, 우리가 할 일이 여덟 가지 조목인데 그 要旨는 聖學에 힘써 根本을 삼자는 것이었다.

그해 겨울에 공이 官職을 그만두고 집에居하고 있는데, 오랑캐의 變亂(변란)이 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徒步로 御駕를 호종하여 南漢山城에 들어갔다. 事態가 危急하게 되었다. 斥和의 主唱者 吳公과 尹集을 결박하여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졌다. 洪翼漢은 任所로 부임하는 길에 곧바로 오랑캐 소굴로 보내졌다. 스스로 朝廷을 호위 한 뒤이나 밖으로는 모든 길목에 勤王兵이 있는 곳은 빠르게 허물어 졌고, 城 안에는 軍糧이나 兵器들이 모두 이미 말라버렸다. 朝廷은 단지 江華島에 社稷과 元孫이 있으므로 國家의 本根地로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홀연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廟堂의 議論은 믿을 곳이 없었다. 오랑캐들은 主上에게 出城할 것을 급하게 요청하자, 衆論은 또한 장차 그들의 요구대로 쫓으려한다. 尹公이 主上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諫爭하러하니, 吳公은 “우리들이 무능하여 患難을 막지 못해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일을 주관하는 자는 이렇게 하여야만 임금이 玉體를 온전하게 保全할 수 있다하니, 비록 그것이 옳지 않은

즐은 밝히 알고 있지만 다시 어찌 차마 沮止 할 수 있겠소? 우리들은 의당 스스로를 다스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 뿐이요” 하자 尹公이 탄식하며 諫爭을 그쳤다.

朝廷에서 이미 오랑캐와 和約을 맺게 되자, 오랑캐가 말하기를, “오늘날 兩國간의 弊端^{흥단}이 모두 지난봄에 斥和한 臣下들로부터 惹起^{초기}어진 바, 우선적으로 그들을 잡아서 우리 軍營에 잡아 보내라” 고 하였다. 그때에 崔鳴吉이 그 일을 主管 하였으므로 모든 의논을 들어서 한 것 같은데, 단지 한두 사람만 보낸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 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수십 인을 함께 취하여 보내자고 하였다. 이름 하여 ‘모두 나가서 謝過를 하면 저들이 반드시 노여움을 풀 것이다.’ 하면서 임금에게는 아뢰지도 않고, 곧바로 吏曹과 兵曹로 하여금各司에 분부하여 斥和臣名單을 적어서 올리도록 하고, 또 自首하도록 하였다.

대개 처음 포위를 당했을 때 오랑캐가 和親을 하는 조건으로 꾸짖으며 王世子를 보내라고 졸라댔다. 일을 맡은 책임자들이 임금께 청하니 장차 허락을 하려 하였다. 항상 斥和를 주장하던 臣下들이 분연히 꾸짖으며, 일을 맡은 책임자들을 베어야 한다고 청하였는데, 和約을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논이 드디어 정지되었다. 그러자 이를 본 책임자들은 事變이 安定된 뒤에 罪가 자기 몸에 미칠까봐 두려워 이때를 틈타 자기들이 꺼리는 人士들을 모조리 除去 하고자 하였다. 다만 임금의 마음이 끝내 차마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궐을 출입 할 때와 内外의 大衆을 선동하고, 또한 大將 申景稷 등에게 명하여 士卒들을 종용해서 대궐 문 앞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칼을 뽑아 위협을 하니, 朝廷의 臣下들이 기가 죽

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吳公과 尹公 두 분은 드디어 淸陰 金公 尙憲과 桐溪 鄭公 蘊을 따라 籌司 주사에 自首하였다. 大司諫 朴璜이 말하기를, “斥和를 주장하였던 여러 사람을 많이 보낼 일은 없다. 尹·吳 두 사람이 自首를 하였는데, 이처럼 自首할 사람이 어찌 이 두 사람 뿐이겠는가.” 하여 이에 의논이 드디어 결정이 나서 두 분이 장차 自首를 하려고 하는데, 吳公의 兄 達升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오랑캐가 찾는 사람은 지난 초봄에 으뜸으로 斥和를 거론한 대표자들인데, 너는 그 사람이 아닌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 하자 公이 말하길, “비록 議論의 대표자는 아니나 이미 主和論者들을 攻斥하였고, 또한 主上이 屈辱을 당하게 되면 臣下는 죽는 것이 십분 마음이 편합니다. 어찌 오늘의 죽음을 면하려고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 하니 형 達升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다. 丁丑年(1637 仁祖 15) 1월 28일 行宮에서 下直인사를 하는데, 主上이 보고 말하길, “古 今 天下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 당초 그대들은 나로 하여금 正道를 지키게 하고자 올바르게 지켜 주려고 하였을 뿐인데, 오늘날의 이 일로 내 어찌 편안함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나를 主君으로 삼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 심정을 무어라고 말하라” 인하여 목메어 울었다. 두 분이 대답하기를, “主上께 욕되게 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臣들이 땀땀이 죽지 않는다면 한이 되옵니다. 죽을 곳을 이제야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主上이 물었다. “그대들은 父母가 있는가? 子孫은 몇이나 되나?” 吳達濟가 말하길, “臣에게는 七十되신 偏母가 계십니다. 家族은 妻가 있는데, 이제 겨우 임태를 하였습니다.” 尹集이 대답해 말하길, “臣은 단지 할머니가 계시고, 자식 삼형제가 있는데, 형님의 任地인

南陽에 가 있었는데, 요사이 들으니 모두 敗北^{패배}하였다고 하니 그 生死를 알 수가 없습니다.” 主上이 말하길, “마음이 참으로 비참하게 아프구나.” 尹集이 아뢰기를, “殿下^{전하}께서 城을 나가시는 날 城中의 民間人들과 軍人들이 틈을 타서 反亂의 환난이 염려되오니, 원컨대 王世子를 留置시켜 鎮撫^{진무}하게 하소서” 主上이 말하길, “그대는 죽을 곳으로 가면서도 나라 일을 생각 하고 있으니, 그대의 忠誠심이 지극히 아름답도다.” 主上이 술을 내리고 말하길, “國家를 혹 다시 維持할 수가 있다면 그대들의 家屬은 내가 마땅히 돌보아 줄 터이니 그대들은 염려 하지 말라.” 하였다.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拜謝하고 나왔다. 吳達升이 籌司^{주사}의 관리에게 울면서 말하길, “내 아우가 大駕를 좇아오던 날, 걸어서왔으니 원컨대 말 한필을 주어 부르튼 발로 다시 걸지 않도록 해주시요.” 하니 듣는 자들은 매우 비참하게 여겼다. 날이 저물어 미처 出城을 못하여 吳公은 官舍로 돌아와 콩가루를 찜기고 끓인 물로 沐浴을 하였다. 吳達升은 밤새도록 아우를 붙잡고 울면서 말하길, “우리 兄弟의 永訣이 오늘밤 밖에 틈이 없으니, 내일아침 어떻게 이별하며, 또한 집에 가서 어떻게 차마 늙으신 어머니와 새 弟嫂를 본단 말인가? 자네는 날이 밝기 전에 뒷일을 처리하게” 하니, 公이 말하기를, “男兒가 한번 죽는데 있어 그 죽어야 할 좋은 장소를 얻었습니다. 뒷일을 처리하는 것은 형님에게 있으니, 바라옵건대 형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리고는 인하여 나무를 꺾어 조그마한 牌^패를 만들어 차면서 말하길, “내가 오랑캐 진영에 가면 기필코 즉시 죽음을 당할 것이니, 屍體를 수습할 때에 이 木牌로 증거를 삼아 처리하십시오.”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丁丑年(1637 仁祖 15) 1월 29일에 崔鳴吉은 두 분을 押送하여 西門으로 나서는데, 여러 親友들이 모두 문밖까지 나와서 전송하면서 통곡으로 작별하자, 보는 사람이 城中에 가득하고 울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두 분의 얼굴빛은 태연하고 조금도 슬픈 빛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슬피 여기며 감탄 하였다. 敵陣으로 가다가 한군데 양지바른 언덕에서 잠시 쉬는데, 崔鳴吉이 말하길, “公들은 스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도가 있소. 저들 陣營에 倒着해 힐문이 있으면 공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요. 斥和는 유독 우리들만 특별히 한 일이 아니라 臺閣의 사람들이 함께 한 일ियो 라고 이름을 열거하면, 形勢上다 죽이지는 못할 것이요. 이것이 어찌 좋은 計策이 아니겠소?” 두 분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분은 곧 일어나 길을 가면서 서로 말하길, “저 사람이 우리의 입을 빌어서 名流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함이니, 大奸의 계략이니 더더욱 교활하고 참담 하구려” 하였다. 오랑캐 진영에 도착하자 적장 龍骨大가 나와서 맞이한다. 崔鳴吉은 두 분의 冠帶관대를 除去하고, 두 손을 뒤로 제쳐 묶어놓고 龍骨大가 안으로 들어갔다. 龍骨大가 다시 나와서 「汗」의 말이라고 힐문하며 말하길, “너희들이 만약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 생각 했다면 大軍이 쳐 들어왔는데 왜 나와서 戰鬥를 하지 않고 도리어 이와 같이 궁색하게 되었느냐?” 두 분이 말하길,

“우리나라는 大明을 섬겨 온지 300년이나 되었다. 온 나라 官民이 明나라만 있는 줄 알 따름이다. 너의 나라는 이미 분수에 넘치는 皇帝의 大號를 僭稱참칭하고 있으니, 義理上 끊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今年 봄에 이미 義를 내세워 너희와 去來를 물리치고 끊은 것이다. 얼마 안 되어 信使를 다시 통한 것은 심히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로

써 우리는 과감하게 爭論하였으니, 우리들이 爭論한 것은 오직 大義 일 뿐이요, 勝敗와 存亡은 논할 바가 아니다.” 龍骨大는 잠자코 있다가 결박을 풀게 하고, 陣中에 감금 시켰다. 龍骨大가 崔鳴吉을 보고 이르는 말이 “이 무리 들은 나의 원수이다. 이제 이들을 결박해 온 것은 공이 마음을 다해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요.” 하면서 술과 음식을 내려 주었다. 賞으로 담비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주었다. 최명길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吳·尹 두 사람은 만일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가히 無事히 목숨이 보전 될 것이었으나 敵陣앞에 이르러 대답한 말이 서로 어긋났으니, 이는 반드시 두렵고 겁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자 듣는 자들이 침도 빨고 어이가 없어 껄껄 비웃었다.

이날 저녁에 龍骨大가 다시 와서 심문 하였다. “너희들의 이름은 내가 그전에 듣지 못했으니, 특별히 斥和를 主唱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으뜸으로 斥和를 主唱한 사람이 洪翼漢 한사람 뿐이 아닐 것이다. 이제 만약 전부 사실대로 고하면 너희들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吳達濟가 답하기를,

“내 나라에서 이미 우리들을 조사하여 여기 보냈는데, 달리 어느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들은 다만 한번 죽음이 있을 것만 알 따름이다. 어찌 죽는 것이 두렵다고 무고한 다른 사람을 끌어드리겠느냐?” 龍骨大는 두 번 세 번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해 가면서 말하길, “지금 잘 생각을 안 한다면 후에는 비록 위유치더라도 기회가 있겠느냐?” 두 분이 말하되, “죽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머리를 이고 왔으니, 죽으려면 빨리 죽여라. 다시는 거둬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다.

오랑캐가 訊問신문을 마치고 철수하여 갈 때에 한 將帥에게 명하여 두 분을 책임지고 陣 뒤를 따라 北으로 끌고 가라고 하였다. 그 장수는 두 분 節義에 감복 하였고, 항상 존경하면서 잠자리나 음식 등을 만드시 스스로 살피고, 검사하기를 처음부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공들을 위로하여 말하길, “심양에 도착 하자마자 만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요.” 라고 했다.

尹公이 吳公에게 일러 말하길, “우리가 갓은 곤욕을 맛보고 궁색하게 오랑캐 땅에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나라 땅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소.” 하니, 吳公이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人間이 이 세상에서 한번은 죽습니다. 죽을지라도 그 죽을 장소를 얻어 우리의 節義를 밝힌다면, 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소. 왜 하필이면 匹夫의 하찮은 생각을 따르려 하십니까?” 하였다. 信川에 이르러 오랑캐는 열흘이나 머물렀다. 吳公은 집에 보낼 편지를 써서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일행이 대동강 변에 당도하여 한 村家에 留宿하게 되었다. 드디어 몰래 주인 老人에게 집에 보낼 편지를 부탁하고 또한 絶句 한 수를 벽에다 썼다. 오랑캐가 漢人을 불러다 보였는데, 별다른 말이 없이 갔다. 그 노인은 오랑캐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글을 平安監司에게 보냈고, 감사는 政院으로 보냄으로써 나라에서는 吳公의 집으로 전하였다. 거기에는 편지 한 장에 두 首의 詩가 있었으니 어머니께 드리는 詩이고, 다른 한 장의 편지에 있는 두 수의 시는 형님과 부인에게 쓴 시이다. 그 벽에 쓴 시는 전하지 않는다.

어머니께 올린 시에 이르기를,

上 母夫人 *** 其一 ***

風塵南北各浮萍	난리 속에 남북으로 부평초처럼 흩어졌으니
誰謂相分有此行	이처럼 헤어져 갈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別日兩兒同拜母	떠나던 날 두 아들이 어머니께 절했는데
來時一子獨趨庭	올 때는 한 아들만 홀로 뜰에 나아가리
絕裾已負三遷教	옷깃 끌고 나왔으니, 삼천지교 저버렸고
泣線空悲寸草情	소리 없이 우시는 큰 슬픔은 애뜻한 어머니 정일세
關塞道修西景暮	胡地로의 길은 멀고 저녁 해 저무는데
此生何路更歸寧	이승에서 어느 길로 다시 문안 올리리까

*** 其二 ***

孤臣義正心無作	외로운 신하 반듯한 의리 마음에 부끄럼 없고
聖主恩深死亦輕	성스런 임금님 은혜 깊어 죽음 또한 가벼워라
最是此生無限慟	이승에서 가장 한없는 슬픔은
北堂虛負倚門情	동궁에서 마음조려 기다리실 어머니 정 버림이라.

寄 舍兄 형에게 보낸 편지에

南漢當時就死身	남한산성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楚囚猶作未歸臣	포로 되어 아직도 못 돌아간 신하라오
西來幾洒思兄淚	서쪽으로 오며 형 생각에 몇 번이나 눈물 뿌렸던고
東望遙隣憶弟人	동녘을 바라보니 아우 그릴 형 가련하네.

魂逐塞鴻悲隻影 님은 기러기 쫓는데 외톨 그림자 서러워라
 夢驚池草惜殘春 놀라 꿈을 깬 못 풀은 가는 봄을 애석해 하네
 想當彩服趨庭日 우리 형님 고운 옷 입고 어머니께 나아가
 忍作何辭慰老親 늙으신 어머니를 무슨 말로 위로할까

寄內-부인에게 보낸 편지

琴瑟恩情重 부부간의 깊은 사랑 중하기도 하건만
 相逢未二朞 우리 서로 만난지 두 돌도 못 되었소
 今成萬里別 이제는 그대와 나 만 리 밖에 헤어져 있어
 虛負百年期 백년가약이 헛되어 졌구려.
 地闊書難寄 땅이 넓고 멀어 편조차 부치기 어렵고
 山長夢亦遲 산은 첩첩하고 꿈조차 더디니 만나기 어렵구려.
 吾生未可卜 내 살길 점칠 수 없으니
 須護腹中兒 모름지기 뱃속의 아이나 잘 보호해주오

이 詩를 듣는 자 을지 않는 이가 없었다.

4월 15일 瀋陽에 이르렀다. 오랑캐는 두 분을 그들이 말하는 禮部
 衙門에 부아문이라는 조그마한 집으로 데려다가 留置하고 주변을 꼭 막
 아 守直을 엄하게 하였다.

4월 19일 이른 아침 龍骨大는 그들이 말하는 戶部に 앉아서 두 분
 을 불러 가더니 龍骨大는 청 태종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하길,
 “너희들이 비록 斥和를 하였다고는 하나 우두머리는 아닌 것 같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妻子息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살라.” 했다. 이에 두 분은 대답해 말하길, “이 말은 결코 따르지 않겠다. 모름지기 우리를 속히 죽여라.” 하니, 龍骨大는 반복해서 말했다. 겁도주고 억압을 해도 끝내 굽히지 않으므로 龍骨大는 일어나 들어가 버렸다. 두 분은 나와서 데리고 갔던 下人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오랑캐는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니, 下人들이 놀래 울면서 하는 말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의 화를 돋우어 스스로 큰 화를 빠르게 입으려 하십니까?” 두 분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몸을 굽혀 욕을 보는 것은 도리어 죽음보다 더 심하다. 이는 너희들이 알바가 아니니라” 하였다. 尹公은 또 그 下人에게 말하길, “오랑캐가 우리의 家屬까지 물었으니, 이는 바로 우리 집 식구들에게 까지 화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미 生死를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으니, 오랑캐가 다시 너희들에게 묻거든 너희들도 또한 나와 같이 대답 하여라.” 두 분은 드디어 태연하게 서로 웃으면서 평상시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 또 서로 말하길, “저들의 말을 따른다면 끝내는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 오랑캐가 될 것이니, 어찌 따를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얼마 후에 龍骨大는 다시 나와서 두 분을 끌고 들어가다가 또 下人 세 사람(吳奴 1, 尹奴 2)을 담 모퉁이에 拘禁 시켰다. 당시 우리나라 宰臣과 侍講院의 官員을 龍骨大가 불러 함께 앉혀 놓고, 龍骨大는 다시 소리를 질러 협박하니, 두 분 또한 抗辯하고 물리치기를 5~6 차례나 했다. 宰臣 등도 또한 두 번 세 번 권고하였으나 끝내 듣지를 않았다. 龍骨大는 끝내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드디어 오랑캐들은 두 분을 결박하여 끌고 매우 급하게 나갔다. 두 분은 오히려 뒤돌아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드디어 瀋陽省 西門 밖으로 끌고 갔

다. 여기가 오랑캐들이 死刑을 집행하는 장소이다. 宰臣들도 나와서 서로 돌아보며 하는 말이, “참으로 만 마리의 소가 끌어도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안타까워했다.

5월 24일 質館의 관리 南以雄, 朴魯, 朴潢, 등이 成貼을 올렸는데, 그 書狀에 이르기를, “지난 4월 19일 龍骨大가 우리 세 사람을 부르고, 兼輔德^{검보덕} 李命雄을 불러 앉혀 놓고 尹集 과 吳達濟를 끌어낸 앞에서 傳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하나 특별히 人命을 중히 여겨 전부 살려주고, 妻子들을 거느리고 와 이곳에서 살게 허락 하고자한다.” 하였지만 尹集은 “妻子는 난리 통에 生死를 알 수가 없다.”하였고, 吳達濟는 “죽음을 참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만일 살아서 돌아간다면 다시 우리 임금과 老母를 뵈고자 함이었는데, 만약 결과가 이와 같이 굴욕적인 것이라면 사는 것이 도리어 죽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龍骨大는 “살려줄 생각은 있는데 抗拒가 이와 같으니 이제는 다시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거늘, 臣等은 대답을 하되, “이 사람들은 다 같이 年少한 사람들인지라, 임금이나 부모를 생각함이 너무도 간절하여 망령됨이 이와 같았소. 만일 온전하게 살려준다면 어찌 歷史에 아름다운일이 아니겠소.” 하고 再三 간절히 말했으나, 끝내는 刑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6일 그 書狀이 우리 朝廷에 왔고 上께서 政院에 전교하기를, “두 臣下의 일은 지극히 가슴 아프고 측은하다.” 하며 그 遺族에게 매월 祿俸을 주라고 하였다. 두 분이 죽을 당시 弼善 鄭雷卿이 質館에 있으면서 通譯을 시켜 屍身이나마 수습하게 해 달라고 간곡히 要請하였으나 오랑캐는 끝내 許諾하지 않았다.

吳公은 너그럽고 모든 일에 정성과 信義가 있으며, 端正 正直 하였고, 평상시에는 溫恭하여 말을 잘 못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國家의 利害와 政令의 得失을 논함에 있어서는 氣勢가 등등하여 回避하는 바가 없으므로 듣는 자들은 목을 움츠렸다. 性品이 지극히 孝誠스러워 友愛롭고 모든 行實이 篤實 하였으며, 평생토록 한 가지도 根本 안 됨이 없었다. 이와 같은 고로 그를 상대하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孝悌의 마음이 자연히 왕성하게 일어나곤 하였다. 妻家인 南氏宅에 있을 때에 날마다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곤 問安을 드렸다. 南氏宅에서 혹 타고 갈 말과 侍從을 내주지 못해도 徒步로 마을을 지나다 났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르지 않았다.

평상시 그의 妻男 南一星[남구만의 부친]에게 말하길, “보통 사람들은 죽고 사는 마당에 있어서 그 지켜야 할 바를 잃는 수가 있고, 이해에 겁을 낸다. 그래서 내가 古今의 역사를 보니, 이로운 것만을 택하는 자는 반드시 살지를 못하고, 危害한 곳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죽지를 않는다.” 고 하였다. 또 “옛날에 唐나라 무후가 즉위할 때에 褚遂良^{지수량}이라는 사람이 直言을 하되, 武曌^{무조}가 先帝를 대대로 잘 섬겼다고 하였다. 신하된 자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形勢가 垂簾^{수렴}의 아래에서 撲殺^{박살}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오히려 官職에 나아가 생을 마칠 수가 있었다. 長孫 武忌는 자못 우물쭈물하였고, 또 천자의 外叔이란 親分과 天子를 옹립하였던 功勳이 있었으나 끝내는 滅門之禍를 못 면했다. 이로써 말 한다면 사람은 마땅히 자기 앞에 당한 일만 할 따름이다. 또한 그 이해를 따져서 進退하는 바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것은 ‘聖人이 내가 좋아하는 가르침만 따르라.’ 는 訓戒가 있었던 것일세.”라고 말 했었다. 그의 伯父 秋灘^{추탄} 左議政 允謙은 栗

谷, 牛溪 선생 문하에서 수업 하였고, 公은 秋灘 선생께 배웠으니, 그 淵源연원 의 멀고 깊음이 이와 같다. 그런고로 樹立한 節義가 이와 같아서 비록 그 氣質이 特異하더라도 학문의 실력이 또한 속일수가 없었다. 처음에 申씨와 혼인 하였으나, 子孫이 없이 후하여 縣監 南弼의 딸과 再婚 한지 겨우 一年을 넘겼는데, 난리를 만나 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遺腹子유복자가 있어 둘 만에 女兒를 낳았으나 요절하였다. 사람들은 다 하늘도 무심 하다고 애석해 하였다. 孝宗 때에 筵臣 金始振이 狀啓를 올려 말하길, “洪翼漢 尹集 吳達濟 세 사람의 節義는 마땅히 贈職과 褒賞을 하여 後世에 敎訓을 삼아야 합니다.” 하고, “당초에는 족박하였고 오랑캐의 의심과 뒤탈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난고로 褒賞포상해 줘도 다른 우려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 主上께서 즉시 命하여 施行 하도록 하였다. 이에 公을 副提學에 贈職 하였다.

庚辰年(1640)에 朝廷에서 明나라에 비밀계획을 密通하고 있었는데, 오랑캐가 알아차리고 崔鳴吉을 심양으로 잡아갔다. 최명길의 詩를 썼다.

내 비록 三學士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我雖不殺三學士
한밤중 이를 생각하면 마음 절로 놀람도다	中夜思之心自驚
天道는 자초로 바뀌어 순환하기 좋아하여	天道由來好回換
늙은 몸으로 오늘 또 西行을 하는구나	白頭今日又西行

崔鳴吉이 만약 그때 죽음을 당했더라면 조금이나마 贖罪속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끝내 無事 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피차의 사이

에 抑揚억양하는 바가 있는 것인가.

[附後識]

삼가 『春秋』의 義를 상고하건대 列國 諸侯의 臣들이 내가 天子를 모시는 慶事인 近衛兵 이라고 하고, 自稱 諸侯의 代父라고 하여 대개 皇國에서 이탈하여 나뉘어 진다. 하늘의 法則과 땅의 順理, 人間의 뽕뽕한 큰 位階秩序가 어그러지면 곧 禽獸금수인 것이다. 우리 太祖大王께서 나라를 세웠을 때 明 고황제가 朝鮮이라는 國號를 내려, 東方의 諸侯가 되었고, 우리 朝鮮은 代代로 諸侯의 道理를 지켜왔다. 精誠으로 늘 조심하였으므로 太宗 때에 皇帝가 하는 말이, “朝鮮의 國王은 나를 欽愛^{음애}하는도다.” 라고 하였다. 壬辰倭亂이 일어나 宗廟와 社稷이 폐허가 될 지경에 神宗皇帝가 天下의 兵力을 일으켜 보냄으로 나라를 보전 할 수가 있었다. 즉 우리 東方의 草木이나 곤충에 이르기까지 皇國의 덕이 아님이 없다. 丁丑年(1637)의 오랑캐가 변을 일으켜 일이 다급해져 東國의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리되었는데, 黃河의 曲折이 아무리 많아도 물은 반듯이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원칙적인 마음은 일찍이 변함이 없었다. 우리 孝宗大王 때에 이르러 聖旨가 뛰어나셔서 日月과 같이 밝으셨다. 저 三學士는 능히 죽음으로써 그 마음을 밝혔으니, 하늘의 法則, 땅의 의로움, 人間의 倫理가 시행되고 헛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孝宗大王의 높은 政治와 制度가 유감이 없으니, 어찌 隆盛^{용성}하지 않으리오. 或者는 말하길, “요사이느 『春秋』를 읽을 곳이 없다.” 하였으니, 대개

三學士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顯宗 戊申年(1668)에 임금께서 중요 정치 현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세 臣下에 대한 일들을 重臣들에게 물었다. 吏曹參判 閔鼎重^{민정중}이 구체적으로 前後 事實을 대답하였는데, 左議政 許積이 “일을 좋아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 짓입니다.”라고 하니, 민정중이 말하길, “그때에 오랑캐가 감히 明을 원수로 여겨 새로 나라를 세우고 天子의 呼稱을 제멋대로 써서 저 세 신하가 어찌 아파하지 않으며, 물리치려고 아니 했겠습니까?” 王이 이르기를, “明과의 관계상 大義로 보면 당연이 옳다. 하물며 몸을 버리면서 한 말을 능히 실천 하였으니, 名譽를 얻으려고 한다 함은 不可하다.” 고 하니 이는 진실로 聖君의 말씀이다. “세 신하(三學士)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祠堂을 짓고 祭祀를 지내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領議政 鄭太和가 말하길, “번거로운 소리가 들릴까 두렵습니다.” 이어 閔鼎重이 말하기를, “만약 士林들이 스스로 세우는 것으로 하면 禁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上이 그렇다고 하였다.

또 進士 李重明이 上疏하여 神宗皇帝의 祠堂을 지어야한다고 하였는데, 그 일은 上下가 의논이 일치하지 못해 마침내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금의 心中 인즉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고로 곧 그 사람에게 벼슬을 내려주었다. 나는 일찍이 이 의논이 早晚間 이루어지리라 짐작을 했다. 우리 孝宗께서는 의당 配享해야하고, 저 세 사람도 廟廷에 配享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 살피건대, 尹學士의 祖父 龍陽公 暹^{윤민}과 그의 兄 府使公 榮^{윤영}가 함께 殉節 하였고, 洪學士의 夫人과 두 아들 및 子婦는 함께 오랑캐를 만나 욕을 안 당한다고 깨닫고 죽었다. 尹學士의 節義는 맑은 바가 있었고, 洪學士의 節義는 준바가 있었으니, 어찌 우리의 列聖祖와 皇上께서 政治를 잘 하신 보람

이 아니리오. 같은 때에 金淸陰(김상헌) 같은 분과 鄭桐溪(정온)는 또한 역사에 큰 의로움으로 남을 것이다. 黃參知 一鎬도 오랑캐에게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들 璉진이 나이가 어렸다. 항상 하늘을 부르며 울었다. 일찍이 黃公의 遺跡을 나에게 보이며 序文을 청하였다. 대개 그 아이의 아버지의 災殃이 대략 서로 같은 類이다. 얼마 있다가 黃生이 홀연히 졸 하였는데, 내 목이 메고 마음이 아파 오래도록 가시질 않았다.

이제 淸州牧使 南九萬이 나를 보러 와서 하는 말이, “吳學士는 나의 姑母夫 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일찍이 슬퍼하시면서 그 사실의 자료들을 모아 한 묶음이 되었는데 作者로 칭하고자 하며, 傳記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姑母는 근심을 하시며, 이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빌고 계십니다. 고로 아울러 三公의 일을 부탁드립니다.” 고 하였다. 이윽고 소문을 들으니, 南公의 姑母가 별세하였다고 한다. 내가 前後의 사실들을 깊게 알고 있어 이일은 죽더라도 恨이 되겠기에 筆跡과 글들을 모아 글을 쓰고 이름을 『三學士傳』이라고 하였다.

죽은 자도 이 글을 쓰는 것을 안다면, 장차 早晚間에 恨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이것을 읽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나 歷史에는 의롭다고 하겠으나, 묘사이는 그 이름을 말하는 이가 오래되었다. (이하생략)

崇禎辛亥年(1671)(顯宗 12) 7월 일 恩津 宋時烈 짓다

『吳學士傳』과 『吳學士遺事』는 吳達濟의 妻男인 南一星(南九萬의 父親)이 지은 것인데, 일부 표현이 다른 곳도 있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다. 앞에 『吳學士傳』 譯文을 수록하였기에 『吳學士遺事』는 資料로써 原文만을 수록하고 南九萬의 追記만 原文 뒤에 譯文을 붙인다.

吳學士 遺事

公姓吳。諱達濟。字季輝。海州人。年十九。丁卯 中司馬。二十六。登別試文科狀元。歷成均館典籍, 兵曹佐郎, 侍講院司書, 司諫院正言, 司憲府持平, 弘文館副修撰, 修撰, 副校理。其爲副校理時。上疏斥主和臣崔鳴吉。卒以此被禍於胡中。時年二十九。公登仕二朞。抱疾閱歲。故在朝遺文無多。而且軼於兵亂。今所存者。惟應求言疏及斥鳴吉疏也。今皆別錄于後。公爲人寬厚忠信。端方正直。平居恂恂然似不能言者。及論國家利病時政得失。辭氣激昂慷慨。無所回避。聞者皆縮頸。自幼時性至孝。及長。以學問充之。凡所以持身處事。待人接物。無一不本於孝悌。故聞公之言。見公之行者。自不覺孝悌之心油然而生。其存於己而及於人者。蓋如此云。公伯父楸灘相公。受業於牛, 栗兩先生之門。而公自幼從相公學。其得於家訓者。自有淵源。向使公得終天年。則其所成就。惡可量哉。丙子春。奴賊以僭號事。來言于我國。我國旣以大義斥絕。其後崔鳴吉建議請送小譯於瀋陽。以探知賊情爲名。而其實將欲更通和議也。於是三司爭執。論議甚峻。而鳴吉於引對。乃曰。臺論雖發。一邊入送可也。公以玉堂。同入筵中。面斥鳴吉。鳴吉憤然曰。國事至此。年少之論如彼。小臣惟有縮伏而已。罷

出後。鳴吉又上封事。力請和事。公欲與同僚上劄舉劾。同僚皆退托不敢發。公獨上一疏。深斥鳴吉。目之以執拗逢君之一倖臣。上特命罷公職。是年冬十二月十四日。奴賊先鋒五百騎。猝迫都城。上幸南漢山城。公時罷官居家。倉卒聞變。徒步隨駕。是時崔鳴吉常爲使臣。往來賊陣。自體察使金瑬以下。皆附鳴吉之議。唯虜言是從。及出城之議既定。奴賊請得首謀斥和之人。廟堂欲送數十餘人。而其人等自相辨明。數日未決。於是清陰金公、鄭公蘊、尹公煌。皆以斥和自首。公與尹學士集聯名請往。而鳴吉之所深忌者。無如二學士。故竟以二人塞一國之禍。嗚呼慟哉。當時虜賊之所欲者。只是大駕之出城而已。是以其言曰。出城之後。萬事皆釋。大駕既定出城之計。則斥和臣送與不送。固是餘事。鳴吉力主出送曰。不送斥和臣。則和終不可成。故兇徒承望其指嗾。守堞兵詣闕下。迫脅君上請出斥和臣。前日尹學士疏所謂外挾強寇之勢。內劫其主者。於茲益驗矣。是時大司諫朴潢往見金瑬曰。斥和諸人。不須多送。吳、尹二人既自首。與其終不得免。曷若只送此二人乎。若使此言落於吳尹家人。則必以我爲讎。論以國體。多送決不可矣。金瑬曰。公言是也。議遂決。當公之初欲自首也。公之兄承旨公達升執手流涕曰。虜之所索者。春初首謀之人也。汝非首謀之人。奈何如是乎。公曰。雖非首謀。既斥和議。當初上疏時。固知有今日。而主辱臣死。分所甘心。豈容緘嘿以圖苟免。承旨公不能止。二學士將發。自上引見。涕泣而別曰。爾等無罪就死。予甚怛焉。又問老親有無子息多寡。尹公曰。臣早喪父母。只有祖母。時年七十七。且有三子。公曰。臣只奉七十歲偏母。子息不幸無之。而今殿下有問。臣不敢諱。一塊遺兒。方在腹中。上聞之。不禁涕淚。以至發聲嗚咽。因曰。國家存亡。今不可知。倘或復存。予當顧恤。爾等勿念。二學士亦涕泣拜謝而出。

是日。承旨公泣言於備邊司曰。余弟入城之時。無馬而徒。今不忍步送虜陣。願得一馬而騎之。聞者皆酸鼻。適日暮未及出送。承旨公達夜悲號。撫公之背曰。兄弟永訣。只隔今宵。余何忍生。獨見明日乎。而沉歸見老親與少嫂。將何辭以告。汝須趁此夜未明。言我以後事。俾無不及之悔。公曰。後事處置自有兄主。且男兒一死。貴得其所。願兄勿以爲悲。因就寢而宿。是夕。公手削小 木牌。承旨公曰。削此何爲。公笑曰。不須問。蓋當其出送也。人皆以爲卽殺陣前。以示我人。故欲於收屍之際。以此爲標也。丁丑正月十九日。使臣吏曹判書崔鳴吉領將體府中軍李顯達。押二學士。自南漢西門。出送賊陣。承旨公及平日親厚之人。往送于西門。慟哭而別。滿城觀者。莫不流涕。而公神色自若。少無憾容。人皆嗟異之。旣行到一陽坡。尹公將吸煙草。下馬而坐。一行人皆下坐。鳴吉謂二學士曰。公等雖有此行。自有免禍之計。其可不思而甘心獨死乎。尹公曰。何謂也。鳴吉曰。到陣則彼必有詰問之言。公等對云 此非吾兩人之所獨爲也。出入臺閣之人。孰不斥和。因盡言其時臺閣人姓名。則誅之不可盡誅也。豈非免禍之善策乎。二學士皆不答。卽騎馬登途相語曰。彼欲借我等之口。殲盡一時名流。大奸所爲。果是巧慘云。賊將龍骨大出迎使行于陣前。卽引二學士。脫其冠。解其所着之帶。反接兩手。然後龍胡卽入告于汗。有間出傳汗命曰。汝等斥和何意。若以我爲不足畏。則大軍之來。何不出擊。而反致窮蹙如是耶。二學士答曰。我國服事大明。今已三百年矣。一國臣民。知有大明而已。清國旣僭大號。則義所當絕。故我 國於春初。旣已據大義斥絕。而曾未幾時。又起和議。欲通信使。甚不可也。是以我等果爭之。我等所爭者。唯大義而已。勝敗存亡。不須論也。龍胡嘿然。卽命解縛。給冠與帶。因拘於陣中。謂鳴吉曰。此人等乃我之仇讎。而如是縛來。無

非使臣誠心覈出之致。深喜深喜。因設床饋酒。使臣及領將。各給貂裘一領。鳴吉歸言曰。吳尹一如吾所指。終必無害。出去之時。丁寧言說。而及至陣前。所答相反。是必畏怯而然。人皆竊笑。是日初昏。龍胡來問于二學士曰。汝等之名。非吾前目所聞。似非首倡之人。且首倡者。必非洪翼漢一人而已。汝等若盡言其姓名。則可免於死矣。二學士答曰。我國既查辦出送我等。乃首倡也。此外更有何人乎。且我等只欲一死而已。豈可畏死而誣引他人。以爲自免之地乎。龍胡曰。汝等胡乃固諱他人。自取浪死哉。我既知汝等之非首倡。汝等明言某人與某人之爲首倡。汝等當生還。不然。必不免死。今不熟計。後雖欲悔得乎。公曰。始出城時。已知有一死。死固其所。非所畏也。矧本無他人之可指名者乎。吾戴吾頭。當斷卽斷。勿復他事爲問。龍胡再三劫詰。終無異辭。及其解陣而歸也。率去主將。敬其節義。待之甚厚。親檢飲食。或自具饌以送。每日止宿。別遣差人。整飭看護。布帳地排。必使優厚。若有人家。必使就宿於溫垓。行到昌陵下。招與相見。饋以果饌。仍慰曰。行到瀋陽。必得生還。他日東歸。當驗吾言。其在中路。尹公曰。我等決無生還之理。與其受困於賊奴而終不得免。曷若先死於我國之地乎。公曰。不可。人生斯世。固有一死。死得其所。甚是樂事。當其死所。明我節義未晚也。何必徑死。自同匹夫之諒哉。到信川留十餘日。裁作簡封。藏諸袖中。欲逢我人傳寄。而軍行辟人。雖望見我人。無路傳與。到大同江。宿于江邊小村。有白髮老翁守家獨在。公乃出給簡封。使納于官家。老翁肯諾而受之。又書絕句於壁上。亦使老翁入告官家。使之傳寫以去。守直胡以壁上寫字之事。奔告于主將。胡人率解文漢人。來見其詩。謂無他語。卽還去。此詩竟不得傳焉。簡封自平安監營。送于政院。傳於本家。乃三張簡及四首詩也。一簡及

兩詩。上于大夫人前。一簡一詩。呈承旨公。一簡一詩。贈其內子。其上大夫人詩云云。其呈承旨公詩云云。其贈內子詩云云。厥後呵禁極嚴。更不得通書。既渡鴨綠江。到通遠堡。棄置二學士所騎馬。擇渠善馬。使騎而行。四月十五日。到瀋陽。由南門過世子館門前。而不得與我人接話。因置于禮部衙門內一房。鎖其外大門。守其牆四面。朝夕只給粟糜豬肉。嘔逆不堪食。十九日早朝。龍胡坐于戶部。招二學士去。其與龍胡問答之言。我人無聽之者故不傳。朝食時。二學士出來相與語曰。今晚我等必死矣。陪奴等驚惶問故。公曰。龍胡以汗命傳言。汝等雖曰斥和。似非首倡。不必殺之。須率妻子。來居此地。吾等曰。此事決不可從。須速殺我。渠再三誘脅。吾等終不屈。渠將以是意入告于汗。差晚必有處置矣。奴等悲泣拜乞曰。是何言也。今宜姑從其言。何可遽挑其怒。自速大禍乎。公笑曰。當事之初。已知有一死。到今日更何疑焉。屈身之辱。甚於一死。此非爾等之所知也。吾等雖死。爾輩則不死。因與尹公言笑自若。進朝飯如常。公謂尹公曰。死者雖人情之所難。而暫忍頃刻。則終歸不知。不足畏也。況所畏有甚於死者。區區圖活。豈不鄙哉。吾等若從彼言。率妻來居。則終爲左衽之臣。是可忍爲乎。有頃。龍胡又來戶部。招二學士去。而驅逐奴輩。使不得偕。及至戶部大門內。執三奴尹奴二。拘置牆隅小洞。二學士則引入龍胡前。我國宰臣與講院官。亦參在座。奴輩在於相望之地。雖不詳其說。望見龍胡之厲聲迫脅。二學士之抗言爭辯。幾五六次。最後命從胡縛束二學士。縛束之後。猶見顧視奮罵之狀。俄而引出大門外。將往瀋陽西門外。乃渠國刑殺處也。二學士纔出戶部門。胡人驅入三奴伏於階下。及宰臣等之辭退也。使之率往。宰臣等相顧言曰。吾等再三勸諭。使之勉從。觀勢更圖。而吳學士獨終始牢拒以至於此真所謂萬牛難回之人也。

五月二十四日。瀋陽宰臣南以雄，朴，朴潢等成貼書狀云。前日尹集，吳達濟。不知何以處置爲白如乎。去四月十九日。龍胡等。招臣等三人及兼輔德李命雄于衙門。坐定後。引出吳尹兩人於前。以皇帝之命傳言曰。此人等罪宜死。而特以人命之重。欲爲全活。許令率妻子入來。仍居此處云。則尹集則以爲經亂之後不知妻子存沒徐當聞見而處之。吳達濟則以爲至今忍死到此者。萬一生還。則庶欲復見吾君與老母矣。果若如此。則生不如死云。渠等不念皇帝全活之恩。抗言如是。今不可復貸矣。未知諸官之意如何爲白去乙。臣等答以此人等俱以年少。只切戀君親之念。妄發如此。若終始曲全。則豈非千載之美事乎。再三懇諭。而終不得免。慘不忍見爲白齊。其奴三名則送于臣等處爲白有如乎。今番並只以出送爲白齊。六月初二日。狀啓始來。上傳于政院曰。尹，吳等事極爲慘惻。依頃日下教舉行事。據戶曹啓曰。吳之母，尹之祖母。未知今在何處。問于可知處。知其所在然後。並其妻子恤典舉行爲當。但其老親與妻並給月料乎。敢稟。傳曰。知道並爲給之。聖朝揭厲之恩。嗚呼盛哉。公被禍時。鄭學士雷卿以文學陪世子。卽昭顯方在瀋中。遺札於吳學士家曰。吳修撰某。以四月十九日。遇害於瀋陽。人間豈有如此冤慘乎。當初吳尹兩人。皆在大軍後陣。四月十五日。始到瀋陽。自南門過世子館所門前。而不得與我人接話。厥後絕不聞消息矣。十九日。龍骨大招宰臣及講院長官。致兩人於座前。問於宰臣等曰。此人倡義絕和。使二國成讐。其罪極重。而皇帝重惜人命。貸渠之死。許率妻子入居于此。而尹則曰。妻子散於兵亂。不知死生。從當聞見而處之。吳則曰。吾之濡忍到此者。萬一生還。復見吾君與老母。若不得復歸故國。不如速死之爲愈云。此則皇帝欲生之。而渠乃促死。勢不得不殺。宰臣等曰。此乃年少不察之言。願貸其死。懇乞不已。骨大曰。此

則宰臣不識事體也。宰臣朴德雨、黃顧謂季輝曰：「君獨不聞徐庶事乎？使君老親聞君之生存，雖在異域，不猶愈於殞命乎？季輝終始不應，只低頭出涕而已。胡人等，即縛出拿向西門外，不知所處。雷卿等使譯官懇乞收屍，胡人竟不許，慘極慘極。生而敢諫，死而成仁，在長逝者何所憾？每念其老親妻孥，若刀割心，久不能忍。時運若此，作俘虜庭，早晚一死，若不如此友之彰明得所，則安知後死者？反爲先死者所問哉？只增吞聲拭血，不成書。其後鄭公在瀋陽，密議誅鄭命壽及龍馬兩胡，而事泄被禍。嗚呼，孰謂後死先死之言，反成後日之讖哉？鄭公臨死，有詩曰：『三良昔死遼河濱，關塞浮遊夢有隣。今招阿震添新伴，共訪令威作主人。三良則三臣，鄭公字震伯，故曰阿震。三復是詩，即前書先死後死之意。且其辭氣從容，視死如歸，真可謂季輝之友也。其後庚辰年間，朝家更通明朝事發，清人以爲崔鳴吉主其事，執之北去。鳴吉有詩曰：『我雖不殺三學士，中夜思之心自驚。天道由來好回換，白頭今日又西行。』此雖鳴吉所自道，亦可知公得禍之所由矣。孝宗四年癸巳三月，修撰金始振啓曰：『三學士節義，宜蒙褒贈。而當初則迫於猜疑，有所未遑。今則歲月侵久，保無他慮，宜有寵贈，以樹風聲。』上即命追爵洪翼漢、都承旨尹集及公副提學，皆殊典也。金城縣令南一星撰。

[附後識]

右先君所記吳學士遺事也。其抗言自守之義，臨死不屈之節，光明俊偉，足以撐宇宙而競日月。然死無子，腹中遺兒，既生乃女。又未朞而夭夭，之報善人，果若是而已耶？公於先君爲妹壻，先君痛其死高其

義。間嘗裒集見聞。備其顛末。其入南漢以前。卽先君所親見而知者也。其在南漢及出城時事。吳承旨達升所見而記之者也。其入虜陣以後至于臨命。吳承旨所得於虜陣往來人及奴子口傳而錄之者也。陽坡問答之說。尹學士弟柔所得於其奴者也。瀋陽宰臣狀啓及恤典恩旨。亦出吳承旨所錄。而鄭弼善雷卿札。卽抵於王父平康府君者也。此皆見聞明白。有足徵信。非若只憑騰口。人人異辭比也。且先君嫌不當作者。但直敘其實。欲使立言者裁之耳。是以意在於詳其事。而不暇乎致其文。至若宰臣狀啓。則雖是吏讀之不雅。亦盡錄而不刪。蓋欲人觀其全而信其實也。嗚呼篤哉。且鄭弼善於先君爲姨兄。先君痛其死與吳學士類。故因記其札。兼錄其詩。以致悲憤之意焉。九萬通籍以後入政院。考見山城日記。又直春坊。繙閱瀋中狀啓。其出城時事。比吳承旨所記。又加詳焉。宰臣狀啓。亦有數三訛字。嘗白于先君。欲有所正而未之及也。于今手澤猶存。而申稟已隔。天何酷也。今遵遺意。略有添加。而其所已載者。亦不敢沒一事。贈職恩命。亦在先君屬藁之後。故敢並記其下。嗚呼。先君平日嘗以公之語。訓于九萬曰。季輝謂余曰。凡人臨利害。多喪其所守者。蓋以惜生而畏死故也。雖然。以余觀於古今。擇利者不必生。而處害者不必死。昔唐高宗之立武璽爲后也。褚遂良言武氏經事先帝。此非人臣所敢言。其勢難乎免於簾下之撲殺。猶以愛州刺史終。長孫無忌頗有依違之意。終不敢抗論直斥。且有元舅之親定策之功。然而身罹慘毒。闔族俱赤。以此言之。人當爲吾之所當爲而已。又可較利害計死生。有所顧望前却哉。君子守道。死生初非可論。而其不可以容人力者。又如此。此聖人所以有從吾所好之訓也。噫。此季輝素所蓄積。其舍生不渝。豈但一時慷慨之激而已哉。且先君祭公文。有曰兄嘗謂余。凡人處死。若不能斷之於初。而以姑待他日爲心。則至他

日。又有待他日之心。終不免偷生苟免之歸。吾儕當以此爲戒。其在虜庭。實踐所言。兄於此事。其講之素矣。嗚呼。推此二說。亦可槩想公之風旨矣。公之始委禽於吾王父家也。日往拜其大夫人。而吾王父家貧。不能具其騎乘。故公時已官侍從矣。然猶徒步過市道。風雨寒暑。未嘗廢。一日進食。適臭蟲墜於羹。婢子不覺以供。公和飯於羹。食半嚼蟲中斷。吐哺置器底。仍盡食其羹而無所問。食訖退案。吾王母始知之大驚。使姑氏微問之。公笑曰。余於飲食。不甚苛擇。豈以一蟲之故。盡棄一器之羹耶。且婢子之進食。非不謹也。不覺而已。又何足呵責焉。公有時詣官府。使婢子具食以來。而約定其數。飯羹醬菜四器而已。家人嫌其略也。或加一器。則輒怒責。撤其器而還之。吾王母素多疾。吾母氏嘗代主中饋。躬執滌灑。故習知其事。每以語九萬曰。吳學士之在吾舅家僅歲餘。其大者吾不知。其小者猶如此。意者其篤孝寬厚。敦素不移之君子歟。嗚呼。公之平日言行可傳者必多。而吾莫之聞。吾之所得於家訓者。如右而已。不敢以其細而忽之。並記其詳。使欣慕者觀焉。以備存想之一助云。崇禎紀元後丙午日南至。孤子九萬泣血謹書。

[附後識] 譯文

위의 글은 先親께서 기록하신 것으로 吳學士의 遺事이다. 그 抗言으로 自身을 지킨 義氣며 죽음에 임해서도 굴하지 않은 節義는 밝게 빛나고 뛰어나게 위대하여 족히 宇宙를 떠받쳐 버릴 만큼 위대하고, 日月의 光明과 다를 만큼 빛난다. 代가 끊겨서 作故하셨으나 다행히

뱃속에 아기가 있어 낳고 보니 女兒였으며, 또 一年이 못되어 夭折하니, 하늘은 善良한 사람에게 報答한다는 理致가 이렇단 말인가. 公은 先親의 妹夫가 되는지라 先親께서는 公의 죽음을 哀痛해 하셨고, 그 節義를 높이 샀다. 일찍부터 능름히 보시고 들으신 資料를 수집하여 그 顛末을 具備하셨다. 南漢山城에 들어가기 以前 내용은 先親께서 친히 보셨던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며, 南漢山城안에 있을 때와 出城할 때의 일들은 吳承旨 達升公이 본 바를 記述한 것이다. 오랑캐 진영에 들어가신 후 殉節하실 때 까지는 吳承旨가 오랑캐 진영을 往來한 사람과 下人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 얻은 바를 기록한 것이다. 陽坡의 問答이야기는 尹學士의 아우 柔가 그 從者에게서 얻어 들은 것이다.

瀋陽 宰臣의 狀啓와 恤典 恩旨는 또한 吳承旨의 所錄에서 나온 것이며, 鄭弼善 雷卿의 書札은 할아버지 平康府院君께 전해온 것이다. 이처럼 보고 들음이 명백하니, 족히 믿을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을 빙거할 것 같으면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 좇을 수가 없다. 또 先親께서는 온당치 못하게 짓는 것을 혐오하시어, 다만 그 사실을 정직하게 敍述하셔서 立言者로 하여금 헤아려 판단하게끔 하고자 하셨다. 이러한 意圖로 그 사실을 상세하게 밝히려 하였으나 겨를이 없어 위의 글에 이르렀다.

만약 宰臣의 狀啓가 이르러 吏讀文이 바르지 않았어도 역시 다 기록하고 削除하지 않았다. 대개 사람들이 그 온전함을 보고자 하였고 그 사실을 믿었다. 아! 篤實하셨도다. 또 鄭弼善(鄭雷卿)은 先親의 姨從兄이 됨으로 그 죽음을 애통해 하셨다. 더불어 吳學士와 類似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 書札을 記述하고, 겹하여 그 詩를 수록함으로써

悲憤의 뜻을 極盡히 하셨다. 九萬이 여러 기록의 내용을 通讀한 후 承政院에 들어가 山城日記를 詳考하여 보고 또 春坊(세자시강원)의 瀋陽在中의 狀啓를 직접 열람하였다. 出城할 때의 사실은 吳承旨(吳達昇)의 기록이 더 상세하였다.

宰臣들의 狀啓 역시 서너 곳에 잘못된 글자가 있었다. 일찍이 先親께 고하여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손때가 묻도록 잘 간직하여 오다가 오랜만에 稟하여 펴내게 되었다. 하늘이 어찌 가혹하기만 하랴. 이제 先親의 遺意를 받들어 若干을 첨가해서 기재한 것이다. 한 가지 감히 빠뜨릴 수 없는 것은 公의 贈職 恩命인데, 역시 先親께서 원고를 작성한 후에 있었던 까닭에 감히 그 아래에 併記하였다. 先親께서는 평소 公의 말씀으로 九萬을 訓戒하시기를 “季輝가 내게 일러 말하되, 무릇 사람이 利害에 부딪히면 많은 사람이 그 지킬 바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대개가 生命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비록 그렇기는 하나 내가 古今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이를 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살지만은 않았고, 危害에 처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죽지만은 않았소.” -中略-

오호라! 이것은 季輝의 蓄積한 본바탕이며, 그가 목숨을 버리고 더럽히지 않았음이다. 어찌 단지 일시적 慷慨강개로 인한 激奮격분이라고 할 수 있으리오. 또 先親께서 公의 祭文에 하신 말씀이 있으니, “兄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무릇 사람은 죽음에 처하여 만약 처음에 단행하지를 못하고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은 다른 날이 되면 또 다른 날로 미루려는 마음이 있게 되니, 끝내 삶을 흠쳤다는 말을 면치 못하고, 구차하게 죽음을 면한 것으로 歸結되고 만다. 우리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일렀으며, 오랑캐의 뜰에 있으면서 말

씀한 바를 實踐하였으니, 兄은 이 사실에서 그 根本을 講論하셨습니
다.”라고 쓰셨다. 슬프도다! 이 두 말씀으로 미루어 또한 公의 風道
와 意趣를 대강은 상상할 수 있겠다.

公은 나의 祖父님 덕에 장가 드셨다. 매일같이 그 어머니를 가 뵈
었으며, 公은 그때 이미 벼슬이 侍從官으로 계셨는데, 나의 祖父宅이
가난하여 타고 다니실 馬匹을 갖추어 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저자거
리를 걸어서 지나다니시고, 비바람이 치던, 춥던 덥던 간에 일찍 어
머니를 찾아가 뵈는 일을 거르지 않으셨다. 하루는 朝飯床을 물리는
데, 마침 여종이 국에 벌레가 빠져있는 것을 모르고 供饋공케하였다.
公께서 국에 진지를 말아 드시다가 벌레를 씹자 잡숫기를 중단하고,
그릇에 뱉어서 밑에 내려놓으시고, 거듭 그 국을 다 잡수셨으며, 아
무 말씀도 없이 잡숫기를 마치고 상을 물리셨다. 내 祖母님께서 비
로소 이를 아시고 크게 놀라 姑母로 하여금 은밀히 묻게 한즉 公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음식을 취함에 심히 까다롭게 가리지
않소. 어찌 한 마리 벌레 때문에 한 그릇의 국을 다 버리겠소.” 하시
며 “여종의 상 올림에는 恭敬하지 않음이 없었고, 다만 몰랐을 따름
이었으니, 다시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도 마시오.” 라고 하셨단다.

公께서 官府에 나갈 때에는 여종으로 하여금 식사를 갖추어오게 하
시되, 반찬의 가지 수를 약정하여 진지와 국 간장과 나물 등 네 가지
뿐이어서 家人들이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그렇게 하였다. 혹 한 가지
라도 더 놓으면 번번이 노하시어 꾸짖고 그 그릇을 거두어 돌려보내
셨다. -中略-

아! 公의 평소의 言行이 전하여지는 것이 반듯이 많이 있겠으나,
내가 듣지 못하였고, 우리 家訓에서 얻은바가 위의 기록과 같다. 감

히 세밀하게 쓰지 못함으로써 소홀할까 하여 상세하게 併記하였다.

崇禎紀元后 丙午(1666 顯宗7년) 11월 동짓날

孤子 九萬이 슬피 울며 삼가 쓰다.

附錄

顯節祠 各種 告由祝斗 笏記



南漢山城全勝門(北門)

顯節祠祠宇 解體復元 後 位牌還安 告由祝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四十四年 歲次辛卯九月丙辰朔 初八日壬辰
都有司 韓洛教 敢昭告于

丙子胡亂 忠節 五先生

伏以 立祠構築 歲久月深 風磨雨洗 玄纁褪色 柱壁頽落 因以移安 東
廡設坐 已經年餘 今茲 京畿文化財團 施行役事 祠宇解體 改修復元
丹青新粧 正殿兩廡 優雅清晏 奉省之地 慰儀是俱 際茲還安 焚香獻
爵 奉安古處 伏惟尊靈 永安是綏 茲敢 虔告謹告

엿드려 아뢰옵니다. 사당을 세운지 많은 세월이 지나 비바람에 꺾이고 단청
이 퇴색하였고, 벽과 기둥이 퇴락하여 부득이 位牌를 東廡에 모신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금번 京畿文化財團에서 祠宇를 해체하고 役事하여 改修 復元하
고 새로이 丹青하여 本殿과 兩廡를 우아하고 깨끗하게 丹粧하였기에 儀禮를
갖추어 이제 還安하옵니다. 焚香하고 獻爵하오니 존령께서는 永世토록 편안
가시기 바라옵니다. 이에 경건히 삼가 고하나이다.

工事로 因하여 位牌를 東廡로 移安 告由祝

維 歲次壬辰八月戊辰朔初八日乙丑 都有司韓洛教敢昭告于

丙子胡亂 斥和五先生之位

伏惟 祠廟重建 今將 奉安五位 移安東廡 處所狹陋 不日其成 尊靈不
警 茲敢 虔告謹告

병자호란 척화 오현이시어

엿드려 아뢰웁니다. 祠堂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奉安한 다섯 분의 위
패를 동무에 옮겨 모시려 하느바 처소가 비좁고 누추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
아 준공 할 것이오니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시옵기 바라오며 감히 경건히 삼
가 고하웁니다.

祭床交替後 告由祝

維 歲次甲午正月丙辰朔二十五日甲寅

都有司韓洛教敢昭告于

丙子胡亂斥和五先生

伏惟 奉安 交椅祭床 備置歲久 圯裂破弊 今將交替 新改製作 形狀端
雅 尊靈永安 茲敢 虔告謹告

병자호란 척화 五賢이시어

엿드려 아뢰나이다. 신주를 모신 교의와 제상이 비치한지가 오래되어 갈라지
고 깨어지고 헐어서 금번 교체하고자 다시제작을 하였습니다. 모양이 단아하
오니 존령께서는 영세토록 편안 하소서 이에 감히 경건히 삼가고하나이다

趙億東 廣州市長 再選 告由祝

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三年 歲次庚寅六月癸亥朔初二日甲子

廣州市長 漢陽后人 趙億東敢昭告于

丙子胡亂 顯節 五賢

伏以 猥濫不肖 惠施陰助 廣州市長 再選得榮 盡忠報國 誠心治政 倍
加盡力 以報忠節 茲敢 虔告謹告

광주시장 한양후인 조억동은 엿드려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병자호란 현절오현이시어

불초소생이 도와주신 은혜로 외람되이 광주시장에 재선되는 영광을 얻었습
니다. 진충보국하고 성심을 다해 치정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五賢의
忠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에 감히 경건히 삼가 고하나이다.

顯節祠誌出版告由祝文

維 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一年 歲次戊子十二月辛丑朔 十二日壬子
都有司韓洛教 敢昭告于

議政府 左議政 贈 領議政 諡 文正公 金先生

司憲府掌令 贈 領議政 諡 忠正公 洪先生

弘文館校理 贈 領議政 諡 忠貞公 尹先生

弘文館副校理 贈 領議政 諡 忠烈公 吳先生

丙子胡亂 忠節五賢

伏惟 奉安五賢 凜凜氣概 不屈節義 亂後到今 三百餘年 今 次
密陽朴公光雲先生詳考行跡顯節祠誌執筆撰述 端雅編製 茲敢獻
冊 虔告謹告

엎드려 아뢰옵니다. 봉안오현이시어 능름하신 기개와 불굴의 절의를 펴신지
삼백여년이 흘렀습니다. 금번 밀양박공 광운선생께서 행적을 상고하시어 현
절사지를 집필하시어 단아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책자를 헌정하오
며 삼가 경건히 고하나

林炳龍顯節司都有司退任告由祝文

維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一年歲次戊子三月丙子朔初五日

都有司 林炳龍敢昭告于

丙子胡亂 斥和五先生

伏以 追慕奉審 誠盡有司 今此 身衰有疾 所任難堪 茲敢辭任

虔告謹告

도유사 임병룡은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병자호란 척화 오현이시어

엿드려 아뢰옵니다. 추모하며 받들어 살피드리는 책무를 정성을 다해 맡아
했습니다. 이제 몸은 쇠약하고 질병도있어 맡은바 소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에 감히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건히 삼가 고 하나이다.

朴光雲 崇烈殿參奉 就任告由祝

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八年 歲次乙未五月癸亥朔十五日丁丑

都有司 韓洛教 敢昭告于

丙子胡亂斥和五先生

伏惟 今爲 密陽后人 朴光雲 顯節祠有司 廣州儒林 所薦 崇烈殿參奉
所任盡忠 以報忠節 茲敢 虔告謹告

엎드려 아웁니다. 밀양후인 박광운 현절사 유사께서 광주유림의 추천으로 승
렬전 참봉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소임을 다하여 진충하고 충절에 보은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웁고 이에 감히 삼가 경건히 고하나이다.

顯節祠焚香奉審笏記

奉香奉爐 盥水帨手 各就位 開檀点燭

贊儀 進焚香官之前請行事

焚香官以下 皆再拜

贊儀引焚香官詣盥洗位

盥水帨手引詣文正公金先生神位前跪 奉香奉爐 奉 香盒香爐

焚香官三上香 興平身

引詣文簡公鄭先生神位前跪 奉香奉爐 奉 香盒香爐

焚香官三上香 焚香官興平身

引詣忠正公洪先生神位前跪 奉香奉爐奉香盒香爐

焚香官三上香焚香官興平身

引詣忠貞公尹先生神位前跪 奉香奉爐奉香盒香爐

焚香官三上香焚香官興平身

引詣忠烈公吳先生神位前跪奉香奉爐奉香盒香爐

焚香官三上香焚香官興平身

焚香官執事者還復位

焚香官以下皆再拜 拜興 拜興 平身

贊儀詣焚香官之前告禮畢

顯節祠誌 獻呈 告由笏記

*今次 行禮

*贊人引祝官及執事者入就拜位

*祝以下諸執事再拜 拜---興 拜---興 平身

*祝及諸執事詣盥洗位盥水帨手

*各就位開壇 點燭

*贊人引獻官及諸生入就拜位 再拜 拜---興 拜---興 平身

*引詣獻官盥洗位盥水帨手

*引詣金先生香案前 跪

*奉香獻官之右跪奉香盒 *奉爐獻官之左跪奉香爐

*獻官三上香

*祝奉顯節祠誌授獻官獻官受誌獻誌授祝

*祝受誌奠于五位神位前

*大祝獻官之右跪 諸生皆俯伏 *讀祝

*獻官以下俯伏興平身還復位

*執事消燭閉櫬降復位

*贊人引獻官望燎位北向立

*祝就祝板降自西階置於坎

*獻官可燎置土半坎 *引降復位

*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 俱復拜位

*獻官以下皆再拜 拜---興 拜---興 平身

*獻官以下皆出

顯節祠社團 定款

第一章 總則

第1條 (名稱) 本社團은 顯節祠라 稱한다. 本社團은 民法上 非法人 社團이다. 顯節祠라는 祠宇名은 紀元 4026年(肅宗25년癸酉 - 西紀 1693年)에 賜額한 祠宇名을 傳承한 것이다.

第2條 (所在地) 本社團의 所在地는 廣州市 南漢山城面 山城里 310-1에 위치한 京畿道 有形文化財 第4號(1972年5月4日)로 指定된 祠宇이며, 事務室은 山城里 279番地에 자리한 守僕 舍로 하고, 廣州市 管內에 連絡處를 둔다.

第3條 (目的) 顯節祠의 設立目的은 다음과 같다.

1. 紀元 3969年(西紀 1636年) 丙子胡亂 때 敵都 瀋陽에서 殉節한 洪翼漢, 尹集, 吳達濟 등 三學士와 當時 斥和臣의 領袖인 金尙憲, 鄭蘊 先生(以下 五賢으로 稱함) 등의 盡忠輔國 정신을 繼承하고, 그 忠節을 기리기 위하여 春秋 2回 陰曆 3月과 9月의 中丁日에 祭享을 받든다.
2. 奉安된 五賢이 丙子胡亂에 忠節을 다하여 殺身報國한 崇高한 精神을 顯彰하고, 우리 民族魂으로 삼아 愛國精神을 後世代에 涵養하는데 盡力한다.

第4條 (事業) 위 目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遂行한다.

1. 顯節祠 祠宇와 守僕舍, 祭禮器具 등의 維持管理

2. 定期祭享 및 每朔望日의 奉審과 焚香
3. 後世代를 위한 忠孝禮節 教育事業
4. 其他 愛國愛族 精神을 涵養하는데 必要한 事業

第二章 組織

第5條 (組織) 顯節祠에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

1. 都有司 1名
2. 有司 15名 이내(都有司 및 總務 포함)
3. 監查 2名

第6條 (任員 選出) 任員 選出은 다음과 같다.

1. 都有司와 監事는 定期有司總會(以下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2. 但 都有司는 廣州市에 居住하는 儒林으로 한다
3. 新任有司는 學識과 德望있는 儒林中에서 有司 2人 以上の 推薦을 받아 都有司가 定期總會나 臨時總會에 附議하여 選任하고, 都有司가 委囑狀을 授與한다.
4. 監事로 選任된 有司는 有司職을 免한다.
5. 總務는 都有司가 有司中에서 選任하여 有司會 承認을 받는다.

第7條 (任期) 有司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但 補闕 就任한 有司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2. 都有司와 監事·總務·有司 등 任員은 任期滿了 1個月前

에 後任者를 選出한다. 期間內 後任者가 選任되지 않았을 때에는 選任될 때까지 前任者가 그 職務를 代行하되, 60日を 초과하면 안 된다.

3. 任期中 都有司에게 有故가 發生하였을 경우에는 有司 中年長者가 後任 都有司가 選出될 때까지 代行하되, 60日以内に 後任 都有司를 選出해야 한다.

第8條 (有司의 選任) 顯節祠 有司는 儒林 人士 중에서 選任하되, 儒學의 精神과 哲學을 尊重하고, 儒家의 傳統祭享을 誠實하게 躬行하는 者여야 한다.

第9條 (任員의 辭退) 有司가 辭退하고자 할 때에는 都有司에게 辭退書를 提出하여야 하며, 都有司는 辭退書가 제출된 날로부터 15日以内に 모든 有司에게 알려 有司 2人以上의 推薦을 받은 後, 60日以内に 臨時會議를 開催하여 後任 有司를 選任해야 한다.

第10條 (任務) 有司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都有司: 顯節祠를 代表하며, 祠宇와 守僕舍의 維持補修, 祭享奉行, 朔望奉審 등을 主管하고 有司의 業務를 指揮한다.
2. 總務: 都有司의 職務를 補佐하며, 都有司의 指示를 받아 顯節祠 業務 全般을 맡아 處理하고, 會議錄을 作成하여 이를 都有司에게 報告한다.
3. 監事: 定期總會를 비롯하여 臨時總會 등에 參席하여 有司들의 意見을 聽取하고, 財務 등 事務一切를 監査하여 監査報告書를 定期總會에 提出해야 한다.

4. 有司는 都有司를 補佐하며, 顯節祠 祭享을 비롯한 有司會議에 參席하고, 儒林으로서 品位를 維持하여 他的 模範이 되어야 한다.

第三章 재 정 (財政)

第11條 (財産)

1. 基本財産은 顯節祠 祠宇 本殿과 東廡 西廡, 守僕舍 등으로 한다.
2. 普通財産은 顯節祠 名義로 된 田畝位土와 金融資産으로 하고 都有司의 責任과 指示下에 總務가 管理하고 監査를 받는다.
3. 祭享 및 事業費用은 行政機關의 補助金과 儒林 및 市民의 獻誠金, 普通財産의 收益金, 預金利子 등으로 充當한다.

第12條 (財産의 處分)

1. 基本財産인 祠宇와 守僕舍는 이를 賣却하거나 賃貸, 交換, 抵當할 수 없다.
2. 普通財産 중 田畝位土를 處分하거나 買入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 有司 四分의 三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3.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은 年1回 그 目錄을 作成하여 定期總會에 報告 한다.

第13條 (會計年度)

1. 本 社團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로한다.

2. 總務는 1年間の 會計에 대하여 都有司에게 報告하고, 다음해 定期總會 前까지 監査를 받은 후, 다음해 事業計劃書와 함께 總會에 附議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四章 회 의(會議)

第14條 (會議)

1. 都有司는 모든 會議의 議長이 된다. 단 都有司를 選出하는 定期總會 議長은 有司 중에서 年長者가 맡는다.
2. 定期總會：每年 2月 末 以前에 開催한다.
3. 成員：모든 會議는 在籍 有司 過半數 以上 出席으로 成員이 되고, 參席有司의 過半數 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監事에게는 議決權이 없다.
4. 臨時總會：都有司가 必要하다고 生覺될 경우에 召集하며, 有司 3分の 1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도 2週 以内に 都有司가 召集한다.

第15條 (定款의 變更)

1. 定款의 變更 事項은 定期總會에서 在籍 有司 四分之 三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6條 總會 附議事項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에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豫算과 決算에 關한 事項
2.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3. 財産取得 및 處分에 關한事項
4. 定款 變更에 關한 事項
5. 其他 都有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五章 부칙 (附則)

1. 本 定款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規定및 通常 慣例에 準한다.
2. 本 定款은 紀元 4349年(丙申年-西紀 2016年) 2月 日 改定과 同時에 效力을 갖는다.
3. 旣存 定款은 새 定款의 效力發生과 同時에 廢棄한다

顯節祠所有 位土 및 財産目錄

不動產 所在地	地目	地積 m ²	地積坪
廣州市 南漢山城面 山城里 310-1	사적지	1,289	390
廣州市 南漢山城面 山城里 310-2	전	251	76
廣州市 南漢山城面 山城里 310-4	전	367	111
廣州市 南漢山城面 山城里 279	대	195	59
廣州市 昆池岩邑 悅美里 454-1	답	1,134	343
廣州市 昆池岩邑 悅美里 454-2	임	955	288
廣州市 昆池岩邑 悅美里 454-3	전	3,028	916
廣州市 昆池岩邑 蓮谷里 366	답	3,088	934
廣州市 昆池岩邑 蓮谷里 341-2	답	2,744	830

有 司 名 單

韓洛敎	광주시 남종면 귀여8길 7-3	010.2678.9168
李端雨	초월읍 도곡길21번길 11	010.5326.7453
朴光雲	광주시 장지동 350-1	010.6223.8618
俞炳權	하남시 하산곡동 127	010.8991.8059
安在弘	하남시 하사창동 191	011.791.7835
金興植	초월읍 쌍동리 260-26	010.4351.5208
許賢茂	초월읍 학동리 21	010.5210.6459
朴光敏	광주시 장지동 77-11	010.5667.8339
全鍾德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59 115동 2302호	010.7448.7046
林花子	쌍령동 성1차A 101동 1304	019.201.3527
朴香淑	오포읍 양벌로 173 쌍용A 102-503	010.2876.5254
俞炳佑	하남시 하산곡동 154-1	010.4709.7568
張東敎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68-6	010.8943.4785



한낙교



이단우



박광운



김홍식



박광민



박향숙



유병권



유병우



안재홍



임화자



장동교



전종덕



허현무

重刊 顯節祠誌

發行日 2016년 3월 31일

發行人 韓洛教

發行處 顯節祠社團

廣州市 南漢山城面 山城里 279

事 務 室 031)765-2838

都 有 司 010-2678-9168

總務有司 010-5326-7453

印 刷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수표로 23(저동2가 인농빌딩 104호)

전화 : 02)2274-8110 팩스 : 02)2271-0951

『顯節祠誌』는 丙子胡亂 당시의 斥和 五學士에 대한 崇慕事業과 祭享을 올리는 非營利 顯節祠 社團에서 발행한 비매품입니다. 사용한 사진 자료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문을 보내 저작권에 대한 무료사용 허락을 받았습시다만 저작권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任意使用한 자료도 있습니다. 혹 저작권자가 이 책에 사용된 본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정부기관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오니 惠諒해 주시기 바랍니다.